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13장 백두산으로

14장 장백사람들

15장 지하전선의 확대

제13장



백두산으로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다
정든 성시에서
≪피바다≫ 초연무대
여성중대
백두산밀영
애국지주 김정부

■ 시기 : 1936. 5 ~ 1936. 8

1.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다

1936년 봄은 우리에게 특별히 유난스러운 봄이였다. 그 봄에 우리는 실로 많은 일을 계획하였다. 새 사단의 조직, 조국광복회의 창립,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준비 거기에 마안산을 비롯한 무송땅 곳곳에서 돌발한 갖가지 중대사들이 예상치 않았던 숱한 일거리들을 만들어놓았다.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수습하자면 안정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그런 안정을 주지 않았다. 무송지방에 군림하고 있는 두 세력이 제가끔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활동에 훼방을 놓으면서 장애를 주고 있었다. 그 두 세력중의 하나는 왕가대장의 위만경찰 ≪토벌대≫였고 다른 하나는 만순의 산림부대(반일부대)였다.

왕가대장이란 문자 그대로 왕가성을 가진 대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왕가대장≫ 혹은 ≪왕대장≫이라는 칭호에는 ≪토벌≫계의 왕이라는 의미가 덧붙어 있었다.

그는 장작림군벌군대에 복무할 당시부터 ≪비적토벌≫을 전문해온 ≪토벌≫의 능수였다. 9.18 사변이후 당취오가 자위군을 조직하였을 때 왕가도 그에 가담하여 반일의 기치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만원정을 나갈 때 그와 접촉하면서 괜찮은 관계를 가지었다. 그러나 당취오가 중국관내로 들어가고 자위군이 와해되자 인차 일본군에 투항하여 괴뢰만주국의 깃발을 든 위만경찰대장으로 변신하였다. 그때부터 일제의 충실한 주구가 되어 이전에 연마해둔 ≪토벌≫솜씨를 남김없이 드러내었다.

왕가대장은 ≪토벌≫에 나서기만 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적이 없었다. ≪토벌≫대상을 영낙없이 물어메치고 머리나 귀를 베어다 상전에게 바치고는 하였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은 후한 치하와 상금을 주고는 하였다. 왕가대장은 특히 만순부대라면 기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다.

무송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반일부대들은 왕가라면 그림자만 얼씬해도 벌벌 떨었다. 반일부대에서는 왕가대장을 ≪무송의 이도선≫이라고도 불렀다.

이웃현인 안도의 악명높은 이도선은 집요성과 악랄성과 잔인성으로 하여 온 간도땅에 소문난 무서운 살인귀였다. 왕가대장도 이도선에 짝지지 않는 주구였다.

바로 그러한 왕가대장이 그 해 봄에 우리의 주되는 적으로, 장애물로 되었다.

또한 그와 별로 못지 않게 구국군 만순이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여 나섰다. 사실 무송쪽으로 나올 때 우리는 만순부대를 주요한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의 반일부대들은 우리를 벗으로 여길 대신 오히려 원쑤처럼 대하고 있었다. 김산호가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 입힐 천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산림대원들에게 강탈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원들이 그 토비화된 산림대원들을 징벌하지 말았어야 하였는데 그만 격분한 나머지 지나친 보복을 가하였다. 그래서 일은 좀 맹랑하게 되었다. 우리앞에는 예상치 않았던 골치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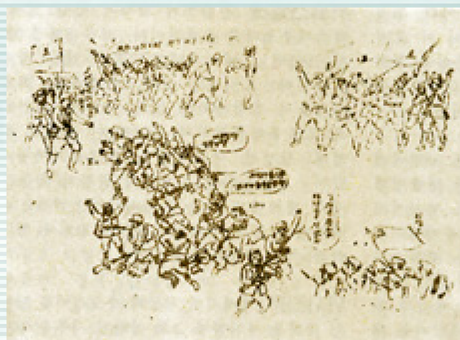
≪≪고려홍군≫은 아주 순진해서 그 누구든지 빈민들의 재물에 조금만 손을 대

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산림부대들의 곤궁같은 건 이해해주려고도 안한다. 그것들은 우리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딴 족속들이다.≫

산림대원들속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져갔다. 그들은 우리 부대의 개별적인 성원들을 보기만 해도 트집을 걸거나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공동전선을 해야 할 대상이 그런 상태이니 우리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큰 골치거리였다.

우리는 간도에서 유격대를 창건하던 조시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우리의 역량이 미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사적 권위가 공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진영에 속하는 왕가대장도, 우리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만순대장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안정된 시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등사그림 - 위만군병사들에게 격함

방도를 연구하던 끝에 우리는 왕가대장과는 서로 상대방을 치지 않고 적당히 지내며 만순대장과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 당신과 나는 구면이다. 당신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도 당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만치 나는 흉금을 터놓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군대이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한 위만군경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당신이 통솔하는 경찰대와 그 관하의 각 경찰분서들을 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화평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의 서두를 뗀 다음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이 파견한 공작원들이 성시나 부락들에 마음대로 드나들거나 머무를 수 있게 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는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수감중인 애국자들을 당장 석방하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된 요구조건들을 제기하고 왕가대장이 이 요구조건들을 수락하는 조건에서 무송현 경내에서의 ≪치안유지≫에 되도록 혼란을 조성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였다.

며칠 후 왕가대장으로부터 우리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우리가 내놓은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전부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이 왔다.

그리하여 우리와 왕가대장 사이에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비밀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쌍방이 서로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와 왕가대장 사이에는 얼마동안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왕가대장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였고 자기 관할하의 성시나 집단부락들에 우리 공작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대하여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조선인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도 늦추었다.

우리도 왕가대장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을 습격하거나 그들의 주둔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나는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운 다음 대원들을 무기공작에 내보낼 때 무송현성밖에 있는 다른 지방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무기도 얻어야지 현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단단히 일러주고는 하였다.

왕가는 결코 미욱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나칠만큼 영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간도와 북만에서 어떻게 활약해왔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

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와는 애당초 싸울 잡도리부터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무송땅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자 자기 부하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고려홍군≫과는 맞서지 말라.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한다. 병력이 적다고 함부로 덮치려들지 말라.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애초에 걸지부터 말아야 한다.≫

왕가대장은 시누런 군복을 입은 우리 군대를 보면 못본 척하고 멀찍이 피해가고는 하였다. 그 대신 시꺼먼 복장을 한 산림부대만 보면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 1,000명도 더 되는 만순부대에 비하면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였지만 왕가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만순이네 산림부대들 뿐이었다.

사실상 왕가대장과 화평하는 조항에다 만순이네 부대에 피해와 손실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요구를 밝힌 것은 반일역량을 보존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반일부대들의 활동은 하강선을 긋고 있었다.

구국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왕덕림, 당취오, 이두, 소병문 등의 부대들은 이미 산해관이나 또는 쏘련을 거쳐 관내로 퇴각해버리였고 왕전양 부대, 전신 부대와 같은 견결한 반일무장부대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사보국할 각오를 가지고 혈전을 거듭하다가 적들에게 괴멸당하였다.

정초부대, 왕욱진부대와 같은 일부 부대들은 흰기를 들고 귀순하였다.

무송과 임강현경에 있는 만순휘하의 군소부대들과 자매부대들에서도 귀순자가 늘어났다. 1935년 가을에 초수탄에서는 마흥산 부대의 투항병 90여명을 환영하는 귀순식놀음까지 벌어졌다.

구국군의 나머지 역량은 작은 집단으로 분산되어 깊은 산중에 들어박혀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으며 더러는 토비로 되었다.

이런 실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속에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경시하고 지어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반일연합전선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왕가대장과 화평약속을 하는 한편 만순부대와 공동전선을 펼 교섭도 시작하였다.

우리 부대에는 산림부대 출신의 나이 지숙한 대원이 있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만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 당신의 이름은 우리 혁명군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는 무송에 도착하는 즉시로 당신을 만나 통성도 하고 반만항일공동투쟁대책도 의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사도 나누기 전에 불미스러운 충돌사건이 빚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치위원이 혁명군의 후방물자를 강탈하다가 총상당한 산림대원들을 심문한데 의하면 그들은 이미 두석 달 전에 당신이 통솔하는 부대에서 도망쳐 토비로 전락된 탈주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사들이 마치 당신휘하의 산림부대 현역대원들을 해친 듯이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친목을 달가와하지 않는 적들의 간계이다.

나는 양군이 오해를 풀고 불신을 해소하며 반감과 적의를 버리고 전우로, 형제로 되어 항일공동전선에 나서게 되기를 열망해마지 않는다.

만순은 회답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제의를 무시해버렸다.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

는 대답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당신네가 없어도 살아간다는 것이였다. 무송일대에는 만순대장이 그런 배심으로 나올만한 정황이 실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왕가대장이 우리와 약속한대로 만순부대를 비롯한 모든 반일부대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었기 때문이였다. 왕가는 형식상으로만 ≪토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지 실제적으로는 ≪토벌≫을 하지 않았다. 만순의 모든 군소산림부대는 후원이 없이도 숨쉬고 살아갈 만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산림부대의 산발적인 방해책동을 더 부추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받자 그 산발적인 가해행위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공동전선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안정을 얻었다. 왕가부대도 만순부대도 더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모처럼 얻게 된 그 안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만강에 갔을 때에도 대영에 갔을 때에도 그곳 위만군경들과 평화교섭을 하고 불가침을 약속 받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강에 간 것이 1936년 4월말 경이였다.

거기에는 30명 정도의 경찰대 무력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쯤되는 적을 제끼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대표를 보내어 경찰대와 담판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을 다치지 않을테니 당신들은 우리가 이 부락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게 하겠는가? 그저 못 본 척하고 배겨있다가 훗날 상급에서 추궁하면 유격대 병력이 너무 많아서 대항하지 못하고 가만있었다는 식으로 뒷처리를 할 수 있는가?

경찰대는 우리의 이런 제안에 제꺽 응해나섰다. 유격대가 자기들을 다치지 않고 담판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절을 할 지경이었다.

이동학은 보위단근처의 집 옆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복입은 우리 기관총수들이 밤낮으로 경계근무를 서게 하였다.

그 기회에 나는 만강에서 조국광복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강회의에 제출할 문건들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적들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으니 일자리도 푹푹 났다.

우리는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적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철칙으로 삼아온 우리의 대적방침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지켜온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준칙이였다.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총을 잡은 사람들이였다. 조국을 살리고 겨레를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적이였고 사명이였다. 우리의 총검은 오로지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살하며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원쑤들을 징벌하는데만 바쳐졌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정의로운 검은 살려둘 가치를 가진 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자애로운 보검이 되어준 반면에 살려둘 가치가 없는 악질적인 반항자들에게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의 검으로 되었다.

봄내 잠잠해있던 왕가대장은 무슨 충동을 받았는지 그 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부터 반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다시 시작하였다. 무송현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대가 그에게 압력을 가한 것 같다. 반일부대병사들의 잘라진 머리가 무송거리의 전선대들에 다시 걸리게 되자 만순 휘하의 여러 산림부대들에서는 탈주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였다. 항일구국의 이념에 투철하지 못한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산림부대의 본성이 되살아나 반일역량의 결속에 힘쓰고 있던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었다. 왕가의 ≪토벌≫을 멈춰세우지 않으면 만순부대는 와해

의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두 번째로 되는 편지를 보냈다.

… 우리는 당신이 수하의 경찰대를 동원하여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재개하였다는 불쾌한 통보를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와의 협약을 저버린 것으로 된다.

나는 당신이 약속을 배반한 결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

완고하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적에게는 우리의 관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경고편지가 전달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왕가대장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만순부대에 대한 ≪토벌≫도 중단되지 않았다. 으름장을 놓으면 겁낼 줄 아느냐,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싸울테면 싸우자, 왕가대장은 아마 이런 배심이었던 것 같다.

무송현내의 여러 요충지들에는 수백 명의 관동군 ≪토벌≫ 병력이 증파되어 왔다. 왕가는 전에 없이 오만방자해졌다.

7월초에 나는 왕가에게 마감으로 다시한번 더 경고를 주었다.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낸 지 나흘만인가 닷새만인가 회답대신 왕가부대가 다시금 대첩창 근처에 있는 만순부대의 어느 한 숙영지를 기습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송현과 임강현 사이의 어느 수림지대에 머물러있을 때였다.

왕가의 행위는 나와 나의 전우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상전의 조종을 받는 괴뢰만주국의 경찰대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중국사람이며 자기 나름의 이성이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위만군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진행해온 적군와해사업의 기초에는 그 이성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깔려 있었다. 우리가 왕가를 설복하여 불가침협약을 맺은 것도 구경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가 믿음을 준 적군의 중하층장교들은 대부분 우리와의 약속에 충실하였다. 액목땅에서 우연히 나와 인연을 맺은 위만군연대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철군≫잡지를 계통적으로 보내오던 대포시하의 위만군대대장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구면인 왕가는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던지었다. 신념을 못가진 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란 배신밖에 없다. 왕가에게는 일제가 망하고 조중 양국 인민이 승리하게 된다는 신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왕가대장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가 우리의 인내성있는 기대와 성의에 총질로 대답을 하는데 대해서는 분격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김산호를 불러 날쌘 싸움꾼을 한 30명 정도 골라가지고 10연대에 가서 그 연대대원들과 함께 왕가대장을 징벌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동시에 우리도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시난차 부근의 취자산으로 은밀히 이동하였다.

시난차는 크지 않은 집단부락이었지만 적 ≪토벌대≫ 들의 중요한 출전기지였다. 이 마을에는 경찰분서와 자위단무력도 있었다.

우리가 시난차전투를 계획하게 된 주되는 목적은 우리와의 협약을 어긴 왕가대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데 있었다. 우리는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새 사단을 무장시키는데 요구되는 총기류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새로 편성된 사단은 이미 두도송화강전투에 이어 노령에서 큰 전투를 하였다. 그 전투만 잘 치르면 많은 무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치밀한 작전방안을 세우고



접어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돌발하는 바람에 싸움을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적의 척후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우리의 매복권내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와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가 매복중에 있는 우리 대원을 발견하고 그만 황겁한 나머지 공포를 한방 쏘았다. 우리 대원도 얼결에 총을 발사하였다. 적을 수십명 살상하고 무기도 몇 자루 노획하였지만 전투는 계획대로 깨끗하게 결속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노령에서 적군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봉창을 시난차에서 단단히 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대에는 시난차에서 위만경찰로 복무하다가 분서장의 악행에 불만을 품고 탈주해온 중국인 대원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시난차경찰분서장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악한이라고 하였다. 그는 집단부락 안의 인민들에게는 물론, 경찰들앞에서도 폭군으로 행세하였다. 중국인 대원은 자기가 유격대에 찾아온 첫째 목적이 중국해방에 앞서 양경장을 처단하려는데 있다고 분노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가 시난차를 노령 다음의 싸움터로 선택한 것은 그 탈주병이 그곳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데도 있었다.

우리는 대낮에 시난차를 치기로 하였다. 낮 12시부터 1시 사이는 경찰들의 점심시간인 동시에 무기청소시간이었다. 경찰들이 총소제를 하느라고 무기를 분해해놓은 다음에 부락으로 쳐들어가면 큰 저항을 받지 않고서도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초물모자를 쓰고 농쟁기를 들고 농민복 차림으로 변장한 유격대원들은 토성에 접근하여 재빨리 성문을 통과한 다음 경찰분서병실에 벼락같이 뛰어들었다. 경찰들은 분서장 이하 모두 크게 저항도 못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자위단도 다 잡혔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는 경찰분서건물앞에 야외무대를 가설하고 연예공연을 하였다. 그다음 경찰분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서강방향으로 철수하였다.

경찰들에게 해설사업을 한 다음 노자를 쥐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을 때 한 포로가 우리 대원에게 슬며시 물었다.

≪여보시우. 빨치산, 성문은 어떻게 뚫고 들어왔수?≫

≪날아서 들어왔소.≫

우리 대원은 농으로 대답하였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거든. 도대체 경비병이라는 것들은 뭘 했을까?≫

결국 우리가 의도한대로 시난차경찰분서의 습격은 왕가대장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왕가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토벌≫에 더욱 극성을 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왕가를 유인하기 위하여 무송현성 근처에 나타난 김산호는 30명쯤 되는 유인조 성원들에게 산림부대옷을 입히었다. 그 자신도 물론 산림부대 소대장으로 변복하였다. 왕가의 구미를 제일 동하게 하는 미끼가 검은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밤중에 현성 부근의 한 부락으로 내려간 김산호네 소부대는 그 부락 농민들의 재물을 마구 끌어내며 산림부대 흉내를 내다가 황니하자마을로 옮겨가 꼭같은 수법으로 또 소란을 피우고는 그 마을뒷산 골짜기로 슬그머니 철수하였다.

현성 주변의 촌락에 산림부대가 나타났다가 황니하자 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정보를 받은 왕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대를 이끌고 살기등등해서 황니하자 부락으로 달려왔다.

≪걱정들 말고 나를 기다리라. 내 이제 그 토비놈들을 멸살시키고 돌아올테니 점심이나 잘 차리고 있으라. 점심 전에 내 그놈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겠다. 버르장머리없는 놈들!≫

마을사람들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한 왕가는 부대를 끌고 유인조의 자취를 따라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뒷산중턱에는 10연대 전투원들이 매복해 있었다. 새벽에 김산호의 유인대가 올라가 합세하였다.

여기서 우리 전투원들은 미리 허수아비로 유인가장물을 만들어 세워놓고 왕가의 눈을 홀리었다. 가장물들 사이에 숨어있던 전투원들이 먼저 총소리를 냈다.

왕가와 그의 경찰 ≪토벌대≫는 숲속의 검은 허수아비들에게 항복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맹렬히 돌격해 올라왔다. 손을 들려고도 하지 않고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고 쓰러질 줄도 모르는 그 ≪산림대 병사≫들의 짓궂은 응전은 왕가의 부아를 잔뜩 돋구어주었다. 왕가는 양손에 권총을 하나씩 잡고 연방 사격을 하면서 발악하였으나 우리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절명하였다.

운명의 마지막 시간에 왕가가 어떤 교훈을 찾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정의로운 것에 대한 배신이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가를 그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왕가대장이 녹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도처의 반일부대지휘관들은 김산호를 찾아와서 왕가의 머리를 자기들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난날 수많은 반일부대 장병들의 머리를 베어 달아놓았던 왕가의 악행에 대한 앙갚음으로 그의 머리를 천하가 다 볼 수 있게 무송의 성문 높이 매달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산호에게 왕가의 시체를 머리칼 한 오리 다치지 말고 무송현 경찰대에 가닿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우리는 왕가대장의 장례식이 요란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장례식이 또한 우리 군대에 대한 소문을 더 크게 해주었다. 적들속에서는 우리 혁명군과 맞서서는 죽음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갔다.

왕가를 징벌한 시난차 전투와 황니하자 전투에 대하여서는 한설야의 장편소설 ≪역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되어있다.

왕가를 제거해버린 다음 우리는 일본군대까지 제압해놓음으로써 무송일판을 완전히 우리의 천지로 만들 작정을 하였다. 정찰병들을 파견하여 각방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마침 60여명의 일본군대가 무송에서 임강 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차 매복전을 조직하였다. 그 싸움 역시 아주 통쾌하였다. 파손된 배에 실려 도망친 놈은 여라문명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몽땅 수장당하였다.

이런 싸움이 몇 번 거듭되자 무송현일대는 우리의 천지로 되었다.

그 해 여름을 우리는 대영에서 얼마동안 보냈다. 온천 옆에 천막들을 쳐놓고 지내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내오는 사업, 무송과 임강의 산림지대에 인쇄소, 재봉소, 무기수리소, 후방병원을 포함한 밀영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적의 주둔지였다. 우리는 대영에 가자마자 적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였다.

… 우리는 한동안 온천에서 지낼 작정이니 너희들은 그런줄 알고 우리앞에 나타나지도 말며 어디로 달아나지도 말라. 거기에 가만히 배겨있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물품들을 보내주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들이 담보한다.

적들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디로 달아나지도 못하였다. 그 대신 우리가 일러준대로 물품조달자의 역할을 고분고분 수행하였다. 우리가 지하족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하족을 가져오고 밀가루를 실어오라면 밀가루를 실어왔다.

만순이 나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왕가대장을 격멸한 데 대한 축하와 문안인사를 보내온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얼마 후에는 만순영감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서 대영온천지로 왔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편지도 보내고 사절도 파견하여 공동전선을 하자고 호소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던 도고한 늙은이가 제발로 찾아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공동전선을 위해서 우리가 우사령도 찾아가고 오의성도 찾아갔지만 왕가대장을 제껴버린 다음에는 유명짜한 만순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왔다.

만순은 첫눈에도 쉰 살이 훨씬 넘어보이는 사람이었다. 아편에 중독되어서인지 눈빛이 맑지 못하였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부터 앞세웠다.

≪우리 반일부대병사대중은 모두가 한결같이 왕가놈을 없애준 **김**사령을 세상에 둘 도 없는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김**사령께 감사를 드리고 겸하여 사령과 형제의 의를 지니고 싶은 마음을 전하자고 찾아왔소이다. 청컨대 **김**사령은 내가 지난날 노망하여 섭섭하게 굴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먼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이 마음을 너그러이 헤아려 나와 쟈잘리를 무어주었으면 합니다.≫

만순의 요청은 한동안 나를 망설이게 하였다. 나는 지난 시기 우사령이나 오의성과 공동전선을 실현할 때 제기하였던 몇 가지 조건들을 들면서 그것들을 수락한다면 쟈잘리를 뭇는데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조건이란 반일부대가 우리와 친교를 맺고 우군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 일제에게 절대로 투항귀순해서는 안된다는 것,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공작원이나 연락원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 우리와 정상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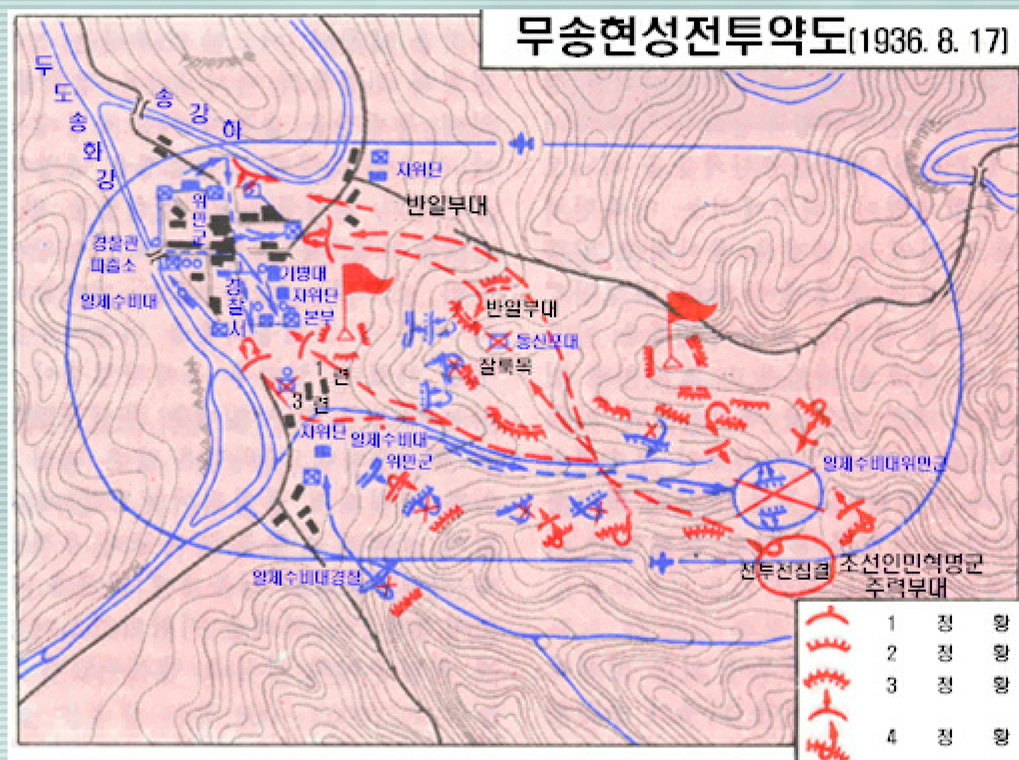
뜻밖에도 만순은 그 모든 조건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해 나섰다. 그는 내가 제기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가할적마다 머리를 끄덕이며 빈번히 ≪달≫자를 넣어 ≪달견≫이요, ≪달통≫이요 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결국 우리는 단 몇 시간 사이의 상면으로 공동전선을 맺고 우리 양군은 서로 우군이 되었다.

만순은 그 후 우리와의 언약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남호두회의 이후의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로에서 하나의 의의있는 사변으로 되었다. 이 사변의 의의는 비단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무송지구에서 우리가 바친 불면불휴의 노력은 백두산지구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서 튼튼한 초석으로 되었다. 이 노력으로 하여 우리는 조중 양국 인민과 애국역량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었다.

2. 정든 성시에서



만순은 쟈잘리나 결의형제 같은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뭇자고 주동적으로 제기해온 것은 인민혁명군과 선린우호관계를 가지고 그 배경밑에서 적들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오의성도 한때 우리에게 쟈잘리를 뭇자고 요청해왔다. 쟈잘리라는 공간을 통하여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실현하고 공산주의자들을 그 연합에 비끄러매두려는 것은 반일부대 일반이 취하고 있던 공통적인 경향이였다.

그렇지만 쟈잘리나 결의형제 같은 것이나 뭇는다고 하여 반일공동전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고한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였다.

공고한 동료관계는 실천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거듭되는 시련을 통해서만 그 진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반일부대를 인민혁명군의 충실한 동맹자로 만들며 그들과의 연합을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었다.

1936년 8월의 무송현성 전투는 우리와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확고한 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전투였다.

≪우리 공동전선을 무은 김에 큰 성시를 하나 제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넌지시 이런 제기를 하자 만순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쾌히 응해나섰다.

≪제낍시다. **김**사령네 부대하구라면야 무슨 대적인들 못제끼겠소. 나는 지금 천하를 쥐락펴락할 것 같은 기분이웨다. 큰 성시를 하나 들이칩시다.≫

일본군이라면 맞서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줄행랑을 놓던 산림부대 두령의 대답치고는 놀랄 정도로 자신만만하였다. 약담배 기운의 덕으로 생겨난 허세가 아닌지도 몰랐다.

만순은 우리앞에서도 약담배를 서슴없이 들이빨고는 하였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각별히 신임한다는 표시였다. 원래 중국의 아편중독자들은 파악이 없는 생소한 사람들앞에서는 절대로 약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만순이 우리는 허물없는 친지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좋은 일이었다. 원래 그는 반일부대 대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약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초기에는 싸움도 본때있게 하였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공을 세워 인차 대부대의 지휘관으로 되었다.

한번은 그의 부대가 일본군의 포위속에 들어 전멸될뻔한 일이 있었다. 포위를 돌파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만순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었다. 이 한차례의 위기는 그를 단번에 비관론자로 만들어버리었다. 돌격할 때마다 악악 소리를 지르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일본군은 군률이 째이지 못하고 무장이 약한 반일부대의 사병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힘에 부치는 대상이었다. 게다가 왕가대장까지 따라다니며 도처에서 그의 부대를 녹여냈다.

만순은 깊은 산중에 토성을 쌓고 들어앉아 싸움을 전폐하고 주민들의 재물을 털어서 부대의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해 나갔다.

인민들의 재물로 살아가자니 노비근성 밖에 늘어날 것이 없었다. 산속의 늙은 ≪비장≫은 한숨과 울화속에서 약담배로 세월을 보냈다.

만순의 부하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부대생활에 넌덜머리가 나서 총을 집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병들은 노비로 전락되었으며 어떤 사병들은 흰기를 들고 위만군의 병영으로 찾아갔다. 지휘관들은 도박질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걸핏하면 매질을 하든가 쌍욕질을 해대는 지휘관들의 전횡 때문에 상하관계는 사실 말이 아니었다.

만순부대는 괴멸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망조가 든 만순부대를 구원하는 길은 연합을 실현하는 길이며 연합에 의한 실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데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제휴에 성공한 후 그들에게 인차 큰 성시를 하나 치지 않겠는가고 제기한 것이었는데 만순이 제꺽 응해나서는 바람에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었다.

≪**김**사령이 왕가대장을 쳐갈기는 것을 보고 내 수하의 장졸들은 모두 탄복하였소이다. **김**사령부대와 함께 성시를 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니 어서 작전을 짜주시오.≫

만순의 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노령과 시난차, 서강, 대영 등지에서 거둔 성과를 몹시 부러워하였으며 그 전투들에 적용된 전법과 전술을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순은 저 멀리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중국명장들은 지략으로 이기고 일본사람들은 용맹으로 싸움을 하는데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기에 연전연승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만순은 **김**사령의 부하들은 모두가 용감무쌍한 강병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린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용렬한 자들뿐이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긴 탄식을 하였다.

≪대장어른, 너무 상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일공동투쟁을 잘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용맹한 사병들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성시를 치면 좋겠는지 그거나 골라 보시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만순은 손을 홰홰 내저으며 그것도 **김**사령이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날 공격대상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아퀴를 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만순은 내심으로 무송현성을 쳤으면 하고 의향을 품고 있은 것 같았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다행스러웠다. 무송은 길림과 더불어 나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정들고 때묻은 고장이었다.

무송은 만주대륙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현소재지였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고장에는 2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무송시가에 널려 있는 수백 호의 집들은 대체로 초가마가리들이 아니면 오두막들뿐이였다. 간혹 벽돌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네모번듯한 목조가옥도 있었으나 그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가난이 줄줄 흐르는 그 초가마가리들과 오두막들을 내 몸의 한부분처럼 사랑하였고 우리가 무시로 드나들던 소남문이나 송화강을 내 고향의 정경처럼 어데 가서나 애틋한 추억속에 그려보고는 하였다.

나는 이 성시에서 일생의 나침반으로 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안았다. 그 유언을 안고 아버지의 영구를 따라 양지촌 묘소로 향하던 때로부터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묘소주변의 풍경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백두산으로 진출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는데서는 무송의 적을 제압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의의가 컸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무송을 쳐야 하겠다는 결단을 선뜻 내리게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만순과 헤어진 다음부터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지도하는 한편 도처에서 적합한 공격대상을 골라잡기 위한 성시정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협동작전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의성부대의 제1지대장 이홍빈이 대오를 이끌고 예고도 없이 불쑥 나를 찾아왔다. 지글지글 끓는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먼 노정을 강행돌파한 이홍빈의 얼굴은 땀에 떠 있었고 군복은 먼지와 소금버캐로 얼룩져 있었다.

이홍빈의 제1지대는 오의성부대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기간부대의 하나였다. 이홍빈 자신은 오의성의 바른팔이라고 불리울만큼 상관에게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총애도 받는 능력있는 지휘관이였다. 우리와는 결죽한 농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구면이었다.

북만의 청구자에서 잠깐 만나보고 헤어진 오의성의 부대가 어떻게 되어 남하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를 추격하여 무송에까지 나타났을까?


무송집앞거리

≪나를 **김**사령한테로 보낸 것은 오사령이올시다. 영감의 말이 **김**사령부대가 백두산 쪽을 향해 남하행군을 하고 있을 터인데 어디서건 찾아내어 협동작전을 하라질 않겠습니까.≫

지대장은 먼 행군의 피곤도 무릅쓰고 한참동안 신바람이 나서 오사령의 안부를 전하였다.

≪영감이 나보고 **김**사령부대를 찾아가라고 할 때는 정말 막연했습니다. 내가 ≪이 망망대해 같은 만주땅에서 신출귀몰하는 **김일성**부대를 어데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하고 말하니까 영감은 ≪머저리같은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모로가도 좋고 기어가도 좋으니 총소리가 제일 높은데로만 찾아가라구. 그러면 거기에 **김**사령이 있어.≫하더란 말입니다. 영감님 말이 참말 명언이였습니다. 이 만주천지에서 총소리가 그 중 높은 고장이 바로 무송일대더란 말입니다.≫


무송제1학교

≪하긴 우리 부대가 여기서 매일같이 총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순부대와 함께 큰 성시를 하나 칠 계획입니다. 반대가 없다면 이형이 거느리고 온 지대도 이 작전에 참가시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행운을 내가 마다할 리 있습니까. 오사령도 협동작전을 하라고 내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어 보냈는걸요. 영감도 뒷처리를 하고 인차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만순부대와의 연합이 성공한 때에 이홍빈의 지대까지 합세하고보니 우리로서는 경사에 경사가 겹친 셈이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홍빈이 정녕 인민혁명군을 돕자고 불원천리 우리를 찾아왔단 말인가. 청구자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오의성은 자기를 반일군전방사령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주보중의 처사를 몹시 원망하면서 의기소침한 기분에 싸여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우리와의 합작에 대해서는 별로 화제에 올리지 않았었다.

주보중에 대한 울화만 토로하던 오의성이 **김일성**공산당하고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해야겠다면서 이홍빈을 우리한테 파견한 것은 우리에 대한 지지와 변함없는 믿음의 표시였다. 왕덕림이 쏘련을 거쳐 관내로 들어간 후 비록 일시적으로 동요하기는 하였지만 오사령이 통일전선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의 합작을 시종일관하게 추구해온 것은 참으로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었다.

때마침 만순도 와있어 이홍빈은 그날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협동작전 토의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공격대상문제를 다시 협의하였다.

나는 후보지로 몽강을 비쳐보았다. 몽강은 1932년 여름 통화의 양세봉부대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한달 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대오를 늘이고 지하조직을 복구하던 고장이었다. 발판도 있고 파악도 충분한 고장이어서 싸움만 벌이면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만순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면서 달가와하지 않았다. 설사 이기고 돌아온다 해도 귀환도상에서 포위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송현성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김**사령, 무송을 칩시다!≫

이홍빈도 주먹을 움켜쥐고 격노해서 부르짖었다. 그가 무송을 치자고 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이홍빈은 액목을 떠날 때 우리의 행처를 알아내려고 무진흥이라는 중대장을 먼저 척후로 파견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무수행도중 무송헌병대에 체포되였다.

적들은 무송에 온 목적과 접선대상이 누구인가를 대라고 그를 강박하였다. 무진흥은 그 문초에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헌병대의 악마들은 고문을 하다 못해 그의 입안에 끓는 물을 퍼넣었다. 입안과 목안의 가죽은 삽시간에 익어서 문드러지고 입술도 온통 물퉁이로 되었다. 그래도 그 강인한 중대장은 절개를 굽히지 않고 무언으로 항거하였다.

적들은 끝내 무진흥을 ≪통비분자≫의 죄명을 쓰고 억류되어있던 무송지구의 애국농민들과 함께 무송북쪽 변두리에 끌어내다가 총살하였다. 그런데 총알은 이 중대장을 면바로 맞히지 못하고 빗나갔다. 남의 시체위에 쓰러져 있는 그를 어느 귀인이 업어다가 총상까지 치료해서 부대에 돌려보냈다. 이 불사신같은 중대장의 입을 통하여 무송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경들의 살인흑막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홍빈은 무진흥이 헌병대에 갇혀 있을 때 보고들은 몇 가지의 살인진상을 추려서 말해주었다.

왕가대장이 죽은 다음부터 일제군경들은 ≪통비분자색출≫의 구실밑에 성문을 봉쇄하고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놀음을 하였다. 증명서 기일이 지났거나 증명서가 없이 성안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반항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었는데 그 살인방법이야말로 고금의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혹독한 것이었다.

놈들은 성문에서 단속된 사람들을 서문다리 부근에 있는 여관에 가두었다가 신새벽이면 서문밖 두도송화강변의 늪가에서 시참을 해서 죽이였다. 시참이란 군인기질을 키운다고 하면서 시퍼런 칼로 산 사람의 목을 쳐서 생피를 보게하는 귀축도 치를 떨 백정행위의 일종이다.

시참한 시체들은 두도송화강변의 늪속에 처넣었다. 훗날 무송사람들이 그 늪을 살인항이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적들은 시참의 비밀을 유포시키는 사람들도 제때에 색출해내어 꼭같은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그들의 시체도 역시 살인항에 수장되였다.

나의 가슴속에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지였다. 무송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총성으로 깨뜨리거나 초연으로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였던 생각이 한갖 부질없는 연민에 불과했다는 자책이 머리를 호되게 때리였다.

사실 무송은 임강, 장백과 함께 백두산 주변의 여러 성시들 가운데서 적들이 각별히 중시하고 있는 군사요충지의 하나였다. 일제는 무송을 ≪동변도 치안숙정≫의 중심거점의 하나로 삼고 여기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등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실전에서 단련되었다고 하는 다까하시의 정예부대도 무송현성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것만큼 무송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백두산지구를 우리 손에 장악하는데서 의의가 컸다.

무송현성에 도사리고 있는 간악한 적들을 쓸어눕히고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지옥같은 성곽 안에서 시참의 세례를 받고 있는 무고한 사형수들을 구원하자!

어디에서인가 이러한 피의 절규가 끊임없이 울려오는 것 같아 나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무송부터 치고 보자! 나와 눈물겨운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성시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일본도에 맞아 매일같이 죽어가는데 이런 비극을 지척에 두고 몽

강으로는 왜 간단 말인가. 무송을 치면 이 고장 사람들의 원한도 풀어줄 수 있고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도 튼튼한 초석위에 올려세울 수 있으며 백두산지구도 보다 손쉽게 장악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싸움이 아닌가.

나는 무송현성을 치는 것이 이 성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반가운 인사로 되고 이 고장 사람들에게 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열렬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표시로 된다고 고쳐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무송을 공격하여 백두산 서북부 일대를 장악하는데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것을 결심하였다.

공격대상지에 대한 합의를 본 다음 우리는 무송시가에 대한 세밀한 정찰을 재차 조직하였다.

나는 정찰자료를 종합해보고 우리가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무송현성의 방어시설은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였다. 만주의 모든 성시들이 다 그러하듯이 무송도 견고한 토성과 포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성문보초를 담당한 위만군 중대가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중대라는 것이었고 내가 무송시가를 잘 안다는 것뿐이었다. 그 중대안에는 우리 부대의 정치공작원들이 꾸려놓은 반일회조직이 있었다. 반일회를 책임지고 있는 왕부중대장은 우리가 성시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에 믿을만한 조직성원들로 보초를 세워두었다가 성문들을 일시에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작전회의를 열고 각 부대들에 전투임무를 분담하였다. 우리 부대가 맡은 전투과제는 동산포대를 점령하는 것과 대남문, 소남문 방향으로 공격하여 성안의 적을 소멸하는 것이었다. 반일부대들은 동문과 북문 방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성방어에만 매달리고 있는 적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전투전날 송수진과 만랑하(만량향)를 칠 것도 계획하였다.

그만하면 작전준비가 이상적인 수준에서 진척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우리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송현성전투는 첫걸음부터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주되는 이유는 반일부대들이 지정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데 있었다.

이홍빈 부대가 지나친 열성을 내어 집결지점인 첨창구에 들리지도 않고 동문으로 직행한 데다가 만순휘하의 부대까지 약속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애를 말리었다. 연락병을 보낸 다음 한시간나마 기다렸으나 만순의 부하들은 첨창구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공격날짜와 공격시간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다. 만순 이하 모든 반일부대의 두령들과 함께 길흉화복의 조짐들을 충분히 토론하여 정한 날짜였고 시간이었다.

반일부대의 지휘관들은 날짜를 정하는데서도 미신의 구속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홍빈 지대장은 공격 날짜와 시간이 어떤 숫자로 구성되는가 하는데 왼심을 썼다.


무송현시가

음양론에 의하며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므로 모든 중대사들은 1, 3, 5, 7과 같은 홀수로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좋은 운수를 타게 된다는 것이 이홍빈의 지론이였다.

그런데 음양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우리가 우연하게도 전투개시시간을 17일 새벽 1시로 정하게 되였는데 그것이 음력 7월 초하루날이여서 이홍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다.

부대의 일부 역량을 데리고 첨창구에 먼저 도착한 만순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가다가 모두 두 손을 합장하고 동쪽하늘을 향해 무슨 주문같은 것을 웅얼웅얼 외우게 하였다. 천지신명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만순부대가 배신행위를 했다면서 늙은 두령을 마구 몰아댔다. 만순의 얼굴에는 진땀이 고랑을 지어 흘러내리었다.

나는 그 늙은 두령이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측은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순간에는 이상스럽게도 만순의 책임을 따지고 싶은 생각보다 그를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났다. 사실 이번의 연합작전을 성사시키는데서 만순만큼 큰 열의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 또 만순처럼 창발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작전시간과 작전규율을 엄수할 데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것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그토록 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지지로, 고무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위해 1선에서 그토록 사심없는 노력을 해오다가 실천상에서는 작전의 전개에 지장을 주게 된 거기에 나로 하여금 만순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민망스러운 부조화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나자신도 그 누구를 동정하거나 가련하게 여길 처지가 못되었다. 시간이 한초한초 흘러갈수록 이 싸움의 총지휘역을 수행해야 하는 내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하여 조여들었다. 수백차례에 걸치는 전투를 했다고 하지만 이때처럼 초조하고 당황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작전회의에서 시간엄수문제를 두고 역점을 더 찍어 강조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그 회의에서 내가 각별하게 힘을 넣어 지적한 것은 성시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지 말며 군민관계에 오점을 남기지 말데 대한 것이었다. 나는 동녕현성 전투 때 반일부대의 사병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그런 유의 비행이 여기 무송땅에서 두 번 다시 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용인할 수도 없었다.

만순부대의 지각,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던 문제였다. 중시하지 않았던 문제여서 오히려 충격은 더 컸다고 본다.


소남문포대

전투의 운명을 비틀어놓을 수 있는 이 비상사고로 하여 우리앞에는 임기응변의 대응책을 취하든가 아니면 싸움자체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연합작전을 앞에 두고 달아오른 반일부대병사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만순부대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약담배 때문이었다. 그 부대의 지휘관들과 사병들속에 아편중독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많은 아편중독자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속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동작전의 승리를 위하여 할 수 없이 행군중에 있는 만순부대에 아편을 보냈다.

만일 우리가 아편을 보내는 비상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상에서 하루해를 다 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액목현성전투를 치른 후 왕윤성이 나에게 연합작전에서 반일부대들이 비교적 싸움을 잘한 것은 아편덕이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농으로 받아들이였었다. 만순의 부하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속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때의 그 말이 농이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대들이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어 집결장소에 도착하였다. 기본부대를 인솔한 연대장은 맨나중에야 헐떡거리며 만순대장앞에 나타나 때늦은 도착보고를 하였다.

만순은 싸창을 빼들고 그 연대장을 쏴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그 순간처럼 약담배의 해독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때의 그 절박한 체험은 훗날 우리로 하여금 유격대에서 아편중독자들에게 총살형을 적용한다는 극단적인 규정까지 작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던 고색창연한 청국의 기와장들에 망조가 어리고 서까래가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아편때문이라고 한다. 한때 청국은 자기 나라에 아편을 밀수하는 영국과 두 차례에 걸치는 아편전쟁까지 하였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이 청나라에까지 흘러들어와 수백 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아편중독자로 만들어버리었다. 그 대신 막대한 양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영국은 아편장사로 폭리를 얻었다.

임측서를 비롯한 청나라의 선각자들은 인민들과 함께 밀수를 반대하여 영국침략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항전은 치열했으나 통치계급의 배신적인 행위로 인하여 청나라는 영국사람들에게 자기 영토의 한 부분인 홍콩을 떼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은 아편이 중국을 먹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편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의 중국 국민에게 청왕조가 남겨놓은 최대의 수치이고 아픔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대량적으로 밀매되고 있었다. 돈푼이나 있는 부자들, 벼슬아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일의 생계를 기약하기조차 어려운 일반서민들 가운데도 아편을 빠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코물을 줄줄 흘리며 흐리멍텅한 눈으로 세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아편중독자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우방인민이 당하고 있는 피눈물의 장구한 수난사를 돌이켜보며 가슴아픈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모든 부대들이 목에서 쇠비린내가 나게 급보로 행군을 다그쳤으나 그것은 행차뒤나발이었다. 성문들앞에서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며 보초를 서던 위만군 중대의 반일회 성원들은 교대시간이 되자 기관총의 기관실에 모래를 쓸어넣고 초소에서 철수하였다. 성문을 은밀히 열고 성안에 돌입하여 적들을 일격에 섬멸하려던 우리의 작전계획은 시작부터 뒤틀어졌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 나는 전투를 단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런 정황에서는 오히려 전투를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에 젖은 무송시가를 눈앞에 두고 싸움을 단념하기에는 우리의 적개심이 너무도 강했고 백두산지구의 장악을 위해 그 싸움을 건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큰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1,800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서도 성시를 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보잘 것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라고 비난할 것이 아닌가. 반일공동전선의 대의는 비누거품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백두산에서 울리려는 우리의 총성이 무맥한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정황은 어렵게 되였지만 우리가 선봉에 서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승리에로 이끌자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에게 호소하였다.

무송현성전투의 서막은 이처럼 복잡한 곡절을 겪였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내가 공격명령을 내리기 바쁘게 동산포대를 단숨에 점령하고 소남문 방향을 향해 돌진하였다. 반일부대 병사들도 북문과 동문 쪽으로 진공하였다. 소남문 앞거리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성문으로 육박하는 아군을 향해 포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소남문 가까이에 지휘처를 정한 나는 그 기관총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였다.


기관총수 김명주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기관총 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성문을 까부시고 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원들은 육탄으로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그 시각에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부대가 적의 포성에 질겁하여 퇴각한다는 연락이 날아왔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에게 급히 중대를 데리고 북문 쪽에 가서 만순부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조금 후에는 동문을 담당했던 이홍빈의 부하들이 반격해오는 적을 막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한 탓으로 동문을 나선 적들이 모조리 소남문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광이 책임진 소부대가 만량하습격전투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까지 날아들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였다. 이유인즉 두도송화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였다.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의 부하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려난 원인은 포소리에 놀란 것 때문만이 아니였다. 만량하습격을 단념하고 돌아오는 아군의 한 부대를 적의 증원군이 밀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앞뒤로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것이였다.

만순부대의 공격서열이 수라장으로 되자 그 여파가 익측에까지 미쳐 이홍빈부대도 풍지박산이 되었다. 전광이 습격전투를 포기하고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후과는 이처럼 전반적인 전투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었다.

전국을 미처 수습하지도 못하였는데 벌써 날은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정황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불리해지고 있었다. 이때 이홍빈이 나에게로 달려왔다.

≪사령님, 판이 글러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어물거리다가는 전멸을 당합니다.≫

이홍빈이 바라는 것은 즉시에 총퇴각하자는 것이였다.

≪아하, 끝장이로구나!≫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밝아오는 새벽하늘을 쳐다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이홍빈의 어깨를 움켜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지대장, 너무 낙망하지 마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하오. 복속에 화가 숨어있고 화속에 복이 숨어있다고 하지 않소.≫

내가 이홍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였다. 나는 반일부대들이 퇴각을 시작한 이 기회에 유인전술을 써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었을 뿐이였다.

정황이 불리해지는 경우 적을 성문 밖으로 유도하여 골짜기에 몰아넣고 포위섬멸한다는 것은 유격활동의 전술적 원칙이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놓은 복선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유인전술은 야간에 적용해야만 큰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었다.

우리앞에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전장에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정면돌격의 방법으로 결사전을 벌이든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인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품은 다음에도 인명피해가 두려워 퇴각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기적이 생기였다. 현성과 그 주변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서리면서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는 천지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각 부대들에 흩어진 병사들을 이끌고 동산과 소마록구 능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적들은 퇴각하는 아군을 미친 듯이 따라왔다.

우리가 동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산 중심돌출부의 잘루목에서 한방의 총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전투 후의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떼여둔 7-8명의 여대원들이 그 잘루목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였다. 아군의 주퇴각방향이 동산이라는 것을 탐지한 적들은 잘루목을 앞질러 차지하고 우리 지휘부와 주력부대를 양쪽에서 타격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잘루목에서는 총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우리의 여대원들이 적의 대부대와 치열한 화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김확실

나는 전령병을 시켜 잘루목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다. 전령병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잘루목을 피로써 지켜내겠다는 김확실, **김정숙** 동무들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이날 우리 지휘부는 잘루목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여대원들에 의해 구원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보다 먼저 동산으로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여대원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7연대 4중대는 결사적으로 동산을 사수하였다.

잘루목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7연대 주력은 자욱한 안개를 이용하여 동산남쪽고지에 긴 매복진을 폈다. 반일부대들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능선을 차지하였다. 그때에야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대는 적들을 유인하면서 안개낀 골짜기로 깊숙이 철수하였다. 그들도 나중에는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산등성이에 올라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시참으로 악명을 떨친 다까하시부대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함정속으로 모조리 끌려들어왔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셈이였다.

우리는 산에서 내리쏘고 적들은 골짜기에서 올리쏘는 화력전이 얼마동안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다까하시의 사병들은 만순이 용맹의 전법이라고 말하던 그런 악독한 전술로 파장식 돌격을 들이댔으나 매번 주검만 남기고 물러서고는 하였다. 돌격이 은을 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총질을 멈추고 산기슭에 붙어 증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었다.

나는 반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유창한 나팔소리와 함께 매복진에서 뛰쳐 일어난 아군용사들은 적들을 닥치는대로 쓸어 눕히었다. 백병전의 선두에는 ≪연길감옥≫이란 별명을 가진 7연대의 분대장 김명주가 서있었다.

김명주는 5.30 폭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연길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였다. 그는 옥내의 지하조직성원들과 함께 5년동안에 여섯 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다. 도끼로 전옥을 까눕히고 탈옥에 성공한 주인공이 다름아닌 김명주였다. 전우들

이 그에게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은 이런 사연때문이였다.

김명주에게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 외에 ≪칠성자≫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어있었다. 그는 일곱 번 큰 전투에 참가하여 일곱 번 큰 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하였는데 전우들은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그에게 ≪칠성자≫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칠성자란 탄알 일곱 발을 재우게 되어있는 권총이다. 김명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부대의 사자였다.

김명주가 연길감옥에서 탈옥투쟁을 할 때 그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8연대의 중대장 여영준도 이 전투에서 ≪칠성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김명주와 여영준은 투쟁속에서 우정을 맺은 딱친구였다.

유격대의 ≪여장군≫ 김확실은 시종 두 눈을 부릅뜨고 기관총을 쏘았다. 왜 한 눈을 감지 않느냐고 전우들이 묻자 그는 왜놈의 더러운 상통을 똑바로 보려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가 기관총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나가 넘어졌다. 김확실은 이날 날창을 뽑아들고 육박전에도 참가하였다.

김정숙이 양손에 싸창 한 자루씩 거머잡고 기관총으로 연발사격을 하듯이 불질을 하여 10여명의 적들을 쓸어눕혔다는 일화도 무송현성전투가 빚어낸 것이였다.

아편 때문에 싸창맛을 볼 뻔했던 만순이네 연대장은 적탄이 비발치는 바위위에 올라서서 구령을 치며 연대를 지휘하였다. 모든 반일부대가 이날은 실력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다까하시의 ≪정예부대≫는 동산골짜기에서 전멸을 면할 수 없었다. 이 비극적인 사태는 그날 오전중으로 관동군 사령부에 보고되었다. 훗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고 알게 된 데 의하면 그때 신경비행장에서는 무송주둔군을 지원하려고 폭탄과 탄알을 만재한 군용기들이 떠올랐고 통화, 환인, 사평가 등지에서는 증원부대가 긴급히 출동하였다. 중강진 수비대도 무송으로 급파되었다.


조선화 - 용감한 유격대원들

아마 다까하시도 나자구의 문영장처럼 상급에 굉장히 과장된 통보를 날렸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방대한 증원무력이 산지사방에서 무송을 향해 그처럼 소란스럽게 모여들 수 있었겠는가. 다까하시를 구원하기 위한 적의 병력은 임강, 장백, 몽강을 비롯한 인접 현들에서도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비상한 속도로 추진된 이 발광적인 수습책도 다까하시를 함정에서 건져내지는 못하였다. 8월 17일 오후 일부 증원대들이 무송에 들이닥쳤을 때는 벌써 승패가 결정된 뒤였다.

우리가 진지수색을 끝마치고 깊은 수림속으로 철수해가고 있을 때 신경에서 날아온 적기들은 우리 손에 의하여 파괴된 동산포대와 현성 부근의 주민가옥들에 눈먼 폭탄들을 마구 내리던

지였다.

≪김사령, 저놈의 비행기들도 사령의 최면술에 걸려든 게 아닙니까?≫

미친 듯이 급강하하는 폭격기들을 깨고소한 눈길로 바라보며 만순이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무송현성전투의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되였다고 판단하였다.

만순의 앞에서는 전리품들을 한 짐씩 가득 진 수백 명에 달하는 그의 부하들이 연대장의 인솔하에 개선장군들처럼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편부족 때문에 집결시간조차 지키지 못하여 작전에 막대한 혼란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일변하였다. 반일부대의 행군대오에서는 웃음소리가 연달아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전투를 계속하면 저 사람들이 능히 약담배도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만순에게 그 대오를 손짓해보이며 신심에 넘쳐 말했다.

≪부탁인데 연대장을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만순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해졌다.

≪김사령, 고맙소이다. 사실 그것은 내가 사령님에게 해야 할 부탁이였수다. 사령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준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수다. 나도 오의성처럼 김사령하구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하겠소이다.≫

확실히 무송현성전투는 동녕현성전투나 나자구전투와 마찬가지로 반일부대장병들에게 사상개조의 길을 열어준 충격적인 사변이었다. 그들은 이 전투를 치르고나서 처음으로 통일전선의 맛을 알게 되였다. 실천이란 언제나 이론보다 더 생동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법이다.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우리의 사상과 이론은 빈말공부가 아니라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이 무송현성전투를 통하여 다시한번 확증되였다.

무송현성전투는 전술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많이 남기였다. 나는 그때까지 숱한 싸움을 치러왔지만 이 전투처럼 그렇게 정황변동이 심한 전투는 한번도 당해보지 못하였다. 전쟁에서는 대체로 적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황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무송현성전투에서는 우리측의 불찰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일시적인 혼란도 조성되였다.

전투정황에 뜻하지 않은 변동이 생기고 장애가 가로놓일 때일수록 지휘관은 강철같은 의지와 담력을 가지고 냉철한 사고력을 발동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여 임기응변의 방법으로 침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적투쟁에서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이런 요구는 불가피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정황변동에 능란하게 대처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심을 신속히 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지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나는 무송현성전투 결과를 두고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가 가지는 군사실무적 의의보다도 정치적 의의를 더 중시하였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강화한 것, 백두산 서북지구를 우리 손에 더 확고히 장악한 것, 그 승리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한 적병력수와 전리품의 수량 같은 것은 나의 기억에 크게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3. ≪피바다≫ 초연무대


혁명가극 ≪피바다≫의 한장면

항일혁명시기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였다고 본다. 원작들도 대부분 발굴되고 그것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복각하는 사업도 십중팔구는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문학과 예술은 지금 우리 당의 문예전통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문학예술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재보로 되고 있다.

나는 직업적인 학자들처럼 항일혁명 문학이나 예술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만강에서 우리 부대가 진행한 공연활동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만강에서의 공연활동을 소개하면 항일혁명시기의 문학과 예술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의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의 성시를 치는 전투에 못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연예활동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건 마다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 유격대오에 종군작가나 예술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는 창작과 창조의 진통과 고뇌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되였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대에는 직업적인 작가나 예술인 출신 대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와 우리의 명성에 고무되어 참군을 시도한 문인들은 있었다.

만일 그들의 참군이 원만하게 실현되었더라면 조선인민혁명군은 자기의 행적을

수록할 수 있는 역사기록필진과 대내출판물의 발간과 연예공연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재능있는 창작집단을 꾸려가지고 강력한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우리 대오에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역사기록은 비전문가들이 하였다. 우리 부대의 대표적인 역사기록자는 이동백과 임춘추였다. 그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느라고 하였지만 대부분은 인멸되었거나 소실되었다.

우리 학자들은 해방 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조건에서 항일혁명역사를 연구하는데 달라붙었다. 대부분의 역사자료들은 항일혁명투쟁 참가자들의 회상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적측의 문건들도 많이 참고하였으나 어떤 자료는 왜곡되거나 과장, 왜소화된 것들도 있어 결국 역사를 체계화하고 고착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게다가 선전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과 무관심으로 하여 항일혁명역사와 관련된 전면적인 자료수집은 1950년대 말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항일혁명역사를 반영한 우리의 책자들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날짜와 장소들이 약간씩 엇갈리는 것은 이런 특수한 실정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항일투사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해도 좋고 기억 안해도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만난을 이겨냈다. 만일 우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총을 잡은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후대들이 항일혁명역사라고 부르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적의 포위와 추격속에서 위치를 부단히 바꾸어가며 유격전을 벌인 우리었던 것만큼 비밀로 될 수 있는 한 장의 문건마저도 안전하게 간수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적구에서 오는 쪽지편지도 보는 족족 제때에 태워버리고는 하였다.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건이나 사진자료들은 배낭속에 넣어서 국제당에 보냈다.

1939년에도 우리는 국제당에 여러 배낭의 문건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문건들은 목적지까지 가닿지 못하였다. 그때에 유실된 자료들 중 적지 않은 것들이 일제경찰문건들과 출판물들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호송자들은 분명 중도에서 적들에게 피살된 것 같다. 우리가 조국으로 개선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기록이나 조직관계의 문건이 아니라 혁명가요들을 적어넣은 수첩과 전우들의 주소, 성명을 적은 비망록뿐이었다.

우리 학자들이 항일혁명역사를 연구하는데서 제일 큰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 혁명이 안고 있던 특수한 사정과 복잡한 내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매문가들, 부르조아어용학자들은 몇 건의 문서장에서 따온 숫자들과 사실들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자기 조국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아들, 딸들이 육탄으로 개척해온 항일혁명역사를 어떻게 하나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무진애를 다 쓰고 있었다.

우리의 이념과 사회제도를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를 왜소화하기 위해 온갖 독설을 다 퍼붓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역사란 먹으로 지울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의 역사는 역사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피바다≫를 구상하고 그 대본작업에 착수한 것은 동강회의 직후였다고 생각된다. 연극 ≪피바다≫를 창작하게 된 기본연원은 ≪간도토벌가≫에 있었다고

≪토벌≫가

약간 느리게 　　　　　　혁명가요

1. 어 — 머 니 어 머 니 는 왜 우 십 니 까
어 머 니 가 울 으 시 면 울 고 싶 어 요
품 안 — 에 안 기 여 서 울 음 을 운 다

2. 돈이 없고 무기 없는 우리 민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 자중에
네 아버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3. 애처롭고 슬프도다 원쑤의 손에
불에 타고 몸이 찢겨 원통하게도
네 아버지 원한 품고 돌아 갔구나

4. 흐르는 눈물을 서로 닦으며
생각하니 살아 갈 길 막막하구나
원한의 거친 땅에 찬바람 분다

5. 울지 말자 아이들아 울지를 말자
운다고서 이 원한이 가시여 지랴
저 산을 넘어 가서 살 길을 찾자

6. 억눌리고 짓밟히는 인민을 위해
이 한목숨 다 바쳐 싸워 가리라
혁명의 붉은 맹세 굳게 다진다

말할 수 있다.

나는 어린시절에 아버지한테서 ≪간도토벌가≫를 배웠다. 아버지는 나와 나의 동무들에게 간도≪토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고는 하였다.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 다음 부대를 이끌고 동만에 가니 그 지방 사람들은 일본군경들의

≪토벌≫로 하여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었다. ≪토벌대≫의 군도와 총창 끝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지어는 수백 명 씩 무리죽음을 당하는 대살륙의 참사가 끊임없이 빚어지는 간도땅은 문자 그대로 피바다였다.

나는 그 피바다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배워준 ≪간도토벌가≫를 상기하였으며 ≪간도토벌가≫를 상기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초와 수난을 두고 울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도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이 그런 참혹한 운명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총대와 곤봉을 틀어잡고 분연히 일어나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였다. 이 거족적인 항쟁에는 삼강오륜과 삼종지도에 구속당하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싸여 밥투정질을 하던 아이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나를 크게 감동시킨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였다.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혁운동에 뛰어든 것은 하나의 혁명이였다. 나는 이 혁명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끼였다. 그들을 지지하고 동정하는 과정에 나의 머리속에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한 여인과 그의 자식들의 형상이 무르익어갔다.

그 당시의 솔직한 내 심정은 그런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였다.

우리는 무송땅에 여러 날 머무르는 동안 도처에서 연예공연무대를 펼쳐놓고 인민들을 교양하였다. 싸움을 한 번 하고는 눌러앉아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못할 정황이면 선동연설이라도 한바탕 하고서야 부대를 철수시키였다. 혁명군대원들이 소박한 예술소품들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언제인가 우리 동무들이 싸움 끝에 열린 오락회에서 ≪간도토벌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을 뿌리며 일제를 저주하고 항일을 결의하였다. ≪간도토벌가≫하나만으로도 울음바다를 펼쳐놓게 된 오락회장의 돌발적인 정경은 나로 하여금 연극종목과 같은 본격적인 무대형상으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계몽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치 않아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동강회의가 끝난 다음 이동백이 뜻밖에도 묻어두었던 그 욕망에 불을 붙여주었다. 그때 그는 어느 마을에선가 신간 문예잡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잡지에는 감옥살이를 하는 한 사회운동자의 아내를 취급한 소설이 실려있었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 그 아내가 어린아이를 남에게 주고 다른 남자에게 재가해간 것을 줄거리로 엮은 소설이였다.

나는 이동백에게 그 소설의 독후감을 물었다. 그러자 이동백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쓸쓸해지지요. 생활이란 이런 것인가 하구.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은 　그 소설에 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실의 일단이야 반영되어 있지요. 슬픈 일이지만 내가 잘 아는 사회운동자의 아내도 다른 놈팽이와 정분이 깊어져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선과 만주에서 내가 본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다 남편에게도 충실하고 자식들에게도 충실하고 이웃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 그런 여성들이였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그를 대신해서 작탄이나 삐라뭉치를 품고 혁명사업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여성, 남편이 혁명을 하다가 쓰러지면 군복을 떨쳐입고 그가 섰던 대오에 들어서서 총칼로 원쑤를 치는 여성, 자식들이 배를 곯으면 동냥자루를 안고 문전걸

식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굶지 않게 천신만고를 다하는 여성!

이것이 바로 조선여성들입니다. 만일 이 진면모를 보지 않고 이광수와 같이 혁명가의 아내를 모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했을 때 서울 장안에서 맥주병 세례를 받은 것처럼 빨래방치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누이들의 빨래방치는 무장을 탈취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동백선생, 어떻습니까?≫

이동백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니 돌변하여 내 말에 수긍하였다.


이동백

≪옳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진실의 반영을 문학의 본도로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반영해야만 문학은 독자대중을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반영으로써 인민대중을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의 참사명이다.

그 날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수한 여성투사들과 여성활동가들, 덕행과 정절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열녀들을 두고 오래도록 담화를 하였다.

담화가 끝날 무렵에 이동백은 나를 보고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장군님, 여성혁명가의 운명을 취급하는 연극을 하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선생이 어떻게 되어 갑자기 연극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간도에서 교편을 잡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연극운동을 하던 생각이 나서 그러는게 아닙니까?≫

≪이런 서푼짜리 소설을 써내는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그 잡지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보였다.

나는 그에게 여성혁명가를 취급하자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다, 그런데 연극작품을 하나 만들자면 무슨 주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선생이 주제를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참된 조선여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조선여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조선사람들이 겪고 있는 민족적 수난은 필연코 여성들까지도 투쟁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이런 주제인데 장군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가 설정한 주제는 간도에 있을 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설계하면서 내가 탐구하던 주제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이왕이면 선생이 직접 붓을 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대통영감≫은 펄쩍 뛰었다.

≪저는 시비나 할 줄 알지 창조할 줄은 모릅니다. 그 연극대본은 장군님이 쓰셔야 합니다. 써주시기만 하면 무대형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나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백의 그 청을 받은 다음부터 나의 머리속에서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여주인공, 피바다속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디디고 결연히 일어나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 소박한 여인의 형상이 더욱 뚜렷이 떠올랐다. 주인공의 매력적인 형상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나는 종이장에 펜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부대가 만강에 도착할 그 무렵에는 대본작업이 절반 남짓하게 진행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연극창작은 생소한 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무송에 있을 때도 연극공연을 하였고 길림과 오가자에서도 연극운동을 활발히 벌이였다. 그러나 무장투쟁을 개시하면서부터는 무대에 연극을 많이 올리지 못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 유격근거지에서 연극운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길림시절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종목들에 유격구의 예술애호가들은 정열을 많이 기울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백두산을 향해 남하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노정에서 우리는 왜 한사코 연극창조를 일정에 올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던가.

우리는 대중을 의식화하는데서 연극예술이 노는 비상한 견인력과 효과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연극만큼 대중의 심장을 잡아흔드는 예술이 별로 없었다.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발전되고 그것이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판도에서 보급되기 전까지 연극은 예술계에서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연극구경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창덕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들 가운데는 연극애호가들이 많았다. 이름난 극단이 평양에 와서 순회공연을 할 때마다 나는 강윤범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고는 하였다.

연극은 누구나 다 보고 즉석에서 ≪좋다!≫, ≪나쁘다!≫, ≪쓸쓸하다!≫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예술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연극의 개화기, 전성기였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니던 그 무렵에는 벌써 종래의 ≪신파극≫을 밀어제끼고 신극이 대두하여 관객들을 놀라게 하였다.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은 무산대중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연극운동에 심혈을 바치었다.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자들은 극단을 꾸려가지고 지방의 노동자,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그런 극단들이 평양에도 연방 내려왔다.

해방 후 우리 연극계에서 이름을 날린 황철, 심영 등도 다 1920년대와 1930년대부터 연극운동에 심혈을 바치던 예술인들이다.

그 당시는 어디서나 연극, 연극하고 소리칠 때였다. 학생수가 50명쯤 되는 시골학교들에서도 연극을 한다고 떠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편승하여 우리도 초기혁명활동시기 연극운동을 벌이었다.

≪피바다≫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은 집체적 지혜의 발현과정이기도 하였다. 극의 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의 세부, 한두 마디의 대사를 위해서도 우리 동무들은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동강에서 무송현성전투승리를 축하하는 반일부대 지휘관들과의 연합회의를 끝낸 다음 나는 주력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의 서쪽 위성구역인 만강으로 향하였다.

만강은 드넓은 고원위에 올라앉아있는 백두산아래의 첫동네이며 무송현 남단의 마을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되골령을 넘으면 장백땅이고 서남쪽으로 노령을 넘으면 임강땅이다.

1936년 당시의 만강은 80여호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산재부락이었다. 이 화전민촌은 남전자, 양지촌, 말리허, 두지동과 더불어 무송지방에 흔치 않은 조선인 부락의 하나였다. 안도와 달리 무송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현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만강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심심산촌이었다. 인총이 설핀데다가 오고가는 나그네들의 발길마저 뜸해서 어찌보면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절해고도와 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길손이 좀 있다면 얼레빗이나 물감 따위

를 가지고 싸구려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행상이 아니면 소금장사같은 사람들뿐이였다. 무송의 유지들 가운데도 만강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최진용총관이 한두번쯤 다녀갔을까. 그의 후임으로 총관이 된 연병준이나 대여섯번쯤 다녀갔겠는지.

말이 난 김에 연병준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홍범도 휘하의 한 부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홍범도 독립군이 연해주 쪽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후 무슨 연줄로 해서인지 무송에 와서 한동안 총관의 자리에 앉아 정의부의 지방장관으로 일하였는데 군중의 인망이 높았다.


만경부락의 촌장 허락여

그 후 연병준은 총관직에서 물러나 대포시하에서 침통을 잡고 의원노릇을 하였다. 대포시하란 마을은 안도에서 돈화로 넘어가는 곳에 있었다. 한번은 김산호가 그 마을에 다녀와서 연의원의 의술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자랑을 하여 나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라고 거듭 권고하였다. 그래서 나는 연병준을 찾아갔다. 연의원은 나의 맥을 짚어 보고 나서 장군의 신기가 이만저만 허약해지지 않았는데 녹용이나 산삼을 구할 수 있는가고 하면서 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약화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가 만들어준 약화제를 가지고 약을 써서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조국에 돌아온 썩 후의 어느 해인가 한 일군이 몸이 허약해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대포시하에서 연병준이 만들어주던 약화제를 머리속으로 더듬어보면서 그에게 어떠어떠한 약을 써보라고 권고하였다. 놀랍게도 그는 몇 달 후 내가 내린 처방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것은 나의 처방이 아니라 수십년 전에 만주에서 연병준이라는 의원이 써준 약화제라고 하였다.

그 연의원이 무슨 연유로 해서인지 만강을 썩 잘 알고 있었다.

만강의 특산물 중에서 자랑할만한 것은 감자이다. 이 고장의 감자는 내도산감자처럼 갓난애기들의 베개통만큼씩 되는 것도 있었다. 만강천에는 열목어가 많았다.

만강부락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가 나무를 파고 깎아서 만든 목기가 아니면 봇나무 껍질을 오그려 만든 목피그릇이었다. 숟가락도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였고 장독, 김치독도 역시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었다.

행군대오가 두 그루의 봇나무가 서있는 만강부락의 천연대문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허락여촌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나무동이며 나무함지들에 시원한 감주며 탁배기를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 농민이 현성에 소금사러 갔다가 무송현성 전투소식을 안고 온 후부터 촌장은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일본군 비행기들이 자주 만강방향에 날아와 돌아치는 것을 보고서는 혁명군이 자기네 마을로 찾아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탁배기를 한 쪽박 마시고나서 촌장에게 물었다.

≪이렇게 다들 떨쳐나서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환영했다가 후환이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봄에 혁명군이 이 고장을 다녀간 후부터 만강 경찰대놈들은 우리앞에서도 설설 깁니다. 더구나 왕가대장도 녹아났다, 무송현성 왜놈들도 풍지박산이 됐다는 소식들을 듣고나서는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그때 만강천 다리목에서 한 농민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혁명군분네들, 이번에도 댄스를 차주시겠지요?≫

봄에 만강부락에 와서 연예공연을 할 때 훈춘내기의 유격대원 몇 이 무대에 올라가서 러시아춤을 춘 적이 있었다. 쏘만국경지대에서 살아온 훈춘내기들은 러시아

노래나 러시아춤 흉내를 썩 잘 냈다. 그 춤을 보고 눈이 둥그래진 마을사람들은 ≪야, 희한두 하다. 춤이란게 팔을 흔들고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것인줄로만 알았더니 저것봐라, 저렇게 발루 쾅쾅 차는구만. 아무튼 그 댄스란게 볼만은 하다.≫ 고 떠들어댔다.

≪네네. 댄스를 추다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멋있는 구경두 시켜주지요.≫

이동백이 암시한 ≪멋있는 구경≫이란 것은 연극공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우리는 허락여촌장네 집 웃방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와도 인연이 깊었다. 10년 전에 공영이 마적들에게 잡혔던 아버지를 구출해 가지고 첫 번째로 들린 데가 바로 그 집이었다. 그때 허락여는 공영과 같이 아버지를 무송까지 호위해주었다.

나는 이 집에서 ≪피바다≫대본작업을 계속하였다. 전국진이 희생된 뒤이고 또 훗날 인민혁명군의 대내신문 ≪서광≫을 주관하면서 그 신문에 몇 편의 짧은 자작소설까지 실은 바 있는 김영국이도 아직 입대하지 않은 때여서 대본작업은 만강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아하였다.

이동백은 대본작업에 참고를 하라고 조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종의 신문, 잡지들과 단행본들을 무시로 구해다 주었다.

나는 그 출판물들의 덕으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변들과 사회경제형편, 문학예술계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카프 작가 이기영

당시의 진보적인 문학예술운동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체로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부터 민족적인 것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려는 애국애족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일제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진보적 문학은 애국애족정신과 자주독립사상으로 인민들을 계몽하여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예술들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거기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을 제시해주는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불리운 진보적 작가들의 문학운동은 1925년에 이르러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을 낳았다. ≪카프≫가 창립된 때로부터 조선의 진보적 문학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기영, 한설야, 송영, 박세영, 조명희를 비롯한 우수한 ≪카프≫작가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문단에서는 ≪고향≫, ≪황혼≫,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산제비≫, ≪낙동강≫ 등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어떤 작가들은 서울 종로네거리에서 팥죽장사를 하여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인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고 길잡이가 될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써냈다.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위협하는 화약으로 되었다.


카프 작가 송영

≪카프≫작가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언제나 사상범탄압에 혈안이 되어 돌아치는 일본 군경들과 정보원들의 검은 마수가 따라다니었다. 그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 수록 적들은 올가미를 더 악착스럽게 조이었다. 두 차례에 걸치는 검거선풍으로 하여 ≪카프≫는 비참하게도 창립 10돌이 되던 1935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가 강요하는 ≪국민문학≫(전향문학)을 하느냐, 붓을 아주 꺾어버리고 마느

냐 하는 기로에서도 대부분의 ≪카프≫출신작가들은 진보적 문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었다. 이기영은 내금강의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부대기농사를 지으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 양심적인 지성인, 애국적인 작가로서의 체모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설야나 송영도 역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일제는 ≪카프≫를 해산할 수 있었지만 조선문학의 시종일관한 저항정신과 애국애족의 터전에서 싱싱하게 싹트고 자라온 그 문학의 명맥은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었다.


이찬

≪카프≫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간벽지로 쫓겨가고 있을 때 항일혁명대오 안의 지식인들과 함께 북부국경지대의 작가들과 중국본토의 적색구역, 사회주의쏘련에서 활동하던 우리 나라의 망명작가들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위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혁명문학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험산준령과 만주광야에서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고 있는 항일투사들을 민족의 총아로 높이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아낌없이 표시하였다.

훗날 ≪인간문제≫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여류소설가 강경애는 용정에서 간도인민들의 원군운동을 형상한 ≪소금≫이라는 중편소설을 썼다.

시인 이찬과 김람인이 국경지대에서 벌인 창작활동은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이찬은 우리가 서간도에 나온 후 압록강 대안인 삼수와 혜산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담아 ≪눈내리는 보성의 밤≫과 같은 훌륭한 서정시들을 써냈다.

김남인은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한 그 해 11월 임강 대안인 중강진에서 표지에 붉은 깃발을 그려넣은 동인문예잡지 ≪시건설≫을 창간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동경하고 조선독립을 기원하는 혁명적인 시들을 많이 창작발표하였다. 그는 자기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도 2,000부나 찍어 우리에게 보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에 고무되어 참군을 시도한 작가들도 있었다. 소설가 김사량은 참군은 결심하고 만주광야를 헤매다가 우리 부대를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썼다.

새 조국 건설시기와 반미대전시기 우리 문단에서 창작된 ≪백두산≫, ≪뇌성≫, ≪조선은 싸운다≫, ≪강철청년부대≫ 등의 성과작들이 광복이전에 혁명조직에 인입되어 있었거나 참군을 지향했던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민족영화의 선구자 나운규가 등장한 영화의 한 장면

비록 우리의 무장대오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총을 잡은 심정으로 펜대를 굳게 틀어잡고 민족의 계몽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이런 작가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 직후 짧은 기간에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새 문화를 빨리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애국적 예술인들과 선각자들은 일본도 영화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조선사람이라고 해

서 영화를 못 만들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영화를 꽝꽝 만들어서 민중을 위해 봉사하자, 그리고 영화예술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시위하자는 배심을 가지고 영화예술건설의 간고한 초행길을 개척해 나갔다. 나운규를 비롯한 양심적인 예술인들은 ≪아리랑≫을 비롯한 민족적 향취가 강한 영화들을 제작하여 우리 나라 예술인들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왜색왜풍의 탁류속에서 시들어가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적인 것을 발전시키려는 강렬한 모대김이 문학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분수처럼 솟구쳐오르던 때였다.

바로 이 시기에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최승희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족무용은 무대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장무대에 성악작품, 기악작품, 화술작품이 오르는 예는 있어도 무용작품이 오르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최승희가 춤가락들을 완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는 무용작품들을 창작해내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무용도 다른 자매예술과 함께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승희의 무용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문명을 자랑하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가 서간도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에 국내에서는 일장기 말소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 소식이 백두산밀에까지 날아왔다.

이 사건의 발단으로 된 것은 신문 ≪동아일보≫가 1936년 8월에 베를린에서 있은 여름철 올림픽경기대회 마라톤 종목의 1등 수상자인 손기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다.

노발대발한 총독부 당국은 ≪동아일보≫에 정간처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들을 구금하였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 말소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우리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강연을 듣고 ≪동아일보≫ 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입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

≪피바다≫대본이 다 되자 나는 그것을 ≪대통영감≫에게 보이었다. 대본을 읽고난 ≪대통영감≫은 이거면 됐다고 하면서 원고뭉치를 들어 공중에 휘젓고는 그대로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만강에서 연극들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삽화적인 이야기들은 전적지 답사기나 회상기들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많이 소개되었다. 그 글들에는 기억이 삭막해져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거나 아예 망각해버린 사실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동백의 수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손기정

자진하여 무대감독을 맡아 나선 ≪대통영감≫에게는 배우선발에서부터 난관이 제기되었다. ≪토벌대장≫ 역을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논의를 거듭하다가 성미가 괄괄한 이동학중대장에게 억지다짐으로 떠맡기었다. 을남의 어머니역은 장철구에게 갔다가 김확실에게로 넘어갔고 갑순이역은 김혜순에게 분담되었다. ≪토벌대장≫ 역 못지 않게 이동백을 딱하게 한 것은 갑순이 동생 을남이의 역

선발이었다. 10살 안팎의 나어린 소년의 역이었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그런 역에 합당한 체소한 인물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 역은 만강부락의 아이를 데려다 시키였다.

≪대통영감≫은 연출작업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었다. 원래 그가 연기형상을 지도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은 을남이의 역을 맡은 만강의 어린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골내기 어린이가 연출가의 의도를 제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 어른들의 연기가 잘되지 않아서 이동백의 애를 말리었다. 거의 모든 연기자들이 무대에만 나서면 몸가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 매였다.


김혜순

눈썰미가 빠르고 다정다감한 김혜순 조차도 정작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눈살이 꼿꼿해지고 말도 볕스럽게 하였다. 울어야 할 대목에 가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고는 하였는데 이동백이 달래기도 하고 추어주기도 하고 화까지 내면서 별수를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가 자기의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매번 지적을 받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학비가 없어 학교에도 온전히 다니지 못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글과 노래를 배운 여성이었다.

나는 김혜순에게 그가 조국과 간도에서 실지로 체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면서 이 연극은 바로 동무같은 사람들이 겪은 생활을 엮은 것이다, 왜놈들이 쏴죽인 을남이는 동무의 친동생이다, 생각해보라, 방금전까지 누나, 누나 하던 동생이 무참히 쓰러졌는데 왜 누나의 가슴에서 원한의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고 말해주었다.

김혜순의 연기는 그 순간부터 일변되었다.

나는 이동학도 되게 닦아세웠다. 그가 ≪대통영감≫에게 자기는 차라리 ≪토벌대장≫ 몇 놈을 잡아오라면 잡아왔지 그런 놈들의 흉내는 입이 더러워질까 봐 안 내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토벌대장≫ 역을 잘 하는 것이 이동학의 전투과업이라고 두 번 다시 투정질을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았다.


이동학

총과 배낭밖에 메고 온 것이 없는 우리 유격대원들이 순식간에 가설무대를 만들어 세우고 생전 본 적이 없는 연극을 펼쳐놓게 되자 만강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무대 위에 자기들이 겪어온 생활과 꼭 같은 생활이 펼쳐지자 가슴을 움켜쥐고 연극의 세계에 끌려들어갔고 나중에는 갑순이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부르짖었다. 한 노인은 지금 자기가 연극을 본다는 것도 잊고 무대에 뛰어올라가 을남이를 쏘아죽인 일본놈 ≪토벌대장≫역을 맡은 이동학의 이마를 장죽으로 후려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연극 ≪피바다≫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그 날 만강 사람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순박한 산골사람들이 그 날밤만은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등잔불밑에서 연극을 본 소감을 나누었다. 어떤 집들에서는 여럿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나도 그 날밤에는 밤이슬을 맞으며 오래도록 마을길을 거닐었다. 공연에서 받은 인상을 주고받으며 기쁨에 겨워 술렁거리는 그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숨결소리

를 들으니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다.

나는 참으로 비상한 예술의 힘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만강에서 한 연극공연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박한 작품을 보면서 모든 관객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도 쥐어뜯고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는 것이였다.

나는 그때 만강마을의 소로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였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공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까. 허락여 촌장이 말한 것처럼 아마 초저녁부터 불을 끄고 어둠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거나 꿈나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도 만강의 집들에서는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을에 등불을 가져다준 셈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마을에 100마대의 쌀을 메다준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흥분할 수 있겠는가.≫


피바다를
공연한 장소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은 두메산골 가막눈이던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켰다. 그때 수많은 마을청년들이 무대에 뛰어올라와 참군을 열렬히 청원하였다. 만강은 수많은 참군자를 배출한 고장의 하나로 되었으며 우리의 믿음직한 후방보급기지의 하나로 되였다.

그 연극이 만강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20여 년이 지나서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만강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이 공연을 한 장소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상세한 줄거리, 지어 일부 대사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만으로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군의 사상과 정서는 ≪피바다≫의 공연무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뇌수와 심장과 폐부에 만강천의 물처럼 풍만하게 흘러들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혁명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소리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술활동을 가리켜 ≪북대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이였다.

나는 현대예술도 그와 꼭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다운 사상과 참다운 도덕, 참다운 문화를 주는 것이 바로 현대예술의 기본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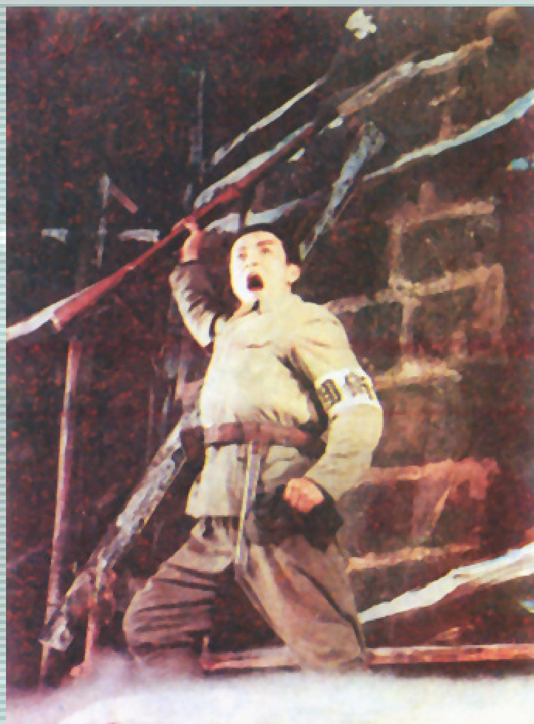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재간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예술이 비록 고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신비스러운 것은 아니다.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향유자일 뿐 아니라 참다운 창조자이다.

연극 ≪피바다≫공연은 유격대원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나는 해방 직후 우리 집으로 찾아온 작가들에게 만강에서 벌인 예술활동에 대한 생각을 더듬으면서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우리 곁에 전문작가나 예술인들이 없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곡도 짓고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주인이다, 당신들이 좋은 작품들

을 만들어서 새 조선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을 고무해주라고 말해주었다.

실로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이나 소설이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은 항일혁명시기의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한 진리이다.


혁명가극 –
한 자위단원의 운명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 과정이란 혁명사상에 공명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 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이다.

나는 언제인가 일본의 이름난 성악가이며 참의원 의원이었던 오다까 요시꼬(이향란)에게 인간생활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응당 생활이 있어야 하고 생활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예술이 있어야 한다. 예술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인간세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술이 없는 생활을 어떻게 인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늘 문학예술을 사랑하라고 말해왔고 또 온 나라 대중에게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줄 아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만민이 춤추고 노래부르는 세계적인 예술의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서 광솔불과 남포등을 켜놓고 ≪피바다≫를 공연할 때 품었던 절절한 소원이었고 꿈이었다.

지금은 전국도처에 수백수천 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들이 번듯하게 꾸려져 있다. 한 개 도에서 하나씩 예술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전당들에서 자기의 선대들이 채 부르지 못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백두산의 향취가 그대로 풍기는 예술을 끊임없이 창조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고유한 우리말로 ≪피바다≫라고 하지만 그 극작품의 본래이름은 ≪혈해≫였다. ≪혈해≫가 만강에서 공연된 후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연극공연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혈해가≫라는 이름도 붙이고 ≪혈해지창≫이라는 이름도 달아 공연활동을 계속하였던 것 같다. 그러는 과정에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이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고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더 가까운 생활소재를 바꿔넣기도 한 모양이다.

우리는 그때 ≪피바다≫에 이어 ≪한 자위단원의 운명≫도 무대에 올리였다. 그 연극에는 ≪피바다≫창조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유격대원들이 경쟁적으로 출연하였다.

해방 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만강에서 공연한 작품들을 다 발굴하였다.

김정일조직비서는 우리가 항일혁명시기에 창작한 극작품들을 우리 나라 혁명연극과 혁명가극의 시조로, 시원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영화와 소설, 가극과 연극으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가 만들어낸 원작들에 기초

하여 혁명영화, 혁명소설,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연극이 창조되고 항일유격대식 예술활동방식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피바다≫가 처음으로 영화화면에 옮겨져 나왔을 때 나는 만강의 소박한 가설무대에 걸었던 남포등과 함께 멍석 위에 앉아 웃으며 울며 어쩔 줄 몰라하던 그 고장사람들이 생각났다.

만강에서 우리가 ≪피바다≫를 공연할 때 공연성과를 열광적으로 축하해주던 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한번 보고싶다.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늙은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겠지만 나의 동년배들과 아이들은 더러 만강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을남이의 역을 맡았던 그 아이도 살아있다면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 바 다 가

보통속도로 비장하게

mp B♭ E♭ F7

1. 설 한 풍 스 산 한 원 한 의 피 바 다 야

B♭ Dm Gm F7 B♭ Dm

참 혹 한 ─ 주 ─ 검 ─ 이 뭍 노 니 얼 마 ─ 냐

Gm F7 B♭ f F7 B♭

혁 명 에 피 흘 린 자 그 얼 마 에 달 하 였 나

2. 죽은 자 가족의 비참한 그 모습과
기막힌 원통에 가슴이 터진다
사무친 이 원한을 천만추에 못 잊으리

3. 락심을 말아라 전 세계 무산자야
혁명자 하나의 죽음의 피값에
십륙억 칠천민의 무산정권 수립된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 - 일제의 ≪토벌≫로 피바다에 잠긴 마을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피바다≫ - 아들을 유격대로 떠나 보내는 어머니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 -
어머니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 주는 유격대공작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 -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것을 힘차게 호소하는 어머니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그대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



일제의 대(토벌)만행으로 마을은 피바다에 잠긴다



자식들이 혁명투쟁에 나선데 대하여 불안해 하는 어머니



죽음을 각오하고 유격대지하공작원을 지켜 싸우는 어머니



상동마을에 부녀회를 조직하는 어머니

4. 여성중대



조선인민혁명군 여대원들

한때 조선사람들은 독립군의 유일한 여장부 이관린을 놓고 ≪만록총중 일점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빨치산을 핵심으로 하는 항일의 만록총중에는 우리 민족이 낳은 수백 수천 점의 붉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애국의 일념으로 불타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은 남성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일제를 조국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쳤다.

그 자랑스러운 여성투사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나는 1936년 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역사단을 편성하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하였던 여성중대에 대하여 회고하게 된다.

남호두회의 이후 백두산으로 나오는 길에서 새로운 주역사단과 함께 여성중대를 따로 조직한 것은 유격대오의 급속한 확대발전과 전반적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시사해주는 경이적인 사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중대의 탄생, 그것은 봉건적 질곡에 의해 수천 년동안 뒤고방에 갇혀있던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혁명투쟁의 제1선에 당당히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사였다.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두고 말할 때마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항일혁명시기에만 해도 여성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였다. 더욱이 여자가 총을 잡고 남성들과 같이 장기간 무장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여 나도 초기에는 여성들의 참군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생각, 그들이 그 연약한 몸으로 유격투쟁앞에 나서는 모든 풍하를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내 머리를 지배하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몇몇 여성들이 지난날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공적도 세우고 경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화도 남기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장 소서비의 목을 베게 한 평양의 명기 계월향이나 진주의 논개와 같은 애국여성들의 무훈담은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임진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행주산성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고 그 싸움에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큰 몫을 담당했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권율장군이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치고 산성을 포위한 3만여 명의 왜병과 힘에 부치는 결사전을 하고 있을 때 그 고장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담아 석전을 하는 우리 군사들에게 부지런히 날라다 주었다. 행주산성 여성들의 그 짧은

애국치마들은 훗날 조선의 모든 가정부인들이 동자질할 때도 띠고 치레거리로도 띠는 맵시있는 앞치마가 되였다. 행주산성 싸움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여 그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한다.

고려시기에 남복차림으로 전장에 달려나가 거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무훈을 떨친 설죽화의 이야기 또한 유명한 것이다.

역사는 설죽화와 같은 개별적인 여걸들의 참군담은 더러 전해주고 있지만 순수 부녀들로만 꾸려진 전투부대가 용약 전장에 진출하여 백병전을 벌인 전례가 있었다는 기록은 별로 남기지 않았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여성투사 김정숙동지와 여성전사

그러나 우리가 진행한 유격전쟁에서는 여성들이 간호원이나 재봉대원이나 취사원과 같은 보조적 역할 뿐 아니라 전투원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였다. 일단 참군이 결정되면 여성들도 무자비한 전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전쟁은 여성들이라고 하여 인도주의를 선사하지 않는다. 정세가 요구하면 남자들과 똑같이 무거운 장구류를 이고지고 며칠씩 강행군도 해야 하고 언 땅에 배를 붙이고 포화속에서 싸움도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창격전에도 뛰어들어야 한다. 정치공작이나 식량공작을 위해 적구에 파견될 수도 있고 살을 저미는 것 같은 강추위속에서 토공일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풍찬노숙하며 몇 년을 싸워야 할지, 몇십 년을 싸워야 할 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이 모든 난관을 과연 여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지판에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로 되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일이였다.

길림시절부터 우리의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동무들 가운데는 나에게 참군의 의사를 표시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한영애도 눈물을 흘리며 유격투쟁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그러나 나는 동만으로 나올 때 그를 억지로 북만에 떼 두었다. 길림시절의 소년회원들 가운데는 참군을 하고 싶어 돈화에까지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고 중부만주에서 편지로 참군의사를 표명해온 여동무도 있었다. 애국의 일념에 불타는 청들이였으나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다.

여자들이 무장투쟁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것은 남성들이나 할 일이다,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여성들을 뒤고방에서 끌어내다가 사회혁명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들더러 어떻게 무장투쟁까지 하라고 하겠는가. 당시 나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장투쟁준비가 성숙되고 여기저기에서 유격대들이 연이어 무어지게 되자 참군을 열망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갔다. 지하조직들에서 활동하던 여자들 가운데는 남들이야 뭐라건 말건 유격대에 들어와 승인도 없이 그대로 퍼더버리고 앉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다.

형세가 이쯤되자 우리는 여성들의 참군문제를 정식으로 논의에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참군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일부 기혼자들은 두 마디 안팎에 그 가능성을 부정해 버리었다. 여성들은 집안일을 보고 남성들은 집밖의 일을 보는 것이 조상전래의 관례이다, 이관린이 한때 피스톨을 차고 독립군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천에 하나나 있으나마나한 경우이고 보통 여성들이야 어떻게 험한 산발을 타

고다니며 남자들도 감당키 어려운 유격활동을 하겠는가, 여자들을 전쟁마당에 끌어내는 것은 모험이라고 하였다. 지어 어떤 동무들은 여성참군문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우겨대였다.

그러나 차광수를 비롯한 다른 동무들은 그런 주장들을 즉석에서 일축해버리였다. 당신들은 인류역사에 모권제가 오래동안 존재해왔고 그 모권제의 그늘밑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가?

자식이 불속에 들면 그속에 선참으로 뛰어드는 것도 여자이다. 항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는데 여자라고 왜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여성참군은 우리 누이들 자신의 요구일 뿐 아니라 시대의 부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여성정치공작원
김수복

결국 여성참군에 대한 논쟁은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매번 공전만 거듭하였다. 우리는 남성청년들로 유격대를 조직한 뒤에 형세를 봐가며 훗날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미루어버린 여성참군문제가 아무런 의견충돌도 없이 모두의 지지속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된 것은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간도여성들의 투쟁소식이였다. 화룡현의 대담무쌍한 두 여성이 빨래방치로 일본순사를 까눕히고 보총을 빼앗아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 여성참군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였다. 온 간도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해 떨쳐나서던 때였다.

조직을 통하여 무기획득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깨달은 18살의 나어린 처녀 김수복은 적의 무장을 빼앗아낼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자기의 짝패처녀와 함께 빨래함지를 이고 강가의 외나무다리목으로 나갔다. 며칠전의 장마비에 다리는 떠내려가고 말뚝만 남아있는 빈 다리목이였다. 두 처녀는 종일토록 거기서 빨래하는 시늉을 하며 알맞춤한 기회를 노리었다. 해질녘이 거의 다 되어서야 일본경관 한 놈이 나타나 처녀들에게 자기를 업어 강을 건네달라고 호령하였다. 김수복이 경관을 업고 강물에 들어서자 짝패처녀도 부축해주는 체 하면서 그를 따라나섰다. 강심에 이르자 김수복은 신발이 젖는다고 발버둥치는 경관을 물속에 처박고 빨래방치로 난장을 쳤다. 학살당한 부모들의 이름으로 원쑤를 요정내고 무기를 빼앗은 두 처녀는 1933년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때부터 김수복에게는 ≪빨래방치≫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재봉대원 박수환

훗날 우리 주력부대에서 재봉대 책임자로 공작한 박수환도 역시 빨래방치로 적병을 까눕히고 무장을 빼앗아낸 여성이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짜고들어 경찰놈들에게 술을 먹이고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빼앗아낸 실례도 있었다.

그 어떤 증서도 그들이 빼앗아낸 무기처럼 우리 여성들이 도달한 새로운 정신적 높이와 의지를 힘있게 증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기 힘으로 탈취한 총을 손에 잡고 무장대오에 뛰어들고 있었다.

여성들의 이 급진적인 진출과 의미심장한 변화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어찌하여 푸성귀나 가꾸며 팔자를 한탄하던 여성들이 수백 년동안 자기들을 비끄러매고 있던 봉건의 질곡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용약 무력항전에 참가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였는가? 그것은 손에 총을 잡고 나서는 길 외에는 달리는 살 수 없는 조선여성들의 엄혹한 생활이 마련해 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은 속박의 사슬과 원한뿐이었다. 조선의 봉건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남존여비를 계율로 삼아 모든 여자들을 비인간


조선화 - 팔려가는 날

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천대한 것이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음식이나 지어바치고 손이 오리발이 되도록 밭을 가꾸고 길쌈이나 하는 집안의 머슴과도 같이 치부되고 있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도 홀몸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 것도 여자였고 빚값에 팔려가는 것도 여자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모든 불행 위에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라는 불행을 덧얹어놓았고 망국노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어놓았다.

항일혁명은 그 모든 액운과 부조리의 근원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폭풍이였으며 이 나라 여성들을 혁명의 길로 인도해 준 세기적인 사변이였다. 조선의 여성들은 펜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 위에 자기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여성참군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을 더 잘 보살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비록 총은 잡았어도 여성은 역시 여성인 것만큼 유격전쟁을 하는 어려운 조건일망정 여성 고유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였다.

유격대오에 여성대원들이 생긴 때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누이동생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주었다. 총도 제일 좋은 것을 주었고 잠자리도 제일 아늑한 곳에 정해주었으며 전리품도 제일 훌륭한 것으로 골라서 분배하였다.

이러는 과정에 나는 그 특수우대의 격을 한층 더 높여 여대원들로 따로 대오를 편성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단위와 군사행동단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였다. 여대원들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직하게 되면 그들의 혁명적 자부심과 열의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고 자각성과 전투력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조선화 - 원한의 배길

수 있으며 생활상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전투원이 되게 해달라, 총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학살한 원쑤놈들을 다문 몇 놈이라도 잡아서 원한을 풀어야 하겠다는 것이 여대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재봉대에 가도 병원에 가도 작식대에 가도 여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였다.

우리가 사령부에 직속된 여성중대를 따로 꾸려야겠다고 확고히 결심한 것은 무송에 나와 새 사단을 꾸릴 때였다.

그때 우리가 새 사단의 골간으로 삼은 100여명의 ≪민생단≫ 혐의자들 가운데는 장철구, 김확실을 비롯하여 여대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계순

≪민생단≫ 혐의자료들이 불타 없어지고 어제날의 ≪민생단≫ 혐의자들이 모두 무죄선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날아가자 사처에 숨어있던 ≪민생단≫ 연루자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끼어있었다. 이계순, 김선, 정만금 등이 그런 여성들이였다. 이불보따리를 이고 나타난 박록금처럼 개별적으로 찾아온 여대원들도 여럿이였고 대첨창과 오도양차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새 사단에 편입한 군소부대와 함께 집단적으로 참군한 여대원들도 여럿이였다.

우리가 미혼진밀영에 갔을 때 그곳 재봉대에 있던 김철호와 허성숙이 전투부대로 돌려달라고 어찌나 성화를 먹이는지 아무리 설복하여야 막무가내였다. 재봉대 전원이 다짜고짜로 우리를 따라나서겠다는 것이였다. 동무들이 우리를 다 따라나서면 군복은 누가 지어주겠는가고 하니 자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병약한 여대원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였다. 알아보니 미혼진밀영에는 재봉대, 병원, 작식대들에 필요한 인원을 푼푼히 배당하고도 남을 만큼 여대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였다.

남은 여대원들을 전투중대에 배치하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중대를 시범적으로 따로 무어볼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김선

그러나 미혼진의 여대원들만 가지고서는 1개 중대를 무을 수 없었다. 역량이 부족하였다. 나는 최현에게 앞으로 여동무들이 한사코 요구하면 여성소대를 하나쯤 무어보라고 귀띔하여 주었다.

≪순수 여성들만으로 전투중대를 하나 따로 무어주면 어떨 것 같소?≫

어느 날 내가 박록금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비치자 그는 대뜸 환성을 올리며 절대찬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산호와 이동학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순 여자들끼리만 무어가지고 전투랑 꽤 치러낼까요? 여자들만 있어가지고서는 사나운 왜놈무리들과 맞서 변변한 싸움을 해낼 것 같지 못합니다. 중대와 소대들의 지휘를 남성들이 맡아 해준다면 몰라도 ≫

김산호의 말이였다.

≪남성들이 지휘한다면 그걸 어떻게 여성중대, 여성소대라 할 수 있겠소? 여성중대면 지휘도 여성들이 맡아하게 해야지.≫

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글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동무네는 무슨 사관학교나 군사대학을 다녀서 지휘관이 되었소?≫

김산호는 말문이 막히었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아 하는 눈치였다. 이동학도 ≪여

성중대라, 여성중대라≫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우리가 여성중대에 대한 문제를 화제에 올리자마자 김주현은 펄쩍 뛰었다. 순수 여성들만으로 중대를 편성하여 전투장에 내보내면 싸움을 망치고 말터인데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정만금

우리가 만강부근에서 여성중대조직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1936년 4월경에 불쑥 남녀혼성부대가 우리앞에 나타났다. 남녀혼성이라지만 그 속에 남성대원은 4-5명뿐이고 나머지는 김철호, 허성숙, 최장숙, 황순희를 포함하여 전부가 여성들이었다.

내가 김철호에게 동무는 앓는 최현동무를 내버리고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고 묻자 그는 바로 최현이 보내서 왔다고 하였다. 병을 털고 일어난 최현은 여대원들이 자꾸만 전투원으로 돌려달라고 성화를 먹이자 그 중 시끄럽게 구는 건강한 여대원들만 따로 추려 소부대를 무어주면서 나한테 찾아가면 알도리가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분명 여대원들한테서 당하는 성화를 우리한테 밀어버리고 그들의 운명문제까지도 우리의 처분에 맡기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김철호네 여성소부대 대장은 조동무라고 부르는 애젊은 남성대원이었다. 햇병아리같은 신입대원이 여성소부대의 대장으로 대열을 인솔해온 것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허성숙은 ≪우리 같은 치마들이야 뭐 최현동지의 안중에나 있습니까. 밥이나 시키면 고작이지 어디 대장질을 시키겠답니까?≫하고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그 여성소부대의 부책임자도 역시 태병열이라고 하는 키가 자그마한 애젊은 신입대원이었다.


김철호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열을 관리하고 인도해온 것은 기골이 장대한 최장숙이었다. 그는 총과 배낭 외에도 쌀이 한 자루 가득 들어있는 무쇠가마와 작식도구들, 도끼와 톱까지 지고왔는데 사람보다 짐이 더 컸다. 허성숙의 짐도 최장숙의 것에 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유격대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남녀를 불문하고 최장숙이와 허성숙이처럼 많은 짐을 진 대원은 나도 처음 보았다. 최장숙의 짐을 받아 내리워주었는데 어찌나 무거웠던지 힘에 부쳤다.

≪힘장사로구만!≫

내가 못내 감탄하자 태병열이 ≪그 누님은 한끼에 만두를 100개나 널름하였습니다. 60개를 널름하고 보초를 선 다음에 다시 40개를 더 꿀꺽했는데 아무 탈없이 다 소화시킨 여장수입니다.≫하고 벌쭉거렸다. 그 바람에 폭소가 터졌다.

최장숙은 태병열에게 눈을 흘기면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무슨 거짓말이겠소? 한 끼에 만두 100개쯤 제껴대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짐을 져댈 수 있겠소?≫

내가 태병열을 두둔해주자 모두들 또 한바탕 웃음판을 터쳤다.

그날 나는 슬쩍 남여대원들의 힘내기를 조직하였다.


황순희

곰같이 힘이 세다고 공인돼있는 한 남대원을 불러내어 먼저 허성숙이 벗어놓은 배낭을 져보라고 하였다.

그는 호미자루로 잔뼈가 굵어졌다는 사람인데 왕청일판에서는 상등 씨름군으로 소문났었다. 앉은자리에서 찰떡을 맹물에 묻혀 35개까지 먹었다는 떡보이기도 하

였다.

그 대원은 허성숙의 짐을 지고 수월히 일어났다. 나는 토퉁 두 자루를 메워주면서 그 짐과 총을 가지고 휴식없이 얼마만한 거리까지 행군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 한 10리쯤은 쉬지 않고 갈 것 같다고 하였다.

다음은 최장숙의 짐을 져보라고 하였다. 장숙의 짐을 진 그는 땅을 짚고 가까스로 일어났다. 다시금 토퉁 두 자루를 메워주며 이번에는 얼마만한 거리를 행군할 것 같은가고 물으니 고작해서 5리쯤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다.


허성숙

최장숙에게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행군했는가고 물어보자 그는 쑥스러워 말을 못하였다. 김철호가 그를 대신해서 대포시하에서 전투를 치른 다음 여기까지 쉼없이 행군해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모두가 눈이 휘둥그래졌다. 대포시하에서부터라면 거의 100리나 되는 먼거리였다.

남대원과 최장숙의 힘내기에서는 최장숙이 이긴 셈이었다. 나는 허성숙을 시켜 대포시하 부근에서 여성소부대가 겪은 전투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였다.

허성숙은 얼굴이 거밋거밋하고 몸이 다부지게 생긴 여대원이였다. 인정이 많은 대신 입이 무겁고 말수더구가 적었다. 그러나 요긴한 말은 꼭 하고야마는 곧고 대바른 성미였다.

최장숙을 ≪선봉장≫으로 하는 여성소부대는 우리를 찾아오던 도중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던 끝에 산중에서 어떤 반일부대를 만나 그들과의 공동작전으로 대포시하 부근의 어느 집단부락을 기습하였다. 여대원들은 그 전투에서 남대원들에 못지 않은 투지를 발휘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좋은 신식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퇴각했던 위만경찰대가 반격을 가해오자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쳤다. 하지만 최장숙이네 여성소부대는 구식 토퉁을 가지고서도 적들을 본때있게 족쳐댔다. 그들은 반일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계선으로 달려드는 적들까지도 다 도맡아 요정냈다.


판화 - 유격대입대

특히 그 날 보초를 섰던 여대원이 아주 희생적으로 잘 싸웠다. 옆구리에 총상을 당하여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적들을 완강하게 견제하였다. 그의 총알에 맞아 여러 명의 적병들이 연방 거꾸러졌다. 그러자 시체를 끌고 달아나는 놈들이 나타났다. 여성전투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격에로 넘어갔다. 반일부대대장은 도망치는 자기 부하들에게 ≪개자식들! 조선여자들은 토퉁을 가지고도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너희들은 도망을 쳐≫하고 고함을 질렀다. 대열을 이탈했던 반일부대대원들은 그제서야 대오에 돌아와 추격전에 합세하였다. 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그 전투담을 듣고는 모두가 여대원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견인불발성에 감탄하였다.

1936년 4월 만강 부근의 수림속에서는 여성중대의 탄생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우리는 이 중대를 사령부 직속으로 두고 소대와 분대들을 직접 편성해주었다. 첫 중대장으로는 박록금이 임명되었다.

여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여성전투구분대였다.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 년동안 고질화되어 왔던 남존여비 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정신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었다.

예로부터 남존여비가 가장 우심하게 적용되고 발현되었던 것은 정치분야보다도 군사분야였다. 물론 정치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마력과도 같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은폐된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미쳐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지우지한 실례는 허다하다.

하지만 정치분야에서는 때때로 제왕이나 군사령관보다 더 힘이 있었다고 하는 여성들도 군사분야에 들어와서는 별로 맥을 추지 못하였다. 군사는 거의 남성들의 독점물로 되어왔다. 우리는 군사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비록 우리 혁명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해방을 실제로 이룩하였다.

여성중대의 출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민족적인 폭과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었다.

혁명군에 여성중대가 있고 그 여성중대의 대원들이 남성군인들 못지 않게 잘 싸운다는 것은 미구에 전민족이 다 아는 사실로 되었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의의있는 화제거리로 되었다.

193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의 국내신문에는 ≪**김일성**부대에는 여대원도 10여명≫이라는 보도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짤막한 글이었지만 그 기사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던진 파문은 대단히 컸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손에 총을 잡고 항일무장대오에서 용감하게 싸운다는 소식은 조선의 모든 여성들과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 소식은 국내와 해외에서 인민혁명군에게 입대할 것을 열망하는 수많은 참군지망자들을 낳게 하였다.

우리는 여성중대를 조직한 후 그가 제발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돌봐주고 이끌어주었으며 실전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었다. 여대원들의 정치적 열의와 자각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는 하였다.

소탕하에 머무를 때 여성중대원들에게 김스딴께위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 것이 생각난다.

김스딴께위츠란 러시아에서 나서 자라 전 생애를 공산주의위업에 바친 이름난 조선인 여성투사이다. 그의 본적지는 함경북도 경원군(새별군)이었다.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찍이 소학교교사가 되었으나 노령으로 찾아오는 교포들과 망명자들의 수가 늘어나가 교원생활을 그만두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러시아 각지에 널려있는 조선인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



혁명열사릉

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짜르가 타도된 후 볼셰비키당에 가입한 김스딴께위츠는 남편과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10월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섰다. 그는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볼셰비키당 원동부에서 대외사업을 맡아보는 한편 조선인 독립운동자들인 이동휘, 김립 등을 추동하여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도록 열정적으로 떠밀어주었다.

김스딴께위츠의 눈부신 활동은 연해주 지방은 물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냈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원동의 형세가 반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볼셰비키당 원동부가 하바로프스크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때 김스딴께위츠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기선을 타고 떠나다가 불행하게도 아무르강에서 백파도당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최후순간을 앞두고 그는 적들을 향하여 절규하였다.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비열하고 악독한 너희들의 운명도 오래지 않다. 상가집 개무리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망상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였다.

김스딴께위츠와 함께 설죽화, 계월향, 유관순, 이관린 같은 명인여걸들도 우리 여대원들의 친근한 정신적 벗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여성중대장 박록금

여성중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어디에 가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였다. 오각별이 빛나는 군모를 쓰고 어깨에 기병총을 멘 여대원들의 모습이 먼발치에 얼핏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여자군대가 왔다!≫고 소이치면서 동네방네를 뛰어다니였다.

여성중대가 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선 여대원들이 어떤 정황에서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인민을 도와주고 존대하면서 처신을 잘한 데 있었다. 우리는 어느 부락에 주둔할 때나 주인집 뜨락을 쓸어주고 물을 길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터밭의 김을 매주는 여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대원들은 인민들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고 글도 가르쳐주었다. 여성중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이였고 진귀한 꽃이였다.

사실 발족초기의 여성중대는 무기가 변변치 못하였다. 대부분이 구식토퉁이였는데 개중에는 그런 총마저 못가진 대원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볍고 맵시있는 기병총을 메워주려고 작정하였다. 그래서 몇 차례 전투도 조직했지만 기병총은 좀처럼 맞다들지 못하였다.

그러던중 시난차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수비대가 말을 타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정찰을 통하여 그 수비대가 병실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나는 공사장 습격전투를 결심하고 그 과업을 여성중대에 맡기였다. 그리고 그들을 고무해주려고 공사장 가까이에까지 같이 갔다. 그 전투가 아주 인상적이였다.

금시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날씨여서 적병들은 작업을 중지하였고 보초병도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 박록금중대장이 울린 신호총성과 함께 공사장 근처에 매복해있던 여대원들은 비호같이 달려나가 적들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댔다. 여기저기에서 ≪손들엇!≫, ≪손들엇!≫하는 여대원들의 야무진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적병 하나가 총가에서 총을 꺼내들고 반항을 시도했으나 장정숙이 날쌔게 총탁으로 까눕히었다. 전투는 10분도 못되는 사이에 결속되었다. 몇 명을 살상하고 나

머지는 전원 포로하였다. 전투에서 수십 정의 저격무기들을 노획했으나 아쉽게도 전리품들 중에는 기병총이 한 자루도 없었다.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기병총은 기마순찰을 나간 자들이 다 메고 갔다는 것이였다. 포로들은 자기들을 습격하고 사로잡은 것이 여성유격대라는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여성중대는 그 후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대영전투와 동강전투도 여성중대가 특출한 솜씨를 발휘한 전투였다.

그들은 어느 전투에서나 잊을 수 없는 무훈담을 남기었다. 장정숙은 대영전투 때 총알이 아까와서 적보초를 주먹으로 단매에 쳐눕히고 돌격로를 열었다. 김확실을 비롯한 3명의 여대원이 어스름한 달빛속에서 각각 한발씩 총을 쏘아 적의 경비전화선을 잘라버렸다는 신비한 이야기는 동강전투가 남긴 기담이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성중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관하의 함경남도 경찰부가 여러 건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일성**부대의 부녀대원 박록금 이하 40여명이 소화 11년(1936년) 음력 5월 초순경 무송현 시난차의 위만군수비대를 공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같은 시기에 그들이 대영을 습격하여 장총 10여정과 군복 등을 노획해갔다는 사실도 기록되어있다. 여성중대가 진행한 무송현 동강전투에 대한 기록도 있다.


마동희의
누이동생 마국화

조국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열사들의 군상을 돌이켜 볼 때마다 나는 그 군상의 한복판에 있는 여성중대원들과 대담무쌍한 여장부들을 추억하게 된다.

여성중대의 첫 중대장 박록금은 중대를 잘 통솔하였다. 많은 전우들은 박록금의 특징을 단마디로 여장부라고 규정하였다.

박록금이 지금의 41문짜리 지하족을 신고 다녔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유격대의 전리품들 중에 지하족 같은 것이 많았지만 그렇게 큰 것은 드물었다. 그래서 박록금은 초신을 많이 신고다녔다.

박록금은 왕청에 있을 때 구부녀회주임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활동가였다. 집살림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결혼할 때 이불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누데기차림으로 혼례를 치루었다. 남편 강증룡이네 집안도 역시 살림이 째지게 가난해서 신랑신부가 첫날 덮고 잘 이불조차 마련해주지 못하였다. 부부는 한날한시에 입대하여 왕청유격대 1중대에 배속되었다.

어느 날 1중대 정치지도원은 나를 찾아와 박록금이 방금 전에 해산을 하였는데 그가 가있는 친정집에는 포대기 하나 만들만한 천조차 없다고 걱정하였다.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가보았더니 정말 이불은 고사하고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홀아비살림에 딸의 시중까지 드느라고 쩔쩔 매던 박록금의 아버지는 자기네는 난리통에 너무나 여러 번 곤두박질을 하다보니 이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까마득하다고 하였다. 갓난애기는 헌누데기에 싸여 있었다.

나는 곧 소부대를 파견하여 이불과 포단감을 마련하였다. 재봉대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천으로 두툼하고 푹신한 이불과 애기포단, 애기옷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런데 박록금이네 부부는 애기옷과 애기포단은 갓난애에게 입혀주고 덮어주면서도 이불만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큼직한 보자기에 싸서 궤짝위에 고이 얹어두기만 하였다. 살을 에이는 혹한에 등뼈가 가드라들 때에도 그것만은 다치지 않았다.

강증룡이 7중대 소대장이 되어 안도독립연대로 떠나간 후부터 줄창 왕청부대에서 생활해 온 박록금은 남편이 속한 부대가 우리 부대에 편입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



여투사들과 거니시는 김일성주석님

아올 결심을 하였다. 그는 친정집을 떠날 때 우리가 해준 이불을 아버지에게 넘겨주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김대장이 너희들을 위해 마련해준 소중한 이불인데 너희 부부가 덮어야 한다면서 기어이 그 이불을 가지고 떠나게 하였다.

박록금이 이고온 이불보따리는 그대로 그의 별명이 되고 말았다. 전우들은 이름대신 그를 ≪이불보따리≫라고 불렀다.

박록금은 겉보기에는 성미가 무뚝뚝한 것 같았지만 속이 깊고 인정미가 있는 여성이었다. 붙임성이 좋아서 지하공작에도 적임자였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1937년 초에 우리는 그를 장백현 신흥촌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였다. 그의 임무는 권영벽과 이제순을 도와 장백현 상강구 일대의 여성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는 것이었다. 박록금은 그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던 중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는 이제순처럼 남들이 한 일까지 자기가 다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지 않은 혁명가들을 감옥에서 석방시키었다.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동지들이 맥을 놓고 감방안에 쓰러져 있을 때면 혁명가요를 불러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박록금이 혜산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함흥형무소로 이송되었을 때 적들은 그를 결핵환자가 있는 감방에 밀어넣었다. 병에 전염되어 감옥귀신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 결핵환자는 정평농조 사건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김가 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박록금은 일신의 건강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중태에 놓여있는 그 여성을 살붙이처럼 간호해주었다.

사경에 이른 그 여성은 얼마 후 병보석으로 놓여나갔는데 그 대신 박록금이 병에 전염되어 눕게 되었다. 가석방된 그 여성의 가족들이 신세를 갚는다고 하면서 명주저고리와 떡을 해 가지고 감옥으로 찾아왔으나 감옥당국은 차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남을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랑을 기울여온 이 인정많은 유격대의 여장부는 그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마련한 눈물겨운 지성마저도 받아보지 못하고 모진 병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눈을 감았다.

우리의 여대원들 중에는 마동희의 누이동생 마국화도 있었다. 그는 우리가 서간도 지방에 나가서 활동할 때 17도구 평강덕에서 우리 부대 정치공작원인 김세옥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김세옥은 마국화의 스승인 동시에 애인이기도 하였다. 조국의 해방을 성취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그들은 모든 것을 미래에 맡겨두고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만 분투하였다.

어느 날 작식공작을 하던 마국화는 부엌에서 강낭죽을 퍼서 전우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두 사람 몫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몫 중 한 몫은 자기가 굶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몫은 누구를 굶겨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사정앞에서 마국화는 망설이기만 하다가 김세옥의 양해를 받아볼 결심을 하였다.

그는 병실 밖으로 김세옥을 불러내다가 딱한 사정을 하소하였다.

≪세옥동무, 양해하세요. 오늘 저녁만은 동무의 몫이 없는 걸로 여기고 굶어주세요. 참 안됐어요.≫

≪안되다니? 이런 때에야 응당 내가 굶어야지. 그 대신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는 매 끼 곱배기를 한다는 걸 미리 선언하는 바이요.≫

김세옥은 이런 농까지 하고나서 밝은 낯으로 돌아섰다.

그날밤 마국화는 맹물로 끼니를 굼땐 애인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가 굶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둘 다 조국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마국화가 전사한 후 여대원들은 그의 배낭속에서 한 쌍의 학을 수놓은 이불거죽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국화가 궂은 비와 눈속에서 마련한 결혼지참품이였다.

세상에 이보다 값지고 이보다 슬픈 지참품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여전사는 거치른 황야에 쓰러지고 꽃피지 못한 꿈만 이국땅에 남았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여대원들은 그 이불거죽으로 고인의 시체를 감싸주었다.

여성중대는 탄생 후 반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조국이 영원히 기억하고 인민이 길이길이 따라배울 불멸의 위훈을 남기었다.

항일혁명의 1선에서 무장을 잡고 강적일제를 상대로 하여 피어린 싸움을 벌려온 여전사들이야말로 현대 조선여성들의 빛나는 귀감이며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참다운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성영웅들이다. 그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인륜적 평등을 남먼저 이룩하고 우리 나라 여성해방의 길을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였다.

우리 노동당시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여성중대원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이어받은 무수한 여성영웅들과 여성활동가들, 여성노력혁신자들을 배출하였다. 안영애, 조옥희, 이수덕, 이신자, 정춘실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가 낳은 여성영웅들의 사고와 실천을 지배한 것은 백두의 넋이였다. 우리의 수백만 여성들은 오늘도 이 넋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회주의 보루를 쌓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여성구분대들이 있다. 총을 자고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 있는 여전사들은 비단 인민군대의 여성구분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들에도 총을 잡은 여대원들이 수두룩하다. 전민무장화를 실현한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000만의 여성전체가 유사시에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기 위하여 총을 잡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

이 1,000만 여성무장대의 원형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직속 여성중대였다.

5. 백두산밀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

우리가 만강부락을 떠난 것은 철늦은 감자꽃이 한창 피어있던 8월말경이였다. 수확의 계절을 고대하던 화전들에서는 보리가을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었다.

대열은 묵묵히 남으로 흘러갔다.

나의 전우들은 연대정치위원 김산호로부터 애젊은 전령병들인 최금산이나 백학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백두산지구 진출이 가지는 의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백두산은 군사지형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일부당관 천부막개한 천연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당관 천부막개란 한 사람이 지키는 관문을 천 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아군이 지키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격전을 확대하는데서 백두산보다 더 적중한 기지는 없었다. 고려의 윤관과 이조의 김종서도 바로 이 백두산지구를 타고앉아 보국개척의 중임을 수행하였다. 남이장군 역시 백두산 부석위에서 천하를 평정할 웅대한 꿈을 꾸었다.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해야 할 지상제일의 보루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꾸리고 국내진출을 강화한다고 하여 지난날 만주땅에서 모처럼 개척해온 활동무대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삼고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지경을 들락날락하며 종횡무진의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천험의 백두산을 군사적 요새로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의미를 또한 특별히 중대시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 대하여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았는가 하는 것은 백두산 장군봉 밑의 천지기슭 바위의 비석에 새겨진 ≪대태백 대택수 룡신비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나라의 생존이 심히 우려되었던 20세기초에 대종교나 천불교의 관계인물인 천화도인에 의하여 세워진 그 비석에도 밝혀져있는 것처럼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룡신이 이 나라 사람들을 무궁토록 안정하게 해줄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조선에 대한 숭상이였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였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숭상해온 것은 조선민족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였다. 고구려 령토 확장시대의 부분노나 을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이장군이 지은 웅건장중한 시구들을 외우면서, 윤관과 김

종서의 보국개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백두산에 깃들어있는 선열들의 애국혼에 감동되고 매혹되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높이 솟은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인 동시에 광복거사의 상징으로 되었다.

백두산을 타고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 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투쟁이 가져다 준 총화이며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만강에서 백두산으로 가려면 되골령을 넘어야 한다. 되골령은 두메의 늙은 포수들조차 향방을 잘 가늠하지 못하는 태고연한 처녀림들로 덮여있었다.

석달전에 선발대의 사명을 띠고 장백에 파견되어가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김주현이 길잡이가 되어 대오를 안내하였다. 그가 인솔한 소부대는 백두산 쪽에 나가 그 일대의 적정과 지형들을 정찰하고 주민동향들을 조사하면서 알맞춤한 밀영후보지들을 탐색하는 한편 부대의 진출통로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놓았다.


백두산시절의
전령병 백학림

우리는 만강천 줄기를 따라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되골령의 울울창창한 원시림속에 스며들었다. 계절을 따지면 여름이 끝나지 않은 때였으나 고산지대의 넓은잎나무들에는 단풍이 돌고 선기가 났다.

우리는 되골령을 넘는 이 행군길에서 26번째의 국치일을 맞이하였다.

만강을 떠난 우리가 신들메를 갈아대며 남하행군을 다그치던 그 시기는 또한 제7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일본 육군대장 미나미가 서울에 들어서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무송현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신문지상을 통하여 미나미가 우가끼의 뒤를 이어 새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우리들과 엇비슷한 때에 조선에 들어서리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미나미의 서울행차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 진출이 같은 때에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심리에 미묘한 자극을 주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네들은 처음부터 그 강점을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합방≫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강도행위였다. 강도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생활철학이 있다. 남의 것을 강도적으로 빼앗아 거머쥐고는 그것을 찾자고 하는 주인을 도리어 강도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적반하장에 이골이 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비칭으로 사용한 ≪비적단≫, ≪마적단≫, ≪공비단≫하는 따위의 표현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강도의 논리를 타고 고안된 악명들이다.

강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죄다 거꾸로 뒤집혀지는 법이다.

불청객 미나미는 제법 주인행세를 하면서 대낮에 서울장안으로 버젓이 들어서고 반면에 주인인 우리들은 길도 없는 밀림을 헤치며 제 나라 땅으로 숨어들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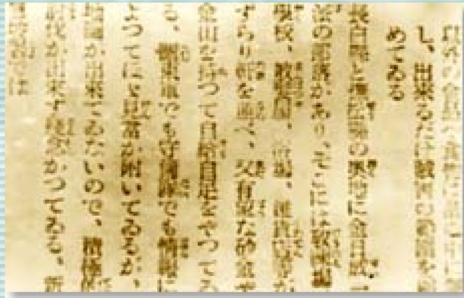
나는 되골령을 넘어서자 본래의 행군계획을 변경시켜 압록강 연안을 에돌아 백두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였다. 국경지대의 인민들도 만나보고 국내동포들에게 우리의 총성도 들려주자는 것이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덕수골이었다. 우리 부대에는 이제우, 형권삼촌이 지도한 장백지방의 지하조직에서 다년간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다가 입대한 대덕수

출신의 신입대원이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현민이였다. 그가 혁명군에 입대한 것은 우리가 무송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약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장사를 하느라고 무송으로 들락날락하다가 우리 공작원들의 알선으로 나도 만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다.

우리는 강현민과 김주현이네 선발대를 통하여 덕수골 일대의 주민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해하였다.

덕수골은 장백의 모든 주민지구 가운데서도 농촌혁명화가 가장 잘된 고장이였다. 그곳에는 3.1 인민봉기 이후 독립운동자들이 개척해 놓은 반일애국투쟁의 전통과 그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온 믿음직한 군중토대가 있었다.


백두산 근거지 창설에 대한 신문보도자료

덕수골은 강진건이 지도한 독립군의 본거지였다. 독립군은 덕수골에 4년제 소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과 농민들에 대한 계몽활동도 하였다.

팔도구시절에 우리 아버지도 여러 번 이 고장을 다녀갔다. 독립군단체들의 해체로 독립군 운동이 쇠퇴기에 들어서고 있을 때 이제우의 무장소조가 ≪ㅌ · ㄷ≫의 강령을 들고 덕수골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었다.

이제우가 체포된 후에는 형권삼촌이 최효일, 박차석과 함께 덕수골을 거점으로 삼고 이 일대에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장백지방에는 백산청년동맹 산하조직이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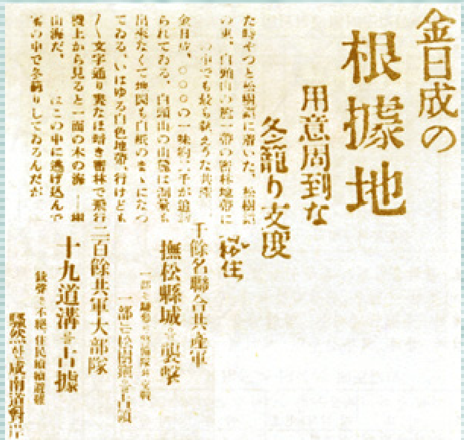
동맹은 정치군사훈련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유격대원 후비들을 육성하였다.

조선혁명군무장소조가 국내로 떠나가고 동맹간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에도 동맹원들은 지하에서 꾸준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계몽되고 교양되고 혁명화된 대중적 지반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부대가 덕수골 지경에 들어서자 김주현은 선발대로 나와 활동할 때 믿을만한 인물로 점찍어 두었던 염인환노인의 집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어느 구석을 둘러보나 가난이 푹 배어 있는 촌의원네 집이였다. 침술이 능하기로 소문나서 덕수골 일판에서는 물론이고 장백이나 임강, 지어는 압록강 건너에서도 발구나 달구지로 모셔가기도 하는 의원이라지만 약값의 본전도 걷어들이지 못해 이 집의 안주인은 끼니때마다 빈바가지를 치마폭에 감춰들고 쌀동냥을 다니는 형편이라 하였다. 그전날 의원간판을 내걸었던 팔도구와 무송 시절의 우리 집을 방불케 하는 살림이였다.


金日成の根據地

用意周到な冬籠り支度

千餘名聯合共產軍

撫松縣城を襲撃

二百餘共軍大部隊

十九道溝を占據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신데 대하여 쓴 신문보도와 출판물

염노인은 자청하여 내 손맥을 짚어보고 지나치게 과로하고 식음을 소홀히 한탓에 신기가 허해졌다면서 산삼 한 뿌리를 내놓았다. 만강의 허락여노인도 우리와 헤어질 때 몸보신에 쓰라고 하면서 장철구와 백학림에게 산삼 몇 뿌리씩을 쥐어주었다고 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무송에서 **김**장군이 인솔한 항일연합부대에 얻어맞고 수백 명이나 북망산귀

신이 되였다는데 그게 정말이웨까?≫

염노인이 나에게 한 질문이였다. 무송현성전투소식이 벌써 이 고장에도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였다.

내가 정말이라고 하자 노인은 무릎을 철썩 쳤다.

≪됐수다. 이제는 조선이 살아났수다!≫

우리에게 하루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한끼의 감자보리밥을 내놓은 것 때문에 훗날 염인환노인은 이도강경찰서에 끌려가 학살되였다. 노인이 당한 불행을 상기하느라면 지금도 살이 떨린다. 언제인가 소부대를 데리고 그 지방을 지나게 된 기회에 나는 일부러 염노인의 묘소를 찾아서 제주를 붓고 절을 드리였다.

다음날 우리는 새벽이슬을 걷어내며 대덕수로 향하였다. 발밑으로 마을이 굽어보이는 등성이에서 삶은 감자 몇 알씩으로 대강 조반을 굼때였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에게 깃발대를 준비하였다가 대덕수로 내려갈 때 대열선두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소리를 내라고 지시하였다. 기가 눌려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를 맞이한 대덕수 사람들의 기쁨과 놀라움은 한량없었다. 신식보총에 기관총까지 그쯘하게 갖춘 수백 명의 조선군대가 대낮에 그것도 깃발을 들고 천하가 들썩하게 나팔소리까지 내며 나타나기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하였다.



소덕수의 꼽새령감
김득현

나는 이 고장 사람들에게 만강에서와 같은 연극공연을 펼쳐 보일 작정으로 가설무대를 준비시켰다. 그러나 점심이나 지내고 하려던 공연계획은 실현할 수 없게 되였다. 점심상을 받아놓고 수저를 들려는데 불시에 적들이 밀려들었다. 그 바람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다 익은 곡식이 피해를 당할까봐 마음씌어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적들은 보리밭 맞은편에서 고랑을 따라 접근해왔다. 나는 적들이 보리밭을 거의 다 벗어져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격신호를 울리었다.

우리 대원들이 그 싸움을 솜씨있게 치르었다. 적들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도강쪽으로 퇴각하였다. 그것이 장백에 나와서 진행한 첫 싸움이였다. 대덕수에서 울린 첫 총성으로써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에 나왔다는 것을 조국인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적들에게도 알려주었다.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거리였다. 이웃마을사람들까지 대덕수에 모여들어 우리의 승전을 축하해 주었다. 인민들은 감자떡을 치고 농마국수를 눌러 우리를 환영하였으며 우리 대원들은 춤과 노래로 그에 답례하였다. 나는 선동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팔자수염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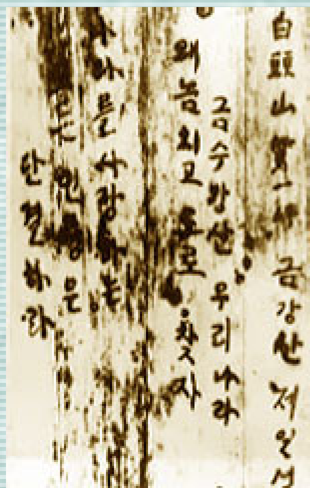
≪장군이 백두산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싸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라≫하고 소리만 쳐주시오. 그러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우다. 나도 비록 늙고 허리굽은 몸이지만 아무 시중이건 다 들 수 있수다.≫

후에 알고보니 그 고무적인 말을 해 준 노인이 소덕수의 ≪꼽새영감≫이였다.

≪꼽새영감≫에 대해서는 ≪대통영감≫도 잘 알고 있었다. ≪대통영감≫이 군비단에서 함경남도 통신사무국장으로 사업할 때 ≪꼽새영감≫은 거기서 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대통영감≫은 10여년만에 감격적인 해후를 하게 된 옛날의 전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꼽새영감≫의 본명은 김득현이다. 김세현은 독립군 활동을 할 때부터 쓰기 시

작한 가명이다. 그는 선천적인 곱사등이가 아니였다. 그저 곱사등이처럼 등이 몹시 굽었을 뿐이다. 본래는 그도 허리가 꼿꼿하고 가슴이 쩍 벌어진 균형잡힌 몸매의 청년이였다. 그가 꼽새처럼 허리가 휘어든데는 경의를 표할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함경도 태생이였는데 ≪합방≫ 직후의 음산한 시절에 살길을 찾아서 덕수골로 이주해왔다. 이 고장은 떠나온 고향과 조국에 대한 향수로 살아가는 유랑민들의 개척촌이였다. 덕수골에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 고향에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군비단이라는 것이 생겨나자 김득현은 주저없이 거기에 입단하였다. 그는 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3살짜리 귀한 딸을 남의 민며느리로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무기를 구하려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 먼 러시아 땅에 가서 그 곳 싸움터에까지 뛰어들었다.



백두산밀영의
구호나무

그러나 10여년에 걸쳐 그처럼 헌신적으로 활약한 것 때문에 후에는 여느 단우들보다 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수인들은 하루 14시간, 15시간씩 수동직기로 천을 짜내는 일을 강요당하였다. 조금만 허리를 펴도 채찍과 몽둥이가 그들의 등어리를 사정없이 들부시었다. 7-8년간이나 지속된 그 지긋지긋한 고역은 마침내 김득현의 허리를 영영 휘어놓고야 말았다.

≪꼽새영감≫은 폐인처럼 보였으나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애국열과 투쟁열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그가 이제우의 무장소조에 선참으로 흡수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는 김주현을 만난 때로부터 우리가 백두산에 나오기를 일일천추로 고대해왔다고 고백하였다. 김주현은 장백에 선발대로 나왔을 때 이미 그와의 친교를 맺어두었다.

간단한 연예공연과 연설을 마친 다음 나는 부대에 철수명령을 내리었다. 마을사람들은 정을 붙이자마자 이렇게 훌쩍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루밤만이라도 묵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부득이 떠나야 할 까닭을 설명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적들이 증원대를 끌고 어느 시각에 달려들지도 모르니 우리가 자리를 떠야 마을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떠날 때 길잡이는 다름아닌 ≪꼽새영감≫이 하였다.

나는 김득현노인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등사되어 있는 소책자를 주었다. 우리가 압록강 연안에 나와서 이 소책자를 준 사람으로는 그가 첫 번째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덕수지구에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생겨났다.

≪꼽새영감≫은 16도구의 한 분회 성원이였다. 덕수지구의 여러 말단조직들 가운데서 그 분회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였다. 오늘날의 총련에서처럼 모범분회라는 칭호를 제정할 수 있었다면 그 분회가 제일 선참으로 모범분회가 되었을 것이다. 김득현노인은 여러 마리의 개를 길렀다. 후각이 유달리 예민한 그 영악한 맹견들 때문에 밀정이나 경찰들은 그 집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였다.

그 집 개들이 사람을 신통히 가려냈다. 우리 사람들이면 초면인물이 접근해도 짖지 않았다. 김주현, 김확실, **김정숙**을 비롯하여 개별공작을 나가는 우리의 소부대성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덕수지구에 가면 ≪꼽새영감≫의 덕을 많이 입고는 하였다.

김정숙이 한번은 단독임무를 받고 장백현 중강구쪽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우리가 백두산에 나온 그 해 초겨울이였다. 그 당시 개별임무를 받고 나다니게 되는 동무들은 도중양식으로 생쌀이 아니라 주먹밥이나 삶은 감자 같은 익은 음식을 가지고 다녔다. 간도의 항일근거지들에서도 개별임무를 수행하는 통신원들은 그렇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다닐 때에는 망을 세워놓고 밥을 지어먹어도 되지만 혼자서는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먹을 수 없었다. ≪산사람≫이라는 표적이 나기 때문이다. 정숙이도 삶은 감자 몇 알을 싸들고 요방자를 떠났다가 노상에서 언 시래기를 씹고 있는 노파와 아이를 만났다. 정숙은 그 정상에 너무도 가긍해서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자기의 도중식사를 그 유랑 고아와 노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나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놓으며 산길을 톺았다. 훗날 그는 자기가 어떻게 ≪꼽새영감≫네 집에까지 가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꼽새영감≫ 내외가 자기의 양 옆에 미음그릇과 숟가락을 든채 울며 앉아 있더라는 것이다.

그 집 내외는 미음도 써주고 녹두지짐도 부쳐주고 종자닭을 잡아 곰도 해주면서 정숙이를 극진히 간호하였다. 그런 간호가 아니였더라면 자기가 살아서 백두산밀영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정숙은 해방 후에도 여러 번 외웠다.

≪꼽새영감≫이 우리 밀영에도 여러 번 왔었다. 온전치도 못한 몸으로 후원물자를 지고 들어왔다가는 기회를 엿보아 다른 사람 모르게 나를 찾고는 하였다.

우리가 반절구전투를 할 때에도 그는 길잡이를 서 주었다. 1939년에 소덕수의 수림속에서 5.1절 경축대회를 벌였을 때에는 농민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1942년 초에 나는 ≪꼽새영감≫이 병사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백두산 시절에도 그 후에도 ≪꼽새영감≫에 대하여 종종 추억하고는 하였다.

1947년 11월 나는 갓 설립된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에게 입힐 교복이 마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고 싶어서 원아들을 몇 명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집에 온 아이들 중에는 ≪꼽새영감≫의 아들 김병순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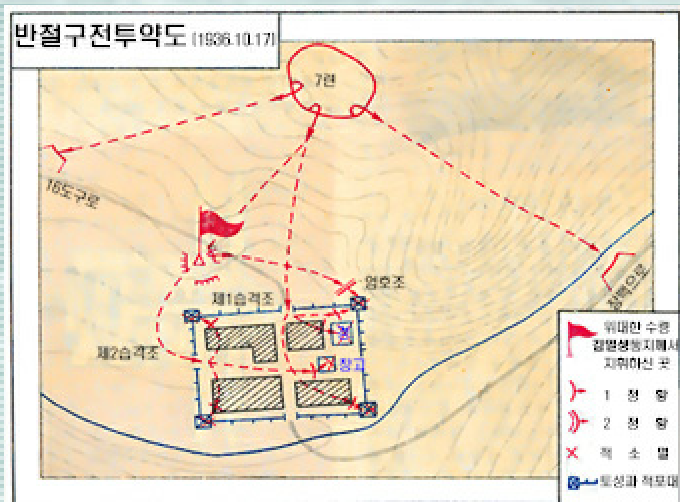
그 후 학원으로 찾아간 **김정숙**은 병순이를 따로 만나 유격대 시절부터 애용해오던 만년필을 선물로 주면서 공부를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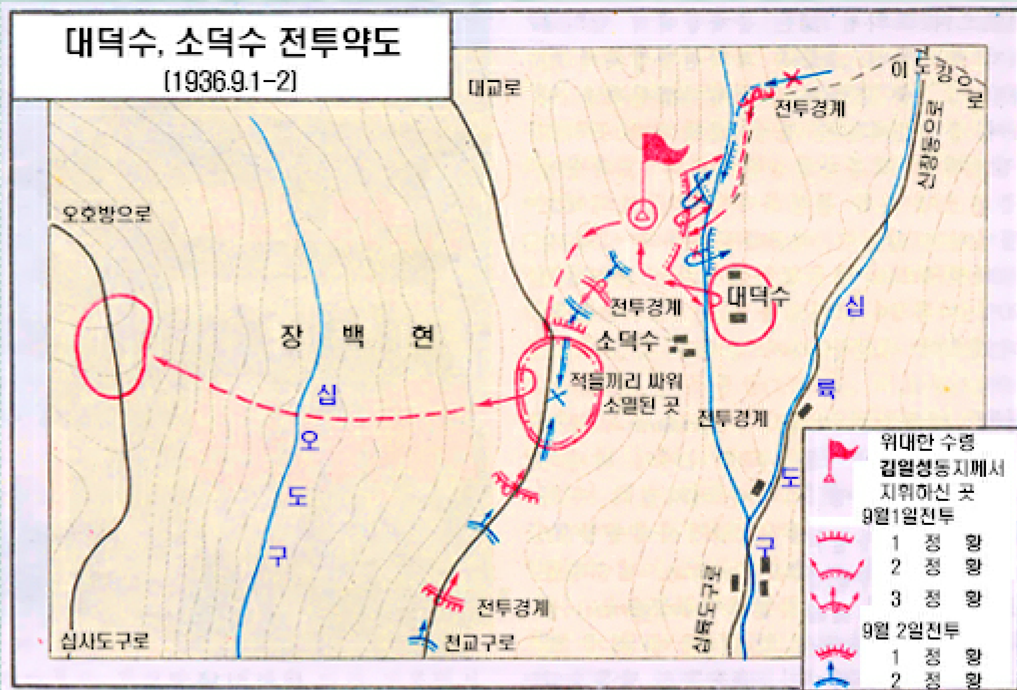
1949년 8월 김병순은 새 군관복에 소대장 견장까지 달고 나와 **김정숙**앞에 나타났다. 경비소대장으로 배치되어 온 것이다. 정말 기이한 인연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우리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정숙동무를 잃은 슬픔도 함께 겪었고 충청북도 수안보의 전선사령부에도 같이 갔으며 자강도 고산진의 최고사령부에도 같이 가서 지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곁에 가까이 있었다.

나는 항상 내 신변 가까이에서 떠돌고 있는 ≪꼽새영감≫의 마음을 느낄적마다 대덕수 마을에서 그가 한 말과 소덕수 등판의 달밤을 추억하고는 하였다.

소덕수등판에서 숙영한 이튿날 우리는 부대를 마등창수림속에 이동시키고 대원들을 휴식시켰다. 나도 풀밭에 누워 책을 보다가 굳잠이 들었는데 총소리가 났다. 15도구





방향과 이도강 방향에서 밀려온 적들이 남북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성한 숲은 적아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였다. 만일 우리가 감쪽같이 빠져나가면 적들의 협공을 저들끼리의 골육상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는 마등창수림에서 슬쩍 빠져나와 15도구골 등판으로 올라갔다. 그 등판에서 적들끼리 싸우는 꼴을 구경하였다. 그것이 세칭 소덕수전투라고 하는 마등창망원전투이다.

그날 적들끼리의 맹렬한 싸움이 서너시간쯤 실히 걸렸던 것 같다. 구경꾼들이 지루할 정도였다. 적들은 이렇게 장시간 싸우다가 이도강쪽 패가 정 못견디겠던지 먼저 퇴각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서야 15도구쪽 패도 제편끼리 싸운 줄 알았는지 사격을 중지하였다.

수백 명의 유격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온데간데 없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이 불가사의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적들은 우리의 ≪둔갑술≫에서 찾은 것 같다. 우리가 ≪둔갑술≫을 써서 ≪승천입지≫하고 ≪신출귀몰≫한다는 소문이 국경지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소덕수전투가 있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날 적들은 담기가 모자라 신창동의 집집마다에서 문짝이라는 문짝은 다 뜯어다가 저들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황황히 꽁무니를 뺐다. 그 통에 신창동사람들은 한동안 문대신 가마니짝을 달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인민혁명군이 울린 총소리는 장백과 그 대안의 조국인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가 감자밭이 결딴난 데 대하여 걱정하자 신창동의 한 농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자밭은 결딴났지만 악귀같은 왜놈군대들이 저렇게 죽탕이 되어 나딩구는 걸 보니 풍년든 감자밭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오다.≫

덕수골 일대에서는 그 후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였다. 그들의 입대는 장백지방에서 혁명군 대오를 급격히 확대시킨 대대적인 참군운동의 서막으로 되었다.

인민혁명군의 장백진출과 군사적 위세앞에서 적들은 대경실색하였다. 장백지방 경찰기관들에서는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공직을 회피하는 이직은퇴 바람이 불었다. 적들의 통치체계에서는 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이도강에서는 집단부락 출입도 앞문으로가 아니라 뒷문으로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장백땅에 와서 군사작전만 한 것이 아니였다. 대중을 교양하고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진행하였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덕수골, 지양개골 일대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도처에 꾸려졌다.

국내에서도 조직들이 꾸려지기 시작하였다.

백두산 주변의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조직들은 새로 창설되는 근거지의 믿음직한 정치적 지반으로 되었다.

우리는 소덕수 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압록강 연안의 여러 마을들을 돌면서 장백현 15도구 동강, 13도구 용천리, 20도구 이종점 등 곳곳에서 연속 전투를 벌였다. 압록강 연안 일대는 벌둥지를 쑤셔 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우리가 우회노정을 택하면서 세웠던 목적은 원만하게 달성된 셈이였다. 이제는 백두산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틀 때가 되었다. 나는 김주현과 이동학을 앞세우고 백두산밀영 후보지로 향하였다. 부대의 기본지휘성원들과 경위대 그리고 일부 전투중대들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장백 쪽에서 좀더 소란을 피우라는 과업을 주어 떨구어놓았다.

김주현, 이동학, 김운신 등에 의하여 탐색된 소백수골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잡아놓은 국내의 첫 밀영 후보지였다. 소백수골에서 서북방향으로 40리 가량 되는 곳에는 백두산이 솟아 있고 20리 쯤 되는 지점에는 선오산, 동북방향으로 15리 정도 떨어진 수림속에는 간백산이 각각 솟아있었다. 소백수골 뒤에 길게 가로놓여있는 산은 사자봉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소백수골로 나온 것은 집을 떠났던 주인이 오래간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경사였다. 항일혁명이라는 큰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활동중심을 동만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집을 떠나서 객지에 얼마간 가있던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이웃들에게도 경사로 되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시인의 시에도 있는 것처럼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 날아날아 떠나고야≫ 만다는 백두의 중중심처 소백수골에는 우리를 축하해줄 만한 이웃조차 없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설레이는 수림과 골개물 뿐이었다. 조국의 인민들은 아직 우리가 소백수골에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대오를 짓고 100리 밖에만 가면 두팔을 벌이고 우리를 뜨겁게 안아줄 조국의 인민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100리 밖에는 총검을 들고 우리를 겨누는 섬나라 불청객들이 있었다. 그 불청객들만 아니라면 우리는 백두산의 눈사태처럼 쓸어내려가 사랑하는 인민들과 격정에 넘치는 상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로지 싸움만이 우리에게 조국동포들과의 상봉을 마련해줄 수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싸움을 위하여 백두산지구에 나왔고 그 싸움을 위하여 소백수골에 보금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곰의골밀영


밀영의 아침

그때 나와 함께 소백수골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금자리로 삼았던 그 깊고깊은 골짜기가 훗날 온 세상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사적지로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낙엽이 끊임없이 떠내려오는 소백수 물줄기를 따라 골안으로 올라갔다.

오늘날 소백수골을 찾아드는 답사자들은 이 고장이 반세기 전만 해도 얼마나 태고연한 적막강산이였는지를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관광버스와 답사자들이 줄지어 다니는 훌륭한 포장도로, 고급호텔에 비겨도 그닥 손색없을 답사숙영소들과 숙영소마을, 사철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렬들과 노래소리, 이 모든 것으로 지금은 지난날의 정적과 정갈이 새롭게 가꾸어졌지만 우리가 첫발을 들여놓던 그 당시는 산짐승들이 지나다닌 자국조차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던 원시림 지대였다. 개벽이래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은 당시의 소백수골은 그 뛰어난 경개와 천험의 요새다운 지세부터가 우리 마음에 들었다.

소왕청 마촌시기에 우리 유격대지휘부가 자리잡고 있은 이수구골의 자리가 대단히 좋았다. 골도 깊고 산세도 험하여 적들이 수월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 어쩌다 가까스로 기여든다 해도 쳐물리치기 좋은 지세였다. 사자봉 아래쪽의 합수목에서 백두산밀영자리로 들어가는 소백수골의 지형과 산세는 신통히도 소왕청의 이수구골과 비슷하였다.

이수구골과 소백수골이 약간 차이나는 점은 이수구골보다 소백수 협곡이 좀더 웅심깊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골안 깊이 들어갈수록 그 차이는 현저해진다. 천산만악을 거느린 백두영봉의 갈피속에 자리잡은 골짜기인 것만큼 역시 골도 깊고 산도 덩치가 컸다.

우리는 어둡기 전에 장수봉 맞은 편 산언저리와 소백수가에 숙영천막을 치고 그 날밤을 지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5(1936)년 9월 조국에서의 첫밤을 보내신 사령부천막자리

나는 하루밤에 서너시간 이상 잠자는 경우가 드물다. 산에서 싸울 때도 대체로 새벽 2시경이면 어김없이 깨어나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는 하였는데 그날밤에는 너무 곤해서 새벽독서를 하지 못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밤사이에 서리가 내렸다.

백두산지구는 여느데보다 겨울도 길고 눈도 많이 내린다.

이 지구에 한 번 내린 눈은 쉽게 녹지 않는다. 6월말이나 7월초까지도 묵은 눈을 볼 수 있는가 하면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는 산정에 내려앉는 햇눈을 볼 수 있다. 눈이 쌓이고 덧쌓여서 사람의

키를 넘는 때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눈속에 굴길을 뚫어야만 다닐 수 있다. 밀영 밖으로 나다닐 때는 설피를 신어야만 하였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깊은 눈구뎅이속에 빠져들어 불상사를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풍과 폭설의 위협을 무시로 받고 있는 이 엄혹한 고산지대에도 사계절의 구별이 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계절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입을 수가 있었다.

나는 노흑산전투를 할 때 청취를 처음 먹어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쌈을 싸먹으면 부루보다 오히려 낫다. 병풍은 장백현 19도구 이훈의 집에 가서 처음 먹어보았다. 그것도 역시 별맛이었다.

그런 산나물들이 백두산지구에 많았다. 청취는 대홍단벌에 많았고 병풍은 삼지연부근에 많았고 무수해는 베개봉에 많았다. 작식대원들이 따들인 그 산나물들이 우리 백두산 ≪주민≫ 들의 여름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는 하였다.

백두산밀영에서 정착생활을 할 때 작식대원들은 터밭을 마련하고 남새농사까지 지었다. 새초밭 한 옆에 터밭이 있었다. 여러 가지 남새농사를 지었으나 배추, 무우는 안되었다. 그러나 부루와 쑥갓만은 잘 자랐다.

소백수의 산천어도 이따금씩 식탁에 올랐다. 그때는 마리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양어가 잘되어 마리수도 많아졌다.

백두산밀영지에 처음으로 들어온 다음날 나는 지휘성원들과 함께 밀영 후보지를 돌아보았다. 선발대 동무들이 내정해 준 병영위치들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남호두를 출발하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의 원정에 대하여 총화를 지었다. 백두산을 타고앉아 해나가야 할 사업에 대하여서도 진지하게 토의하고 분공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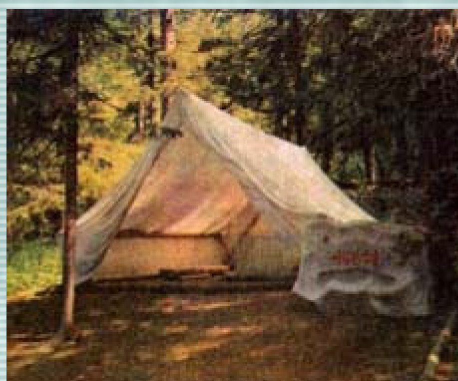
그 모임에서 토의되고 모임 뒤에 곧 실천행동으로 옮겨진 문제를 한마디로 집약하면 우리앞에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백두산근거지 창설을 적극 다그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밀영건설과 조직건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 즉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한다는 것은 백두산지구에 밀영들을 건설한다는 것과 백두산 기슭의 주민지대들에 지하혁명조직들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동만에서 창설하였던 유격구와 후반기에 백두산에 나와서 새로 창설한 백두산근거지 사이에는 내용상에 있어서나 형태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기의 동만유격구는 고정된 유격구를 유격활동의 본거지로 삼은 근거지로서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혁명근거지였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기에 새로 창설한 백두산근거지는 은폐된 밀영들과 지하혁명조직들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한 보이지 않는 혁명근거지였다.

전반기에는 근거지 안의 인민들이 인민혁명정부의 시책속에 살았고 후반기에는 지하조직망에 망라된 인민들이 표면상으로는 적의 통치를 받았으나 안속으로는 우리의 지령과 노선에 따라 움직이었다.

전반기에는 유격구사수를 위한 방어에 큰 힘을 넣어야 하였지만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격활동을 광활한 지역에서 벌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근거지 형태를 바꿈으로써 주동적인 공격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거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의 활동영역은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어있었다.



선오산밀영의 사령부자리

우리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장백의 넓은 지역과 장차로는 백두고원, 개마고원, 낭림산줄기로 뻗어나가면서 근거지를 국내종심깊이 확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북부조선으로부터 중부조선을 거쳐 남부조선에 이르는 전국적판도에로 번져가게 하는 동시에 당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전민항쟁준비도 강력히 추진시킬 작정이였다.

밀영망창설과 지하조직망건설이 이처럼 우리들의 존망과 생사운명, 나아가서는 항일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로 되어있은 것만큼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밀영건설을 1차적 과제로 내세우고 이 과업을 각 부대에 맡기였다. 먹고 입는 문제의 해결과제는 김주현에게 맡기였다. 밀영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이 두 가지 문제는 통속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식의주문제이기도 하였다.

지하조직망 건설을 방조해 줄 인재를 적극 탐색하며 우리 인민의 사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이 광복성업에 발벗고 나서도록 필요한 전투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과업은 이동학의 중대에 맡겼다.

지휘관들은 백두산근거지 창설을 위한 분공수행에 지체없이 착수하였다. 김주현과 이동학이 중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그밖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개별임무를 주어 공작지로 떠나보낸 다음 나도 경위대와 7연대의 일부 성원들을 데리고 곰의골로 향하였다. 황공동부락에서 갈라진 부대의 기본역량과 만나게 되어있는 곳이 곰의골이였다.

소백수골에서 곰의골로 갈 때의 걸음이 자못 인상적이였다. 나는 그때 선오산과 삼단폭포를 보았는데 참으로 신비경이였다. 우리 일행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대탁온천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쪽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수림의 바다에서 향방을 잡지 못하고 2시간나마 왔다갔다하다가 몇 개의 정찰조를 여러 방향으로 내보냈더니 그중의 한 정찰조가 노인 한 분을 모셔왔다. 백두산턱밑에서 홀로 산다는 늙은이라는데 만강쪽에 소금과 좁쌀을 얻으러 내려갔다 오던 길에 우리 정찰조를 만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그가 사는 대탁의 초막으로 갔다. 그 초막 옆에는 아주 좋은 온천이 있었다. 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가재를 넣으면 빨갛게 익었다. 우리는 그 물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재도 익혀 먹었다. 언제인가 텔레비젼화면에서 이슬란드사람들이 추운 한겨울에 야외온천욕을 하는 것을 보니 대탁에서 온천욕을 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때 대탁의 노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되어 백두산턱밑에까지 들어와 살게 됐는가고 물었더니 노인의 대답이 원래는 별방에서 살았는데 시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조종의 산으로 올라왔다고 하였다.

≪망국노의 수치를 안고 죽기는 매일반인데 죽어도 백두산밑에 와서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요. 나에게 천자문을 배워주던 서당 훈장님은 늘 조선사람은 백두산을 안고 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수다. 정말이지 그 말씀은 비석에라도 새겨두고 싶은 금언이였습지요.≫

미간을 쪼프리고 백두산쪽을 응시하는 노인의 시선을 따라 끝없이 가노라면 그가 걸어온 구질구질한 한생의 진창길이 펼쳐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심경이 자못 엄숙해졌다. 백두산밑에서 살다가 백두산을 베고 죽겠다는 노인의 말은 나를 감동


사령부의 내부

시키였다.

≪그래 백두산 두메맛이 어떻습니까?≫

≪별맛입니다. 감자농사와 노루사냥으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왜놈의 꼴을 보지 않으니 살이 지는 것 같수다.≫

그 노인과의 담화는 나로 하여금 백두산의 존재가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에서 굳건한 기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하였으며 백두산을 혁명의 책원지로 삼은 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절감하게 하였다. 이웃도 없이 홀몸으로 백두산에서 인생말년을 강인하게 보내는 그는 참으로 애국적인 노인이였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 늙은이의 성씨를 묻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다.



사자봉밀영의
출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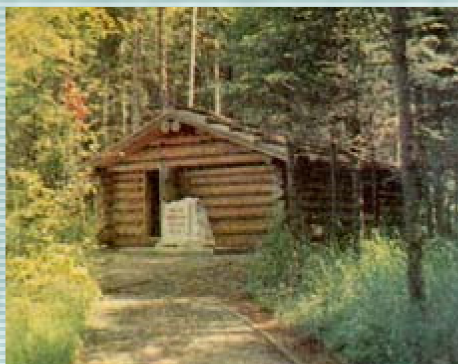
나자구 등판의 마노인처럼 그에게도 책이 많았다. 우리가 온천욕을 마치고 대탁을 떠나 곰의골로 향할 때 노인은 나에게 여러 권의 소설책을 선물하였다. 훗날 우리는 바로 대탁온천지에 전장에서 부상당한 대원들과 허약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꾸리였다.

우리 일행이 곰의골에 도착한 후 어느 날 교하지방에서 활동하던 2연대 성원들이 곰의골로 찾아왔다. 권영벽, 오중흡, 강위룡 등이 바로 그때 교하에서 돌아온 사람들속에 끼여 나와 함께 쌓였던 회포를 나누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였다고 하였다. 추운 날씨에 홑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백두산으로 찾아오다가 어느 목재소를 치고 소를 얻었는데 우리를 위해 두 마리는 산채로 끌고왔다. 피골이 상접한 그들의 모습과 헐어빠진 여름군복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들도 나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에게 새옷을 갈아입혔다. 겉옷 뿐 아니라 내의도 갈아입히고 행전과 지하족도 갈아주었다. 세면도구도 일식으로 공급해주고 담배와 성냥까지 내주게 하였다.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교하쪽에서 돌아온 강위룡은 박영순과 함께 곰의골, 횡산, 홍두산 지구의 여러 곳에 밀영들을 꾸리였다. 박영순과 강위룡은 도끼 하나만으로도 1개 연대가 넉근히 숙영할 수 있는 커다란 귀틀집을 2-3일 사이에 척척 지어내는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장백지구의 밀영건설에서는 아마 그 두 사람의 수고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조국안이네 부대 사람들이 곰의골에 왔을 때 우리 부대 사람들이 단 하루사이에 자기들의 숙소를 지어놓은 솜씨를 보고 경탄하였던 것도 사실은 그들의 덕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자봉밀영의
사령부귀틀집

내가 곰의골에서 얼마동안 지내다가 소백수골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지점의 밀영지들에 새 귀틀집들이 일어섰다. 사령부와 부대 병실들, 출판소와 재봉소 건물들, 위병소와 차단소들이 밀림속 곳곳에 생겨났다.

밀영의 귀틀집 출입문들에 노루발쪽손잡이가 달리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어

그 하찮은 노루발쪽손잡이가 나에게는 역사적 시기를 구획짓는 이정표처럼 뇌리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백두산≪주택≫들에 노루발쪽이 문손잡이로 달리게 된 때로부터, 다시말하여 소백수골에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꾸려지게 된 때로부터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본거지로, 중심적 영도거점으로 되었다.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동시에 심장부였으며 우리의 중핵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다.

바로 그 백두산밀영으로부터 미구에 북부, 중부조선의 곳곳에 부채살같이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밀영들에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혁명의 불길을 지피기 위하여 권영벽, 김주현, 김평, **김정숙**, 박록금, 마동희, 지태환 등의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전국각지로 떠나갔으며 또한 백두산으로 우리를 찾아왔던 이제순, 박달, 박인진 등의 수많은 인민의 대표들이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안고 다시금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의 부대들이 원쑤들을 찾아 출전의 길을 떠났다. 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크고작은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백두산밀영에서 구상되고 설계되고 행동에 옮겨졌다.

백두산밀영망에 속한 위성밀영들은 조선쪽에도 있었고 중국쪽에도 있었다.

사자봉밀영, 곰산밀영, 선오산밀영, 간백산밀영, 무두봉밀영, 소연지봉밀영 등은 조선쪽에 꾸려놓은 밀영들이였으며 곰의골밀영, 지양개밀영, 이도강밀영, 횡산밀영, 이명수밀영, 부후물밀영, 청봉밀영들과 무송지구의 여러 밀영들은 서간도쪽에 꾸려놓은 밀영들이였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그 모든 밀영들은 다 이용하였다.

백두산지구의 밀영들은 각이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순수한 비밀병영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재봉소나 무기수리소, 병원 같은 후방밀영의 역할을 한 것도 있었으며 공작원들의 중간연락소나 숙영소 역할을 한 것도 있었다.

백두산밀영망의 심장부는 소백수골의 밀영이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리는 소백수골의 밀영을 ≪백두산 1호 밀영≫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백두산밀영≫이라고도 부르고 ≪백두밀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최대한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사령부 직속부서 성원들과 경위대를 포함한 일부 골간부대만 있게 하고 출입도 엄격히 제한단속하였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상시적으로 지내지 않는 부대나 개별적 사람들이 사령부에 찾아왔을 때에도 소백수골의 밀영에서 만나지 않고 2호 밀영(사자봉밀영)에 나가 만나주고는 하였다. 2호 밀영에서는 사령부를 찾아온 부대나 개별적인 방문객들을 맞아도 주고 쉬우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강습이나 훈련도 주었다. 2호 밀영은 사령부를 찾아온 사람들의 접수소인 동시에 대기소이기도 하였고 면담소인 동시에 숙소이기도 했으며 또한 강습소인 동시에 훈련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사령부로 찾아오는 통신원들도 흔적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명수 쪽에서 올라오다가 소백수골 어귀에서부터는 소백수물줄기를 따라다니게 하였다. 우리는 밀영의 처소들을 누구에게나 다 알리지 않았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밀영도 아니다.

백두산밀영과 그 주변 밀영들이 있는 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은 것은 김주현과 김해산, 김운신, 마동희와 같이 연락임무를 도맡다시피 했던 몇몇 사람들과 소수의 지휘성원들 뿐이였다.

백두산밀영과 그밖의 다른 밀영들 그리고 거기서 지냈던 우리 ≪주민≫들이 항일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자기들의 존재를 고이 숨겨 보존할 수 있은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백두산은 나의 청춘시절의 ≪집≫이였다. 어린 시절의 고향집 식솔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식솔들이 나와 함께 거기서 지내며 백두산의 눈비를 맞았고 오늘의 조국을 꿈꾸었다.

백두산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전날의 백두산 개척자들 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후세들에게 백두의 갈피갈피에 차넘치는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선열들의 투쟁업적을 소개하고 전해주어야 할 선대로서의 사명을 제때에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건당, 건국, 건군 사업과 전쟁, 복구건설 등 하도 많은 일감을 짊어지고 있다보니 젊어서는 백두산 시절의 본거지로 와볼짬을 내지 못하였다.

박영순이네가 살아있을 때에 백두산밀영의 옛 자리들을 후대들에게 찾아주라고 몇 번이나 일렀지만 그전날의 그 날파람있던 목수도 자기들이 직접 지은 곰의골이나 지양개, 횡산의 밀영자리들과 청봉, 베개봉, 무포 같은 숙영지 자리까지는 찾아내면서도 백두산밀영자리는 끝내 못찾아내였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 밀영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결국 백두산밀영자리는 늦게나마 내가 찾게 되였다. 어쩌다 짬이 생긴 김에 백두산지구 밀영들을 꾸려놓은 것을 보고싶어 그곳에 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소백수다리가 있는 한 고장의 지세가 하도 눈에 익어보여 답사성원들을 소백수골로 파견하였다. 100여길쯤 되는 벼랑바위 봉우리가 있는 골 안에 찾아 들어가면 그리 넓지 않는 새초밭이 있을테니 한 번 찾아보라고 일러보냈다. 그러면서 그 골안은 산과 산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아서는 잘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 지구가 당시까지만 하여도 어찌나 무시무시하고 험했던지 압록강 연안 참관도로를 내기 위하여 언제인가 현지에 책임서기와 군사무관을 답사보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만 원시림속에서 길을 잃고 숱한 애를 먹은 일도 있었다. 호위중대를 보내어 그들을 겨우 찾아 데려왔다. 실로 미혼진에 못지않는 혼미의 지대였다. 소백수골로 들어간 탐사, 답사 성원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먼저 구호나무들을 발견한데 이어 집자리와 숙영지 자리들도 찾아내였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후세들앞에 백두산밀영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에게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는 학교로 되고 있다. 광활한 백두대지에는 대노천혁명박물관이 형성되었다.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는 풍부해졌다. 실제에 있어서 백두산은 이미 30년대 후반기에 자기의 고유한 상징적 의미외의 새 의미를 띠기 시작하였다.

사화산이던 백두산에서 분출한 ≪광복혁명≫의 용암은 2천만 동포의 주목을 끌었다. 항일혁명의 불길이 미쳐간 곳곳을 돌아본 작가 송영은 자기의 답사기행문집에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는 표제를 붙였다. 그 표제가 말하듯이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이는 광복의 활화산, 혁명의 성산으로 되었다.

6. 애국지주 김정부


장백현의 지주 김정부

세계의 정치무대에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한 때로부터 만국의 무산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라!≫는 구호를 들었다. 우리 나라의 근로대중도 이 구호를 외치며 오랫동안 외래제국주의세력과 결탁된 반동적인 착취계급을 매장하기 위한 준엄하고도 첨예한 계급투쟁을 벌려왔다.

한때는 국민부의 정당조직인 조선혁명당의 좌파인물들까지도 타도 지주, 타도 자본가를 자기들의 투쟁목표로 선포하고 타도선풍을 일으켜나갔다.

우리도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는 것을 자기의 이념으로, 투쟁목표로 삼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숨기지 않았다. 남의 피와 땀으로 기생하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 견지해오고 있는 원칙이다. 나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착취자들을 반대하고 있다. 수억만 근로대중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재부를 탕진하여 호의호식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증오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부의 분배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이념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진보적 인류가 다 긍정하고 있다. 우리는 한줌도 못되는 몇몇 유산자들과 그 대변자들에 의한 정치적 독재, 경제적 독점, 도덕적 타락을 반대하며 그 모든 것에 조종을 울리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물론 구체적 실천에서는 착취계급을 타도하는 문제와 그 계급의 개별적 존재, 개개의 유산자를 대하는 문제를 엄격히 갈라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혁명시기 일본제국주의와 그 하수인이 된 악질적인 유산자들만을 투쟁의 과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날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계급관계에서 투쟁일면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애국적이며 반제적인 요소를 가진 지주들과 민족자본가들을 대하는데서 좌경을 범하였다. 유산자들을 구체적인 조건과 실태를 고려함이 없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턱대고 청산하며 수탈하고 학대하는 융통성없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반공에 환장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헐뜯을 수 있는 언질을 주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지주,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계급교양이 높은 수준에서 심화되어 모든 일군들이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잘 결합시켜 나가고 있다. 부자일반을 다 나쁘다고 보던 일면적인 견해, 그 경력과 공로에는 관계없이 지주, 자본가 계급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한 방망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던 편협한 관점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입당하였다거나 적재적소에 등용되어 낙천적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자신이 지니는 행운에 못지 않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군중심리이다.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광폭정치에 의해

마련된 귀중한 결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광폭정치를 반세기 전에도 하였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진정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벌써 항일혁명시기부터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출신과 신앙과 재산정도가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지주 김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지주, 자본가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 견해를 이해하는데서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광폭정치의 역사적 뿌리를 파악하는데서 일정한 도움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김정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36년 8월말이였다. 지양개부락에 모연공작을 나갔던 소부대 성원들이 깊은 밤중에 친일지주들이라고 하면서 칠순이 넘어보이는 노인과 그밖의 몇몇 사람들을 데려왔다.

우리는 그때 마가자라고 부르는 이도강 근처의 임산마을에서 군중사업을 하고 있었다.

억류된 사람들의 명단에서 김정부의 이름을 발견한 나는 놀랐다. 그를 ≪친일지주 라고 데려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소부대 책임자를 이동학이라고 회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김정부를 붙들어온 사람은 김주현이다.

나는 김주현을 불러다가 엄하게 물었다.

≪김정부를 타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저 영감은 땅만 해도 자그마치 150정보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 지주가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소유지가 150정보나 되는 지주라고 해서 다 타도대상으로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소?≫

≪사령관동지, 법이라니오.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런 부자 하나만 있으면 열 동네가 망하고도 남겠습니다.≫

나는 김주현에게 그 다음 증거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주현은 김정부가 일본영사관 분관 참사원이란 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 그 참사원이 경상북도 영천인가 어디에서 이또라는 일본인 자본가를 데려다가 김정부에게 6,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알선해 주어 목재상을 하게 했다는 것, 김정부가 자동차까지 한 대 사가지고 장사질을 크게 할 수 있은 것은 다 일제놈 떨거지들을 등에 업은 덕이라는데 대하여 누누이 설명하였다.

≪다른 증거도 또 있소?≫

≪또 있지요. 증거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김정부는 호림회장 겸 농촌조합장의 벼슬을 하면서 만주국 관청출입도 뻔질나게 한다고 합니다. 김정부의 아들 김만두도 제 애비의 그늘밑에서 몇 해 동안 이도강 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정부에게 우점은 전혀 없다던가고 묻자 김주현은 좀 얼떠름해졌다. 우점에 대한 반영은 수집하지도 않았거니와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한 모양이였다.

≪우점이라니요. 그런 친일분자한테 우점같은 게 있을게 뭡니까.≫

소부대 책임자의 보고는 마디마디가 다 부정적이였다. 시종일관 주관적인 해석으로 가득찬 그의 보고는 어쩐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다. 계급투쟁과 계급성밖에 안중에 두지 않고 있던 종래의 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김정부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없는 그들은 우리가 장백땅으로 나오면서 중요한 통일전선사업대상으로 점찍어 놓았던 그에게 ≪친일지주≫니, ≪반동분자≫니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이고 지주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까지도 붙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전선방침에도 맞지 않고 조국광복회창립선언문이나 10대 강령 정신에도 어긋

나는 행위였다.

심지어 그들은 김정부의 집에 전화기가 있는 것까지도 친일의 증거로 삼았다. 그가 전화를 놓은 것은 순수 호강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밀정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였을 것이다, 통화를 한다면 어디하고 하겠는가, 영사관이나 경찰이나 만주국 관청밖에 더 있는가, 그런 놈들과 전화질을 한다는거야 고발질이나 하자는 수작이지 무엇이 더 있겠는가 하고 소부대책임자는 기염을 토하였다. 사실 그 당시 개인이 집에다 전화를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평백성들로서는 꿈에도 상상 못 할 호강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집에다 놓은 전화기를 친일의 표적으로 보고 이적행위의 수단으로까지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생억지가 아닌가. 만일 모든 대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우리의 통일전선정책은 실천에서 엄중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었다. 이것은 김정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였다.

나는 소부대 성원들을 꾸짖기 전에 우선 마음속으로 아래사람에 대한 교양을 심도있게 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였다. 우리가 무송에서 장울화와 거래할 때에도 일부 사람들은 편견을 앞세우면서 우려하였다. 장울화가 보낸 여러 발구의 원호물자와 거액의 돈이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산계급의 인물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장백에 나와서 150정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를 보게 되자 그들의 눈에서는 또다시 가시가 일어섰다.

어찌하여 장울화를 동행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김정부가 통일전선대상으로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가.

이것은 통일전선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교양사업에 빈구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각계각층의 군중속에는 실로 그 경력과 생활처지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인간들이 있다. 그 모든 인간들과의 사업에 다 들어맞는 유일한 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다 참고할 수 있는 원칙만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일인가, 반일인가, 애국애족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으며 반대로 나라와 민족, 인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개인의 향락과 안일을 위해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투쟁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였다.

우리는 김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통일전선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장백에 나오면 그에게 협조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든가 밀영에 데려다가 만나려고 계획하였다.

≪내가 보건데 김정부에 대한 동무들의 평가는 도식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사람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안된다. 동무들이 친일지주라고 보는 김정부는 사실 애국지주이다. 내가 그의 과거를 잘 안다. 동무들은 지양개에 나가서 한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김정부가 여사여사하고 김하사가 여사여사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망탕 평가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속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다. 김정부가 그렇게 나쁜 지주일 것 같으면 지양개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네 마을에다 그의 송덕비를 세웠겠는가. 동무들은 지양개에 김정부의 송덕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소부대 성원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소부대 성원들에게 동무들이 김정부의 과거경력을 알게 되면 친일지주라고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타도대상이 아니고 포섭대상이며 반동지주가 아니고 애국지주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증한다고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우리가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모르고 김정부를 잘못 취급했습니다. 소부대의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그를 지양개에 돌려보내겠습니다.≫

김주현이 자책감에 못이겨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도 한 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돌려보내지는 마시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밀영에 데리고 들어가서 품을 놓고 담화를 해보고 싶소. 동무들을 대신하여 사과는 내가 하겠소.≫

그날 나는 소부대 성원들에게 김정부를 통일전선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 지주의 경력은 그날중으로 온 부대에 다 알려지게 되였다.

김정부의 출생연대는 대체로 1860년대 초라고 짐작된다. 우리가 장백지방에 나갔을 때 그는 벌써 70대에 이른 늙은이였다.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의주군 청수동이다.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의주태생인 장철호는 부호라는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군 운동에 투신해온 김정부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자주 말해주었다. 김정부의 아들 김만두는 장철호와 오동진의 청수동시절의 죽마고우이다.

독립군이 장백땅에서 한창 기세를 올릴 때 김정부는 군비단의 남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가산을 털어 독립군에 천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방물자들을 대주었다. 군세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지양개에서 농마도 내고 물방아를 놓고 쌀도 찧어 단의 식량으로 섬겼다.

김정부의 집은 길림, 무송, 임강, 팔도구, 화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이 장백으로 왕래할 때 이용한 숙박소인 동시에 회합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 연고를 보더라도 나는 김정부 노인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처지였다.

김정부는 후대교육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지양개골 안에 그가 주관하는 구학서당이 생긴 것은 1920년경이었다. 자기 작인의 자식들을 다른 고장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개명시켜보려는 야심은 그로 하여금 구학서당을 신학문위주의 4년제 소학교로 개편하게 하였고 얼마후에는 그 학교를 15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6년제 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김정부는 인접부락들에서 지양개로 찾아오는 아이들까지도 다 학교에 받아들이었다. 그 종산사립학교의 운영비와 교원들의 생활비는 작인들에게서 받은 소작료로 보장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주독립과 애국애족의 사상을 심어주는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양개의 소작농들은 자원적으로 소작료를 냈다. 농사작황에 따라 한 가마니를 바치고 싶으면 한 가마니를 바치고 열 가마니를 바치고 싶으면 열 가마니를 바치었다. 그것은 김정부가 지주로서 작인들에게 토지의 양과 질에 따르는 현물납부량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주와 작인들 사이에는 소작계약조차 맺어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1년 소출중에서 몇 프로는 농민이 먹고 몇 프로는 지주에게 바친다는 약속이 없었다.

한때 지양개에서 김정부의 소작농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항일혁명투사 이치호는 세상에 김정부와 같이 선량하고 통이 큰 지주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지주의 땅을 부치면서도 소작료가 얼마인지를 몰랐다, 장리쌀을 여러 번 가져다 먹으면서도 이자를 붙여 돌려준 일이 없다, 그래도 김정부는 추궁하지 않고 매사를 작인들의 자원성에 맡기었다, 인민들이 그의 집앞에 송덕비를 세운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가 지양개 등판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그것은 사실 벌방에 있는 15정보의 옥답보다 별로 나은 것이 못되었다고 말하였다.

지양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바이≫, ≪우리 부장님≫, ≪우리 교주어른≫하면서 김정부를 찬양하였다. 그것은 실로 흔치 않은 일이였다.

이웃의 지주들은 김정부의 덕행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작인들이 지양개를 넘겨다보며 김정부의 소작농을 부러워할까봐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을 맺지 않고 소작료를 내키는대로 납부하게 하는건 지나친 선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는 살림살이가 3-4년 안팎에 거덜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부를 설유하였다.

이웃의 지주들이 이따금씩 그런 걱정을 해도 김정부는 꿈만해하였다. 소작계약이 없다고 우리 세 식구가 굶어죽기야 하겠는가. 작인들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고 작인들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것이니 그런 이치를 생각해서 인정을 품앗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다.

김정부가 이런 선덕을 지닌 부호였기 때문에 만주국 관청이나 일본영사관에서도 그를 감히 허술하게 대하지 못하였다.

소부대성원들이 데리고 온 지주들 가운데는 김하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도 역시 애국적인 지주였다. 그에게 김하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구한국의 신식군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본명은 김정칠이었다.

김하사는 10대의 나이에 이조군대에 탄원하여 일찍부터 군인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였다. 한때는 우리 나라 첫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참군하였으며 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에 열렬히 공명하기도 하였다.

농촌초부와 같이 소박하고 정결한 그의 모습에는 강건한 정치적 신념이 비껴있었다. 갑오개혁때 왕궁호위를 전문으로 하는 시위연대에 있던 그는 그 후 진위대로 옮겨갔으며 망국 이후에는 의병활동에 뛰어들었다가 의병운동이 조락하자 생업에 파묻히였다.

김하사는 구한국말기 신식군대가 존재한 거의 전기간을 하루와 같이 근실하게 복무한 군인으로서 이조군대의 사멸과정과 근대조선이 겪어온 파란만장의 국난을 고스란히 체험한 역사의 산 증견자였다. 김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오랜 기간을 만근하면서도 하사관 이상의 직급에 등용되지 못한 것은 북관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하사는 이조의 위정자들이 정배지라고 차별시하는 갑산출신이었다. 봉건조정이 군정개혁도 표방하고 문벌폐지도 부르짖었으나 서북관 사람들을 인재등용에서 제외하던 구시대의 유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하사는 10정보의 땅과 여러 마리의 부림소를 가지고 있는 지주였으나 사고와 행동에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애국자였다.

그런데 그때 적지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김정부나 김하사같은 사람들도 통일전선대상이 된다고 하면 입을 딱 벌이면서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포섭대상이라니, 이건 ≪계급협조≫가 아닌가고 하면서 얼떨떨해하였다.

사실 맑스나 레닌의 명제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침으로 통하던 반세기전만 해도 우리가 모모한 지주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맑스주의로부터의 탈선이라고 시비하였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자본가를 동맹자로 만들려고 하면 레닌주의에 대한 이단이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특성과 우리 혁명의 산 현실을 떠나서 맑스-레닌주의를 지나치게 절대시하고 교조적으로 대한 후과였다.

해방 전 조선농촌에서의 계급분화와 토지소유관계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통계자료들을 보면 일본인 대지주의 대열이 늘어날 때 조선인 대지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중지주나 소지주로 영세화되었거나 몰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총독정치의 지반을 다지었다. 그 과정에 일부 토착지주들은 총독부의 지지밑에서 토지와 자본을 늘리며 공상업에 돈을 투하하는 대지주로 되고 매판자본가로까지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선인 대지주들은 중소지주로 남아있었다.

일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그 처지가 영락된 일부 중소지주들이 소극적이나마 반일애국을 지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지주, 자본가들 중에는 항일혁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들도 있고 해방이 되자마자 땅과 공장을 송두리째 나라에 바치고 평범한 근로자가 되어 새 조국 건설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다. 개인의 치부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양심적인 자산가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시책에 반기를 들 정치적 이유도 없고 그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방해하여 나설 아무런 감정심리적 기초도 없다.

물론 나도 어린 시절에는 지주, 자본가라면 모두 놀고먹는 기생충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자산가들속에도 양심적인 자산가가 없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을 애국적인 자산가와 반동적인 자산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창덕학교시절에 백선행이 학교에 많은 땅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장울화와의 인연은 나로 하여금 자산가 일반을 다 타도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나는 진한장을 통해서도 부자들에 대한 관점을 더욱 똑똑하게 정립하였다.

만일 우리가 이런 애국적인 사람들을 자산가라고 하여 타도하거나 따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혁명의 지지자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되며 애국적인 자산가는 물론, 수많은 군중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중은 그런 인정사정없는 혁명을 외면할 것이다. 기뻐할 것은 오직 적들뿐이다. 계급투쟁에서의 사소한 오류나 탈선은 결국 원쑤들의 전략에 발을 맞추는 최대의 이적행위로 된다.

나는 유격대대장으로서 김정부와 그 일행에게 우리 사람들의 과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빠지었다.

소부대책임자는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대기하고 있던 김정부일행을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밤중에 갑자기 무례하게 데려오게 되어 안되었다고 심심히 사과하였다.

김정부는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적의와 불안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모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 속을 조이는 모양이었다. 그들에게 좀더 살뜰하게 말을 하고 싶었으나 교감이 잘되지 않았다. 그처럼 냉랭한 분위기속에서는 도저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군대어른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독립군이면 요구되는 군자금 액수나 대주고 호적이면 방표값이나 말해주시오.≫

얼음장같은 공기속에서 맨처음으로 울린 것은 김정부의 가시돋친 목소리였다. 그 말은 방안의 긴장된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하였다. 김정부와 그 일행은 분명 우리를 독립군이나 호적으로 보는 모양이었다.

방표란 호적이나 반일부대들이 흔히 쓰는 인질전술을 말하며 방표값이란 인질을 놓아줄 때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한다. 김정부 자신도 호적들한테 인질로 두세번 잡혀가 모진 곤욕을 치른 사람이었다.

지주일행은 숨소리를 죽이고 나를 지켜보았다. 방표값을 엄청나게 부를까봐 속이 떨리는 모양이었다.

그때 소부대 책임자가 담배 10갑을 들고 내앞에 다시 나타나 지양개마을의 가게방주인에게 값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보고하면서 주인이 너무도 사양하기에 그만 담배값을 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지주일행을 향해 우리 소부대책임자에게 10갑의 담배를 돈을 안받고 준 지

양개의 가게방주인이 어떤 사람인가고 물었다.

≪그 김세일이란 양반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입니다. 당자는 몸이 불구이고 아내가 삯방아를 찧어 그럭저럭 연명을 해가는 집안입지요. 정상이 하도 가긍하길래 돈 얼마간을 주면서 잡화상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그 돈으로 구멍가게를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김만두가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부대 책임자를 책망하였다.

≪궁상스럽게 사는 집안인데 동무가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것 같소. 주인이 사양한다고 값을 치르지 않고 덜렁덜렁 돌아왔으니 그게 어디 인사가 됐소?≫

이런 말이 오간 다음 놀랍게도 방안의 분위기는 일변하였다.

지주들은 무슨 충격을 받았던지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들을 주고받으며 귓속말로 수군거리었다. 나의 책망이 지나치다고 나무람하는 것 같았다. 다시 말을 걸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 스산한 날씨에 노인님들이 밤길을 걷게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이 없는 고장들을 돌아다니다보니 더러 이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무들이 좀 공손치 못하게 굴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재삼 사과를 하자 지주일행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 이 부대는 무슨 부대인지? 차림새를 보면 호적 같지도 않고 또 왕년의 독립군 복장도 아닌데 ≫

김정부도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으로써 장백의 유지들과 첫 통성을 하게 된 셈이었다.

≪인민혁명군이라니! 일전에 무송에서 왜놈들을 혼쌀냈다는 그 **김일성**장군부대란 말이요?≫

≪네, 그 부대입니다.≫

≪**김일성**장군은 지금도 무송에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김선생,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정부는 반신반의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다가 쓴입을 다시었다.

≪70이 넘은 늙은이라고 얕잡아보지 마시오. 아무렴 축지법을 쓴다는 **김일성**장군이 그렇게 홍안일수야 있겠소. **김**장군은 우리 속인들과는 다르우다. 그분은 이빨까지도 쌍줄로 났다는 기인이지요.≫

그때 김주현이 대화에 끼어들어 바로 마주앉으신 분이 다름아닌 우리 **김일성**사령관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김정부는 비로소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미처 장군을 몰라보아 황송하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였다.

≪이왕이면 노장보다 약관의 장군이 더 좋지≫하고 그는 김하사를 향해 말하였다.

김하사도 나라를 찾는 싸움이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닌 것만큼 건강한 청년장군이 더 믿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계속하였다.

지주들은 그 날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지어 김만두는 **김**장군님이 ≪사흘천기≫를 내다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 하는 엉뚱한 질문까지 하여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엉터리없는 질문이었지만 나는 계면쩍은대로 어차피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사흘천기를 본다는 것은 허황한 소리입니다. 사흘천기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혁명군이 인민들과 연계를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제때제때에 잡아쥐기 때문에 정세판단을 잘할 뿐입니다. 내가 보건대는 인민이 제갈량입니다. 인민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군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늘만치 쳐주니 송구스럽소이다. 우리도 장군의 대사를 도와주어야겠는데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지 방도나 가르쳐주시오.≫

≪사실은 우리도 장백으로 나오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면 그런 의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무장을 들고 만주광야에서 여러 해 동안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혈전을 벌려왔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싸움이였지만 인민혁명군은 지금 도처에서 적을 족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이 우리를 도와주고 받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혁명군은 오늘과 같이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군대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힘과 마음을 다 합쳐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주건, 자본가건 다 동원되어 인민혁명군을 후원해야 합니다.≫

지주들은 나의 말에서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혁명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이 지양개 등판에다 수십만평의 화전을 일군 것은 돈과 쌀로 독립운동에 보탬을 주려는 것이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소작농들과 독립인사들이 뜻을 합쳐 선생의 송덕비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실례이지만 장군은 이 졸부의 과거를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고계시오?≫

≪선생의 함자는 선친을 통해서도 듣고 오동진, 장철호, 강진건 선생들을 통해서도 익혀두었습니다.≫

≪선친의 성함이 무엇이기에?≫

≪김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팔도구와 무송에 계실 때 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변이라구야! ≫

김정부는 눈을 슴벅거리며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김**장군이 김형직의 자제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 늙은게 몇 해째 초야에 묻혀 속절없이 지냈더니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속물이 되고 말았소이다. 이렇건 저렇건 장군의 선친과 나는 가까운 사이었지요. 오늘 선친이 밟고 다니던 땅에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을 보니 그 감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나도 역시 선생과 같은 애국인사를 만나고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깊은 속내도 모르고 선생을 연행해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김선생은 친일지주나 반동지주가 아니라 애국지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위해 지양개 사람들처럼 비석을 해세우지는 못할망정 애국지주를 친일지주로 보는 허망한 실수야 하겠습니까.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쳐온 자신의 지난날들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김정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장군이 나를 애국지주라고 하였으니 이 늙은 몸은 당장 흙이 된다고 해도 여한이 없소이다.≫

김만두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다른 지주들은 불안과 부러움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김정부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 심정을 알아맞힌 김정부가 동행한 지주들을 가리키며 의젓이 말하였다.

≪장군, 사실은 저 사람들도 반동지주는 아니오. 내가 장군앞에서 목숨을 걸고 보증하오. 장군이 만일 나를 신임한다면 저 사람들을 역적으로 보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보증하는 분들이라면야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친히 보증하신다면 나도 저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주들은 그 말을 듣자 감사하다고 하며 연방 고개를 조아리었다.

첫 담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날의 담화가 지금도 내 기억속에 인상깊이 남아있다. 만일 그것이 친일분자들의 죄행을 조사하는 심문이었거나 그 어떤 죄상을 고발하는 성토모임 같은 것이었다면 나는 지금도 김정부일행을 만나던 마가자의 임산노동자합숙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그날밤 자정이 다될 때까지 계속된 지양개 유지들과의 담화를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회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들 중 누가 소작인들을 어떻게 착취하였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어느 정도로 협조하였으며 조국과 겨레앞에 떳떳치 못한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캐여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주들이 친일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들에 대한 신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그 신임 때문에 지주들은 그날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날의 담화는 통성이나 하고 대문을 열어제낀데 불과하였다. 우리가 의논하고 싶었던 기본문제들은 죄다 앞에 놓여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우선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정신에 맞게 지양개의 지주들을 사상적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하자는데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장백일대의 유지들을 혁명의 관조자, 방해자로부터 동정자, 지지자, 협조자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자면 아직도 그들과 많은 담화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나는 김정부만은 인차 그의 아들과 함께 지양개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 다음날이었다. 내가 김정부노인을 만나 마을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그는 펄쩍 뛰며 내 말을 막았다.

≪장군, 나는 간밤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소. 이번에 내가 장군을 만난 것은 정 말 천지신명의 도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려고 여러 모로 전력했지만 별로 해놓은 것이 없구려.

나도 이제는 늙었소. 기력도 쇠진했지만 덕행 하나만으로는 민족을 건질 수 없다 는 것을 깨달았소. 인생말년에 조국광복에 이바지할 길 바이없어 모대기던 차에 이렇게 장군을 만났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여기에 있어야 우리 아들 만두가 지양개에 돌아가더라도 나를 코에 걸고 원호물자들을 보내줄 수 있소. 아버지를 데려오자면 유격대에 물자들을 보내주어야겠다, 내가 산에 식량이랑, 천이랑, 신발이랑 보낸다고 해도 당신들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 놈들도 할 말이 없지 않겠소.≫

나는 노인의 말에 저으기 감동을 받았다. 그 말마디들이 양심의 외침으로 폐부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뜻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노인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 고결하신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노인께서 계실만한 곳이 못됩니다. 처소라고 할만한 자리도 별로 없고 또 음식도 변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더욱 추워지고 일제놈들의 ≪토벌≫도 심해지겠는데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막무가내로 옹고집을 부리었다. 그는 자기가 유격대의 병정으로 싸우지는 못할망정 나라의 독립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나는 김정부노인을 얼마간 밀영에 머물러있게 하고 그의 아들만을 먼저 마을로 돌려보내였다.

우리는 밀영에 지양개의 유지들을 위한 거처를 특별히 따로 마련해놓고 있는 성의를 다하여 그들을 돌보아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산중생활이었으나 온 부대가 죽으로 끼니를 에울 때에도 지양개

의 지주들에게만은 비상시에 쓰려고 저축해 두었던 흰쌀포대를 터쳐 밥을 지어주었다. 우리 대원들에게는 엽초를 공급하면서도 그들에게만은 특별히 가치담배를 대접하였다. 김정부는 그때 밀영에서 생일도 쇠고 1937년 설명절도 쇠었다.

그 노인의 생일이 아마 음력 12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도 김정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양개에서 아들이 마련해 보내기로 한 원호물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밀영을 떠날 수 없다고 그는 고집하였다.

나는 김정부 자신은 물론, 그 일가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은 자책감을 느끼였다. 70고령의 노인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산중에서 생일을 맞게 한다면 이보다 더 몰인정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적구사업을 하는 공작원들에게 부탁하여 백미, 육류, 술 등의 식료품들을 마련해 놓았다가 노인의 생일날 전령병에게 지워가지고 그가 있는 밀영으로 찾아갔다. 진수성찬은 아니였지만 그때 우리가 김정부를 위해 차려준 생일상은 인민혁명군의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였다. 우리는 전우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때에도 그런 음식상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원들의 결혼식이란 밥 한그릇에 국 한사발이면 고작이였다.

김정부는 생일상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서 물었다.

≪음력설도 멀었는데 이건 갑자기 무슨 성찬이요?≫

≪오늘은 선생의 생신날입니다. 인민혁명군의 이름으로 선생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는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노인에게 권하였다.

≪김선생, 이 엄동설한에 험한 산중에서 생일을 쇠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한 생일상이지만 성의로 생각하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술잔을 받아쥔 김정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유격대원들이 통강냉이죽을 먹으며 나라를 찾으려고 신고하는걸 보니 이 늙은 것은 하루 세끼씩 먹는 더운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소. 하물며 이 산중에서 나 같은 늙은이의 생일이 다 뭐요. 진정 장군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웨다.≫

≪아무쪼록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은 늙은이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소. 그러나 장군만은 옥체건강해서 기어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해야 하오.≫

나는 그날 김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한 추위가 닥치고 산에 눈이 많이 내려쌓여 이번에는 우리가 김정부를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노인이 심산의 눈길에서 무슨 변고라도 만날 것 같아 그런대로 밀영에서 겨울을 나게 하였던 것이다.

김정부는 넉달 남짓한 밀영생활에서 받은 인상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그것은 인민혁명군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인 동시에 그가 오랜 세월을 두고 주시해온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집약적인 평가이기도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소이다. 그런데 **김**장군이 하는 공산주의는 판이하오. 같은 지주도 친일, 배일로 갈라서 친일만 치니 그런 공산주의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소. 왜놈들은 유격대를 ≪공비≫라고 하는데 그건 다 개수작이지.　　그 동안 유격대의 밥을 먹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소. 물론 결심도 새롭게 다졌구. 이제 내가 살면 몇 해를 더 살겠소. 하지만 여생을 값있게 바치겠소. 죽어도 인민혁명군의 뒷시중을 하다가 죽을 작정이웨다. 이 김정부는 살아도 죽어도 **김**장군의 편이라는 것을 믿어주시오.≫

김정부는 밀영에 와서 우리의 적극적인 동조자가 되였다.

우리가 교양대상, 경제모연공작대상으로 삼고 데려온 지주들 중에는 농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주들도 있었다. 그런데 김정부가 그들을 보증해 나서고 좌상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휘어잡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반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좋은 영향을 주었다.

김정부는 인민혁명군의 후방사업을 도와 3,000여원에 달하는 많은 자금을 내놓았으며 천과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물자들을 해결해주었다. 우리는 그가 사들인 천으로 부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솜옷과 군복을 다 해입히었다.

김정부의 아들은 지양개로 돌아간 다음 우리앞에서 결의한대로 유격대에 대한 후원을 통이 크게 하였다. 그는 밀영에서 내려가자마자 관청에서 받아온 소중에서 10여마리를 팔아 많은 돈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현당국에서는 지양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면서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그에게 신용대부형태로 수십 마리의 소를 내어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현청에 가서 보증서를 쓰고 좋은 소 20여 마리를 집으로 끌고오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자기 집에 있던 재봉기까지 원호물자로 실어보냈다.

인민혁명군이 백두산지구에 나온 후부터 적들은 장백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였다. 김정부의 집도 감시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김만두는 장백경찰서에 불리워가서 문초를 받았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 **김일성**부대와의 연계밑에 그들에게 많은 물자들을 넘겨주고 있다는데 그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방물자들로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넘겨주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김만두는 시치미를 뻑 따고 엄살부터 부리었다.

≪당신들은 마치 우리가 **김일성**부대와 무슨 내통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연계라는 것은 있지도 않거니와 또 있을 수도 없다. 아무렴 공산군 부대가 우리와 같은 대지주를 끄나불로 쓰겠는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공산군 밀영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물건을 좀 가져갔는데 어쨌단 말인가. 나는 집재산을 다 들이밀어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당신들이 만일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김만두의 말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이상 더 심문하지 않고 그를 놓아주었다.

김정부부자는 이처럼 혁명군을 원호하느라고 전답과 역축을 많이 팔았다.

김정부는 독립군에 식량과 자금을 대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지주가 되었는데 독립군을 위해 다 쓰지 못한 재력과 금력을 인민혁명군의 뒷시중을 하느라고 모조리 소비하였다. 지주,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되고 있는 치부 그 자체를 단념하고 그 치부를 끊임없이 뒷받침해주는 재산을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김정부의 애국심의 심도가 있고 항일혁명에 이바지한 공로의 높이가 있다. 나는 항일혁명 전기간 김정부와 같은 애국충정을 품고 그처럼 통이 크게 우리를 지원해 준 대지주를 별로 보지 못하였다.

훗날 밀영에 와서 그가 눈으로 보고 심장으로 느낀 것의 일부가 ≪삼천리≫라는 잡지에 나와서 회견기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 회견기의 일부 대목을 아래에 그대로 소개하려고 한다.

≪**김일성**≫이라 하면 국경일대에선 너머나 알니엇고 신문지나 본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리라.

총사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에 가까운 만인, 조선인 부하를 이리저리 통제해가며 습격싸흠. 완강히 군대와 저항해가며 산중소굴을 지휘해가는 그! 은근히 동의자를 규합하며 이일저일을 꿈꾸는 그! 그는 과연 어떤 인간인고?

김정부옹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 수수꺽기의 인간을 회견하였든 것이다.후리

후리한 키, 우락부락한 말소리 음성을 보아 고향은 평안도인 듯. 예상보다 연령은 너머나 젊은 혈기방장의 30미만의 청년. 그는 만주어에 정통, 어대까지 대장이란 표적이 없고 복장, 식음에까지 하졸과 한 가지로 기거를 같이하며 감고를 같이하는 데 그 감화력과 포용력이 잇는듯하게 보엿다.

≪노인님 추운데서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그는 이렇게 부드러운 인사를 들이고는

≪우리 젊은 몸이 따뜻한 자리 평안한 생활을 누가 싫여하겠오. 2-3끼씩 보리죽도 못얻어먹어가며 이 고생을 달게 하는 것은 다 그리되어 그리것이요. 나도 눈물도 있고 피도 있고 혼도 있는 인간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도라다니는구려.≫

그는 생각든바와는 좀 달느게 비적수괴답지 안케 음성도 조용하고 태도도 우락부락하지 안엇다.

그는 김옹을 여러 가지 말노 위무해가며 지금은 엄동이라 설중에 존보를 옴길 수 없고 새봄에는 꼭 노인님을 환가시킬터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부하간수에게 특별우대하기를 명하였다고 한다.

이 글은 혜산에 있던 박인진의 제자인 양일천이란 사람이 썼다. 김정부는 일본당국의 감시와 통제속에 있는 언론앞에서 자기의 진심을 비교적 솔직하고 대담하게 고백한 것 같다. 인민혁명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관제가 심한 때에 잡지 ≪삼천리≫가 이런 정도의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김정부는 나의 권고대로 왕청하마탕에 이주하여 살다가 거기서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김정부를 만날 때 20대이던 나도 이제는 어언 팔순이 넘었다. 그러니 김정부의 그 당시 나이보다 10년 정도 더 든 것으로 된다. 80고개에 오르고보니 유격대의 밀영지에서 그가 겪은 신고가 자기자신의 신고처럼 더 절실히 헤아려지게 된다. 있는 정성을 다하여 노인을 공대하느라고 하였지만 그 정성에도 빈 구석은 많았을 것이다. 그를 더 따뜻하고 푸짐하게 대접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나는 김정부 자신을 위해서는 천묘도 해주지 못하고 비석조차 세워주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백두산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부대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돈이 있는가, 쌀이 있는가, 천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김정부가 많은 것을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선배로서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에게 바치는 일생일대의 선물이었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김정부와 같은 유산자, 대지주가 발휘한 양심과 애국적 장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가는데서 무시하지 못할 공헌으로 되었으며 우리의 위업에 대한 힘있는 지지로 되었다. 1920년대와는 달리 무력항쟁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30년대에 와서 지주나 자본가들이 우리를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내대야 하는 모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정부는 그것을 해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정부를 애국자로 보는 근거이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는 지금도 지주, 자본가들이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억대의 자산가들도 있다고 한다. 반동적인 자산가들도 있겠지만 애국적인 자산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일된 연방국가에서 지주, 자본가들을 대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애국지주 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제14장



장백사람들

서간도
물방아소리
이제순
남만의 전우들과 함께
≪3.1월간≫

■ 시기 : 1936. 9 ~ 1936. 12

1. 서간도



서간도 임강
5도구밀영지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백두산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두만강 북쪽의 여러 현들을 가리켜 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불렀다. 백두산서부의 압록강 이북지역은 서간도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다.

서간도는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유서깊은 지역이다. 우리가 말하는 백두산근거지란 다름아닌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서간도와 국내의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서간도의 광대한 영역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건설한 백두밀영과 더불어 백두산근거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백두산근거지는 중국쪽만 염두에 둔다면 서간도근거지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근거지를 가리켜 장백근거지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적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자칫하면 백두산근거지의 영역상 의미를 장백지방을 비롯한 서간도 일대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빚어낼 수 있다. 백두산근거지는 장백지방에 국한된 근거지가 아니라 백두산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송화강 상류와 압록강 북쪽 연안에 전개되어 있는 서간도 여러 현들과 국내의 광활한 영역을 포괄하는 대근거지이다.

1930년대 후반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역사에서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특출한 번성기이다.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수십 개의 밀영들을 건설한 후 서간도를 활무대로 하여 남호두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새로운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때부터 서간도는 교전회수가 가장 많고 총포성이 가장 높은 전장으로 되었다.

나는 서간도가 좋은 고장이라는데 대하여 한두 번만 말하지 않았다. 고장이 좋다고 하면 산천경개가 좋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기본으로 되는 것은 사람이 좋다는 의미일 것이다. 산천경개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고약하면 그런 고장을 좋은 고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는 불모의 땅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씨가 고우면 좋은 고장이라고들 한다.

서간도에는 그 당시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화전농사를 지어 감자음식으로 구차하게 끼니를 굼때가는 가난한 우리 동포 이주민들은 서간도의 척박한 등판과 계곡들에 이전날 조국에 있을 때 자기네가 살던 고장의 이름을 붙여 풍산덕이

요, 갑산덕이요, 길주덕이요, 명천덕이요 하는 마을들을 만들어놓고 광솔불밑에서 단군시조나 ≪온달전≫이야기를 해가며 인생의 비탈길을 힘겹게 톺아가고 있었다.

지주들의 대부분은 중국사람들이였다. 간혹 조선인 지주들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는 그닥 많지 않았고 또 토지소유량으로 보면 부농이나 다름없는 소지주들이였다.

서간도에서 살고 있던 조선사람들은 대체로 살길이 막혀 조국을 하직한 유랑민들과 일제가 우리 나라를 병탄한 다음 망국의 수치를 씻으려고 반일독립운동의 길에 오른 애국지사들이였다.

서간도의 화전민 부락들에 가면 그 전날 독립군 운동에 투신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던 사람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독립군의 노장인 강진건도 장백현에 와 살았고 홍범도, 오동진과 이극로도 관전, 무송, 안도 지방을 거쳐 여기에 자주 다니였다. 나의 외삼촌 강진석도 임강에서 백산무사단을 뭇고 활동하였다.

서간도에는 국내 여러 지방에서 농조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다음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장백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 야학방을 꾸려놓고 민중계몽사업을 벌이었다. 이제순, 최경화, 정동철, 강돈, 김세옥 등 장백지방의 이름난 혁명가들은 대부분 야학선생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였다. 장백지방에는 국내에서 건너온 망명자들과 애국적인 유지들이 설립해 놓은 조선인 사립학교들도 많았다.

이 사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교양을 많이 하였다. 야학을 통한 군중계몽과 학교를 통한 청소년 교양은 서간도의 조선사람들속에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배출케 하였다.

서간도 사람들이 민족성이 강하고 반일감정이 높았던 것은 그들의 불행한 생활처지가 가져다 준 응당한 귀결이기도 하지만 애국적인 사상가와 선각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부단한 계몽사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서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성이 특별히 강하고 반일정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일대에 공작원을 한 사람만 파견하여도 쉽게 핵심을 장악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1930년대 초에 우리는 벌써 조선혁명군 출신의 공작원들을 서간도 일대에 파견하여 ≪길림바람≫을 불어넣었다. 그 공작원들에 의하여 이 일대에는 우리의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남호두와 동강에서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된 후 우리는 김주현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서간도일대에 내보냈다. 소부대성원들은 장백현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 고장의 혁명운동실태도 요해하고 핵심도 장악하고 군중교양도 하면서 장차 주력부대의 정치군사활동에 도움이 될 기초준비를 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서간도 일대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활동을 지원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서간도 일대를 빠른 속도로 쉽게 혁명화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좋은 군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는 고장에 준비된 공작원들이 들어가서 의식화활동을 할 때 군중의 조직화, 혁명화 과정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간도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할 때 얻은 또 하나의 귀중한 경험이였다.

우리가 서간도를 요해하면서 하나의 특징으로 본 것은 이곳에 만주국의 통치가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서간도 일대는 감자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지대여

서 세금을 받아들일만한 대상도 얼마 없었다. 장백현 같은 곳을 보면 현장 외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몇 명 정도 있을 뿐이었다.

무송에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보니 그 고장 통치당국에는 토지 조사나 등록 같은 것을 제대로 할만한 인물들도 얼마 없었다. 그러다보니 임자 없는 땅을 허가없이 부쳐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관리들이 개탄할 지경이었다.

무송지방 경찰업무의 특색은 혈연이나 지연 관계에 의하여 간신히 유지된다는 것이였다. 게다가 이곳 경찰들 중에는 포수출신들이 많았다. 사격솜씨만 보고 사람들을 고르다나니 그 경찰들은 하나같이 무식하였고 사람단속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 그런즉 통치행정이 자연히 무맥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장백에 와보니 그 고장 실태도 무송과 어슷비슷하였다. 이런 특성은 이 일대에서 군중을 비교적 쉽게 의식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서간도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박해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기치를 들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데 대해서 비난하거나 제동을 거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한다고 업신여기거나 차별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압록강 연안과 국내 깊이에서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도 받지 않고 우리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항일혁명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을 자유자재로 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우리는 자체의 당조직을 꾸리는데서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서간도쪽에서나 조선쪽에서나 독자적인 당조직 건설사업을 우리의 구상대로 통이 크게 전개해나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서간도 일대에는 우리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성시공격을 하고 싶으면 성시공격을 하고 당조직을 꾸리고 싶으면 당조직을 꾸리고 대부대를 이끌고 국내에 나가고 싶으면 국내에 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북간도의 유격근거지들에서 투쟁할 때는 사정이 달랐다. 그때는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가서 국내인민들을 잠깐 만나고 돌아와도 민족주의를 한다고 시비하였다. 우리가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할 때 동만특위와 현당지도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중앙의 노선이라고 하면서 쏘비에트정부를 세우라고 내리먹이였다.

우리가 서간도 일대 인민들의 혁명화를 빨리 다그치고 또 서간도 인민들이 우리의 자주적인 투쟁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설 수 있게된 또 하나의 유리한 조건은 이 지방 사람들속에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가 없은 것과도 관련된다. 서간도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동경하였으나 러시아의 물을 얼마 먹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원동지방과 한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북간도 지방에는 러시아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치었다. 이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용어 가운데는 러시아식 말투가 많았다. 지금 함경북도 지방의 늙은이들이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는 것처럼 북간도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러시아식 말투를 본따서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였다. 왕청, 훈춘, 연길, 화룡 일대의 사람들은 ≪소년단≫이니, ≪집단농장≫이니, ≪세포≫니 하는 말보다 ≪삐오네르≫니, ≪꼴호즈≫니, ≪야체이까≫니 하는 러시아어휘들을 입에 더 많이 올리었다. 유식을 뽐내느라고 일부러 러시아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러시아식 말투를 쓰는 것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과 세계에서 맨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쏘련 인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식 말투의 사용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소박한 공명의 표현으로도 된다고 볼 수 있었다.

북간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러시아노래를 한두 곡쯤은 다 흥얼거릴 줄 알았다. 그들은 러시아식 댄스도 잘하였다. 유격구의 공연무대들에는 두 손으로 장딴지를 번갈아 두드리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춤을 비롯하여 오늘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러시아춤이 많이 올랐다.

훈춘이나 왕청 같은 곳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입는 것과 꼭같은 루바슈까를 지어입고 다니면서 세계혁명의 승리나 프롤레타리아독재만세를 부르짖는 행세식 공산주의자들도 드문히 만나볼 수 있었다.

러시아식 말투를 쓰고 러시아식 노래를 부르고 러시아춤을 추고 러시아식 옷을 입고 생활하며 지구상의 첫 사회주의 나라인 러시아를 동경하는 과정에 북간도 사람들속에서는 세계에서 러시아가 제일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이라는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가 은연중 생겨나게 되었다.

북간도 사람들속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얼마간 있었다. 그 고장 사람들 중에는 중국혁명이 승리해야 조선혁명이 승리할 수 있고 중국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조선혁명도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식 말투만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중국식 말투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 지방 사람들은 삽을 삽이라 하지 않고 ≪강차위≫라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간도 사람들은 중국식 말투나 러시아식 말투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고국에서 살 때와 다름없이 순수한 함경도말이나 평안도말을 하였다. 생활풍습과 예의범절, 식생활, 언어구사 등 모든 면에서 이 고장에 살고 있던 조선사람들은 고유한 민족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우리는 백두산에 나온 후 서간도를 한바퀴 돌면서 자연지리와 주민동향을 요해하는 과정에 이 일대가 유격활동을 하는데서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다. 백두산지구에 혁명의 본거지를 꾸려놓고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내밀어보려는 우리의 결심은 서간도사람들과 접촉하고 서간도의 풍토에 몸을 잠그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더 확고하고 변함없는 것으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서간도진출은 우리의 역사가들과 인민들이 항일혁명의 전성기라고 표현하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놓은 장거였다. 그것은 칠칠암야와 같은 민족의 수난사에 눈부신 광망을 던져준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애국애족의 이념에 충실한 조선의 아들딸들은 칠성판에 오른 민족의 운명을 부둥켜안고 비탄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도탄에 빠진 겨레를 구원하기 위하여 발을 탕탕 구르며 백두산으로 나왔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보자는 배심이었다.

그러고보면 우리는 ≪ㅌ·ㄷ≫을 무은 때로부터 장장 10년동안이나 백두산행을 준비한 셈이었다. 때가 되면 백두산에서 군사를 일으켜 독립성전을 벌이리라던 화전시절의 결심,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까지에는 실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우리가 걸어온 수천수만리의 길에는 직선통로가 하나도 없었다. 그 모든 길들은 하나같이 경사가 급하고 구배가 심하였다.

만일 우리가 ≪ㅌ·ㄷ≫를 무은 다음 화전에서 서간도로 직행하였더라면 늦어도 5-6일 안에는 백두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백두산으로 곧추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길림과 그 주변지역들에서 혁명역량을 꾸리는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활동무대를 동만으로 옮긴 다음에도 그 작업은 계속되었다.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백두산으로 데리고 갈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 군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지성원하여 줄 인민의 바다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안도에서 유격대를 갓 조직하였을 때에도 나는 부대를 이끌고 백두산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안도에서 백두산은 지척이었다. 하지만 오르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를 수 없는 곳이 백두산이었다. 백두의 장엄무쌍한 위용에 비해볼 때 우리의 대오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단출하였다. 우리는 아직 갓 태어난 수리개에 불과하였다. 머리위에 창창한 대공이 펼쳐져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그 대공으로 날아오를만한 억센 날개가 없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자면 대오를 늘이고 힘을 축적해야 하였다.

백두산은 결코 마음만 내키면 아무 때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였다. 가고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여기에 백두산이 가지는 참의미가 있었고 가지 못할수록 더 가고싶어진다는 여기에 바로 백두산이 가지는 참매력이 있었다.

백두산은 일본의 정예사단들과 군단들을 타승할 수 있는 혁명군의 강철부대들과 강철전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격구를 건설하고 사수하는 나날들에 일당백의 힘을 가진 강철부대들이 마련되였고 수십수백 번을 헤아리는 교전과정에 불사조와 같은 강철전사들이 자라났다. 카륜과 명월구, 다홍왜와 요영구, 남호두와 동강에서 천명된 진로를 따라 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노정에서 조선혁명은 백두산으로 진출할 수 있는 힘을 충분하게 축적하였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서간도로 나왔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항일혁명의 역사는 망국의 치욕을 안고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였고 백두산에서 일제를 쳐 이긴 과정이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남호두와 동강의 수림속에서 열린 회의들을 통하여 마련되였다. 이 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화제는 백두산으로만 쏠리였다.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 백두산이 우리를 기다린다. 어서 빨리 백두산을 타고 앉아 당건설 준비도 힘있게 내밀고 조국광복회망도 통이 크게 펼쳐가지고 결사적인 전민항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쓸어버리자!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민족재생의 종을 울려 조선사람 모두가 애국에 눈을 뜨고 구국에 몸을 바치게 하자. 신념을 잃고 주저앉은 인민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어 일으켜 세우자! 민족이산의 흐름을 정지시키고 단결하여 조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앞장서서 창조하자!

이것이 백두산으로 진출할 때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의지였고 신념이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백두산 마루를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 대신 그것을 조국의 대문으로 보았으며 조국의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교두보라고 보았다. 백두산은 서간도와 국내와 북간도를 연결하는 삼각지점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는다는 것은 곧 국내인민들과 서간도의 애국지사들, 북간도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국내혁명운동과 서간도의 독립운동, 북간도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에서 일원화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백두산을 차지하면 조국땅을 발판으로 하여 일본과도 연계를 가질 수 있었고 산해관너머 중국본토 항일운동과의 연대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북간도를 거쳐 북부만주와 쏘련 연해주지방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과의 합작도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동만에서 유격구를 건설하고 사수할 때 얻은 여러 가지 교훈을 충분히 참작하여 서간도를 북간도에서와 같이 완전유격구로 꾸리지 않고 반유격구로 만들어놓았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반유격구란 낮에는 적의 세상이지만 밤이면 우리의 세상이 되는 곳을 말한다. 서간도 일대의 십가장, 구장, 면장 자리들은 거의 다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일본 군경들과 만주국 관헌들의 심부름을 해주는척 하다가도 밤이 되면 회의도 하고 야학도 하고 혁명군에 보낼 후방물자수집도 하고 원호미도 찧으면서 바쁘게 돌아갔다.

이제순, 이주익, 이훈, 최병락, 정동철, 이용술, 염인환 등은 반유격구의 실상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전화 ≪자위단원들의 반변≫

그전날 동만당 조직의 지도자들은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만 만들어놓고 유격구 밖의 사람들은 쓴외 보듯 하였다. 지어 적통치구역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백색군중≫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였고 중간지대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양면파군중≫이라고 하면서 경원시하였다. 군중을 ≪적≫, ≪백≫으로 갈라놓은 것은 큰 실책이였다. 이 조치는 유격구에 대한 적들의 봉쇄를 오히려 더 용이하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는 혁명역량을 더 굳게 묶어세우며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사업을 방해하였다.

이런 뼈저린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서간도 전체를 반유격구로 만들고 이 일대의 모든 군중을 ≪적≫, ≪백≫의 차별이 없는 우리 사람들로 만들게 하였다.

집단부락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자위단원들속에도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언제인가 우리는 팔도강이라는 집단부락에 식량공작을 간 일이 있었다. 팔도강의 자위단에는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이 있었다. 우리 소부대는 이 공작원의 연락을 받고 혁명가요를 부르며 곤두총을 쏘면서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자위단의 무장은 해제하지 않고 공작원이 미리 마련해놓은 식량만 가지고 돌아왔다.

유격대가 철수한 다음 공작원은 일본인 경찰을 찾아가 유격대가 마을을 들이치고 식량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포대만은 점령하지 못하였다, 포대 때문에 자위단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놈들을 속여넘기었다.

서간도사람들이 이처럼 유격대원들에게는 속을 주면서도 일본군경들과 만주국관헌들에게는 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를 우리의 뜻대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다.

서간도는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그때로부터 대부대선회작전에로 이행하던 시기까지 3-4년동안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동적으로 개척하고 장악한 기본적인 활동무대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시기 우리의 주되는 활동무대는 다시금 동만으로 옮겨졌다. 소할바령회의 후 우리는 백두산근거지와 함께 쏘련 경내에 또 하나의 근거지를 가지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총괄적으로 고찰할 때 항일혁명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중심은 첫째는 북간도였고 둘째는 서간도, 셋째는 두만강 연안의 장고봉 일대였다. 이 지대들은 항일혁명의 승리를 보장한 중요한 활동거점이었다.

동만지구에서 활동할 때에도 체험한 바이지만 우리는 서간도에 와서도 적의 공세가 더 강화되고 악랄해질수록 반유격구가 여러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였다. 서간도를 반유격구로 꾸리고 그 고장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진출한 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거둘 수 있었던 성과의 비결이였고 승리의 요인이였다.

우리는 서간도를 반유격구로 꾸려놓은 다음부터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었다. 한 20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무장부대들이 서간도 일대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매일같이 적들을 답새기였다. 우리는 국내에도 소부대를 많이 내보냈다.

우리가 대부대로 활동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무장부대들로 분산하여 활동한 이유의 하나는 감자와 귀밀 같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해가는 인민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500-600명 이상의 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벌써 200명 정도를 단위로 하여 움직이기만 해도 먹는 문제가 걸리게 되어있었다.

적들은 1938년경까지 동만과 남만 지방에서 집단부락 건설을 완료하였다. 집단부락화가 끝난 때로부터 혁명군의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로 되었다. 먹을 것을 얻자면 큰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동지들의 피와 식량을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부대활동을 많이 벌려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나는 우리가 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동지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영향밑에 서간도 일대에서는 인민들의 반일투쟁정신이 고조되고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었다.

서간도에 나와 노인들과 담화를 해보니 장백사람들은 벌써 1932-1933년경부터 우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1936년초에 이제순과 이주익은 아편밀수업자로 가장하고 서간도에 나온 유격대 정치공작원 권영벽, 김정필 등을 만나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소식을 입수하였다. 그때 그들은 유격대 재편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장백지방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받았다고 한다. 그 소식은 곧 장백현 도처에 전파되었고 국내의 갑산공작위원회 성원들에게까지 날아갔다.

천상수에서 살고 있던 십가장 이용술은 벌써 1932년경부터 동료들에게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 **김일성**장군이 북간도에서 유격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때건 부대를 데리고 백두산에 나올게고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니 먹은 마음 변치 말고 계속 반일애국사업을 하라고 호소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소식에 고무된 장백지방의 청년들은 일찍부터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다. 대덕수 마을에서 청년사업을 하던 강현민은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김**장군을 더는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겠다. 직접 찾아가서 입대하려고 하는데 내가 떠나간 다음 당신들이 우리 집을 잘 돌봐달라.≫ 고 부탁한 후 무송쪽에 들어와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우리가 장백으로 나온 다음에는 서간도 전체가 참군열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많은 청년들이 사령부에 찾아와 연줄연줄 입대를 청원하였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보류하였다. 지하활동을 강화하자면 부득불 많은 청년들은 적통치구역에 남겨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집단부락이 생긴 다음에는 입대지망자들을 빠짐없이 부대에 받아들이였다. 토성 안에 청년들이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적들이 조직하는 강제부역에만 끌려다닐 수 있었다.

우리가 장백에 진출하여 대덕수에서 첫 총성을 울린 때로부터 서간도 인민들의

반일기세는 충천하였다.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일본군이 우리한테 무리로 녹아나는 것을 본 16도구의 노인들은 자고로 백성들을 못살게구는 놈치고 망하지 않은 예가 없으니 일본놈들이라고 해서 무사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야, 조선이 영영 망한줄 알았더니 다 죽지 않았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하며 환성을 올리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서간도 일대에서 무장활동을 활발히 벌이게 되자 압록강 좌우 양안의 인민들은 우리에 대한 전설을 연거퍼 만들어냈다. 천도교에 망라된 일부 노인들은 우리 부대의 위력을 선전하느라고 **김일성**대장이 축지법을 써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일제놈들을 족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어느 경관이 주재소에서 전화를 걸 때 유격대가 나타나 총을 한방 쏘았더니 귀가 떨어져나가고 그놈이 달아나려고 할 때 또 한방 쏘았더니 다리가 떨어져나가더라는 그럴듯한 민화까지 만들어냈다.

서간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화들은 압록강을 넘어 국내깊이에까지 전파되었다. 압록강변에 나가 장백쪽에서 ≪혁명군이 지난밤 반절구를 쳤소!≫하고 소리지르면 그 소리를 강건너편에 있는 삼수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간도에서 활동할 때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서간도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후원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회상자료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서간도사람들은 혁명군에 대한 후원을 충실하게 하였다. 그들은 혁명군을 잘 돕는 것을 양심의 표징으로 삼고 있었다. 혁명군을 외면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안락만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 어지러운 것으로 낙인하였다.

우리가 서간도에 나온 다음부터 일제는 혁명군과 인민들과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인민들의 지원이 혁명군에게 가닿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들은 조선사람들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여도 공산주의 물이 들었다고 주시하였다.

서간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웃동네에 갔다오는 것도 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숟가락은 식구수만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었다. 한 가락의 여유라도 있으면 혁명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무시로 조사를 들이대어 남아돌아가는 숟가락을 모두 빼앗아가고는 하였다.

적들은 포고문을 내어 혁명군의 목을 잘라오면 50원의 상금을 준다고 하였고 산 사람을 잡아오면 그보다 더 많은 상금을 준다고 선포하였다. 나에게 더 많은 상금이 걸려있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들에 널리 소개되어 있다. 한때는 인민들을 시켜 산중에다가 귀순을 선동하는 삐라도 뿌리게 하였으며 유격대에 독약을 친 소금을 ≪원군물자≫로 보내게도 하였다.

이것은 다 유격대와 인민과의 혈연적 연



(공출)의 명목밑에 놋그릇과 놋수저마저 앗아가는 일제

계를 끊어보려는 술책들이었다. 서간도의 인민들은 이런 술책에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적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그들은 인민혁명군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집단적인 원군운동을 더욱더 활발히 벌이었다. 적들이 유격대의 활동을 막으려고 마을마다 야경대를 조직하면 그 야경대에 망라된 사람들은 순찰을 하는척 하면서 집단부락에 배겨있는 지하공작원이나 인민혁명군들의 사업을 도와 보초까지 서주었다.

적들은 원군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마을들을 가차없이 불태워버렸으며 원군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늙은이들까지 다 잡아죽이었다. 지양개도 대덕수도 신창동도 그런 사품속에서 전소되었다. 대덕수 마을의 어떤 교원은 유격대에 만년필을 보내준 것이 ≪죄≫가 되어 총살당하였다. 하지만 서간도의 인민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굴하지 않고 원군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 공세앞에 노상 골탕을 먹으면서도 인민들앞에서는 자기네 군대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우리가 소덕수에서 적들과 접전하였을 때 인민들은 혁명군이 패했다고 생각하였다. 전투가 끝난 다음 적들이 마치 승전이라도 한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위세를 돋구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장에 널려있는 수십구의 일본군 시체를 보고서는 인차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적들은 자기편 시체를 운반하면서도 공산군의 시체를 나른다고 하였다.

우리가 12도구를 치고 철수한 직후 12도구와 그 주변에서는 유격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바빠맞은 적들은 혁명군이 방금 돌입했다가 철수한 북문입구의 일본군장교의 머리를 높이 매달아놓고 공산군우두머리를 죽였다고 광고하였다. 후에 그 장교의 처가 북문앞에 뛰어와서 장대기에 달린 머리를 보고 ≪아이고, 당신이 이 지경이 되다니 웬일이요?!≫하면서 통곡을 해서야 연극이라는 것이 들장나게 되었다.

이런 희비극은 한두 번만 연출된 것이 아니였다. 이와 비슷한 연극은 무송에서도 꾸며졌고 임강에서도 꾸며졌다.

어느 때인가 정안군 놈들은 일본 상전들한테서 상금을 받아먹으려고 무송과 임강 시가지에 각각 어떤 알지 못할 사람의 머리와 ≪**김일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싸창을 걸어놓고 우리 부대를 완전소멸하였다는 요언을 퍼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임강과 무송에서 함께 소학교를 다닌 나의 동창생들과 친지들이 현장에 가보고나서 정안군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돌리는 바람에 그 너절한 기만극도 파장이 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고 그 사령관도 살아서 여전히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만 강하게 해주었다.


유격근거지를 (초토화)하기 위하여 날뛰는 일제침략군

적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서간도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킬 수 없었으며 인민혁명군에 대한 동경심과 원군의식을 압살할 수 없었다. 원군사업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탄압이 심할수록 나날이 더 강화되었



원호물자를 가지고 온 인민들을 따뜻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다.

서간도 인민들의 원군운동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서술하겠기에 여기서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자료들과 인물들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서간도의 마을들을 지나갈 때면 인민들이 새까만 감자엿을 가지고 나와 대원들의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하였다.

서간도 사람들은 집단부락이 건설된 다음에도 유격대를 잘 도와주었다. 일제가 인민들을 집단부락에 모조리 몰아넣고 밭면적과 수확량을 따져가며 식량에 대한 통제를 심하게 하는 형편에서 그들은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원하였다. 그들은 감자수확철이 와도 밭에서 넝쿨만 걷어내고 감자는 캐지 않았다. 유격대가 캐다 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냉이는 수림속에 만들어놓은 창자에다가 오사리채로 넣어두고 유격대가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였다. 강냉이를 오사리채로 보관하면 썩지 않는다. 그들은 콩도 가을을 하지 않고 혁명군에 알려주어 가져가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겨우내 비지를 해먹었다.

밭에 있는 곡식을 가을하지 않고 내쳐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유격대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서간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함경남도 경찰부장이 혜산에 내려와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는 내가 이번에 이 일대를 시찰해보았는데 서간도에 문제가 있다, 첫째로 서간도 사람들은 다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서간도에서 활동한 유격대의 인원수는 적어도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주었다는 쌀은 서말밖에 안된다, 가령 유격대가 300명이 온다고 해도 하루에 쌀을 여러 말 먹겠는데 왜 서말만 주었다고 보고하는가, 이것은 서간도 사람들이 유격대와 내통한다는 증거이다, 둘째로 서간도 사람들이 적화되었다, 서간도 사람들에게 산에서 내려온 사람 혹은 비적을 보았는가고 물

어보면 그들은 아이들까지도 다 그런 사람을 못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혁명군을 보았는가고 하면 보았다고들 한다. 이것을 보면 서간도 사람들이 유격대를 자기 군대로 알고 있고 적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로 서간도는 유격대의 상시적인 활동근거지로 되고 있다. 서간도에 그전에는 독립군들이나 비적들이 여름이 아니면 가을 같은 때에 와있다가 겨울이 오면 다른 곳으로 가고는 했는데 **김일성**부대는 여기서 겨울에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이 일대에 집단부락을 설치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혁명군과 인민들 사이의 유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반증으로 되며 인민이 혁명군을 얼마나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였는가를 입증하는 산 자료로 된다.

서간도의 치안유지가 얼마나 심한 곤경에 빠졌던지 적들은 공산주의, 삼민주의는 어느것이나 민중의 진로를 비치는 등대처럼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비나 반만항일비의 영향하에서 민중을 탈취하고 그들의 비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목표보다 더 뛰어난 목표와 그에 이르는 명확한 길이 명시되고 민중적 정책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공비가 민중을 흡인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게 또한 원활하게 민중을 동원하여 만주국의 건국이상을 향하는 전진과정이 밝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모든 민중을 흡인하는데 충족되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지도방침에 의한 정치적 , 경제적, 사상적, 사회적 국민운동의 특수한 활동분야로서의 대비적공작만이 훌륭히 정치, 사상비의 근간을 찌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고 비명을 질렀다.

≪공비≫라는 말은 인민혁명군에 대한 비칭이며 ≪반만항일비≫란 괴뢰만주국을 반대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군사역량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혁명군을 소탕하고 혁명군과 인민과의 연계를 끊어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모든 시도들은 죄다 허사로 돌아갔다.

일제의 ≪토벌≫에 마을이 전소된 후 지양개의 농민들은 역축의 부족으로 막심한 곤란을 느끼고 있었다. 당장 농사도 짓고 이와실이도 해야겠는데 그들에게는 부림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 지양개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현공서와 교섭하여 부림소를 해결하기로 하고 그 교섭을 위해 이씨 청년을 대표로 파견하고 호위성원으로 몇 명의 청년을 붙여주었다. 아마 그가 마을에서는 제일 교제술이 높고 말주변도 좋았던 모양이다.

이씨 청년은 현공서에 당도하자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공산군과 내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일본군대는 똑똑한 증거도 없이 우리 동네를 하루밤사이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데 있는가. 현공서는 도대체 눈을 뜨고 뭘했는가. 말끝마다 우리 부락을 ≪양민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토벌대≫가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도 왜 막지 못하였는가. 이제는 ≪양민촌≫이고 뭐고 다 뒤었다. 소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밥도 먹을게 아닌가 하고 일장 푸념질을 하였다.

그 넉두리가 얼마나 크게 심금을 울려놓았던지 현공서에서는 지양개 농민들에게 20여마리나 되는 소를 대부해주었다.

이씨 청년은 교섭이 뜻대로 되자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하는 유격대원들에 대한 생각이 불시에 떠올랐던 것이다. 밭갈이를 하지 못하고 이와실이를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군에 이 소들을 보내어 식량보탬을 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궁냥이 떠오르자 그는 현에 있는 지하조직을 통해 유격대에 연락을 보냈다. 자기네가 현공서에서 대부소들을 받

아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니 매복을 했다가 자기네 일행을 ≪습격≫해서 그 소들을 밀영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지하조직의 연락을 받고 현과 지양개 사이의 길목에 매복조를 파견하였다. 그 매복조가 연극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였다. 그때 현공서에서는 그가 대부소들을 무사히 끌고 갈 수 있게 위만군 무장경비인원들까지 달아보냈다. 물론 그 위만군 호송병들은 유격대의 습격을 면치 못하였다.

호송병들의 무장을 해제한 유격대원들은 그들이 보는데서 일부러 이씨 청년을 비롯한 지양개의 청년들에게 포승을 지우고 네놈들은 일본과 만주국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악질들이고 반역자들이니 모조리 총살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들 전원을 밀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밀영에 들어온 지양개마을의 청년들은 모두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일석이조의 수확을 얻은 셈이었다.

이것은 서간도시절의 군민관계를 보여주는 한 토막의 일화에 불과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땅에 진출한 첫날부터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지성원하여준 원군운동의 대하속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계급 뿐 아니라 교조에 물든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투쟁대상이라고 보면서 적대시하던 계층들까지도 합류되었다.



19도구 구장
조국광복회
특수회원 이훈

장백현 19도구에는 조덕일이라는 중국인 대지주가 있었다. 삼촌이 죽으면서 물려준 유산을 받아가지고 30대에 일약 대부호가 된 사람이였는데 토지를 80여 정보나 가지고 있었다. 그 지대에 있는 절반이상의 농토는 다 그의 소유였다. 그는 첩을 여섯이나 두고 있었고 순사들과 결의형제를 뭇고 있었다. 교조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타도대상이라고 할만한 인물이였다. 그에게 장점이 좀 있다면 민족주의사상이 강한 것이였다고 할 수 있겠는지.

인민혁명군이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일만군경들을 쳐갈기자 조덕일은 혼비백산하여 첩들을 거느리고 장백현 소재지로 떠나가버리었다. 집과 토지는 마름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이 지주를 구장인 이훈이 장악하였다. 그가 조덕일을 쟁취하게 된 경위가 극적이었다.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밀영을 꾸리자 후방일군들을 시켜 1937년 설준비를 하게 하였다. 나는 백두산에 나와서 첫 번째로 맞는 이 설명절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이해에는 대원들도 설을 몹시 기다리었다. 부대의 후방사업을 책임진 김주현은 물자를 구해들이느라고 서간도의 마을들을 발이 닳게 돌아다니었다.

장백에서 벼농사를 하는 유일한 고장은 19도구의 압록강 유역뿐이었다. 그러나 논농사를 해도 벼는 지주들의 쌀창고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1937년의 설식탁을 푸짐하게 해줄 수 있는 막대한 식량과 고기, 사탕의 예비가 조덕일에게 있다는 통보가 정치공작원 지태환으로부터 김주현에게로 날아갔다. 김주현은 그 통지를 받자 이제순과 짜고 즉석에서 조덕일에게 인민혁명군의 명의로 된 통고장을 썼다. 　우리는 당신이 중국사람으로서 민족적 양심을 다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친일주구들의 재산을 제외한 모든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당신의 재산에 사소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 당신은 응당 우리의 이 정당한 처사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대에 보답하려면 자진하여 혁명군을 도와야 한다, 언제 무엇으로 우리를 원조하겠는지 속히 회답하

라고 하였다.

그 통고장을 받은 날부터 조덕일은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침상에 드러누어 고민하였다. 통고장이 요구하는 대로 인민혁명군을 도와주자니 일본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고 그 요구를 묵살해 버리자니 혁명군의 징계가 두려웠다. 그는 애첩들이 침상옆에 나타나 아양을 떨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조덕일의 첩들은 큰 변이 났다고 야단을 떨었다. 이런 때에 이훈이 이제순의 지시에 따라 조지주의 기맥을 짚어보려고 현소재지로 행차하였다. 거리에서 구장을 만난 지주의 애첩 하나가 우리 영감이 며칠째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데 구장님이 우리 주인하고 같이 점심이나 자시면서 영감을 위로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일이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한 이훈은 못이기는 척 하고 지주집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조덕일은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이훈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는 이훈에게 혁명군이 보낸 통고장을 내보이면서 ≪동생, 이 일을 어쩌면 좋소?≫하고 물었다.

이훈은 통고장을 얼추 훑어보고나서 조덕일의 손을 잡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혁명군이 형님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몇 달 전에 밀영에 잡혀간 일이 있는데 혁명군이 비적과는 다르더라,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치지 않으니 형이 한턱 크게 쓰면 혁명군도 감심해서 형을 보호해줄 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조덕일은 그 말을 듣자 그까짓 재산이나 주자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런데 눈이 무서워서 그런다, 발각되면 나도 황천객이 될텐데 어찌 내가 주저하지 않겠는가, 구장이 명처방이 있으면 대달라, 나는 구장이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재산이 아깝지 않다면야 바치고볼게지 뭘 그다지나 걱정이시유, 노형이 혁명군앞에서 최선을 잘 해야 나도 19도구에서 다문 몇 해라도 구장질을 더하고 농사꾼들도 편안할 게 아니오.≫

이훈이 이런 말까지 하자 조덕일은 혁명군에 짐을 보내는 것은 구장에게 맡기니 아무쪼록 사달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조덕일에게 원호물자를 보내기로 결심하였는데 통지를 받자 나는 지체없이 20여명의 대원들을 19도구에 내려보냈다. 그때 그들은 수십대의 발구에 600여말의 쌀과 여러 마리의 돼지 그리고 많은 사탕가루를 싣고 밀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조덕일은 그 후에도 우리에게 여러 번 상당한 양의 원군물자를 보내주었다.

서간도를 혁명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은 장엄한 원군운동 대열속에서는 일본경관출신들도 있었고 공사장의 십장들도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재생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삼수군 어느 주재소의 한 순사는 자기 주재소의 수석과 차석을 처단한 다음 그들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임철공사장과 채벌장의 일부 십장들은 우리 군대가 가면 마치 강제에 못이기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창고문을 열어제끼고 후방물자들을 와락와락 꺼내주었다. 20도구 산판의 어떤 십장은 채벌노동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들과 근처의 산림대원들에게 염전염군사상을 고취하는 ≪친일병자탄가≫라는 노래까지 노골적으로 보급하였다.

나는 원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서간도의 지식인들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당시 서간도의 지식인들이란 대체로 교원들이었다. 그 교원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나의 기억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종산사립학교에 있던 강영구이다.

그 선생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자기는 일제의 교육시책을 집행하는 하수인으로서 장군님을 뵈올 면목이 없다고 하였다.

≪일제놈의 교육시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보면 안됩니다. 이국 땅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내 나라 아이들을 위해 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비록 할 수 없이 일제에게 복무한다 하더라 도 민족적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독립투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위안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컴컴한 얼굴빛으로 나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만 하였다. 내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면 속이 탈 때가 많겠다고 하자 그는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왜놈교육을 하는데 애가 탈 지경으로 수고할 멋이야 있겠는가고 하였다.

그 날 나는 마을을 철수하면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하였다.

≪내가 선생에게 부탁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선생자신이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조선의 얼을 지키게 하려면 선생들 자신이 조선의 얼을 지켜야 합니다.≫

강선생은 나의 이 부탁을 명심하였다. 우리가 마을을 떠난 후 그는 인차 조국광복회에 가입하여 활약하였으며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를 열성적으로 도왔다. 등사기를 보내라면 등사기를 보내고 천을 보내라면 천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라면 식량을 보내주었으며 직접 원군물자를 지고 밀영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지어 우리가 준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도청해서는 우리에게 적정을 수시로 통보해주었다.

교육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그는 해방된 조국에 들어와서도 교단에 서서 후대들을 가르치었다. 그런데 1950년대 말이었다고 기억되는데 어느 날 나는 평양의 어느 고급중학교에서 교장을 하는 그 선생이 학생들을 어루만지기만 하면서 생산노동이나 건설현장에 내보내기를 주저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내가 그 선생을 불러 그게 사실인가고 묻자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선생이 교장으로 사업하는 학교에서 그런 폐단이 존재한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서간도 시절을 벌써 잊으신 게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우리의 부모들을 지난날 왜놈들의 치하에서 비록 손톱이 닳아빠지도록 고생을 해왔지만 아이들만은 창밝은 교실에서 공부를 편안히 시켜보려는 것이 평생소원이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심정은 물론 이해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이들을 일도 시키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어루만지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 아이들은 고생속에서 단련시켜야 한다, 등짐도 져보고 목도도 메보고 호미질도 해보고　　그래야 아이들이 땀값을 알게 되고 노동자, 농민들을 존중하게 되며 사회주의 건설을 잘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자면 후대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서간도 사람들의 투쟁정신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엄하게 말해주었다.

격전의 총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 잊을 수 없는 땅에서 서간도 인민들은 우리와 함께 혁명적인 군민관계의 초석도 마련해놓았고 천도교도들을 비롯하여 애국적인 자산가와 청년학생, 지식인 등 광범한 군중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의 기반도 다져놓았으며 국내 인민들과 혁명가들과의 연계를 위한 통로도 개척해놓았다. 서간도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의 페이지들에 당당히 오를 수 있는 특출한 애국자들과 인민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그들이 발휘한 백두의 혁명정신, 서간도 사람들의 투쟁정신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억세게 고동치고 있다.

2. 물방아소리



장백의 물방아들은 밤낮으로 유격대 원호미를 찧었다

백두산의 여러 지맥들을 끼고 태어난 서간도의 농촌부락들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힘차게 굽이치는 골개물을 보게 되고 그것을 동력으로 하여 낟알을 찧는 물방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달밝은 깊은 밤에 멀리서 들려오는 그 물방아소리들은 얼마나 쩌릿한 향수를 자아내고는 하였던가. 조선이주민들의 눈물을 찧던 장백의 물방아들은 우리의 백두산 진출과 더불어 그 용도와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

1936년 가을부터 장백사람들은 그 물방아로 수없이 많은 낟알을 찧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장백땅에 걸어놓은 수십 개의 크고작은 물방아들 중에서 원군사업과 인연이 없는 물방아는 거의나 없었다. 물방아는 전인민적 원군사업의 상징으로 나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가 백두산을 거점으로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백지방에서 인민혁명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맨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16도구 덕수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장백에 나와서 처음으로 들린 마을은 신창동이었다. 신창동을 포함하여 16도구골 안에 있는 마을들을 통털어서 덕수골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들린 웃신창동은 두 개의 골개물이 합쳐지는 합수목밑에 자리잡은 40여 호 잘되는 벽촌이었다. 그곳에도 물방아가 있었다.

신창동 마을사람들은 그 날 우리 인민혁명군에게 물방아로 메밀을 찧어서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였다.

16도구 덕수골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원군운동은 그 후 왕가골, 약수골, 지양개골을 비롯하여 온 서간도땅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며칠 건너 한 번씩 숱한 사람들로 무어진 원호물자 운반대가 쌀과 천들을 이고지고 수림속 밀로를 따라 우리 밀영으로 들어오고는 하였다.

이에 급해맞은 적들은 장백일대에 무력을 증파하고 인민들을 들볶았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만 보이면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고 죽이였다.

≪공비에게 식량과 금품을 공급하거나 그와 연락을 취한 자는 통비로 인정하고

즉시 총살함.≫

이것은 당시 장백현내 도처에 나붙었던 서슬이 퍼런 경고문이였다.

백두산 부근의 국경마을 사람들은 지하족 한 켤레, 성냥 한 갑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영들에는 인민들의 원호물자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

인민혁명군에 대한 장백인민들의 원호사업은 자기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사업이였다. 그들은 혁명군을 돕는 길만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원군을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칠팔월 염천과 동지섣달의 폭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원군운동에 떨쳐나섰던 장백사람들의 군상을 돌이켜볼 때마다 내 눈앞에는 영화동 촌장이며 조직원이였던 이을설의 아버지 이병훈의 강직하고 소박한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그들 3형제는 모두 장백지방 원군운동의 선구자들이였다.

1936년말 우리가 곰의골 밀영에 있을 때 이병훈은 영화동 혁명조직에서 준비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사령부로 찾아왔다.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원호물자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인상깊게 기억되는 것은 보통 버선보다 솜도 많이 두고 기장도 곱절이나 긴 통버선이였다. 짐짝속에서 버선 한 켤레를 뽑아내여 발에 대보니 무릎에까지 와닿았다.


혁명화된 왕가골

나는 영화동 여인들의 알뜰한 솜씨와 지성에 못내 감탄하였다.

≪이것 참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칭찬하자 이병훈은 얼굴을 붉히였다.

≪장군님, 이 장백땅이라는데는 눈이 깊습니다. 겨울에 발건사를 잘못하면 고생이 막심합니다.≫

첫 대면이였으나 나는 그가 매우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차 알 수 있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짐군들을 이끌고 밀영에 와서도 인솔자라는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뒤에 서서 조심스레 나를 쳐다보고는 하였다.

내가 버선을 놓지 못하고 이모저모로 살펴보고 있을 때 누구인가 쌀배낭 아구리를 터쳐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이것 보십시오. 일본천황도 이런 보리쌀은 구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설같이 하얗고 정갈한 보리쌀! 이것이 정녕 옥백미가 아니고 보리쌀이란 말인가. 쌀을 얼마나 정성껏 찧었으면 이다지도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울가.

≪아버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보리쌀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찧었기에 이다지도 새하얗습니까?≫

≪네 번 찧었습지요.≫

≪아니, 보리쌀이야 두 번만 찧어도 밥을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 아낙네들이 원래 그런 이악쟁이들입니다.≫

이병혼은 이번에도 공로를 마을 아낙네들에게 밀어버리였다. 이 쌀을 찧느라고 수고한 것은 남정들이 아니라 여인들이다. 쌀은 공력만 들이면 찧을 수 있다. 네 번이 아니라 열 번도 찧을 수 있다. 혁명군을 위한 일인데 그거야 못하겠는가. 곤란은 밀정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쌀을 찧는 집이 어느 집이고 그 집에서 무슨 쌀을 찧는다. 찧은 쌀은 어디로 날라가는가 하고 감시하는데 있다. 그 감시를 피하느라고 부녀회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 그들은 혜산장에 가서 혁명군에 보낼 천을 사서는 허리에 둘러감거나 기저귀처럼 접어서 아이들에게 채운다. 여자들은 장마당 출입을 할 때마다 우정 아이들을 업고 간다. 눈치를 모르는 늙은이들은 고생을 사서한다고 사설질이다. 그래도 여자들은 그냥 아이들을 업고 다닌다. 그래야 천을 감출만한 구실도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을설

이병혼은 남정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여성들의 수고에 대해서만 입에 올리였다.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키였다. 나는 배낭속에서 보리쌀을 한줌 움켜쥐고 냄새를 맡다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일본천황은 높아도 뿌리없는 나무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튼튼한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이니 우리가 받는 이런 좋은 쌀을 천황이 어찌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영화동인민들이 벌인 원군운동의 전모를 우리는 이듬해에 이을설을 통하여 상세히 알게 되였다. 그 해에 그는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그도 아버지처럼 자랑을 싫어하는 사람이였다. 더구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수고와 관련된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언이라고 보아야 할지 한 가지만은 말하였다. 어머니가 배낭천을 살 돈을 마련하느라고 산딸기를 따던 이야기였다.

영화동에는 농량이 모자라 고생하는 집들이 많았다. 이을설이네 집도 그런 집이였다. 그러나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혁명군을 지원하는 일에서만은 남들에게 뒤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름에는 산딸기를 따고 가을에는 머루, 다래를 따서 혜산장에 가서 팔았다. 어머니가 산열매를 따다 고를 때마다 이을설의 어린 동생들은 어머니의 곁에 빙 둘러앉아 군침을 삼키고는 하였다. 자식들의 심정을 잘 아는 어머니였건만 그들에게 딸기 한 알 선뜻 쥐어주지 못하였다. 아이들이 딸기를 먹으면 혁명군에 바치는 지성이 그만큼 모자라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병혼은 밀영에서 돌아가자 자식들에게 나를 만나보았다고 자랑하였다. 이을설은 그 말을 듣자 당장 유격대에 찾아가 나의 수하에서 싸우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군님 수하에 있는 군대들은 다들 늠름하고 총도 잘 다루는데 베잠뱅이에 호미자루 밖에 모르는 네가 어떻게 감히 혁명군이 된단 말이냐. 좀더 수양을 하다가 가거라.≫

이병혼은 즉석에서 그 제의를 일축해버리고 아들을 조국광복회 분회조직에 넣어 단련시키였다. 이듬해 여름에 그는 아들과 조카를 유격대에 보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원군정신의 최고표현이였다.

이병혼은 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킨 후에도 혁명군에 대한 후원을 꾸준하게 하였다.

나는 1937년 늦봄에 천상수에서 다시 이병혼을 만나보았다. 그때 그가 가지고 온 물감들은 보천보전투 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대회에 장식할 꽃과 깃발을 물

들이는데 요긴하게 썼다.

정녕 장백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원호물자들에는 그 어느 것에나 눈물겨운 지성이 깃들어 있었다.

당시 화전농사를 하는 집들에서는 4명의 노력으로 1년에 기껏해야 20단내지 30단(한 단은 20말)의 감자소출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농마 한 말을 내자면 여라문 말의 감자를 갈아야 하였다. 그때 농마 한 말 값이 60전 내외였다. 농마 한 말을 팔았대야 지하족 한 켤레값도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술이나 엿 같은 것을 만들어 그것을 돈으로 전환시키었다. 수중에 돈이 있어도 물품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월이어서 그 한점한점의 원군물자를 마련하자면 실로 많은 노력과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백현 사람들은 그런 악조건에서도 별의별 물품을 다 장만하여 산으로 보내주었다.

장백현에 살고 있는 조선사람치고 원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란 거의 없었다. 지팽이를 짚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노인들까지 산에 들어가서 피나무 껍질을 벗겨왔으며 밤을 새워가며 우리에게 보낼 신을 삼았다. 부녀자들은 주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추운 겨울밤에 불도 피우지 못하고 번갈아 보초를 서가면서 방아를 찧었다.


온 가족을 혁명에 바치고 그 뒤바라지를 한 염보배

원호물자 운반조직은 대체로 촌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백현촌장들은 거의 다 조국광복회 분회장, 지회장들이여서 그들이 그런 일을 맡아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였다. 당시 우리 혁명군의 후방부관들은 촌장들앞으로 일부러 물자조달을 요구하는 위협적인 공문을 띄우고는 하였다. 촌장들이 혁명군을 위한 원호사업을 조직하더라도 적들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공문을 받은 촌장들은 위협에 못이기는 척 하면서 비밀리에 원호사업을 조직하였다.

마을에서 원호물자 운반대가 떠나는 날이면 인민들이 저저마다 달려나와 물자를 지고 가겠다고 자원해 나섰다.

우리 대원들은 장백현의 인가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때 우리가 자주 들려 도움을 받은 집들 중의 하나가 염보배어머니네 집이였다.

염인환의 말에 의하면 덕수골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은 강진건이라고 하였다. 그가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 일가친척 몇 사람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16도구골 안에 마을을 꾸렸다는 것이다.

염보배는 강진건의 사촌제수였다.

염인환은 염보배 내외가 강진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반일사상이 강하고 대가 바르다고 하였다.


강진건

그런 연고로 하여 나는 대덕수에 갔을 때 염보배 내외분을 찾아보게 되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그때 감자를 버무린 귀밀보리밥을 차려놓고 어쩔줄 몰라하던 보배어머니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밤중에 들려도 곧 밥을 지어줄 수 있도록 늘 커다란 함지에 귀밀쌀과 보리쌀을 불궈놓고는 하였다. 염보배어머니가 지은 귀밀보리밥은 부근부근하고 구수해서 맛이 참 좋았다.

밤에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주구들이 수상하게 여길까봐 바깥주인 강인홍은 굴뚝을 낮추고 밀짚단을 씌워 연기가 밑으로 흩어져나가게 하였다. 그 집

내외분은 다 마음이 비단같은 사람들이였다.

덕수골 사람들은 모두가 살림이 째지게 가난하였지만 혁명군의 시중을 들어주는 것을 하나의 큰 낙으로 여기였다.

적들이 하루아침에 대덕수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놓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북간도의 ≪피바다≫를 연상케 하는 참변이였다. 불탄 재를 쓸어내고 구들장 위에 초막을 세우면 적들이 또다시 달려들어 불을 질렀다.

염보배어머니네는 할 수 없이 신창동 장마자로 자리를 옮기였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염보배 어머니를 만나러 장마자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물방아소리가 들려왔다. 나에게는 그 소리가 좋은 징조로 생각되였다. 왜냐하면 물방아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고 원군을 최상의 낙으로 여기는 인민이 있고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조선의 넋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물방아소리는 마치도 원군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는 인민들의 장엄한 북소리처럼 들리였다.

나는 전령병을 데리고 먼저 물방아간으로 가보았는데 거기서 염보배어머니를 만나게 되였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무릎을 꺾으며 흐느껴 울었다. 대덕수를 떠나온 어머니의 울음속에는 너무도 큰 설움이 차있었다.

≪어머니, 그만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이겨내야지요…≫

나는 겨우 이렇게 위로하였다.

알고보니 그 물방아는 어머니네가 와서 새로 걸어놓은 것이였다. 물방아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귀틀집이 어머니네 집이였다.

그 날 어머니는 이웃마을에 가서 닭을 구해다 육수물을 만들고 닭고기꾸미를 메워 농마국수를 말아주었다. 그러고도 대접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면서 미안해하였다.

사실 나는 장백현 마을에서 무시로 맛본 농마국수가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귀한 손님을 맞아 연회를 차릴 때면 언감자국수나 농마국수를 별식으로 내놓곤 한다.

그날밤 어머니는 물방아소리가 나의 잠을 방해할까봐 퍽그나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잠도 잘 오고 사색도 잘되였다.

어머니네가 장마자에 와서 물방아를 새로 걸어놓은 것은 자기 일가의 생활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원군사업을 목적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 장마자라는 두메산골도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고장이 아니였다. 적들은 그 깊은 산중에도 촉수를 뻗치였다. 이도강경찰들이 갑작스레 달려들어 물방아를 마사버리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다. 염보배어머니네집 사람들은 사흘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반주검이 되어 소발구에 실려 돌아왔다. 매를 제일 많이 맞은 강노인은 중태에 빠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어혈에 특효가 있는 곰열을 얼마간 보내주었다. 그 집 식구들은 우리가 보낸 곰열을 쓰고 다들 일어났다고 한다. 제일 상처가 심했던 강노인까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원군사업에 달라붙었다.

목수재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산에 가서 박달나무를 찍어다가 마사진 방아채를 수리하였다. 자식들은 몸을 더 추세운 다음에 일손을 잡으라고 아버지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귀에 그런 말이 곱게 들릴 리가 만무하였다.

≪무슨 소리들을 하느냐? 지금 팔순되는 영감, 노친들도 산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돕겠다구 초신을 삼는다, 버선을 깁는다 극성들인데 이만큼 오륙이 성해가지구 낮

잠만 자서야 되겠느냐.≫

장마자의 물방아는 다시금 원호미를 찧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강인홍노인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 강종근을 혁명군에 받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두고 늘 보살펴주었다. 그런데 강종근은 그 후에 그만 아깝게도 전사하였다.

17도구 평강덕에 있는 김세운이네 집도 혁명군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훌륭한 가정이었다.

김세운은 두 동생과 아들딸 4남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혁명투쟁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준 성실한 혁명가였다. 마국화의 애인 김세옥은 그의 동생이고 항일혁명투사 김익현은 막내아들이다. 맏아들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잘 싸웠다. 그는 입대하자마자 간삼봉전투에도 참가하였고 후에는 국내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나는 그가 15년형을 받고 권영벽, 이제순 동무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1945년 봄에 학살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김세옥

혁명군의 밀영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산간오지에 있는 김세운의 집으로는 유격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국내에서 밀영을 찾아오는 혁명가들도 이 집에서 하루밤씩 묵어가는 것이 예사였다. 그의 집은 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무전숙박을 하는 ≪여인숙≫이었다. 그는 중국인 지주의 땅을 얻어 부치면서 거기서 생기는 농량을 몽땅 혁명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바치었다.

권영벽도 이 집에 거처를 두고 장백현 내의 당사업을 지도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김세운에게 ≪따스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따스포≫란 ≪따스프≫라는 중국말에서 전이된 것인데 취사원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런 별명을 들을만큼 손님을 많이 치르었다. 그 집 가마는 보통가마보다 다섯배쯤 컸다. 그처럼 큰 가마에다가 밥을 지어서는 큰 박죽으로 푹푹 퍼서 혁명군들을 대접하였다. 손님이 많은 날은 김세운이도 부엌에 내려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여인들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그는 심한 동상으로 발뒤축이 다 문드러져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자였지만 쌀가마니를 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방아간을 드나들었다.

≪내가 발뒤축만 빠져나가지 않았던들 좀 늙은대루 유격대에 들어가 군수관쯤은 할 수 있는건데…≫

그는 손님들에게 자주 이런 농담을 하였다.

소작농의 처지에서 하루에 한가마씩 밥을 지어 정치공작원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으니 과연 그 집에 무슨 낟알이 남아 있었겠는가. 아마도 김세운 자신은 끼니를 번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김익현

혁명을 지원하는 장백사람들의 헌신성은 참으로 비길 데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산을 다 털면서까지 열정적으로 혁명군을 지원하였으며 정황이 요구할 때에는 목숨까지 바치었다.

1937년 5월에 이도강으로 오가는 노상에서는 젖먹이 어린이와 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서 유격대 부상병을 몰래 치료해주다가 체포되었던 평범한 농촌 여성이었다. 일본군 헌병놈이 달려들어 치료중에 있던 부상병과 여인을 본부

로 압송하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집을 떠날 때 품속에 슬쩍 간수해가지고 온 빼또칼로 헌병장교의 얼굴을 난도질한 다음 장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아냈다. 그 덕으로 혁명군대원은 구출되었다. 여인은 부상병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권총을 틀어잡고 반 시간 가까이 헌병장교를 지키었다. 그러나 실신상태에서 깨어난 헌병장교가 여인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고 그와 그의 아이를 군도로 무참하게 찔러죽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얼마 후 항간에 새어나왔다.


주경동의
빼또칼영감 김용석

어느 날 밤 여인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비상사건이 일어났다. 헌병대놈들은 큰 변이라도 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밀정들이 24시간 동안 줄곧 감시하던 시체가 쥐도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분명 이도강이나 그 근처의 어느 혁명조직에서 기회를 보다가 잽싸게 시체를 빼내었을 것이다.

장백현에 가면 주경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이름난 혁명가들이 많았다. ≪빼또칼 영감≫ 김용석도 주경동에서 투쟁하였다. 그도 위에서 이야기한 그 이름모를 여성처럼 빼또칼로 포승을 끊고 자기를 호송해가던 일본군장교놈을 찔러눕힌 일이 있었다. 김용석이 유격대에 입대하여 군수관으로 복무할 때 전우들은 그에게 ≪빼또칼 영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때부터 그 별명은 김용석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가 말년을 보내던 평양의 아파트 아이들도 그를 ≪빼또칼 영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쉽게도 ≪빼또칼 아주머니≫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였다. 여인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부상병도 분명 대오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 모양이었다.

언제인가 나는 주경동 지하조직원인 지봉팔노인의 집에 두 대원을 맡긴 적이 있었다. 속병으로 앓고 있던 김용연과 부상을 입은 신입대원이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봉팔 노인은 그들을 두달 동안이나 정성껏 치료해주다가 적들의 ≪토벌≫에 목숨을 잃었다.

적들이 주경동에 달려들었을 때 지봉팔노인은 혁명군 대원들을 산으로 다 피신시키고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자기마저 집을 비우고 피해버리면 적들이 혁명군을 찾아 뒷산을 수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였다.

적들은 혁명군을 내놓으라고 을러메었으나 노인은 모른다고 잘라맸다. 적들은 가죽피대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노인의 얼굴에서는 대뜸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매가 반복되고 쌍욕지거리가 잦아질수록 노인은 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적들은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구뎅이속에 노인을 세워놓고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며 혁명군 부상병이 피신한 곳을 대라, 그걸 대기만 하면 상금을 주고 안대면 구뎅이에 묻어버려 구데기가 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노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악에 받친 원쑤들은 그를 구뎅이속에 세워둔 채 총살하였다. 노인은 운명직전에 마을사람들에게 소박한 부탁을 남기었다.

≪우리 군대를 잘 도와주우. 그래야 새 세상이 빨리 온다니까.≫

지봉팔노인의 최후와 관련된 이 사건은 그 후 ≪주경동사건≫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나는 훗날 김용연동무의 보고를 듣고 그 노인의 최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평생 땅을 뚜지며 소박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어진 농민이 어떻게 되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자기를 매장하게 될 구뎅이속에서도 그처럼 태연할 수 있었으며 거인처럼 꿋꿋이 서서 마지막 순간을 빛나게 장식할 수 있었는가.

우리 군대를 잘 도와야 새 세상이 빨리 온다고 한 지봉팔노인의 유언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하며 신념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절절히 깨우쳐주고 있다.

장백현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 혁명군을 도와주었지만 보상은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제 얼굴을 내민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염보배어머니는 나라가 해방되자 자식들을 데리고 혜산에 건너와 살았다. 그러나 자기가 어디에서 산다는 것을 1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는 1958년에 현지지도차로 양강도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염보배어머니가 혜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있었다.

≪어머니, 종근이도 먼저 가고 종근이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오늘 이렇게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어머니를 만나니...≫

나는 목이 메어 뒷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염보배어머니의 남편인 강인홍노인은 혁명군을 도와준 일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은 그 어혈로 피를 토하고 절명하였다.

나를 부둥켜안은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난 그전에 어머니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방이 되어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편지라도 한 장 하면 안된답디까.≫

나는 어머니의 터슬터슬한 손을 쓸어만지며 섭섭한 말을 하였다.

≪내라구 왜 평양으로 장군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소. 하지만 장군을 찾아 뵙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나요. 모두가 찾아가면 늘 바쁘신 장군께서 어찌 나라정사를 바로 볼 수 있겠소.≫

이전 날 우리를 보면 신발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동구 밖으로 뛰어나오던 그 열정적인 장백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는 자기 존재를 세상에 크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후 인차 염보배어머니를 평양에 모셔왔다. 그리고 경치 좋은 대동강변에 집을 잡아주었다.

항일혁명의 나날에 우리를 피로써 도와준 장백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김세운이도 1937년 가을부터는 국내에 들어가 운흥, 보천, 무산, 성진(김책시)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하조직을 꾸리고 원군사업을 보장하였다.

그 후에는 도문에 건너가서 해방되는 날까지 우차군으로 가장하고 지하활동을 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가 발을 상한 불구의 몸으로 성한 사람들 못지 않게 넓은 구역을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며 지하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가 진행해온 국내활동에 대한 자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역사가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어찌 이런 사람이 김세운 뿐이겠는가.

그 당시 서간도 사람들의 다수가 조국광복회 회원들이였는데 지금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들 모두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었다.

적들은 인민혁명군과 인민과의 연계를 끊어보려고 집단부락을 만들고 포대와 토

성과 철조망으로 원군의 강줄기를 끊어버리려고 하였지만 백두산으로 흐르는 서간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두어둘 수는 없었다. 집단부락 안의 자위단장, 촌장, 성문지기들의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로 되어있었으니 적들의 집단부락소동은 하나의 웃음거리 만화극에 불과하였다.

백두산근거지는 동만 근거지에 있을 때보다 주민지구와의 거리가 훨씬 더 멀었다. 그러나 군민의 연계는 반대로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가는 정도 더 열렬하였다. 인민을 믿고 백두산을 조선혁명의 새로운 책원지로 설정할 때 우리가 인민에게 건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깨끗한 애국충정과 혁명군에 대한 순정을 지닌 백두산근거지의 인민들은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원군운동으로써 적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장백현사람들은 혁명적 원군전통의 모범을 창조하고 빛내인 영웅적인 인민들이다. 원군사업은 각계각층, 각촌각호, 남녀노소를 다 포괄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그 원군의 뒷받침을 받아 적과의 어려운 대결에서 백전백승하였다.

광활한 서간도 땅을 누비며 흐르는 원군의 대하를 보면서 나는 조직화된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농호가 세 집밖에 안되는 등판이나 골짜기에도 조직은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 동네에도 통신원들을 시켜 짤막한 글쪽지 한 장만 보내면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 혁명군이 10리밖에 와있는데 우리 마을에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한다, 어서 빨리 차비를 해서 그 분들께 더운밥을 지어드리자고 하면서 부리나케 식사준비를 하고는 하였다.

쪽지편지 한 장이면 조직을 동원하여 서간도 인민을 한꺼번에 백두산으로 부를 수도 있었고 백두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게 할 수도 있었다. 서간도사람들은 1936년 가을부터 우리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화된 인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서간도에서 살고 있던 그 개개의 사람들은 다 구슬에 비길 수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었다. 그 구슬을 보배로 만든 것이 바로 서간도를 우리 세상으로 만든 조국광복회조직이였다.

만일 우리가 서간도인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개개의 구슬들은 적들에게 각개격파 당했거나 진로에 묻혀 빛을 잃었을 것이다. 제아무리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인간이라 한들 혼자서야 무슨 맥을 추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부를 조직이라고 늘 말한다. 자주화를 지향하는 각국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직이 가지는 의의는 영구불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하여 조직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며 혁명이 승승장구한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조직화를 약화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조직화는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권을 전취한 후의 국가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다음 그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을 계속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혁명에 끝이 없는 것처럼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도 종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회발전의 생리이며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칙이다.

우리는 지금도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 다음에도 인민대중을 끊임없이 조직화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힘으로 이 땅에 영원히 부강번영하는 자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 조국과 우리 제도를 철벽으로 보위할 것이다.

40년대 초에 일제가 소위 ≪일쏘선린정책≫으로 세인을 기만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고군독전≫을 떠벌이고 우리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때에도, 히틀러독일이 모스크바를 향해 파죽지세로 침공해 들어가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운운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왕청과 장백의 물방아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신심을 간직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 추종국가 군대를 대적하여 싸운 시련에 찬 전화의 나날에도 나는 장백의 물방아를 회상해보면서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였다. 물방아소리를 상기하면서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분명 장백마을들을 드나들 때에 그 물방아들에서 우리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확고부동한 지지성원의 의지, 죽음앞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지조를 보았던 것이다.

일시적 후퇴시기에 나는 이극로 선생과 함께 독로강(장자강) 기슭을 거닐면서 그에게 장백의 물방아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었다.

백두산에 있을 때 장백사람들이 물방아로 원호미를 찧어보내서 우리가 굶지 않고 싸웠다는 것, 원쑤들이 마을을 불사르고 물방아를 마사버려도 물방아소리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의 힘을 발동하면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때 장백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자그마한 골개물에도 물방아를 걸어놓고 쓸모있게 이용하였는데 이 넓은 독로강물을 그대로 내버리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 전쟁이 끝나면 이 강을 막아서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자고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원군전통, 군민일치의 전통은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나날을 거쳐 더욱 불패의 것으로 확대공고화되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지구상의 ≪최강국≫과 맞서 싸워 그를 타승할 수 있은 것은 적측이 거의 순수한 군사력만 동원한 반면에 우리측에서는 전민이 동원되고 군민이 단결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력한 원군전통, 군민일치의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지도밑에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인민이 군대를 돕고 군대가 인민을 돕는 ≪우리 마을, 우리 초소≫, ≪우리 초소, 우리 마을≫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동지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다음부터 그 운동은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장, 가두, 학교들에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군민관계는 세계의 어느 나라의 군건설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커다란 자랑이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이 위대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 어떤 원쑤들의 위협과 공갈앞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나는 일심단결, 군민일치를 조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로 여긴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듣던 물방아소리는 지금도 내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소리와 더불어 수없이 많은 장백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그들중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이는 몇 이고 감방에서 숨진 이는 얼마인가. 원군의 길을 걷다가 백두설령에서 몸을 얼구고 쓰러진 사람은 또한 얼마이랴.

그들의 은공을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의 정이 가슴에 차 넘친다.

3. 이제순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
위원장 이제순

우리는 백두산지구에 나오자마자 밀영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 한편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지대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조국광복회망 건설의 첫 대상지로는 백두산을 직접 끼고 있는 장백지구와 국내의 갑산지구가 선정되었다.

조직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용의주도하게 수행해 나가자면 생명을 걸고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하였다.

나는 서간도에 진출한 직후 소부대를 파견하면서 이동학중대장에게 재삼 강조하였다. 동무네의 기본임무는 인재발굴이다, 장백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아내라, 적을 치는 것은 부차적 임무이다, 인재탐색에 주력하면서 싸워 이길만한 적만 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동학은 이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이제순을 데리고 밀영에 돌아왔다. 이동학이란 사람이 몹시 덤비는 것 같지만 내속은 아주 찬찬한 묘한 사람이였다. 말을 어떻게나 빨리 해대는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신이 얼떨떨해질 지경이였다. 그는 늘 빠른 말씨로 대원들을 볶아댔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에게 ≪보따지≫라는 별명을 붙이었다. ≪보따지≫라는 별명은 ≪복닥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다.

이동학은 중대를 데리고 장백땅을 한바퀴 빙 돌다가 20도구 등판에서 청소년들의 아침체조를 지도하는 젊은 촌장을 만났다. 그 촌장이 바로 이제순이였고 아침체조를 하던 동네가 신흥촌이였다. 이제순은 촌장인 동시에 야학선생이였다. 신흥촌 사람들은 늙은이건 젊은이건 부녀자이건 할 것 없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네 촌장을 가리켜 우리 선생, 우리 선생 하면서 존경하였다.

이동학은 이제순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해볼 작정으로 그에게 중대가 2-3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촌장은 중대성원들이 다 지고도 남을만큼 엄청난 양의 식량을 잠깐사이에 모아놓고 밀영까지 져다 드리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말솜씨도 좋았지만 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아서 ≪보따지≫는 초면의 이 촌장에게 대뜸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후에 경솔하다는 비판은 좀 받더라도 이제순을 사령부에 직접 소개하고 싶었다. 그래서 촌장이 짐을 져다 주겠다고 할 때 그 청을 얼른 받아들이였다.

촌장이 마을사람들을 회동해가지고 자진해서 쌀짐을 지고 갔다는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보따지≫네 대원들은 이제순에게 포승을 지워 마치 큰 죄인이라도 호송해가는 것 같은 흉내를 내었다.

신흥촌을 떠난 식량운반대가 밀영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였다. 밀영에서 20-30

리 밖에 안되는 곳에 다달았을 때 이동학이 마을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제순은 자기를 밀영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동학은 이제순의 마음을 중떠보려고 일부러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건 곤란하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비밀기지에 데리고 들어가겠는가?≫

그러자 이제순은 이동학의 팔을 잡고 아주 기발한 제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놓고 한 번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떤가? 가령 목숨까지도 걸고 풀어내야 하는 일감을 맡길 수 있지 않는가.≫


이동학

이동학은 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3일 동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통버선 5켤레와 행전 5짝을 만들어오라고 하였다. 당신이 버선과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제시간에 돌아오면 밀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요, 제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빈손으로 돌아오면 불합격이라고 하였다.

이제순은 그까짓거야 못해내겠는가,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신흥촌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시켜 하루밤사이에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한 채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5켤레의 버선과 5짝의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접선장소에 다시 나타났다.

이동학은 그제서야 이제순을 부둥켜안고 통성을 하였다. 그는 자기의 별명이 ≪보따지≫라는 것과 고향이 어디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대주고 나서 ≪결국은 내가 당신네 이불을 거덜나게 했구려≫하였다. 이제순은 시험에 합격한 셈이었다.

내가 백두산지구를 한바퀴 선회하고 돌아오자 이동학은 신흥촌이라는 동네에서 좋은 청년 한 명을 물색하였는데 사령관동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밀영까지 데려왔다고 하면서 이제순에 대한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제순은 밀영에 들어와 지내는 며칠동안 대내출판물들을 읽느라고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어찌나 이악하고 직심스러운지 그사이 유격대원들을 따라다니며 무기분해결합법과 방위판정법까지 다 배워두었다고 하였다.

≪사람이 똑똑하고 대가 바른데다가 혁명을 하자는 열의도 높고 정열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접이 또 어찌나 좋은지 며칠사이에 우리 동무들을 다 친해놓았습니다. 군중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동학의 견해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신흥촌촌장에 대한 종적 평가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제순은 여자처럼 곱살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언제나 새물새물 웃는 것 같은 눈이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강쇠처럼 굳건한 속대와 바위와 같이 드놀지 않는 신념과 냉철한 사고력을 가진 강의하고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빈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이제순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였다. 가난 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남의 집 밭들을 돌아다니며 삯김을 맸고 10살 적부터는 이웃마을 지주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11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주집 머슴방에서 짚신을 삼고 있을 때 문득 어머니가 찾아왔다. 몹시 보고싶었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노전머리에 앉을 때도 눈을 들지 않았다. 너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짚신만 삼았다. 가련한 어머니는 아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 한 채 머슴방을 나섰다. 그제야 이제순은 일손을 놓고 뒤쫓아가서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말아요. 어머니가 오면 지주집에서 숙봐요. 뭘 얻어가지러 왔나 해서 업신여긴단 말이예요!≫

자식의 심정을 비로소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안은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네가 보고싶어도 내 다시는 지주집에 나타나지 않으마 하고 약속하였다.

이제순은 정규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나 독학으로 중등 정도의 지식까지 소유한 성실한 노력가였다. 14살까지 머슴을 산뒤에 몇 해 동안 야학방에 다니었고 형한테서 국문을 배우고 장가를 간 다음에는 옥편을 끼고 다니면서 자습하였다. 학교물을 먹어보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긴 이제순은 신흥촌에 오자 화전민의 자식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정열적인 계몽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제순은 고향에 있을 때 소년회와 청년동맹에 망라되어 몇 해 동안 조직생활을 하였다. 형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부터 일제경찰들은 그에게도 감시를 붙이었다.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속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이제순은 1932년초에 처가가 있는 갑산쪽으로 이주하였다. 그 무렵이 바로 박달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이 일대에서 애국계몽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제순은 그들과 함께 오풍동일대에서 비밀독서회를 뭇고 새 사조를 연구하는데 달라붙었다.

비밀독서회 성원들은 수난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었으나 투쟁방략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기었다. 그들은 올바른 투쟁진로와 명망높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에 줄을 놓았다.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농조, 노조 출신의 선각자들과 주의자들을 더러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명백한 투쟁노선이나 전술이 없었다.

이제순의 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쏠리었다. 1934년경부터는 인민혁명군이 장백지방으로 나온다는 풍문이 국내에까지 전파되었다. 이제순은 훈춘쪽으로 가려던 본래의 계획을 버리고 장백현 20도구 천가덕으로 넘어왔다. 훗날 그 천가덕을 개척한 이주민들은 자기네 마을에 신흥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었다.

신흥촌에서 보천보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 멀지 않았다. 그 마을에서는 베개봉, 소백산, 곤장덕과 함께 백두산도 볼 수 있었다. 백두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고장에서 산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은 이방의 서름서름한 풍토앞에서 망향의 슬픔을 금치 못하던 이제순에게 신비스러운 안도감을 주었다.


학교가 그리운 소작농의 자식들

그러나 관헌들의 압제와 생활고는 그림자처럼 이주민들을 따라다니었다. 소작료와 부역, 가렴잡세로 불쌍한 화전농들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지주들은 명절때마다 소작농들에게 뇌물을 강요하였으며 땔나무도 전적으로 소작농들이 맡아 해오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강건너 조선땅에 있는 가림리, 천수리의 경찰놈들까지 장백지방의 조선인주민들에게 화목을 해내라고 호통질하였다. 순사 나부랭이들은 민가를 시찰할 때마다 농민들의 닭둥우리에 손을 넣어 닭알을 꺼내먹고는 하였다. 화전농들의 식탁에는 보리밥이나 강태죽만 올랐다.

60여호를 헤아리는 신흥촌의 농가들에 소가 있는 집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 농민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역을 치루었겠는가. 농민들은 모두가 인력으로 보습을 끌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봄갈이를 할 때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그

들은 소도 없이 하루종일 후치질을 하였다. 처음에는 아내가 보탑을 잡고 남편이 소를 대신하여 보습을 끌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보습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보습은 땅에 박힌채 움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답답한 나머지 그만 고향에서 소로 밭을 갈던 타성대로 ≪이랴!≫하고 고함을 질렀다. 남편이 자기를 부림소로 여긴다고 생각한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여 발머리에 엎드려 오열을 터뜨리였다.

그러자 남편은 보탑을 놓고 내가 그만 실언을 했으니 용서하구려 하면서 곁에 주저앉아 이놈의 두더지같은 농꾼신세 언제면 끝장이 날까 하고 한탄하였다.

이러한 생활처지는 신흥촌농민들을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쉽게 각성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신흥촌

신흥촌주민들의 대부분은 함남북일대에서 이주해온 영세농민들과 농조와 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중단체들에서 반일운동에 관계하다가 새로운 활동무대를 찾아 이향출국의 길을 택한 망명가들이였다. 훗날 조국광복회 신흥촌지회와 그곳 당특별지부에서 사업한 김병철도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망명해온 사람이였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동지들에게 늘 농조조직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과 혁명군의 지도가 없이는 국내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물론 그 주장은 많은 동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혁명군의 줄을 어떻게 찾겠는가고 하면서 그 주장을 시답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라도 유격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친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백현 신흥촌으로 단호히 이주하였다.

그는 국내인사들 가운데서 해외의 무장투쟁과 국내정치투쟁의 불가분이성과 일원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공리공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군과의 연계를 성사시킨 다음에는 우리의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생명까지 바친 선각자, 투사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이주관, 이주익을 비롯한 조선의 애국자들은 1930년대 초에 장백지방에서 재만한인 적색농조를 결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대중투쟁을 벌이었다. 미신, 도박, 조혼, 매혼 타파와 문맹퇴치와 같은 계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농조의 활동은 점차 소작쟁의나 강제부역을 반대하는 경제투쟁의 단계를 거쳐 군용도로건설을 반대하고 군사시설구축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반일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장백땅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전까지 신흥촌과 주변의 대중운동은 그 적색농조가 주관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제순은 백지장처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생활경력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것은 그가 행세식 운동자들과 파쟁분자들의 그릇된 사고와 투쟁방법에 오염당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우리는 오히려 그 단순성을 값있게 여기였다. 다른 때가 끼지 않는 순결한 머리에 이식되는 사상이나 주의주장은 흐리터분해지지 않는 법이다.

반일애국운동을 하는 과정에 이제순이 터득했다고 하는 인생철학 가운데는 흥미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것은 선구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남이 한 가지를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거나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두걸음, 세걸음을 걷는 것이 제일 빼근한 일이라는 것이였다.

그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리가 있었다. 그것은 남들의 앞장에서 사회개조의 어려운 길을 개척해가는 혁명가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는 진리었다.

≪농사도 짓고 촌장노릇도 하고 혁명도 하느라면 고생이 막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이제순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오히려 저에게는 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월에 혁명을 하는 고생마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군중공작을 제일 큰 재미라고 하였으며 동지를 얻을 때의 기쁨을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였다. 군중을 쟁취하는데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 무엇인가고 하였더니 노인들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제순은 큼직한 운동장과 공회당(회관)만 있으면 한 동네를 계몽시키는 것쯤은 문제없고 웅근 한 개 면이라도 다 혁명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이제순의 군중관점과 군중공작에 대한 견해에 완전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군중계몽과 관련된 이제순의 경험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가정야학방≫의 운영이었다. ≪가정야학방≫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운영하는 야학을 말한다. 이제순의 집에서도 그런 야학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가정이 다 참가하였다.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온 식구가 모여 앉고는 하였는데 이제순이 팔을 걷고 나서서 자기의 아내와 동생들을 교육하였다. ≪가정야학방≫의 덕으로 이 집안은 문맹자가 없는 집안으로 되었다.

나는 군중공작과 관련된 이제순의 사업을 요해하다가 문득 그에게 밀영에 짐을 지고 온 다른 십가장들의 동향이 어떤가고 물었다.

이제순은 그 사람들의 동향은 다 좋은데 이동학중대장이 데려온 천지주의 양아들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 양아들이 혁명군을 ≪비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유격대가 자기를 죽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밀영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냥 불안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순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동학중대장은 경제모연을 하려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순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지주의 양아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합니까?≫

이제순은 마치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기의 속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나는 유격대가 그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은 지주의 양아들이지만 실상은 머슴이나 다름없는 불쌍한 청년인데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통일전선의 각도에서 문제를 너그럽게 고찰하는 그의 관용과 독특한 사고방식앞에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천지주의 양아들에 대한 이제순의 관점은 사실 우리의 관점과 일치하였다. 이동학은 그 양아들을 여러 가지로 교양하여 우리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로잡아주었다. 드디어 그는 자발적으로 입대를 청원하게 되었다. 우리는 천지주의 양아들을 본인의 소망대로 혁명군에 받아들이었다. 우리가 20도구 전투를 할 때 그 청년은 길잡이를 하였다. 이제순이 큰 믿음을 표시하여준 그는 그만 그 후 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어쨌든 이제순은 만 사람이 반할만한 특색있는 성격의 사나이었다. 그는 장백을 혁명화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적임자였다. 필요한 지식과 방법만 배워주면 이제순은 장차 훌륭한 지하조직활동가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장백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자는 참군을 열망하였다.

이제순은 우리가 싸움을 하러간 사이 참군준비를 좀 했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입대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성화를 먹이었다.

나는 입대시험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지≫동무가 동무를 시험쳐보고 데려왔으니 그것으로 입대자격증은 이미 받은 셈입니다. 동무가 정 요구하면 아무 때라도 유격대에 받아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혁명에 더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순은 얼떨떨해하였다.

≪다른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일개의 사격선수로 출전하기보다 큼직한 조직을 무어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군을 이기라고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직을 뭇는다는 겁니까?≫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동무가 살고 있은 신흥촌을 비롯한 압록강 연안의 도처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일입니다.≫

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가에 대하여 역점을 찍어 설명해주었다.

총명한 이제순은 그렇다면 지하조직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지 자신이 안간다고 말하였다.

≪그건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타고난 혁명가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아무나 혁명할 생각을 가지고 실천투쟁속에서 하나하나 착실히 배워가며 경험을 쌓으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순을 위한 단독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의 주제는 조선혁명의 노선과 성격, 전략전술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강의는 내가 담당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 규약에 대한 해설강의, 국제당사 강의는 이동백이 해주었다. 단 한 명의 수강생을 위하여 여러 명의 유능한 강사들이 번갈아 출연해가며 그처럼 알심있게 강습을 진행한 실례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그때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강습을 마치고 밀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순은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저는 쌀 한 말을 지고 왔다가 몇 섬이나 되는 혁명적 양식을 지고 갑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사업분공을 주십시오. 지역을 하나 떼서 맡겨주면 그 지역안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사는 모든 마을마다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겠습니다.≫

우리는 장백현 상강구 지역을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이제순은 자기에게 신임장을 한 장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의 도장이 찍힌 신임장만 내대면 군중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많이 묶어 세울 수 있고 또 일도 상당히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요구대로 신임장을 써주고 나의 이름밑에 도장까지 찍어주었다.

이제순은 그 자그마한 증명서를 받아들자 반년안으로 상강구 지역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였다. 그 장담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후의 그의 투쟁실적이 증명해주었다.

그날 이제순은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장군님, 제 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게 아니고 밀영을 떠나 기 전에 유격대의 군복을 입어보면 유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청이야 못들어주겠습니까. 군복을 입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그 청을 반갑게 받아들이였다. 참군열의가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청까지 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순은 지하광복전선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의를 다지면서도 참군열망만은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타고앉은 다음 중국본토와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야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향해 미친듯이 내달리고 있을 때 군복을 입고 항일대전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상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을 시켜 창고에서 새 군복 한 벌을 가져다가 이제순에게 입히게 하였다.

이제순의 군복맵시가 참으로 좋았다. 호수를 어림짐작하고 가져온 군복이었는데 몸에 딱 들어맞았다.

≪제순동무는 마치 군복을 입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같습니다. 옷맵시가 대단합니다. 군복까지 입어보았으니 이왕이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것으로 합시다. 오늘부터 동무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입니다. 제순동무, 입대를 축하합니다!≫

나는 이제순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그의 입대를 제일 열광적으로 축하해준 것은 이동학이였다. 이동학은 군복을 입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는 촌장을 업고 내 둘레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이제순은 밀영에 쌀짐을 지고 왔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순을 집으로 내려보내면서 그를 위장해주기 위한 소규모의 전투를 조직하였다. 그 임무는 이동학의 소부대가 담당수행하였다.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골탕먹인 이제순의 귀환담이 아주 재미있다. 그는 우리가 일러준대로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자기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20도구 경찰분서에 찾아가 다짜고짜로 행악질부터 하였다. 나는 촌장질을 더는 못하겠다, 당신들은 촌장을 부려먹을줄이나 알지 보호해줄 줄은 모른다, 내가 붙잡혀간줄 알았겠는데 당신네들은 아무런 구원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서 다시 조선땅에 넘어가 살아야 할가부다, 죽음밖에 차례질 것 없는 당신네 하수인 노릇은 다른 사람들이나 실컷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마구 들이댔다.

그러자 경찰들은 바빠나서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 우리가 당신 걱정을 하지 않은게 아니다, 당신의 행처를 몰라서 미처 손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좀 진정하고 그 동안 어디에 붙잡혀 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놓여나왔는지 그것이나 어서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제순은 유격대가 내내 자기의 눈을 싸맨체 끌고다녔기 때문에 그 동안 가있는 장소는 알 수 없고 새벽에 도망친 장소만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휴식참에 자기를 감시하던 보초병이 깜빡 조는 새에 삼십육계를 놓았다고 그럴듯하게 엮어댔다.

경찰들은 유격대가 몇 명이나 되던가, 도망친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따져묻고 자기들을 그곳까지 안내해 달라고 하였다.

일은 우리가 사전에 짠 각본대로 되었다. 경찰 ≪토벌대≫는 이제순이 대준 골안에 들어갔다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적들은 이제순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순은 적들의 신임을 능숙하게 이용해가며 그 해 가을 김병철, 이주관, 이삼덕과 함께 조국광복회 신흥촌 지회를 조직하였다. 이 지회는 백두산 서남쪽 턱밑에서 생겨난 최초의 조국광복회조직이였다.

이때부터 이제순은 촌장의 자리를 이삼덕에게 넘겨주고 권영벽과 함께 장백현 상강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장백현을 편의상 세 개의 지구 즉 상강구, 중강구, 하강구로 구분하고 활동하였으며 상강구는 다시 상방면, 중방면, 하방면으로 나누고 활동하였다. 이제순은 신흥촌에서 지회를 내온데 뒤이어 주경동, 약수동, 대사동, 평강덕에도 조국광복회 지회들을 조직하였다.

지회산하에는 또한 많은 분회들을 두었으며 반일청년동맹과 부녀회, 아동단과 같은 외곽단체들을 꾸려 각계각층을 폭넓게 결속시키였다.

불과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이제순은 상강구 전지역을 조밀한 지하조직망으로 뒤덮어놓았다.


20도구
조국광복회
특수회원 이주익

백두산밀영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마을들에는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그물코처럼 촘촘히 들어배기였다. 조국광복회조직은 현대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속에서도 침투되였으며 지어는 만주국의 관공서들과 경찰기관들, 정안군 부대들에도 뿌리를 내리었다.

조국광복회는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들을 두었다. 조국광복회의 외곽단체들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집결되었다. 조국광복회의 매개 지회는 생산유격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사시 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강력한 밑천으로 되었다.

장백지구에서의 조국광복회조직들의 확산이 어찌나 빠르게 진척되었던지 우리가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를 내오고 이제순에게 총책임을 지우던 1937년초에 이르러서는 장백현의 전지역이 완전한 우리 세상으로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을≫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촌락의 구장, 촌장의 직책들도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적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척 하였으나 안속으로는 우리 일을 하였다.

면장 이주익도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백두산 진출을 앞두고 장백지방에 선발대를 파견하였을 때 그는 김주현에게 흡수된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었다.

이주익은 우럭골에 약방을 차려놓고 의원일을 하는 한편 면장질을 겸하였는데 그 직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 사업을 아주 실속있게 뒷받침해주었다.

이면장이 국내에서 수리조합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감옥에 잡혀가던 그무렵부터 이제순은 줄곧 그를 주시해왔다고 하였다. 이주익은 이제순의 지도를 아주 허심하게 받아들이였으며 그가 하는 지시라든가 부탁을 매우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 당시 정치공작원들이 국내로 나가든가, 압록강 연안의 중국쪽 마을들에 발을 붙이고 안전하게 활동하자면 도강증이나 거민증 같은 증명서들이 필요하였다. 거민증이 없이는 파견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배겨있을 수가 없었고 도강증이 없으면 세관경찰들이 버티고 서있는 압록강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없었다.

거민증과 도강증은 면장의 보증밑에 경찰기관에서 발급하였다. 그런 증명서들은 경찰서에서 면장이 제시하는 민적부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내주었다.

이제순과 이주익은 우리 정치공작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두산 쪽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산골인 24도구에 많은 ≪유령민적≫을 만들어낼 꾀를 생각해냈다. 그곳 막치기는 멀고 험악하여 경찰들도 가기를 저어하는 곳이었다.

이주익은 민적부에 장백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치공작원들을 가명으

로 등록한 다음 그 민적부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수선을 떨었다.

≪산골 가난뱅이들이란 하나같이 무식하다보니 통 셈판을 모르거든. 일년 열두 달 내내 산골에 들어박혀서 아무데도 나다니지 않으니 도무지 세상물계도 알지 못하고 거민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니 어찌겠소. 그 곰같이 우둔한 것들한테 이쪽에서 갖다줘야지 별수가 있소. 다리가 늘어져도 할 수 없지. 정말 면장질 하기도 헐친 않구만.≫

경찰서에서도 백성들이 무식해서 야단났다는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면장, 촌장들에게 수다한 ≪유령민적≫에 따르는 거민증을 내주었다. 이제순에게는 이주익이 마련해다 준 예비거민증이 언제나 푼푼히 장만되어 있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아무 때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타고장에도 수월히 발을 붙일 수 있었고 국경도 쉽게 넘나들 수 있었다.

장백지구에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 사업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 꾸려진 조직들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혁명운동을 국내깊이 확대하기 위하여 단꺼번에 30여명의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한 일이 있다.

신흥촌에는 첫 여성중대장 박록금(박영희)과 2명의 소년공작원이 파견되었다. 이제순에게서 그 세 사람의 거주수속을 일임받은 이주익은 그들을 가명과 변성명으로 민적부에 올리었다.

19도구 지양개에서 구장노릇을 하던 이훈도 이제순의 영향으로 조국광복회에 가입한 사람이었다. 이제순은 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후 인차 이훈을 찾아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소개한 다음 김장군의 뜻이라고 하면서 믿을만한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 과업을 받고 이훈이 이제순에게 소개한 맨 첫 사람이 함경남도 영흥(금야)에서 농조운동에 관계했다가 19도구 덕삼촌에 와있던 안덕훈이였다. 1937년 봄에 이제순은 안덕훈을 책임자로 하는 조국광복회 19도구 지회를 조직하였다. 그 관하의 모든 부락들에는 그 해 여름까지 분회들이 다 조직되었다. 분회장은 대체로 촌장이 겸하였다. 조직의 활동이 얼마나 드셌던지 이 지방들에서는 소년들이 혁명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르며 돌아다니었다.

나는 백두산에서 활동할 때 이훈을 몇 번 만나보았다. 그때 그는 이제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를 보고서 사람복이 있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 사람을 면바루 고르셨습니다. 장백땅이 넓다고 하지만 제순이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혼살림의 재미도 다 뒤에 두고 늘 객지에서 혁명운동을 하느라고 바삐 돌아다니는 그를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갑니다. 저두 그 사람 덕으로 장군님 부하가 됐는걸요.≫

우리 사령부가 장백현 19도구의 지양개 뒷산에 가있을 때 이훈은 아내와 함께 우리 일을 잘 도와주었다. 지양개 뒷산은 수림을 거쳐 곰의골까지 갈 수 있는 유리한 곳이었다. 그때 이훈의 아내는 장백현 시가지에 내려가 담배장사나 두부장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자기 집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는 하였는데 인민혁명군의 보초소들에서는 그 모닥불을 보고 사령부에 적정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는 하였다. 이훈은 적들의 대부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정황이 생기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애국적인 면장, 구장, 촌장들은 장백의 도처에 있었다.

장백이 우리 세상으로 되고 장백사람들이 우리 사람들로 된 것은 백두산근거지 창설의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때로부터 반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장백과 그 주변을 완전히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순과 같이 충실하고 과감하고 열

정적인 혁명가들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순은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태어난 민중의 참된 아들, 참된 충복이었으며 민중의 해방을 위해 육탄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온 훌륭한 조선의 애국자,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제순은 지하조직활동가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충분하게 소유한 원숙하고 세련된 혁명가였다.

오중화와 마찬가지로 이제순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우선 자기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반일애국사상으로 무장시켜야 온 동네를 혁명화하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 온 민족을 혁명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고 혁명활동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을 때부터 동생들을 혁명사업에 끌어들이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의 혁명사업을 잘 도와주었다.

이제순은 신흥촌에 온 다음 아내와 장모도 혁명사업에 인입하였다.

남편의 세밀한 방조와 사랑속에서 아내 최채련은 조국광복회 산하 신흥촌 부녀회회장으로 성장하였다.

최채련은 남편의 영향밑에서 사상적으로 빨리 각성되었다. 그는 정서도 풍만하지만 정치적 감수성이 또한 대단히 예민한 여성이었다. 이런 장점은 그로 하여금 혁명하는 방법도 빨리 터득하게 하고 혁명가가 지켜야 할 준칙도 철저히 엄수하게 하였다.

이제순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익살도 부리면서 아내를 몹시 살뜰하게 대해주었지만 일단 지하사업에 들어가면 공과 사의 계선을 명백히 긋고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았다.

한번은 이순사의 처가 최채련에게로 뛰어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야, 채련아, 넌 하루 세끼 익은 밥먹구 눈이 멀뚱멀뚱해서 뭘하니. 너 우리 마을 주막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구 있는지 아니?≫

최채련은 영문을 몰라 순사의 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하였다.

≪몰라, 나같은게 주막집 일까지 어떻게 다 알겠니.≫

≪넌 참 까마밤중이로구나. 네 남편이 거기서 밤마다 남의 여편네들을 끼고 재미를 보는데…≫

이순사의 처는 여기까지 말하고 살며시 자취를 감추었다.

최채련은 그날밤중으로 그 주막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니 이순사의 처가 말하던대로 주막집에는 정말로 알지 못할 여인들과 남정들이 한방 가득차 있었다. 그 한복판에 이제순도 앉아있고 이순사도 끼어있었다. 그런데 이순사의 처가 말하던 그 ≪재미≫라는 것은 있을상싶지 않았다. 최채련은 경찰들의 시선이 덜 미치는 이 너렁청한 주막집에서 남편이 주관하는 어떤 비밀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간파하였다. 그러고보면 이순사도 지하조직원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순사의 처는 새빠지게도 왜 재미를 본다고 말하였을까? 시샘이 지나친 나머지 비밀회합을 ≪재미≫로 보는 착오가 생긴 모양이었다.

최채련은 안도감에 휩싸여 주막집 문을 황황히 닫아버리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예리한 눈길을 모면할 수 없었다. 이제순은 온밤 아내를 무섭게 다불리었다.

최채련은 빗발처럼 쏟아져내리는 욕을 고스란히 들으면서 자기가 남의 꼬드김에 들어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는 것과 무근거한 불신이나 시샘은 가정의 화목을 깨며 나아가서는 가정자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부부관계의 공고화를 담보하는

첫째가는 기초는 믿음이라는데 대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제순은 그날밤 아내에게 온갖 강권행사를 다하면서도 청백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네가 주막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처럼 비밀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였다. 우리가 혁명가 일반, 특히는 지하공작원들, 지하조직활동가들에게 필요한 행동규범들을 법적으로 성문화한 것은 없었지만 이제순에게는 자기자신이 제정하고 준수하는 마음 속의 법이 따로 있었다.

나는 장백지방에서 활동할 때 신흥촌에 있는 이제순의 집을 두 번인가 방문하였다. 어느 때인가는 그 집에서 언감자국수도 먹고 자기도 하였다. 내가 갈 때마다 이제순은 정지간과 방 사이에 문발을 치고 최채련이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최채련은 끼니때마다 내앞에 밥상을 가져다놓으면서도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훗날 박록금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은 말끝마다 사람을 믿어야 하다고 하면서도 나한테는 종시 그분이 **김일성**장군이라는 것을 안대주었지요. 세상에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어요?≫

≪여보, 그 비밀만은 누구에게도 대줄 수 없었소. 다 그분의 신변을 위한 것이였으니 당신이 섭섭한대로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겠소.≫

이것이 바로 이제순식의 법이였다.

그가 보여준 강인한 성품과 수미일관한 원칙성은 최채련의 성격발전과 세계관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제순은 백두산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 같소. 그러니 감자랑, 감분이랑, 보리쌀이랑, 된장이랑, 땔나무랑 많이 장만해두어야겠소. 당신이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소.≫

최채련은 그 후 유격대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의 시중을 드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는 날마다 방아를 찧었다. 어찌나 많은 쌀을 찧어냈는지 이제순이 손수 만들어준 방아확에 구멍이 날 지경이였다.

이제순은 가정을 혁명화한 다음 마을도 혁명화하였다. 그는 권영벽과 함께 신흥촌에 당특별지부도 조직하였다. 그 지부가 조직된 후 장백지방에서는 수많은 조국광복회원들이 당대열에 들어섰다. 사람들을 조직에 결속시키고 유격대를 원호하는데서 신흥촌은 단연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부탁이였다.

신흥촌사람들은 유격대가 마을에 온다는 말만 들으면 기름을 짤 들깨부터 닦았다. 그들은 유격대에 보낼 원호미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량절약을 이악하게 하였다. 그 마을의 주산물인 감자는 운반에도 불리하고 이용가치도 적었다. 그래서 농마로 가공하여 유격대 밀영으로 보냈다.

신흥촌의 부녀자들은 장도 생것으로 그저 보내지 않고 가공하여 보내주었다. 장에다 밀가루를 넣고 떡처럼 빚은 다음 불에 구워서 보냈는데 보관과 이용에 아주 편리하였다.

신흥촌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낸 각종 원호물자들은 수만 점에 달하였다. 그 많은 물자들을 그들은 등짐으로 져서 밀영이나 유격대의 숙영지까지 날라다주었다.

신흥촌인민들이 지도자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순이 능력있는 사람인데다가 권영벽, 박록금, 황금옥이 그를 잘 도와주었다.

나는 보천보전투전에 신흥촌에 가보고 이 마을 인민들의 혁명군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단결된 모습앞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국수분틀 4개를 가져다놓고 수백 명분의 국수를 잠깐사이에 다 눌렀다. 정말

벼락같은 일솜씨였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신흥촌을 가리켜 욕심나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정말 신흥촌 주민들은 하나같이 욕심나는 사람들이었다. 후에 알게 된데 의하면 이제순은 우리가 갈 때마다 사전에 비상회의를 열고 환영대책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이제순이 높은 조직적 수완과 임기응변의 묘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37년 봄에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는 신흥촌에서 5.1절 시위를 조직하였다. 대낮에 그것도 만인의 주시속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벌이자면 적들이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럴듯한 계책이 필요하였다. 이제순은 여우잡이를 구실로 각 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시위대열은 붉은기를 들고 한줄로 늘어서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압록강이 굽어보이는 산능선을 따라 20도구 남석부락까지 행진해갔다. 시위군중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두간두간 다른 구호들도 불렀다.

그날 압록강 좌우 양안의 인민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희한한 시위를 통쾌한 심정으로 구경하였다. 강건너 가림천 주재소와 국경수비대의 군경들은 혁명군이 내습한 줄로 알고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소요의 진상이 무엇인지 감히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적들은 시위가 끝나고 그 시위의 주인공들이 사민들이라는 것이 판명된 다음에야 장백땅에 건너와서 무슨 일로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와 밀려다니는가고 물었다.

시위군중들은 여우잡이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우잡이를 하는데 붉은기는 왜 들고 다니는거야?≫

경찰들이 물었다.

≪여우는 붉은색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를 들었습지요.≫

시위자들은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경찰들을 속여넘기었다. 사실 붉은기는 여우잡이에도 필요했고 시위에도 필요하였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치달아오르던 1937년 당시 수백 명의 집단이 백주에 붉은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그것이 반일반만시위라는 것을 일만군경들이 다같이 감촉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이것은 뛰어난 지략과 대담성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안해낼 수 없는 큰 모험이었다. 우리가 보천보를 친 후 이제순은 신흥촌 부녀회성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전투결과를 알아내고 인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주었다. 우리는 이제순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창발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포치한 사업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보더라도 우리는 이제순이 혁명에 대한 자기 식의 방법론을 가진 재능있는 일군이며 열정적인 사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혁명과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시대적 사명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많이 썩인 사람이었다. 그런 진통과정이 부단하게 되풀이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짧은 기간에 그처럼 철저하게 장백땅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드는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색이 없는 인간들한테 창발성이 있을 수 없고 창발성이 없는 곳에 창조와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고 있은 상식이다.

인간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는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 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색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는 사색과 사색의 누적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해왔고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군림하였다.

우리 당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해 정열적인 사색가가 되라고 호소

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사색이 노는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제순은 사색과 실천을 원만하게 결합한 창조적인 인간이였다. 그는 법정과 옥중에서도 사색을 중단하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그의 사색은 공산주의자로서 일생을 어떻게 마치겠는가 하는데 집중되였다.

≪법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 자신이 더 많은 ≪죄≫를 뒤집어쓰면서라도 동지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혜산경찰서 구류장에 있을 때 내린 결심이였다. 실지로 이제순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성공하였다. 면장 이주익이 체포되었을 때도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김**장군과 나,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장군은 산에 있고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만 버티면 아무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익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며칠만 고생을 하고 풀려나왔다. 이제순이 모든 ≪죄상≫을 자기의 한 몸에 뒤집어쓰고 나선 덕으로 신흥촌당조직책임자였던 김병철과 이주관도 극형을 면할 수가 있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 거기에 공산주의자로서의 이제순의 숭고한 미덕이 있었다.

권영벽을 통하여 감옥에서 장중렬이 변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제순은 그의 변절로 해서 견실한 동지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 같아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가 적의 개로 되었다는 사실을 동지들에게 한시바삐 알려주어야 하겠는데 그에게는 꽁다리연필 하나 없었다. 그는 생각다 못해 이빨로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가락 끝에 한방울 한방울 묻혀가며 천쪼박에 ≪장중열 변절≫이라는 글을 써서 고문실로 나갈 때 다른 감방에 넣어주었다. 그래서 많은 동무들이 그자의 정체를 알고 옥중투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순이 7년동안 감옥에서 싸운 감동적인 일화들을 이 글에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최채련이 면회를 갔을 때 본 이제순의 얼굴은 이전날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 늘 보고는하던 그 곱살하고 탄력있던 얼굴이 아니였다. 옥중의 남편은 본래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철창밖의 아내와 면회를 하면서도 이제순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셈평좋게도 사식이 아니라 세계지도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유다른 주문앞에서 최채련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이제순이 옥중에서 세계지도를 요구한 것은 2차대전 후의 새로운 세계구조, 대전의 결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 해방조국의 모습을 지구상에서 자기나름대로 그려보고 싶었던 욕망의 표시가 아니였겠는가고 생각된다. 이것은 그가 사형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절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조국의 찬란한 미래, 세계의 광명한 미래를 끝없이 그려보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산 사람이였고 죽음앞에서도 해방된 조국땅에 백화로 만발할 행복한 새 삶을 그려본 사람이였다. 그러기에 전향을 권고하는 법관앞에서 ≪공산주의는 영원한 청춘≫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1945년 초에 최채련은 막내딸과 함께 서울 서대문형무소 면회실에 나타났다. 출생 후 두달도 못되어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갇혀 젖고생에 시달려오던 막내딸은 어느덧 8살잡이 꽃망울 소녀가 되었



일제강점시기의 서대문형무소

다. 그 애는 철창 저쪽에 나타난 수염이 검숭검숭한 사나이를 이상야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다.≫

최채련은 그 사나이를 손짓해보이였다.

아버지의 딸은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8살이 다되도록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온 딸의 입에서 어떻게 ≪아버지!≫라는 부름소리가 쉽사리 터져나올 수 있겠는가. 딸은 이웃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을 애무해주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별난 아버지였다. 딸이 왔는데도 안아주지 않고 철창 너머에서 웃고만 있었다.



혁명열사릉의 이제순동지 반신상

절그럭거리는 쇠고랑 소리와 함께 수갑을 찬 아버지의 손이 자기의 머리를 살뜰히 쓰다듬어줄 때에야 딸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부름소리가 비로소 흘러나왔다.

이제순은 뜨거운 것을 삼키며 ≪아버지는 인차 집으로 간다≫는 실현될래야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딸과 하였다. 생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딸에게 그런 허망한 약속밖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제순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물론 그는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1945년 3월 10일 적들은 심문장에 이제순을 불러내다가 설복하였다. 오늘은 우리 일본 황군의 육군절이다, 당신이 이제라도 전향을 하면 사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순은 그 어떤 회유와 악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장백의 이름없는 산촌에서 야학선생과 촌장으로 있던 이제순은 항일혁명에 꽃다운 한생을 바친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혁명투사였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혁명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생활과 투쟁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사상이 견실하고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불타는 사람이 옳은 지도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혁명가로 된다는 것은 혁명의 진리이며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사상혁명을 선차시한다. 그것은 이 사상혁명이야말로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강의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요람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제순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우리 밀영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국광복회조직을 위해 바친 그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두 손을 내흔들며 난색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건 저의 수완이나 수고덕이 아닙니다. 그 신임장이 이주익면장 같은 사람도 대번에 광복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면장은 그 신임장을 보더니 **김**장군이 회장이라면 자기도 그 회원이 되게 해 달라질 않겠습니까. 장백사람들이 또한 애국열도가 높은 사람들이지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순은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도 대성산 혁명열사릉에서 자그마한 반신상의 겸허한 모습으로 후대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권영벽, 이동걸, 지태환도 나란히 서있다.

4. 남만의 전우들과 함께

백두산일대의 여러 곳에 밀영들을 꾸려놓고 압록강 연안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에 있은 사실 가운데서 또 하나 인상깊이 회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부대를 찾아온 항일연군 제1군 2사 동무들과 함께 공동생활, 공동작전을 하면서 전투적 우의와 연대를 두터이해가던 일이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인공산주의무장부대들과의 협동문제는 이미 1935년 3월의 요영구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있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후 우리 부대는 북만으로 두 번째 원정을 갔고 다른 부대는 신개령을 넘어 남만으로 떠나갔다. 우리의 익측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중국인무장부대들로는 영안지방에서 활동하던 주보중부대, 밀산지방에서 활동하던 이연록부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양정우부대, 주하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상지부대를 들 수 있다. 당시 이 부대들은 제가끔 인접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었다.

남만에 진출한 동만의 독립 1사는 1935년 8-9월 몽강현 나루훈에서 1군의 전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때 우리 부대는 노야령을 다시 넘어 주보중부대와 협동작전을 하고 있었다.

남만에 파견되어간 대오속에는 왕청 출신의 지휘관들인 오중흡과 김평도 있었다.

남만동무들은 솔대문도 세우고 깃발도 띄우고 연락도 차리고 환영사도 하는 등으로 동만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했다고 훗날 오중흡도 감격에 겨워 회상하였다. 그 행사가 참으로 장관이었다고 한다. 그날 남만부대를 대표해서 양정우가 환영사를 하고 동만부대를 대표해서 이학충이 답사를 했는데 두 사람의 연설은 수백 명이 보내는 박수갈채로 하여 자주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장면을 재치있게 압축한 그림이 ≪인민혁명보≫라는 신문호외에 실렸던 기억이 난다.

조국안이 사단의 주력을 이끌고 곰의골 밀영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전투를 하느라고 밀영에 없었다. 전장에 나가 돌아다니는 우리에게 남만부대의 도착소식을 알려준 것은 김주현이 보낸 통신원이였다. 부대의 식의주문제를 맡아보는 김주현은 손님접대를 통이 크게 하느라고 무던히도 마음을 쓰는 것 같았다. 우리는 남만에서 온 동무들을 빨리 만나보려고 싸움을 끝내기 바쁘게 밀영으로 돌아섰다.

인접부대의 전우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낙으로 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항시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귀중하고 강렬한 감정이였다. 인가와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의 산중생활에 어찌 그리운 것이 한두 가지 뿐이였겠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혈육에 대한 그리움, 학우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온갖 문명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 모든 그리움 중에서도 가장 큰 그리움은 동지들에 대한 그리움이였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이 그리움 때문에 부대가 주민지대에 머무르는 날은 우리 모두의 명절이였다.

조국안부대의 전우들이 우리 밀영에 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나의 전우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통신원을 부둥켜안은 것도 그와 같은 감정의 표시였다.

우리가 밀영에 돌아오자 남만에서 온 70-80명의 동무들은 병실에서 뛰쳐나와 겹겹이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포옹과 악수의 사태 속에 파묻히었다. 그때의 그 광경을 딴 사람들이 보았더라면 남만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밀영에 우리가 가서 환영을 받고 있는 듯한 감을 느끼었을지도 모른다.

이 상봉을 계기로 나와 조국안사장은 처음으로 낯을 익히게 되었다.

조국안은 의지가 굳고 요구성이 강한 군사학교교관 같아 보이었다. 그것이 조사장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었다. 그런데 며칠동안 침식을 같이하고 나서는 인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는 대단히 다심하고 붙임성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보다는 나이가 여라문살 더 든 듬직한 사람이었다.


조국안

그가 길림성 영길현 태생이고 길림사범학교 출신이라는데서 나는 동향인이라도 만나는 것과 같은 친근감을 느끼었다. 그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 제1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 후에는 산동군정대학에도 다니고 베이징에서도 공부하였는데 조국안이 맑스-레닌주의학습에 열중한 것은 바로 이 두 학교를 다닐 때였다고 한다. 조국안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후 1군 1사 7연대 정치위원을 하다가 1934년 가을부터 1군 2사 사장 겸 정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김**사령, 협동하려는 상대가 이런 몰골을 하고 나타났다고 나무라지 마시오. 내가 부대지휘를 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오.≫

조국안은 우리의 주위에 겹겹이 서있는 부하들을 가리키면서 열적은 표정을 지어보이었다. 남만에서 온 손님들은 지휘관이건, 대원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름한 여름옷을 입고 있었다. 속옷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해진 그 군복들에서는 사단이 걸어온 고난에 찬 장정의 흔적이 그대로 엿보이었다.

≪**김**사령,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린 아직 대원들에게 겨울옷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조국안은 우리 대원들이 입고 있은 푹신한 솜동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그리었다.

≪부끄럽다니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옷들이 저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우리 부대 모습도 저랬습니다. 2사 동무들이 나무라지 않는다면 우리 부대에 동복이 여유가 좀 있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먼저 갈아입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새로 지어 입히기로 하구요. ≫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조국안은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밤잠을 편히 자겠습니다.≫

나는 밀영에서 조사장과 함께 스무날 가량 침식을 같이해가며 공동투쟁문제를 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 그와 퍽 친숙해졌다. 우리는 두부대의 협동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부대관리문제, 대내교양문제, 대열보충방도문제, 군중공작방법문제, 유격전술문제, 조중 두 나라 혁명의 전도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사사로운 가정잡사에 대한 견해까지도 허물없이 나누었다.

내가 조국안의 품성가운데서 매력이라고 본 것은 솔직성과 소탈성이었다. 그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솔직하고 겸허한 사람이었다. 그와의 담화에서는 10년쯤 되는 나이의 격차 같은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조국안은 나이의 차이라든가 직위의 고하 같은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상대가 일단 마음에 들면 자기의 속마음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보이는 사람이었다. 조국안 사장은 부대가 겪어온 곡절과 그

과정에 당한 인명손실에 대하여 나에게 서슴없이 다 말해주었다.

조국안이 지휘하는 1군 2사는 조선사람들이 반석에서 조직한 반일인민유격대를 모체로 하고 여기에 위만군 반변자들과 산림대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1사 1연대를 포함시켜 꾸려진 사단이었다. 사단의 기본활동구역은 반석현과 그 주변일대였다.

그런데 부대는 사단으로 편성된 이래 군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여름에는 휘발하 북쪽의 강북으로 원정을 갔다가 겨울이면 돌아와서 원정과정에 입은 손실을 메꾸고 역량을 보충해서는 다음해 여름에 다시 강북으로 출정한다는 것이었다. 유격활동구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한 해에 한 번씩 어김없이 진행해온 정기적인 이동작전이었다. 그런데 이 규칙적인 이동작전이 적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고정불변한 활동노정이 그들의 작전지도에 오르게 되었다. 적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불의에 타격을 가하고는 하였기 때문에 그 부대는 원정때마다 매번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는 하였다.

그 해(1936년) 여름에도 사단은 원정과정에 적지않은 전투인원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조국안은 사단의 일부 역량을 거느리고 동만 1사부대들과의 협동으로 멀리 액목현 삼송까지 갔다 왔다고 하였다.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화전현 회전잔일대에 집결하였다가 무송현을 거쳐 우리한테로 직행하다나니 1군의 후방기지가 있는 몽강현 나루훈에도 들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여름옷을 동복으로 갈아입히지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고민속에 모대기며 부대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방책을 이리저리 모색하던 조국안은 어느 날 무송현 삼도라자하 일대에 나가 식량공작을 하다가 돌아온 송무선의 소부대성원들한테서 우리가 진행한 무송현성 전투담을 듣게 되었다.

조국안은 그 전투담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남들은 새로 꾸려진 사단을 가지고도 연전연승을 하는데 우리 부대는 어찌하여 매번 고전만 치르어야 하는가, 원정을 갈 때마다 적지 않은 유생역량의 손실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여름이 오면 기계적으로 강북으로 떠나곤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휘관협의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부대의 군사활동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토의되었는데 그 대책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부대와의 공동작전을 한시바삐 하자는 것이었다. 공동작전을 하게 되면 전술과 전법도 발전시킬 수 있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공통된 주장이었다. 이 제안의 주창자가 송무선이었고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바로 조국안사장 자신이었다.

사단은 곧 우리 부대의 소재지를 향해 화전현 대동구를 출발하였다.

짐작컨대 2사의 전우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싸움은 그닥 흥취나게 해본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겪어온 시련과 고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나니 어쩐지 그 시련이 남의 시련같지 않고 그 고초 역시 남의 고초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세칭 남만유격대라고도 부르는 동북항일연군 제1군은 사실에 있어서 북만에 있는 유격대와 더불어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주요한 인접이었다. 우리는 항일전쟁의 첫 시기부터 남만유격대의 성장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였고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유격전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동만의 우수한 조선인간부들을 많이 파견하였다. 1932년 여름 남만으로 갈 때 우리가 이홍광, 이동광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그들과의 제휴를 실현하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과 함께 공동작전은 해보지 못하였다.

남호두회의 이전시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로 북만유격대와의 합작에 치중하였

다. 그래서 원정부대를 이끌고 두번이나 북만에 갔었다. 우리는 거기서 공산주의자들과도 공동작전을 하고 반일부대들과도 연합작전을 펼쳤다. 가슴아픈 손실도 있고 희생도 없지 않았으나 인접과의 연합은 큰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우리가 간도에서 유격근거지에 의거하여 싸울 때는 남만보다 북만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왔던 것도 사실이였다. 영 하나만 넘으면 북만이였다.

그러나 우리가 서간도를 새로운 활동무대로 삼고 싸우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북만보다 남만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접이 되였다. 백두산서남부지역에서 우리가 매일 같이 울린 총성은 남만부대들에도 인민혁명군과의 협동을 한시바삐 성사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욕을 안겨주었다. 남만부대들과의 연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안문제로 되였다. 조국안사단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와 사단급에서 공동작전을 실현한 첫 대상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남만에서 활동한
당정치일군
이동광

동만이나 북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만에서의 유격투쟁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주도되였다고 할 수 있다. 남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일연군 제1군 소속의 1, 2, 3사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조선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정우, 위증민, 조국안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사정치간부들도 역시 조선사람들이였다.

주보중은 1945년 12월 길림의 어느 한 집회에서 한 보고에서 1932년도에 건립된 억센 동만유격대와 1933년에 건립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탕원유격대는 모두 조선동지들과 혁명적인 조선군중에 의하여 창건되었는데 그것이 후에 항일연군의 여러 군으로 발전하였으며 제5군에도 적지 않은 우수한 조선동지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항일연군 각 군의 군장, 정치부주임으로부터 소대장, 지도원에 이르는 각급 군정간부들 중에는 조선동지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유격대가 바로 남만유격대, 항일연군 제1군의 전신이다.

반석유격대라는 통속적인 명칭 자체가 말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남만유격투쟁의 발상지는 반석지구였다.

반석현당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 소속된 공산당원은 40명 정도였는데 그들도 모두 조선사람들이였다고 한다. 여기서 이홍광이 10명 안팎의 조선사람들로 첫 무장대를 조직하였는데 그것이 남만유격대의 모체였다. 30여명으로 구성된 남만유격대의 첫 성원들도 모두가 조선사람들이였다. 반석유격근거지 안에 조직된 반일회, 부녀회, 소선대, 농민위원회의 책임자들도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였다. 남만의 유격운동 개척과 그 발전에서 조선사람들은 선구적이며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국안의 사단도 조선사람들이 많은 부대였다. 송무선, 박순일을 비롯한 과반수이상의 지휘관들과 많은 대원들이 조선사람들이였다. 이것은 우리와의 공동작전, 공동투쟁을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다.

남만의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의 직접적인 연계밑에 또 때로는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과 행동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된타격을 안기었다. 그들은 때때로 압록강을 건너와 국경대안을 기습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는 우리가 동만에서 국내진출을 빈번히 하던 때였다.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은 1935년 1월 한달동안 온성 한 개 군만 해도 네 번이나 기습하였다. 그 소부대들이 온성군 남산리와 월파동, 세선동과 미산동 일대에 진출하여 적군경들과 교전을 벌이었을 때 서울의 신문들은 유격대가 함북 온성, 훈융 등지를 대거

습격하였다고 떠들었다.

1935년 5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무산군 삼장면 농사동 일대에서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한 다음 안도현 대마륵구 부근에서 뒤쫓아오는 일제경찰들과 총격전을 벌려 적들에게 된타격을 주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격렬해지는 국내진출의 흐름을 타고 압록강 대안에서 싸움으로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던 이홍광이 부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와 후창군 동흥진을 습격하였다. 1935년 2월 15일 밤 그가 거느린 1군 1사의 3개 소부대는 경기관총 2정을 앞세우고 동흥진을 포위한 다음 경찰서, 금융조합 등을 습격하여 적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남만유격대
창건자의 한사람
이홍광

인민혁명군의 거듭되는 국내진출에 당황망조한 적들은 국경경비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사변들이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동흥진습격으로 내외에 전공을 크게 떨치던 남만의 부대들에서 어떻게 되어 조국안사장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조국안의 꺼칠한 얼굴을 바라보는 내 심중에서는 어째서인지 분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최근에 인접과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유일 한 출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너무 늦게야 찾아냈지요.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지난 기간 **김**사령과의 연계를 소홀히 한 게 후회됩니다.≫

조국안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한숨을 크게 내쉬고 두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조사장동무, 우리한테서 며칠간 푹 쉬며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질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일시적인 실패를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나는 사장에게 기아와 혹한과 적의 포위로 온 부대가 전멸의 위기에 처하였던 나자구등판에서의 시련과 혹한과 폭설과 거듭되는 적의 추격으로 하여 또다시 헤어날 수 없는 역경에 처하였다가 귀인들의 도움으로 구원되던 1차 북만원정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상치 않았던 무리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기 때문에 잠자리부터가 문제로 되였다. 나는 우리 대원들이 이용하는 귀틀집들을 손님들에게 모조리 내주고 주인들을 우등불을 피워놓고 천막에서 숙영하도록 하라고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나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재빨리 귀틀집을 내주고 천막도 치고 우등불도 피웠는데 그 기묘하고 날랜 솜씨에 손님들은 다같이 감탄하였다.

우리 대원들 중에는 우등불 명수들이 많았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통나무 우등불을 피우는 묘리를 발명하여 그것을 전부대에 보급하였다. 그 방법이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것이었다. 같은 길이로 알맞춤하게 자른 통나무를밑에는 5-6대, 그 위에는 4-5대, 또 그 위에는 3-4대씩 피라미드식으로 층을 올리쌓고 2-3대를 올린 마감층위에 불쏘시개감으로 마른나무 가치들을 놓고 거기에 불을 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등불을 피우게 되면 불이 오래갈 뿐 아니라 젖은 나무도 마른나무처럼 잘 타들고 불찌가 튀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화력이 세서 좋았다.

2사 동무들은 처음에 저런 식으로 해서야 통나무가 불이 달리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피라미드식으로 쌓은 통나무더미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자 신기해서 ≪야!≫, ≪야!≫ 소리까지 질렀다.

조국안도 대원들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번에 만강에서 위증민을 만났는데 그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는 우등불에 시선을 떨군 채 의미심장하게 웃어보이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사령부대에 가면 우등불을 피우는 법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솜씨가 아주 신묘합니다.≫

조국안은 우리 부대에 와서 받은 인상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운 것 중의 하나가 우등불과 통나무로 만든 귀틀집이라고 하였다. 우등불이 있고 귀틀집만 있으면 깊은 산중이나 무인지경에서도 부대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밀영에 와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귀틀집 건설에 솜씨가 있는 몇몇 도끼목수들과 7연대 4중대원들을 시켜 2사 동무들이 우리 밀영에서 지낼 동안 그들이 옹색해하지 않도록 전용병영으로 그날중으로 새로 짓게 하였다. 우리 부대의 집짓기 명수들은 통나무를 찍어다 하루사이에 커다란 귀틀집을 번듯하게 지어놓았다. 2사 동무들도 신바람이 나서 그들의 일손을 열심히 거들어주었다.

그와 같은 비밀병영들이 백두산일대 밀림 속 곳곳에 건설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조국안은 또다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기네는 지금까지 이 백두산과 같은 무인지경에서는 부대가 거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가만 찾아다니며 숙식하였다, 산중에서 밀영을 짓고 지낸 적은 거의 없다, 전번에 강북에 갔을 때도 집집을 찾아다니며 분숙하였다고 하였다.

남만동무들이 우리 밀영지에서 ≪자기 집≫을 가지게 되자 나는 후방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김주현과 김해산을 시켜 그들의 세간에 필요한 식량과 작식도구들을 넉넉히 갖춰주고 우리 부대의 후방부창고에 있는 수십 벌의 군복까지 내주게 하였다. 몇 벌이 모자라서 군복분배를 만족스럽게 아퀴짓지 못하였지만 박수환이네 재봉대에서 밤을 패가며 돌격작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날에는 해진 여름옷을 우등불 더미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다. 야단스러운 덕행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예절을 차린 셈이었다.

2사동무들을 위하여 목욕과 이발도 조직하였다. 곰의골밀영에는 그 당시 큼직한 목욕가마도 설치되어 있었다. 오중흡이네가 횡산목재소를 치고 구해온 소여물을 끓이는 대짜배기가마였는데 그것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었다. 손님들을 멀끔하게 닥달해놓은 다음에는 세면도구도 일식으로 안겨주고 담배도 몇 갑씩 분배해주었다.

조국안은 우리 사령부에 찾아와 부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는 김사령 부대에 빈손으로 찾아와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신세만 지게 되니 미안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이 신세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모르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같은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웃끼리 신세고 뭐고 할게 있는가, 우리가 만일 조사장네 부대에 손님으로 간다면 사장이 그런 정도의 대접을 안해주겠는가, 남의 부대에 와서 신세를 진다고 생각지 말고 친척집에 왔다고 생각하라, 정 신세를 갚고싶거든 우리 밀영에 머무르는 동안 재미나는 인생체험이나 많이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조국안은 책상물림인 자기에게 무슨 **김**사령의 흥미를 돋굴만한 요란한 인생체험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좀 색다른 밑천이라는 것이 있다면 산동군정대학을 다닐 때에 얻은 지식뿐인데 **김**사령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라도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그는 우리 지휘관들에게 정규전과 관련된 전술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해주었다. 그 강의가 대단히 심도있었다. 조국안의 강의는 적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규

전의 전술을 보다 깊이 파악하고 그에 대처한 우리 식의 유격전술을 완성하는데 적지 않은 밑천으로 되었다.

그 답례로 우리는 조국안부대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창조해온 유격전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생동한 실전경험담이 배합되였기때문에 남만에서 온 손님들은 퍼그나 흥미진진해 하였다.

나는 2사 동무들에게 옹군애민을 특별히 중시할 데 대하여 당부하였다. 인민은 우리의 힘이며 지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발동시켜 싸워야 한다, 인민의 덕을 입으려면 인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인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인민을 사랑하여야 한다, 하루밤 숙영하고 지나버릴 고장이라 하여 인민들에게 함부로 부담을 끼치면 인민은 그런 사람들을 시끄럽게 여길 수 있다, 인민의 재물에 손을 대여 해를 끼치게 되면 그 후과는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인민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게 되면 인민은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군사는 틀림없이 백전백승하는 군사로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출전을 앞둔
혁명군대원들

곰의골밀영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 남만동무들은 학습과 회의, 훈련을 비롯한 우리 부대의 일과생활도 여러 번 참관하였다. 그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당신네를 대학생부대라고 하더니 과시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감탄하였다.

조국안은 진심을 담아 나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자기는 강남으로, 강북으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데 습관되어 밀영을 꾸리고 거기에 의거하여 자력갱생해 나갈 궁리도 하지 못하고 밀영을 중심으로 한 유격활동지역에 지하조직망을 꾸리고 밀영과 지하조직망들로 이루어지는 근거지에 토대하여 투쟁을 확대발전시킬 생각도 못했다고 하였다.

≪**김**사령부대는 어느 모로 보나 군대맛이 납니다. **김**사령부대가 연전연승하는 비결을 이제는 알만합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부대의 오락회를 보고나서 조국안은 숲속을 거닐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남만의 전우들은 우리 부대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직심스럽게 노력하였다. 그들은 일과생활도 우리 식으로 고치고 학습과 훈련도 우리 식으로 하였다. 우리 밀영에 머무르는 기간 그들은 군력도 보강하고 규율도 더 엄격히 세워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제는 두 부대가 협동하여 큰 싸움을 치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 ≪동기대토벌≫에 날치는 적들을 좌우에서 족쳐봅시다. 도천리를 비롯해서 장백, 임강현경지대는 군중적 지반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조직해놓은 지하혁명조직의 적극적인 방조와 후원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청년들을 받아들여 인차 대열보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부대가 서로 손을 튼튼히 잡고 좌우에서 부단한 소모전을 진행하면 전투성과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안은 나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공동작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사의 전우들은 우리 밀영을 떠날 때 매우 섭섭해하였다. 우리 부대 지휘관들과 대원들도 다같이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여 눈굽을 적시었다.

작별을 앞두고 조국안은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김**사령, 대원들 가운데서 전령병감을 한 명 골라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북만에 갔을 때와 꼭같은 경우를 당한 셈이었다. 그때 주보중도 나에게 조선족 출신의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요구했었다. 그 청을 받고 동만부대에서 박낙권, 전창철, 안정숙, 박길송을 비롯한 많은 조선족 출신 대원들과 지휘관들이 북만부대에 파견되어 갔다.

≪조사장이 우리 동무들을 그렇게 믿어주니 감사합니다. 조선사람들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닙니까?≫

나의 이러한 물음에 조국안은 ≪특별한 인연은 없는데 이홍광, 이동광을 알게 된 다음부터 조선동무들에게 매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홍광이 소본량을 요정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간도사람들은 아마 다 모를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소본량이란 유하현 일대에서 안도의 이도선이나 무송의 왕가대장과 같이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약탈하던 위만군의 악질 고위장교였다.

바로 이 부대를 이홍광이 유하현 삼원포와 고산자, 양수하자 일대에서 녹여냈다는 것이다.


남만부대에 파견된 기관총수 강증룡

이홍광은 소본량을 녹여낸 다음 양수하자 부근에서 1군 지휘부가 적의 대병력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대담성과 높은 기지를 발휘하여 양정우를 구출하였다. 그때부터 양정우를 비롯한 1군 간부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용맹의 상징으로 총애하였다.

조국안은 이홍광이 전사했을 때 양군장 이하 1군의 모든 간부들과 대원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다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왕청때부터 몹시 사랑해온 기관총수가 한 명 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증룡이라고 소대장인데 기관총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이지요.≫

알고보니 강증룡은 조사장과도 구면이고 2사 조직과장 송무선과도 구면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를 2사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강증룡은 이 조치를 알게 되자 내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했지만 정작 조국안의 수하에 간 다음에는 2사 지휘부 호위기관총소대장으로 잘 싸웠다고 한다.

그 후 조국안부대는 장백, 임강현경지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었다. 그들은 우리 밀영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도천리로 직행하여 거기서 한 주일가량 머무르며 지하조직의 도움으로 대열도 보충하고 밀영후보지도 탐색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나는 김재수에게 서면으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발동하여 그들에 대한 후원을 잘해줄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도천리를 비롯한 하강구의 여러 마을들에서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꾸려놓고 원군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다. 그 조직들이 발동되어 2사를 대단히 성의있게 후원해주었다.

남만부대는 그들의 지지속에서 도천리골 안에 밀려든 정안군과의 싸움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1936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 인민들로부터 적정보고를 받은 부대지휘부에서는 적들을 야간매복전으로 소멸할 결심을 내리고 날이 어둡기 전에 도천리 포대거리골 안에 매복진을 쳤다. 매복지점은 마을 막바지에 있는 마지막 집으로부터 불과

10여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적의 대부대는 마을에 들어서자 집집에서 인민들을 끌어내다가 유격대의 행처를 대라고 강박하였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유격대가 코앞에 매복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결같이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실로 고마운 인민들이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비밀이 들장나게 되면 촌민전부가 앙갚음을 톡톡히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정황이였지만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유격대의 행처를 대지 않았다.

인민들의 희생적인 성원을 받았기 때문에 2사 동무들은 이날의 매복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다음날도 그들은 인민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전날 전투에서 죽은 제놈들의 시체를 실으러 오는 20여대의 자동차 편대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적들을 전율케 하였다.

도천리에서 대열을 보충하고 전과도 크게 올린 조국안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희샤즈거우(곰의골밀영)에 가서 지낸 덕을 벌써부터 톡톡히 보기 시작했다는 것과 이 조국안은 **김**사령의 신세를 잊을 수 없으며 당신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보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국안은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2사는 임강방향으로 진출하다가 장백현 7도구 목재소 근처에서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었는데 이 전투에서 조사장은 치명상을 입었다. 그는 부대지휘를 당분간 송무선에게 맡기고 경위대와 함께 안전한 곳에 떨어져 상처를 치료하였다. 그런데 변절자가 그의 거처를 밀고하였다. 적들은 조국안을 사로잡으려고 사면에서 그의 거처를 포위해왔다. 경위대는 사장을 구출하기 위하여 결사전을 벌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도 보람이 없이 조국안은 결국 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희생되었다.

나는 조국안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나에게 하던 말을 상기하였다.

≪**김**사령, 앞으로 조선을 해방하는 결정적인 작전이 시작될 때에는 나를 불러주시오. 그러면 부대를 데리고 **김**사령을 찾아가리다!≫

그것은 그가 나와 작별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그러나 조국안은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선해방은 물론, 사랑하는 자기 조국 중국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나는 그것을 못내 분하게 여기었다.

2사 군수부장 박순일이 조사장의 전사에 대한 편지를 가지고 우리 밀영으로 찾아온 것은 1937년초였다.

송무선은 사장을 잃은 슬픔과 장차 부대지휘를 어떤 방향에서 했으면 좋을지 몰라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심정을 기탄없이 밝히고 자기들에게 활동방향과 관련된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지휘관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처지에 동정을 보내면서 그때로서는 대단히 수더구가 많은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 글에서 내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서로 단결하고 합심하여 부대앞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과 부대관리에서 집체적 지혜를 높이 발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송무선에게 눈이 많이 내린 조건에서 적들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이명수산지에 밀영을 꾸리고 신입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과 군사훈련에 주력하라는 의견을 준 다음 음력설이 지나 부대를 방문할 의향을 전하였다.

한 사람의 평범한 조객으로서 그들을 찾아가 조의를 표시하는 것은 생전에 고인과 유다른 친교를



홍두산전투장

맺어온 전우로서 응당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하였다. 사장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곁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었다.

홍두산전투가 있은 다음 나는 약속한대로 그들을 찾아 떠났다. 가는 도중에 도천리전투를 치르고 사문개정부락에서 하루밤 묵으면서 이명수 상류와 팔도구 방향에 정찰조들을 파견하였다.

2사 동무들은 통신원으로부터 우리가 사문개정부락에 와있다는 연락을 받자 저녁도 먹지 않고 밤중으로 달려왔다. 자정도 훨씬 지난 깊은 밤중에 그 동무들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김주현을 불러 손님들에게 대접할 떡국을 끓여놓으라고 지시한 다음 전령병을 데리고 마중나갔다.

내가 먼발치에서 인사를 하자 지휘관들이 달려와 두겹세겹으로 나를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살가죽이 너무 얼어서 포옹을 할 때마다 볼에 큼직한 얼음덩이가 와닿는 것만 같았다.

사장대리임무를 수행하는 송무선은 우리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사령관동지는 우리 부대가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준 은인입니다.≫

≪조직과장동무,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남만유격대
정치일군 송무선

전에도 그랬지만 그날도 그는 나에게 유다른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내가 조국안을 동향인과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송무선도 나를 동향인과 같이 대해주었다. 그는 오리하자라고 부르는 길림근교의 농촌마을에서 청년운동을 하다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이었다.

오리하자는 한때 이동광이 청년운동을 지도하던 고장이다. 그의 지도밑에 송무선을 비롯한 오리하자 지방의 청년들은 혁신청년회를 조직하고 그 주위에 청년들을 집결시키었다. 그 당시 영길현일대에는 신흥청년회, 전진청년회라는 간판을 가진 청년조직들도 활동하였다. 송무선은 혁신청년회의 조직위원이었다. 1928년 봄에 이 조직은 이동광에 의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되었고 후에는 다시 공청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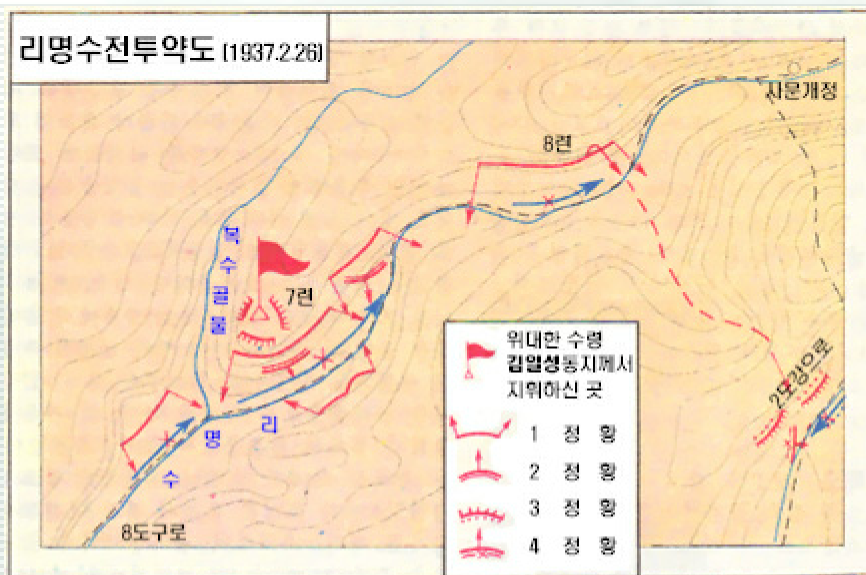
우리가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을 벌이자 오리하자의 청년조직은 동정시위를 벌이었다.

이동광이 오리하자 일대에서 청년운동을 지도하던 시기는 우리가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송무선은 길림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정의부의 일부 간부들을 비난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수고하는 선배들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고 내가 핀잔하자 그는 오히려 얼굴을 붉히면서 그보다 더한 말을 해도 체면에 어그러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정의부 간부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송무선은 그 대답으로 1928년 벽두 정의부가 소집한 길림지방회의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아마 이 회의에 송무선도 오리하자 대표로 참석했던 모양이었다. 회의에는 쌍하진대표, 강동대표, 신안툰대표들도 참가하였다. 안건은 의무금 징수에 관한 문제였다.

그날 고이허는 정의부를 대표하여 과격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관할구역 백성들이 의무금을 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시켜서라도 받아내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연설이 발단이 되어 주최자측과 회의참가자들 사이에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송무선도 오리하자를 대표하여 반박연설을 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회의



가 끝난 다음 고이허가 파견한 테러분자들에게 매를 맞고 졸도하였다.

송무선은 왕청문에서 발생하였던 국민부의 테러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오동진이며 현묵관이며 고원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림과 관련된 생활이면 자그마한 세부까지도 다 말하였다. 곰의골밀영에서 함께 지내던 그 나날에야 길림시절을 두고 무슨 이야기인들 나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여기 사문개정의 농가에서는 나도 송무선도 길림시절을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조국안사장만을 추억하였고 조국안이 없는 사단의 운명과 전망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우리는 2사 동무들에게 떡국을 대접하였다. 대식가로 알려진 한 중국인지휘관은 떡국을 세 사발이나 먹었다. 그는 오늘에야 진짜설을 쇠는 것 같다고 하였다. 고력보자목재소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적의 추격에 걸려들다보니 점심식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부대와 2사의 지휘관들은 새벽에 이명수 전투를 위한 연합작전회의를 하였다.

나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적들이 새날의 정오경에는 우리한테 밀려오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적들의 주목을 우리한테 끌기 위하여 이명수 쪽으로 이동한 자취를 일부러 많이 내게 하였다. 이도강 쪽에서부터 오는 적들은 이명수골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또 2사 동무들이 고력보자를 치고 조우전을 하다가 이명수골로 들어왔으니 팔도구 방면의 적들도 분명 여기로 들이닥칠 수밖에 없었다.

양쪽에서 밀려올 적들을 족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복지점은 이명수의 북수골물이 합치는 합수지점 부근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명수골에 들어설 때부터 그 지점을 점찍어두었다.

나는 작전회의 참가자들에게 새날에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적들의 행동기도를 알려주고 두 부대가 연합하여 큰 규모의 적들을 요정낼 수 있는 매복전투를 치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매복전투의 승패는 은밀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는 것만큼 날이 밝기 전에 조반식사를 끝내고 매복지점에 가닿아야 한다는 것과 각 부대들이 매복

진지를 차지한 다음에는 연기를 피우거나 말소리, 기침소리를 내거나 진지를 이탈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명령없이는 사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적들에게 들이댈 함화 내용과 방법, 포로취급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뒤이어 각 부대들에 전투임무를 분담하였다. 정찰자료에 의하면 적정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나의 제의에 따라 출발준비를 갖춘 두 부대는 한자리에 모여 조국안사장의 추도모임을 가지었다. 나와 송무선이 각각 추모연설을 하였다.

이명수는 장백현 모두덕 분수령에서 서쪽으로 흘러 팔도구하에 합쳐지는 강이다. 사문개정은 이 강의 상류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다. 거기서 강줄기를 따라 15리쯤 내려가면 열대여섯 호 될까말까한 순 조선사람들의 화전마을이 있었다. 그것이 이명수촌이였다.

부대들은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매복진지를 차지하고 전호들을 팠다. 주변의 가파로운 산비탈들은 깊은 눈에 뒤덮였고 이명수에는 얼음이 깔려있었다.

강추위로 뼈속까지 얼어드는 날이었지만 전투원들의 사기는 아주 높았다. 우리가 지휘한 전투는 언제나 승전한다는 소식을 들어온 남만동무들은 출전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이번 싸움은 대승할 싸움이라고 장담하였다.

나는 주역량을 합수목 근처의 산등성이에 배치하였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새로 만든 밭들이 있는 등성이인데 골짜기를 향하여 내려쏘기에 편리한 위치였다. 고지의 중심에 나의 지휘처를 정하고 앞에 우리의 7연대와 경위중대를, 좌측에 8연대를, 우측에 2사 전투원들을 매복시켰다. 골짜기 건너편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는 육칠십 명의 용사들로 구성한 돌격대들을 매복시켰다. 그 두 산과 마주 서있는 높다란 건너편 산은 밀림으로 뒤덮인 험산이어서 그쪽으로는 우리한테서 얻어맞은 적들이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매복구역 건너편은 100미터 가량의 폭을 가진 평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적들을 전멸시키는데 적합한 집중사격구역이었다.

나는 이도강 쪽에서 오는 적과 팔도구 쪽에서 오는 적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양쪽방향에 각각 1개 분대가량 되는 방차대를 파견하였다. 방차대들에서 보내오는 수기신호를 받기 위한 받을초는 우리의 뒷산에 배치하였다. 전투원들은 전호속에 엎드려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점심때가 지나도록 적들은 얼씬하지 않았다.

≪놈들은 안오는 게 아닙니까?≫

지루해난 백학림이 이빨을 덜덜 맞쪼으며 귓속말로 물었다.

≪너무 조급해마오. 이제 꼭 오게 될 테니까.≫

나도 사실은 이빨을 맞쪼으며 온몸을 떨었다.

전투원들은 눈속에 엎드린 채 꽁꽁 언 강냉떡을 꺼내 먹었다. 나는 백학림이 자기 배낭에서 꺼내주는 언 강냉떡 한 개로 점심을 굶땠다. 날씨가 어찌나 맵짰던지 쇠붙이에 손을 닿으면 떡떡 얼어붙고는 하였다.

적들은 오후 2시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2월의 강추위에 한시간도 아니고 8-9시간이나 눈속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보다 더한 간난신고도 참고 견딜줄 알아야 하였다. 여기서 치명상을 받게 되면 적들도 더는 우리에게 함부로 달려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후 5시경에야 팔도구방향의 동남쪽고지에 나가있는 방차대로부터 적들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왔다.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위만군장교가 인솔하는 척후대가 앞장에 서고 그뒤로 일본 지도관이 거느린 기본대열이 느릿느릿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전령병을 보내어 선두척후대는 지나보내고 본대의 뒤꼬리가 우리 매복권안에 들어선 다음에 사격명령을 내릴 터이니 함부로 사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부대에 전달하게 하였다.

적들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날씨가 급작스레 사나와졌다.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시꺼멓게 뒤덮이었다. 눈만 없었다면 음산한 저녁대지는 캄캄한 어둠속에 파묻혔을 것이다. 차디찬 강풍이 북쪽으로부터 우리를 후려갈기었다. 눈보라 때문에 적들은 눈도 바로 뜨지 못하였다.

나는 적의 기본대열이 우리의 매복권안에 완전히 들어서기 바쁘게 신호총을 쏘았다. 400여 자루의 보총과 여러 정의 기관총들이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었다. 사격에 이어 한익수에게 돌격나팔을 불게 하였다. 적들은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과는 컸다. 적 100여 명을 살상하고 2개 중대를 투항시켰으며 3정의 경기관총을 비롯하여 150여 정의 보총, 많은 탄알을 노획하였다. 살아서 도망칠 수 있은 것은 선두의 척후병들 뿐이었다.

팔도구 쪽에서 온 적들을 한창 족쳐대고 있을 때 이도강 쪽에서 온 적들은 골짜기에서 울려오는 요란한 총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방차대성원들이 나가있는 산코숭이앞에 멈춰서고 말았다. 우리의 방차대원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적의 무리를 향하여 몰사격을 퍼부었다. 적들은 살상된 동료들을 그냥 내버린채 황황히 도망치고 말았다.

나는 사문개정 마을의 가가호호에 적의 부상병들을 업어들여다 치료도 해주고 식사도 시킨 다음 성한 포로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우리에게 여섯번이나 붙잡혀 여섯자루의 총을 바쳤으니 자기는 유격대를 도와준 공로자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 위만군 포로의 유명한 일화가 생겨난 것이 바로 그때였다고 생각된다.

이명수전투로 인하여 팔도구방면의 적들은 ≪동기대토벌≫의 주력을 잃게 되었다. 유격대를 전멸시킨다고 호언장담하던 적들의 위세는 땅바닥에 구겨박히고 ≪동기대토벌≫놀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이명수전투의 승리로써 적들의 ≪대토벌≫작전에 종지부를 찍어놓은 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수전투는 각별한 감회를 자아내는 전투였다. 2사 동무들은 사기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나는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사단의 장래활동에 필요한 조언도 주고 그들이 도천리와 천상수 일대 조국광복회조직들의 방조밑에 안전하게 활동해나갈 수 있는 대책도 토론해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일러준대로 도천리골 안에 깊숙이 들어가 밀영을 건설하고 따스한 계절이 올 때까지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하면서 조용히 지냈다. 도천리지하조직에서는 그때 그들에게 광목과 미투리와 큰 버선을 비롯한 수많은 원호물자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남만전우들의
피가 어린 산과 들

내가 남만동무들을 다시 만난 것은 햇풀이 돋기 시작한 5월 중순경 이명수마을에서 서쪽에서 좀 떨어진 어느 한 산등성이에서였다. 밀영에서 편안히 지낸 2사동무들은 혈색들이 좋았다.

그런데 나를 몹시 딱하게 한 것은 그 부대에 속해있는 조선동무들이 좀처럼 내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우리 부대에 편입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니 허락해달라고 성화를 먹이었다.

나는 그들을 설복하느라고 목이 쉴 지경이였다.

우리가 중국동무들과 연군을 편성해가지고 싸우는 것은 순수한 조선사람들로만 부대를 꾸리고 싸우는 것보다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방조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동무네 부대는 1군에 속하지만 조선사람이 절반나마 되는 것만큼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별동부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라, 그런데 모두가 우리한테로만 오겠다고 하면 사면팔방의 적들과는 도대체 누가 싸우겠는가, 남만쪽의 적들은 동무네를 비롯한 1군동무들이 족치고 동만쪽의 적들은 4사동무들이 족치고 북만쪽의 적들은 북만동무들이 족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백두산일대의 적들과 잘 싸울 수 있다, 동무들이 사처에서 적들을 붙들어두지 않으면 그 적들이 몽땅 주력부대를 괴멸시키자고 벌떼처럼 덤벼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육성한 우수한 군정간부들을 북만부대들에도 보내고 남만부대들에도 보내주고 있는데 동무들은 모두 우리 곁에만 와있겠다니 딱하지 않는가, 나라를 찾겠다고 부모처자 곁에서도 떠나온 사람들인데 항일대전의 승리를 위하여 사적 감정을 초월하자,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은 다음에는 우리모두가 한군데 모여 살면서 옛말을 해보자고 설복하였다.


남만유격대
참모성원 손용호

사실 나는 남만동지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고는 하였다. 그런 일은 한두 번만 있지 않았다.

우리가 남만에 보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끌끌한 남아대장부들이였다. 이동광과 이민환도 경력을 따지면 동만에서 선발되어 남만으로 간 사람들이였다. 1937년 3월에 조국안의 후임으로 사장을 맡은 조아범이 너무나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나는 전령병 김택만이도 그에게 붙여주었다.

1군 총무처장이었던 손용호는 길림사범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우리가 조직한 유길학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학우였다. 그는 음악과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은 동무였다. 체격이 좋고 용모도 준수하여 길림바닥의 처녀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 그는 사범학교의 높이뛰기선수였으며 바이올린연주가였다. 손용호는 그 후 공청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감옥에서 얼마동안 시련을 겪었다. 출옥 후 연길현 오리하자에서 농촌혁명화에 힘쓰다가 이듬해 남만 반석현에 가서 현당기관지인 ≪반일청년일보≫의 주필로 있었다. 1937년 겨울부터 그는 1군 지휘부에서 총무처장으로 사업하였다. 나는 1938년 겨울 남패자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손용호는 그때 몹시 반가와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그가 서너달후에 푸르허 근처의 어느 한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다.

남만유격부대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이웃에서 활동한 1군 2사에 더 많이 돌려졌다. 그들은 보천보전투 승리를 경축하는 군민연환모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간삼봉전투는 우리 주력부대와 4사, 1군 2사의 연합으로 진행된 전투였다.

1군 2사와 우리 부대는 몇 해 동안 백두산 서남부 일대에서 공동투쟁을 잘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 적들의 경찰문건이나 신문자료들에서 나의 이름과 조국안의 이름이 나란히 놓이는 경우를 이따금 보게 되는데 이것은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이 어깨를 걸고 공동투쟁, 공동작전의 어려운 길을 개척해온 산 역사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우리의 혁명투쟁이 승승장구하던 그 나날들을 회상할 때면 1군 2사의 전우들을 추억하곤 한다. 조국안, 송무선, 박순일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는 그 얼굴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내 눈앞에 정답게 안겨온다.

5. ≪3.1월간≫



3 · 1월간

인류생활에 미치는 출판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어 과거의 온갖 세계는 몇 개의 미개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몇 권의 책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는 이미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출판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였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가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양심적인 지성인들과 시대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출판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출판물을 가리켜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 조직자라고도 표현한다.

혁명적 출판물은 또한 수령과 당, 대중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주는 훌륭한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레닌은 신문 ≪이스크라≫를 발간하면서 그 첫 호에 ≪한 점의 불꽃에서 불길이 타오르라≫는 글발을 제사로 실었는데 이것은 전세계가 공명하는 금언으로 되였다. 이 제사속에 나오는 불꽃은 그 후 10월의 불길이 되어 러시아의 대지에 타번지었다.

나를 혁명의 길로 인도하는데서도 실상은 출판물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명언 가운데는 검이 못하는 일을 붓이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새날≫과 ≪볼쉐위크≫와 ≪농우≫를 발간하면서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참맛을 보았으며 그 출판물들에 총이나 검에 못지 않은 기대를 걸었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우리가 백두산에 앉아서 ≪3 · 1월간≫이나 ≪서광≫같은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국을 잊지 말고 조국동포들을 잊지 말자고 호소하면 그 목소리를 남북만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다 듣게 된다. 수백만 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여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흔히 구두선전은 ≪입대포≫, 연예활동을 통한 선전은 ≪북대포≫,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붓대포≫ 또는 ≪글대포≫라는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고는 하였다.

구두선전이나 연예활동에 의한 선전은 출판물선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빠르고 선동성이 강하지만 그 대신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지속성이 있고 지역적인 제한성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적들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국체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언동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가차없이 무찔러버리는 형편에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선전활동은 부득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유격전쟁에 가장 적합한 선전선동수단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우리가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붓대포≫를 발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된 후 거기에 출판소를 꾸리고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월간≫을 창간하였다.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 우리는 그 기관지의 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큰그릇에 각계각층의 민중을 다 담아가지고 항일대전을 거족적인 경지에로 끌어올리자면 ≪입대포≫나 ≪북대포≫도 잘 써먹어야 하지만 특히 ≪붓대포≫가 은을 내게 해야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민족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정치공작은 다분히 지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우리의 통일전선공작판도는 주로 만주지방과 조선의 북부지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광복회는 그 판도를 조선전역과 중국본토, 일본, 쏘련,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은 해외의 모든 곳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깃발을 날리려고 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지에 공작원들을 자주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공작원들의 수효는 제한되어 있었다. 유격투쟁의 초기부터 동만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많이 해본 군정간부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북만에 떼두고 오다나니 일군들이 부족하였다.

일군의 부족에서 오는 공간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도가 바로 출판물에 있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관지를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뿌리면 그 한부한부의 잡지나 신문이 곧 한명한명의 공작원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하여 기관지를 제때에 내오지 못하였다. 그 당시는 싸움도 많았고 유동도 심했다. 우리는 언제나 적의 사면포위속에 있었다. 등짐을 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를 걸어야 했다. 적들은 우리에게 출판물을 발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되고 그 밀영에 출판소가 꾸려지게 된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을 가질 수 있었다. ≪3·1월간≫은 2천만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조국광복회의 이념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담은 대중정치이론잡지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의 사명에 알맞는 제호를 고르려고 애를 쓰다가 ≪3·1월간≫이라는 네글자를 찾아냈다.

≪3.1≫은 3.1 반일인민봉기를 의미하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거족적으로 대항해 나선 조선사람들의 장엄한 독립운동이였다.

그러므로 ≪3·1월간≫이라는 제호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전조선적인 판도에로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의도와 함께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전민항쟁을 마련해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3·1월간≫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 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

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아니라 민족부르조아지나 종교인들, 독립군병사들까지 다 읽고 사랑하는 범민족적인 잡지로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비서처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3 · 1월간≫편집부를 꾸리고 주필로 기자경력을 가진 이동백을 임명하였다.

이동백의 주관하에 편집성원들은 창간호 발간준비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잡지의 편집방향과 출판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논의를 많이 하였다. 이상적인 편집형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국내출판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지하게 하였다.

그 당시 국내출판계에서는 신문과 잡지들의 폐간, 정간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애국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잡지들은 무조건 탄압을 당하고 폐간되어 사실 참고로 삼을만한 잡지라고는 몇 종 되지 않았다.

≪3 · 1월간≫편집성원들은 참고적으로 국내잡지들을 들춰보았지만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본따려고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창발적으로 새롭게 탐구하였다.

우리는 ≪3 · 1월간≫을 대중정치이론잡지형식을 갖추게 하고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그 내용을 일관시키기로 하였다. 매호에 사논설을 주는 외에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 소식≫, ≪반일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소식≫, ≪문답란≫, ≪조국요문≫, ≪국제요문≫, ≪문예란≫ 등 고정란들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비서처가 속해있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 안의 필진들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지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부대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만, 남만, 북만의 주요지점들에 ≪3 · 1월간≫잡지의 특파원들을 두었으며 광범한 독자들의 투고를 장려하였다.

어떻게 하면 ≪3 · 1월간≫편집사업을 독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잡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독자들이 편집내용을 풍부히 하고 편집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보내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모색하던 끝에 이동백은 투고규정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가 만든 투고규정을 읽어보니 구미가 동하였다. 그 규정을 읽으면 글재간이 둔한 사람도 붓을 들고 그 무엇인가를 일사천리로 쓰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있었다. 그 규정의 앞머리에는 각계 애국지사의 명론탁설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고를 환영한다는 청탁문이 실려있었고 그 뒤로는 원고내용에 따르는 글자의 수와 투고방법, 열성투고자에 대한 우대적용 등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조직선을 통해 그 규정을 내려보내고 창간호에도 ≪투고환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소개하였다.

투고규정을 내려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원고들이 많이 날아들어왔다. 그 원고들을 받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던 ≪대통영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도 투고된 형형색색의 글들을 기쁜 마음으로 거의 다 읽어보았다.

양세봉독립군의 참모장이 보내온 축하편지에도 조국광복회창립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들의 심정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었지만 남만에서 조국광복회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이동광과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박아무개교포대표와의 상봉소식을 적어보낸 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상해교포대표는 북경, 천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곳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조국광복회창립소식을 듣고 남만에

까지 찾아와서 국내외에서 조국광복회를 축으로 통일적인 전선을 전개할 데 대한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을 중국본토의 광활한 지역에 뻗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우리는 그 원고를 받자 곧 유능한 정치일군 한 사람을 이동광에게 파견하였다.

이처럼 ≪3 · 1월간≫의 발간준비과정에 편집부는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통신처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의 한 구위원회가 인민혁명군을 고무하기 위하여 축기를 준비하면서 보내온 편지도 역시 감동적인 사연으로 엮어져 있었다.

≪ 애국동포들의 열렬한 동정에 의하여 자기의 빈약한 호주머니에서 1전, 2전 혹은 1원씩을 거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모은 총액은 8원 71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군수품을 사서 보내려고 하여도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전체 애국동포들의 의견에 의하여 환영기를 만들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는 성의껏 보내온 그 편지들을 모두 창간호 지면에 싣게 하였다.

창간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던 원고들이 예상외로 넉넉히 마련되자 ≪대통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다. 하루는 그가 사령부에 나타나 싱글벙글하면서 내 앞에 여라문장의 백지를 불쑥 내놓았다.

≪다른 원고밑천은 든든합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창간사와 논설만 있으면 편성에 들어가겠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조국광복회 회장동지가 써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주필은 무얼 하겠습니까. 문장가로 소문난 주필선생이 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제가 밀어제끼고 그 자리를 가로타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간사야 응당 주필선생이 맡으셔야지요.≫

나는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수난의 길을 걸어온 그 성실한 문필가에게 창간사를 맡기어 가슴에 쌓였던 망국의 설움을 마음껏 터치고 2천만겨레를 향하여 내뿜고싶었던 불같은 말들을 실컷 외치게 해주고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기어이 창간사를 떠맡기었다.

그 대신 나는 ≪3.1운동의 회고≫라는 제목의 논설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바쁜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제때에 써주지 못하였다. 어쩌다 짬을 내어 집필을 시작하던 때에 공교롭게도 밀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적 ≪토벌대≫가 우리 밀영쪽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통보가 들어와서 전장으로 출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 내가 제일 그리웠던 것은 김혁과 최일천이었다. 카륜과 오가자 시절의 막역지우들이었던 ≪볼쉐위크≫의 주필 김혁과 ≪농우≫의 주필 최일천은 쌍벽을 이루는 재능있는 문장가들이었다.

시인인 김혁의 글이 범람하는 장강처럼 호방하고 격동적이었다면 최일천의 글은 민족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분석이 예리하였다. 김혁은 ≪볼쉐위크≫에 자기가 순수 작사, 작곡한 혁명적인 노래들도 이따금 편집해넣곤 하였다. ≪볼쉐위크≫에 내보낸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자본주의사회 저주가≫와 ≪반파벌가≫이다.

≪자본주의사회 저주가≫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착취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였고 ≪반파벌가≫는 감자도장이나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등에 업혀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예리하게 발가놓은 풍자가요였다.

김혁이나 최일천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대통영감≫의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

주었을 것이다.

나는 3.1운동에 대한 회고논설도 조국광복회창립문건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대본들처럼 적들과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짬시간을 내어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3·1월간≫창간호 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출판기자재의 구입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낡은 등사기 한대밖에 없었다. 등사잉크도 로라도 등사원지도 종이도 다 부족하였다. 출판소의 일군들은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였다. 등사잉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고깔을 해씌우고 봇나무껍질을 태우면서 고깔에 붙은 그을음을 긁어모았다. 그 그을음을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등사잉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라가 못쓰게 될 때에는 아교에 송진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형틀에 부어 만들어냈고 강필이 못쓰게 되면 돗바늘을 가지고 만들어 썼다.

≪3·1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표본으로 내세울만한 것이었다.

그 노력은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1936년 12월 1일 ≪3·1월간≫창간호가 마침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그 날 ≪대통영감≫은 맨처음으로 제책된 창간호 한 부를 들고 와서 말하였다.

≪덧없이 흘러간 나의 한 생에서 그래도 값있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3·1월간≫ 창간 호를 만든 것입니다. 장군님, 바쁘시더라도 ≪3·1월간≫의 고고지성을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그는 격정에 넘쳐 창간사의 첫 대목을 읽었다.

≪우리 조선이 강도왜놈들에게 강점되어 2천3백만 백의민족이 일제의 망국노예로 된 후 우리들의 생명과 인권은 개나 돼지만큼도 못하였다.≫

≪3·1월간≫은 발행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창간호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반영이 대단하였다. 각 지방의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는 ≪3·1월간≫의 발행을 축하하는 환영인사와 함께 배포부수를 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편지들을 보내왔다. 조직의 명의로 다음호의 잡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3·1월간≫ 발행에 필요한 출판기자재 명세를 작성해가지고 그 해결방도를 한창 모색하고 있을 때 박달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성능좋은 새 등사기 2대를 해결하였다. 단천역에 도착한 등사기를 각각 한 대씩 감자포대 안에 넣어가지고 달구지로 갑산까지 운반하였는데 경찰의 감시가 심해서 산속에 종일 숨어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민족해방동맹 출판부가 자리잡고 있던 오풍동에 가져갔다고 한다.

박달은 처음에 그 등사기를 다 우리 밀영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 대만 우리가 쓰고 한 대는 갑산에 떨구어 조선민족해방동맹기관지를 발간하게 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는 ≪화전민≫이라는 제호로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었다.

박달이네가 구해보낸 등사기의 성능이 아주 좋았다. 낡은 등사기를 사용할 때보다 능률이 몇 배나 높아 다음호부터는 잡지를 수백 부씩 밀어냈다.

≪3·1월간≫의 인기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였다. 독자들이 이 잡지를 애독한 것은 편집형식이 참신한 데도 있었지만 주로는 그 내용이 민족통일전선의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3·1월간≫을
찍던 등사기

한다. 이것은 이 잡지가 민족앞에 나선 시대적 과제를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파쑈적 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워 전민항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3 · 1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인민혁명군 참군자들의 대열과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열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방의 ≪붓대포≫가 이렇게도 큰 힘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포≫의 임자들조차도 놀랄 지경이였다.

박인진은 언제인가 권영벽을 만난 자리에서 영북의 거의 모든 천도교인들을 단시일내에 조국광복회조직망에 망라시키는데서는 ≪3 · 1월간≫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3 · 1월간≫을 만들어내는데서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동백이다.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에도 그의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3 · 1월간≫의 창간과 발행에 바친 그의 수고에는 비길 바가 못된다. 그는 인생말년을 완전히 ≪3 · 1월간≫과 함께 살았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대통영감≫만큼 종이를 아껴쓰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나뭇잎사귀만한 종이도 다 건사해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글씨를 깨알같이 박아가며 아주 요긴하게 쓰고는 하였다. ≪대통영감≫은 글을 쓸 수 있는 백지에 담배를 말아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종이를 아낄 줄 모른다고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 자신은 늘 대통으로 담배를 피우곤 하였다. 그가 대통에 담배를 담아 피우게 된 동기도 종이를 아끼려는데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연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 대통이 이동백으로 하여금 퍼그나 많은 종이를 절약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그 대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일생동안 수천 매에 달하는 종이를 소비하였을 것이다.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를 써야겠다고 하면서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일기를 썼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배낭속에 정히 간수하던 ≪3 · 1월간≫ 주필 이동백은 양목정자밀영에서 적 ≪토벌대≫의 불의습격을 받고 희생되였다. 적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약자들과 함께 ≪대통영감≫을 사살하고 밀영에 불을 질렀다. ≪대통영감≫이 귀중히 여기며 고이 보관해왔던 많은 문건들과 사진자료들, 일기책들이 그때 그의 육신과 함께 불타서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독립된 조국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여겨오던 그 역사자료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재가 되어 날아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분함을 금할 수 없다. 그 큼직한 보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 -
소탈하시고 겸허하신 장군님앞에 놀라움을 금치못하는 대통영감

따리들속에서 그가 쓴 일기책들만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훗날 양목정자 밀영에 갔을 때 나는 불탄 초막자리에서 그의 유골을 찾아 손수 안장해주었다. 생전에 이동백이 그처럼 애용하던 대통만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의 유물로 남겨둘만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것은 그 걸출한 늙은 인텔리혁명가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감회깊은 추억뿐이였다. 그런데 몇 해전에 백두산밀영이 발굴되면서 그의 필적으로 된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였다. 나는 마치 살아있는 ≪3·1월간≫의 주필을 만나보는 것 같아 그 구호나무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김영국

이동백은 항일혁명시기에 내가 만나본 모든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양심적이고 혁명적이며 박식한 인텔리의 한 사람이였다.

각이한 나라들에서 각이한 시대에 산 인텔리의 선진적 대표자들은 사회 혁명과 개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근대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혁명운동발전에서 인텔리들이 논 역할이 매우 크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동백도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그는 1920년대에 우리 나라 인텔리들이 걸을 수 있었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길을 걸어 항일무장투쟁대오에까지 들어선 혁명적 인텔리의 대표자였다.

이동백은 우유부단하고 동요하던 인텔리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무력항쟁에 복무하는 진짜배기 혁명적 인텔리로 된 사람이였다.

백두산 시절의 대내출판일군들 중에서 이동백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문필가는 국내의 적색농조에서 활동하다가 박달과 이제순의 줄을 타고 우리 부대에 입대한 김영국이다.

그는 군인으로서는 ≪갑≫의 계열에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였으나 문필능력으로 보면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재간둥이였다. 그가 강필글을 쓴 것을 보고서는 기계로 찍어낸 것 같다고 하면서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는 하였다. 하루저녁사이에 원지 여라문 장씩 써내면서도 글체가 활자처럼 일매져 ≪대통영감≫한테서 늘 칭찬을 받았다.

흠이라면 자유주의가 있고 건망증이 심한 것이였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였던지 언제인가는 휴식장소에 총을 놓아둔 채 거의 20리나 걸어가서야 ≪아뿔싸, 내 총!≫하고 허둥거리며 되돌아간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단단히 비판도 받고 처벌도 받았다.

≪총은 동무의 생명이나 다름없는데 제 목숨까지 떼두고 떠나는 그런 얼떨떨한 정신을 가지고 글은 어떻게 짓소?≫

처벌이 해제된 다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김영국은 뒤더수기를 긁으면서 비위좋게 ≪세계적인 문호들은 거의 다 건망증이 많았습니다≫하고 대답해서 나도 ≪대통영감≫도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열정적인 문학도였던 김영국은 짬만 있으면 시나 소설작품을 창작하고는 하였다. 우리가 1937년에 대내기관지로서 발간한 신문이였던 ≪서광≫의 지면에는 그의 작품들이 여러 편 실리였다.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되는 것은 ≪서광≫의 창간호에 ≪남의 집 남편은 혁명군에 갔는데 우리 집 남편은 자위단에 갔다≫는 구절이

들어있는 네댓편짜리 가사가 게재되었던 사실이다. 김영국은 그 가사를 발표하면서 ≪아리랑≫곡조에 맞춰 부르라는 설명까지 달아놓았다. ≪서광≫의 2, 3, 4호에는 그의 단편소설이 연재되었다. 그는 ≪서광≫의 주필이였다. 그 젊고 재능있는 문필가는 1938년 가을에 김주현과 함께 허약자들과 부상병들을 위해주려고 산청을 털다가 적 ≪토벌대≫의 저격을 받아 그만 아깝게도 너무나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났다.

주간정치신문인 ≪서광≫에는 유격대원들을 위한 정치군사학습자료들도 많이 실리였다. 내가 집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도 ≪서광≫에 발표되였다.

≪서광≫의 열성필자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낸 또 하나의 인물은 임춘추였다. 그는 김영국을 도와 ≪서광≫의 편집과 발간에 적극 참여하였다.

≪종소리≫는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발간한 대내주간신문이였는데 군정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군사학습자료들과 교양자료들을 주로 실곤 하였다.


최경화

≪종소리≫의 주필사업은 최경화가 담당하였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려운 신문발간사업을 능숙하게 주관하였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은 비결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섭취한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경화는 고향에 있을 때 자습으로 대학입문서들을 독파하였다.

그가 하는 말은 하루종일 들어도 싫지 않았다. 독자들이 하품을 하면서 읽는 누거리 통속소설도 일단 그의 입만 거치면 일류급의 명작으로 되곤 하였다. 말재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쟁기였고 재산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선동연설을 많이 시키었다. 인민들이 그의 연설만 들으면 홀딱 반하였다.

최경화는 고향에 있을 때 청년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가 적들의 추적을 피하여 장백으로 망명해온 사람이였다. 장백에 와서는 서당훈장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계몽에 몰두하였다. 물론 조국광복회조직에도 인차 가입하였다. 그는 권영벽의 공작선과 연계를 가지면서부터 17도구 당지부 조직부책임자로, 성진(김책시) 방면 정치공작원으로 되었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지하사업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입대하자 여대원들은 미남자가 왔다고 수군거리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생김새보다 재능과 인품에 더 마음이 끌리었다. 최경화는 글재주도 뛰어나고 그림도 썩 잘 그리는 보기 드문 재사였다. ≪종소리≫의 삽화는 대부분 그가 직접 그려넣은 것이였다. 정치상학시간에는 강사로 나섰고 전투장에서는 선참으로 돌격에 나서곤 하는 선봉투사였다. 1933년 초에 있은 정안툰전투때에도 최경화는 자진해서 돌격조에 망라되어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였다.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고 최후를 마치었다.

최경화와 같은 훌륭한 전우를 잃은 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나는 그가 전사한 날 밤새껏 눈물을 흘리면서 추도사를 썼다. 우리는 혹한속에서 그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대내의 반일청년동맹기관지였던 ≪철혈≫은 1939년 말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발간된 속보형식의 주간신문이였다. 이동백, 김영국, 최경화와 같은 쟁쟁한 필진들이 이미 다 우리 곁을 떠난 뒤여서 출판물의 편집과 발행은 초학도들에게 떠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요령을 배워주며 일을 시켜갈 셈치고 사령부 당지부사업과 청년동맹사업을 겸해서 맡아보던 강위룡에게 ≪철혈≫발간을 위임하였다. 처음에 강위룡은 두

손을 내저으며 그런 일만은 못하겠으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강권을 해서야 그는 마지못해 분공을 받아들이었는데 대중의 도움을 받아가며 결국은 별 손색없이 신문을 만들어내고는 하였다.

≪철혈≫도 ≪3·1월간≫이나 ≪서광≫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료들을 편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철혈≫첫호에 실린 이을설에 대한 소개기사와 날창만으로 적의 신식 체코제 기관총을 노획한 한 신입대원의 전투담은 그런 긍정자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위룡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습을 끝낼 무렵에 우리는 청년들의 용감성과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전투에서 무훈을 세운 청년들에게 영예의 붉은띠를 수여하는 제도를 새로 제정하였다. 띠를 수여받은 대원은 명절날이나 부대가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경사로운 날에 그것을 군복위에 띠고 지내도록 하였다.

군정학습총화를 계기로 발간한 ≪철혈≫ 특간호에는 학습총화에 대한 기사들과 아울러 새로운 표창제도의 제정소식 같은 것도 실어줌으로써 구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적 출판물들은 독자대중의 훌륭한 선전자, 교양자로 되었을 뿐 아니라 영웅적 위훈의 고무자로 되고 투쟁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되었으며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었다.

≪3·1월간≫을 비롯한 항일혁명시기의 우리 출판물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몇몇 인재들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독자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집필, 편집,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판물을 만드는데서도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에 의거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우리 부대가 남패자에 머물러있을 때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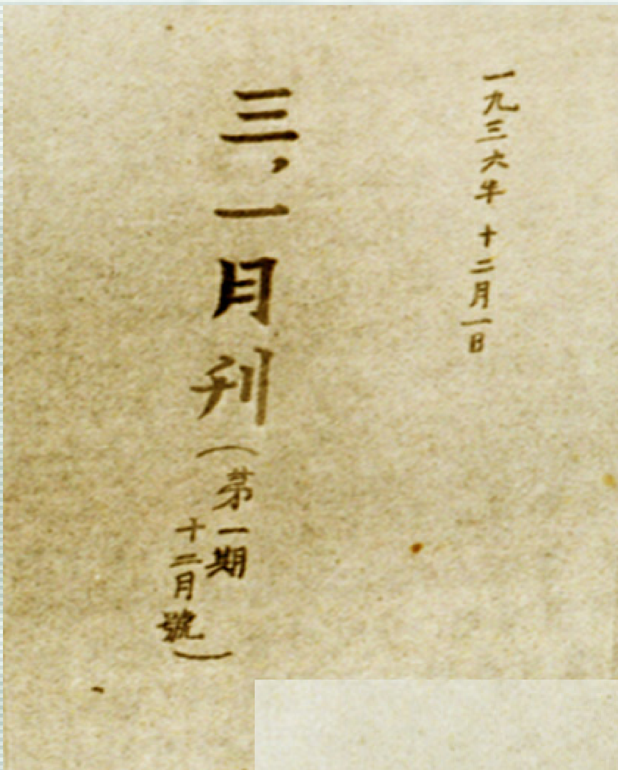
어느 날 밀영을 거닐던 나는 한 여대원이 숲속에 홀로 앉아 공책에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골똘했던지 그는 인적기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혀끝으로 연필심만 적시며 그 심끝에서 탁수방울처럼 힘들게 떨어지는 글에만 음해있었다. 무슨 글을 쓰는가고 물었더니 농촌에 나가서 침투할 선전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글을 읽어보고 몹시 놀랐다. 소학교 중퇴생의 글치고는 매우 활달하고 세련된 글이었기 때문이였다. ≪재만조선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그 글은 씨가 있고 주장이 뚜렷하였다. 그래서 그 글을 약간 수정가필하여 ≪3·1월간≫에 실어주었다. 독자들이 그 잡지를 읽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이처럼 소학교조차 변변히 다녀보지 못한 평범한 작식대원들도 우리 출판물의 필자로 되었다.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에 의해서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과 같은 출판물들을 발간해낼 수 있었으며 혁명적 출판물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마련해놓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최고상으로 ≪3·1월간상≫을 수여하는 표창제도가 제정되어 있다. 이동백이 살아있었더라면 제1호 ≪3·1월간상≫은 그에게 수여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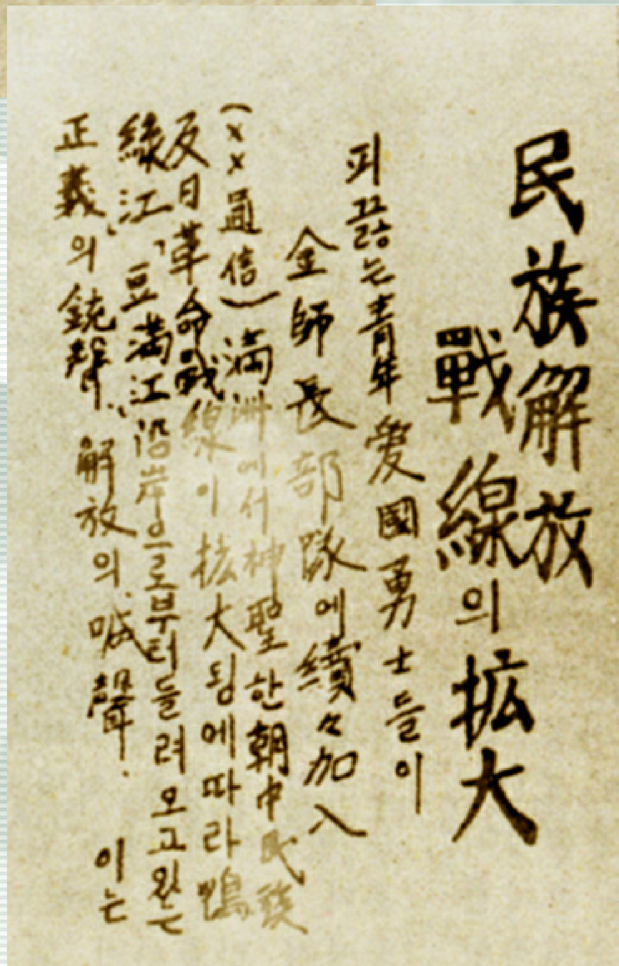
나는 우리의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메달 하나 달아보지 못하고 돌아간 혁명적 출판계의 제1세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一九三六年 十二月一日

三‧一月刊

(第一期 十二月號)



民族解放
戰線의 擴大

피끓는 青年愛國勇士들이
金師長部隊에 續々加入

(××通信) 滿洲에서 神聖한 朝中民族
反日革命戰線이 擴大됨에 따라 鴨
綠江, 豆滿江沿岸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正義의 銃聲, 解放의 喊聲. 이는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

제15장



지하전선의 확대

불굴의 투사 박달
국내당공작위원회
백두산기슭에서의 싸움
박인진도정
민족종교 천도교를 두고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양민보증서

■ 시기 : 1936. 12 ~ 1937. 3

1. 불굴의 투사 박달


국내당 작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족해방동맹 책임자인 박달

박달은 단 한 번도 군복을 입은 적이 없었고 나와 한 부대에서 싸운 적이 없었다. 내가 백두산지구에서 박달을 만난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는다. 그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두어 번은 내가 자리를 뜨고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한두 차례의 상봉으로 생면부지의 상대를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헐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하루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과 같이 나와 박달 사이의 호상이해는 첫 번째 상봉만으로도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순과 마찬가지로 박달도 세파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파벌에 속하였던 적도 없었고 주의자행세를 하면서 거드름을 부린 적도 없었다. 박달은 내가 길림시절에 많이 만나본 김찬이나 안광천과 같은 유행식 운동자가 아니였다.

그는 산골사람다운 농민적인 순박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과 몸가짐이 세련되고 식자도 풍부하였다. 첫 상봉으로도 무게가 있는 사나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었다. 자기식으로 종래의 여러 운동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민족의 출로를 두고 걱정도 하였다. 그는 종래의 낡은 운동방식을 타파할만한 지도자를 찾지 못해 흥남에도 가고 단천에도 가고 간도땅에도 갔었다고 한다.

박달이 자기를 이끌어줄만한 영솔자를 찾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된 국내혁명가들을 찾아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하는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내세운 전략적 과업은 한편으로는 국내에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총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책원지, 비밀거점을 꾸리는 것이였으며 다른편으로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을 마련함으로써 자력광복을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였다.

국내에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꾸리는 사업은 조국광복회망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는 것과 함께 국내에 강력한 당조직망을 꾸림으로써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항일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아 벌이려고 하는 모든 정치적 , 군사적 활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중심고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국내혁명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처음부터 영상태에서 시작

하는 것은 아니였다. 국내에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혁명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조직적 기초도 있었고 일제의 군도와 곤봉 맛을 본 준비된 정치적 역량도 있었다. 노조와 농조를 비롯하여 전국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계층별 대중조직들, 그 조직들을 항일에로 인도해가는 검열된 투사들, 거듭되는 실패와 우여곡절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고 강해진 인민, 좌절과 실패를 체험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로 기록해놓은 투쟁의 교훈 　그 모든 것은 국내혁명운동을 새로운 전략과 전술에 기초하여 가일층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였다.

국내혁명운동이 거둔 업적과 경험을 존중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하여 기성운동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국내혁명운동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세였고 방침이였다.

우리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부터 ≪ㅌ·ㄷ≫와 조선혁명군에서 육성된 우수한 공작원들을 북부국경지대와 국내깊이에까지 파견하여 정치군사적 기반을 닦기 위한 일정한 준비사업을 선행시키었다.

국내혁명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올리자면 조선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중심적인 지도세력으로 등장한 인민혁명군의 조선경내에로의 본격적인 정치군사적 진출과 국내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방조가 필요하였다.

사실상 실패와 좌절만을 거듭해온 국내혁명운동은 새로운 지도와 노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의 상층부는 파쟁으로 혼란되어 있었으나 하층의 선각자들과 인민들은 혁신적인 노선과 지도를 받아들여 결사전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당재건에 열을 올리던 투사들도 지하와 감방에서 자신들이 엮어온 실패작들을 돌이켜보며 출로를 찾으려고 암중모색하였다.

우리앞에는 이러한 요구에 민감하게 호응할 수 있는 실천대책이 필요하였다. 그 대책 중에서도 선차적인 것이 바로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운동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운동의 일원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여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과제를 실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이제순과 같은 형의 견실한 혁명가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조국광복회망을 빨리 늘이고 온 민족을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하였다.

그런 적임자로 물색된 것이 박달이였다.

우리에게 박달을 소개한 사람은 이제순이였다.

≪박달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칼날 위에라도 올라서는 사내대장부입니다. 이론도 굉장합니다. 한번은 사상가랍시고 으시대는 단천내기 사자머리 하고 무슨 논쟁이 붙었는데 그 사람의 코를 아예 납작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함남북을 개척하자면 박달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이제순이 한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다 믿기가 어려웠다. 사실 요란한 소문을 듣고 만나본 명사들에게서 우리는 기대와 달리 얼마나 큰 실망만을 받아안았던가.

주의주장에는 관계없이 지난날 내가 만나본 명사들 중 적지않은 사람들은 자기로서의 분명한 탁견이 없었고 사고와 실천에서 참신성이 부족하였다.

박달로 말하면 내가 길림시절에 만나본 안창호, 김좌진, 이청천, 오동진, 손정도, 심룡준, 현묵관, 현하죽, 고원암, 김찬, 안광천, 신일용, 서중석과 같은 일류명사는 아니였다. 박달에 대해서는 기껏해서 지방순사나 고등계형사들이 살피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소박한 시골초부와 같은 사람이 결국은 우리 혁명에 큰 자국을 남긴 거물로 솟아올랐고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막역한 벗으로 동지로 되였다. 이제

순의 말에 의하면 박달의 본명은 박문상이라고 하였다.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웃들이 ≪박달≫, ≪박달≫하고 불렀는데 그것이 그만 박문상의 별명이 되고 나중에는 이름으로까지 고착되였다고 한다.

박달은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 태생이였다. 아버지가 명천에서 정어리공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니 가세는 그닥 빈한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학력만은 보통학교 졸업정도라고 하였다. 그는 11살에 신랑이 되고 16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정어리공장에 취직하여 월급쟁이회계원이 되였다. 아마도 그의 부친은 아들을 일찍이 자수성가시키려 했던 것 같다.

박달은 조혼한 것이 부끄러워서 동무들에게 신랑이 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점심식사하러 집에 들어왔다가도 아내가 혼자 있으면 밥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성미가 호방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였는데 주색을 즐겨 첩을 두었다고 한다. 그래저래 박달을 낳은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따돌림을 당한 것 같고 아들은 어머니를 몹시 동정했던 것 같다.

≪내가 제일 미워한 것은 첩을 얻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언제인가 박달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일생동안 첩을 둔 아버지의 슬하에서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여 축첩제도의 쓴맛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해방 후 우리가 법으로 축첩제도를 폐지해버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였다.

축첩제도로 하여 어머니가 당한 불행은 일생동안 박달을 괴롭힌 근원으로 되였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고독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에서 교훈을 찾고 주색과는 담을 쌓으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인 아내에게 한평생 변함없는 순정을 바쳐왔다.

박달이 다음으로 경멸한 것은 깍쟁이들이였다. 그는 직급과 직업과 성별에 관계없이 깍쟁이란 깍쟁이는 죄다 미워하였다.

≪나는 인색한 사람들만 보면 하루종일 밥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을에서 박달을 만나던 1957년은 그런 한담을 할 정도로 그의 건강이 좋아진 때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의 생활에서 가장 질색해 하는 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박달 자신은 인덕이 높은 사람이였다. 통속적인 표현을 빈다면 인정이 남아돌아가는 사람이였다. 감자를 수확하는 계절이 올 때마다 그는 자기집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였다. 금년 감자맛이 꿀맛인데 한 번 먹어보고 갈 생각이 없소 하고 잔뜩 구미가 동하게 해놓고는 슬쩍 팔을 잡아당기고는 하였다. 감자를 심지 못한 집에는 감자떡을 쳐서 갖다주게 하였다.

박달과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만일 부자였다면 굉장한 자선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돈은 없지만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였다.

박달은 소학교를 마친 다음 독학으로 구학도 공부하고 중학강의록도 보았다. 박달이 얼마나 근면한 독학가였는가 하는 것은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불구의 몸으로 ≪동의보감≫을 전부 독파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능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혜산사건≫ 때 박달의 집을 수색한 경찰들은 깜짝 놀랐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의≫, ≪사회진화론≫, ≪식민지 문제의 기본지식≫, ≪무산계급의 부인운동≫, ≪실업반대투쟁선언≫,

≪사회주의사전≫, ≪제7차 국제당대회에서의 왕명의 연설≫, ≪중국공산당 창건 15주년 기념≫, ≪조선문제에 관한 테제≫, ≪당원기본상식≫과 같은 사회주의서적들이 무데기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서발막대로 휘둘러도 걸칠 것이 하나도 없는 집이었는데 책만은 부자였다.

박달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못하니 문맹자로 여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겸양의 뜻이였고 실은 맑스주의혁명이론 일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지식을 뽐내지 않았고 지식으로 그 누구를 압도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무슨 ≪영도권≫을 잡아보려는 것과 같은 야심은 품지도 않았다. 그는 물욕도 없고 직위욕도 없는 검박한 인간이였다. 바로 여기에 참된 인간, 참된 애국자, 참된 혁명가로서의 박달의 참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달은 언제나 자기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 세웠고 그래서 누구인가가 자기네를 손잡아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를 고대하였다.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도 그는 그 단체의 포괄범위를 ≪갑산≫이라는 지방적인 것으로 한정하였고 공작위원회라는 명판을 통하여 그 잠정적인 성격도 명백히 하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장차 조선공산당이 창건되면 그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그때가서 조직의 이름을 다시 적당한 것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박달이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반일투쟁을 이끌어줄만한 지도자를 찾지 못한 조건에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지방적인 테두리에서나마 먼저 조직을 뭇고 운동을 벌려보자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였다.

박달이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직하던 과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였다. 그 당시 갑산지방의 일부 사회운동자들은 군경들의 폭압에 겁을 집어먹고 투항주의적 입장에 빠져있었는데 그들은 이 원인은 당중앙기관이 없는데서 찾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갑산군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반제투쟁을 부추겨주거나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어 새로운 노선을 내놓고 그 노선에 따라 갑산에서의 운동을 영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는 것이며 중앙집권제원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된다.≫

박달은 이런 입장을 혁명에서의 도피라고 비판하면서 갑산군에서 일어나는 자연발생적인 운동을 우리가 조직화하여야 하며 그것을 전조선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앞으로 공산당이 조직되더라도 당중앙이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영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이처럼 좋은 시기가 도래하기를 앉아 기다리기만 하거나 경찰의 주목을 피하여 타지방에 도피해서 제 한 몸이나 부지하려는 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조직되었다.

박달은 있을 수 있는 적의 탄압으로부터 갑산공작위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부조직들의 명칭을 정우회, 전진회, 반일회 하는 식으로 각이하게 달았다. 대중계몽을 위해서는 진흥회나 자위단과 같은 어용단체들도 서슴없이 이용하였다. 이 단체들의 간판을 가지고 야학회나 운동회, 조기회 같은 것을 할 때 속내를 모르는 경찰들은 이제는 갑산촌뜨기들도 충실한 황국신민이 돼가는가보다고 흐뭇하게 생각하였다.

박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하기로 되어있는 공작위원회 하부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축구경기를 조직하였다. 군중이 모인 다음 시합을 붙여놓고는 뒤에 돌아앉아 슬금슬금 회의도 하고 분공조직도 하고 할 일을 다하였다. 제사, 결혼식, 생일놀이, 환갑잔치도 조직원들과 조직책임자들의 비밀모임을 하는 계기로

이용하였다. 합법적인 가능성을 이용하니 조직을 위장하는데도 좋았고 조직활동도 활발히 벌릴 수 있었다.

공작위원회 성원들은 이러한 합법적 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제경찰, 주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능란하게 가졌다. 공작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성원들은 일제의 어용단체들과 말단행정기관들에 들어가 ≪열성분자≫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일제 군경이나 주구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대결자세를 취하던 신간회, 노총, 청맹, 적색노조, 적색농조의 투쟁에 비하면 매우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였다.

국내투사들 가운데서 박달이 맨처음으로 응용한 이 외유내강한 위장전술이 크게 은을 내였다.

경찰기관이나 자위단이나 그 밖의 관공서와 농촌진흥회, 소방조, 학교조합, 산림보호조합 등의 단체에서 촌장이나, 구장이니, 무슨 장이니 하는 감투를 쓰고 심부름을 고분고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은 적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데도 좋았고 적의 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는데도 좋았으며 적의 주위에 집결되어있는 세력을 와해시켜 우리편으로 끌어당기는데도 좋았고 인민들이 들볶이지 않도록 하는데도 좋았다. 박달은 갑산공작위원회 책임자 겸 그 위원회의 정치부와 쟁의부를 담당한 만만치 않은 혁명가였지만 적들이 관할하는 공공단체들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는 보천면 신흥리 1구의 농촌진흥회부회장, 1구 일신서당계의 계장, 자위단부단장, 운흥면 대오시천리 소방조소방수 등 주요한 자리들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다.

≪혜산사건≫ 당시 1차로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 63명이 자위단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얼마나 영활하게 일제의 어용기관과 단체들을 이용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 63명 가운데는 진흥회서무부장, 자위단5가조장, 산림보호조합평의원, 산농지도구지도위원, 화전측량총대표, 중견청년강습회수강생, 서당학무위원, 간이학교평의원 등 별의별 직함이 다 있었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이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적인 방법을 능숙하게 배합하면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호, 예를 들면 소작료인하, 화전자유개간, 부역반대, 고리대반대, 아마강제재배반대, 소맥강제재배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투쟁을 힘있게 벌이었다.

얼핏보면 경제투쟁 일변도로 나간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 구호들에는 아마강제재배반대나 소맥강제재배반대와 같은 심각한 정치투쟁의 구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갑산지구 농민들이 아마강제재배조치에 반기를 든 것은 그 작물이 군수품 원료로 이용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마씨를 가마에 쪄서 심거나 드물게 심어 아지를 많이 치게 함으로써 못쓰게 만드는 방법으로 강제재배조치를 파탄시키었다.

어쨌든 이제순의 말만 들어보아도 우리가 하루속히 손을 잡아야 할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우리는 박달을 만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 이제순을 국내연락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제순은 연락임무를 신속히 수행하였다. 박달이 자기에게 인민혁명군대표를 직접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제순의 보고가 통신원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우리와의 회견을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곧바로 밀영을 찾아오지는 않았다.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가 매우 심사숙고할 줄 아는 혁명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즉흥적인 행동을 삼가는 박달의 조심성과 용의주도성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호기심을 더해주었다.

우리에게는 남비처럼 쉽게 끓다가 인차 식어버리거나 바람부는대로 왔다갔다하는 경박한 사상가가 아니라 진지하고 침착하고 용의주도한 혁명가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박달이 요구한대로 당사업경험이 풍부한 권영벽을 갑산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때 내가 권영벽을 통하여 박달에게 보낸 편지는 아래와 같다.

조국을 사랑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국내의 애국자동무들 앞
국내에서 간악한 일제원쑤들과 싸우는 동무들!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무장을 들고 만주광야에서 일만군경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무들과 손을 굳게 잡고 모든 힘을 합쳐서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을 광복시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을 충심으로부터 권합니다.

나는 우리의 대표를 직접 동무들에게 파견하오니 서로 만나서 사심없는 토론들을 교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김 일 성

권영벽이 갑산으로 나갈 때 이제순도 동행하였다. 그들이 박달을 만난 것은 1936년 12월이라고 기억된다. 박달은 그때 처음으로 권영벽을 통하여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권영벽은 그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이 전개해온 주요활동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었다.

권영벽의 출현은 우리와의 연계를 열렬히 희망하는 박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변으로 되었던 것 같다. 권영벽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박달이 워낙 웬간해서는 자기 감정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아서 ≪무틀쇠≫라는 별명까지 받은 사람이라는데 나의 편지를 받고서는 너무 기뻐 눈굽에 이슬방울까지 맺히더라는 것이다.

≪그 동무는 즉시 장군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습니다. 사령관동지가 허락만 해주시면 아무 때든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 나도 박달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더 간절해졌다. 나는 우리 밀영에서 박달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영벽에게 지시하였다.

박달은 자기대로 우리에게 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압록강을 무사히 도강하는 것이였다. 당시의 살벌한 정세로 인하여 비합법적인 도강은 거의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모로 도강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혜산경찰서장과 큰웅뎅이마을에 있는 주재소 김순사를 찾아갔다.

≪여보, 김순사, 당신은 장백소식을 좀 들었소?≫

박달은 주재소에 들어서자마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떠들었다. 김순사와 다른 여러 순사들이 눈이 휘둥그래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식말인가?≫

≪장백땅에 ≪비적≫들이 많이 다니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른 데로 이사해가느라고 곡식 을 마구 처분하는 통에 그 값이 매우 눅다고 하는데 콩을 한 두어 차 실어다 돈벌이를 해야겠소. 눅거리콩신세를 지고 싶거든 도강증이나 한 장 떼주시구려.≫

순사들은 그 말에 귀가 항아리만 해서 도강증을 떼줄 테니 자기네들의 메주콩도 실어다달라고 저마끔 부탁하였다. 도강증은 예상외로 헐하게 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박달은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 이제순의 집에 가닿게 되었다.

이제순이 박달을 데리고 사령부에 들어선 것은 새벽이 다 되었을 때였다.

이제순의 말대로 박달은 정말 넓은 어깨에 비해 얼굴이 작아서 어딘가 생김새가 조화롭지 못한 감을 주는 사람이였다. 외모로 보아서는 풍운아다운데가 그닥 없고 촌나무꾼 같다고 한 이제순의 말이 옳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지켜보는 예리한 눈빛만은 범상치 않게 느껴졌다.

≪퍽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박달의 첫 인사였다. 겉치레가 없는 간단한 인사였으나 진정이 느껴졌다.

그 두세마디의 투박한 말에 나는 어째서인지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박달

박달은 길주에서 유치장 신세를 질 때부터 우리와의 상봉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적의 감시도 피할 겸 조직도 확대할 겸 길주에 나타난 그는 제지공장 공사장에서 토목노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어느 날 박달은 휴지뭉테기속에서 우리 부대가 장백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답새기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상념은 줄곧 우리에게 와있었다는 것이다. 유치장에서 풀려나온 박달은 갑산에 들어서자 우리와 연계를 지을 수 있는 줄을 잡아쥐자고 행상짐을 짊어지고 압록강변 마을들을 거의 다 훑으며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정말이지 오늘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보게 된 건 천행이올시다!≫

박달은 반가움에 겨워 내 손을 다시 부여잡고 힘있게 흔들었다.

≪박달동무를 만난 내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무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나온 후 우리를 찾아온 첫 국내대표입니다.≫

≪내가 무슨 대표이겠습니까. 이 갑산촌놈이　길주나 성진이나 함흥과 같은 대처에 가면 무슨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같은 걸 외눈으로 보기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마치 몸가짐마저도 ≪갑산촌놈≫의 분수에 맞게 가지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이였다. 하지만 나는 박달의 그 겸허한 언행과 몸가짐에서 오히려 거인성을 느끼였다.

≪대처에서만 큰 사람이 나온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이제순동무를 통해서 갑산공작위원회가 그 동안 많은 반일애국활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 그렇게 속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고무를 줍니다.≫

내가 몸을 녹이라고 하면서 더운물을 권하였으나 박달은 한모금 마시는둥 마는둥 하고 국내형편을 보고하겠다고 서둘렀다. 온몸이 열정으로 빚어진 탄복할만한 사나이였다.

박달과의 본격적인 담화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박달이 당시의 국내형편과 갑산지방의 운동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국내형편에 대하여 설명한 요점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다.

국내형편은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당재건을 위한 운동도 맥이 빠진 것 같고 농조운동도 한물 지나가버리었다. 운동가들은 탄압에 견디지 못해 이산저산 돌아다니며 피신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가? 없다. 설사 용기를 가다듬고 다시 일어난다 해도 노선이 없다. 그저 맹목적인 싸움이야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용기를 버리지 않고 투쟁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분파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상해패요, 아라사패요 하는 패당들이 계속 잔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함남패, 함북패라는 것도 있고 지어는 같은 함남패 안에서도 함흥패, 흥원패, 단천패라는 것이 생겨 서로 으르렁거리며 갑론을박의 공허한 입씨름으로 정력만 소비하고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혁명운동에서 제일 큰 애로는 옳은 영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만인을 납득시킬만한 노선이 없고 그런 노선을 만들어낼만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나니 전에 단천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국제당에 사람을 보내어 조언과 지도를 요청하였는데 거기서도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다나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박달의 말을 요약하면 국내혁명운동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가장 절박한 현안문제가 노선문제, 영도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담화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명과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

박달은 나에게 좀 외람된 질문을 한 가지 하였는데 나무라지 말라고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국내혁명가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은 조선사람이지만 중국혁명을 하는 사람이고 **김일성**부대는 조선사람들로 꾸려진 부대이지만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라는 말이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장군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순에게서 들던 바대로 박달은 역시 매우 솔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박달을 위해 비교적 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판보도계가 내가 인솔하는 부대를 가리켜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라고도 칭하고 있는 것만큼 국내혁명가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인솔하는 부대를 완전한 중국군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은 명칭 그대로 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하는 각종 항일유격부대의 연합군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공산당계열의 중국인유격부대, 구국군계열의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직지휘하는 조선인항일유격대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것은 반일항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하여 결속된 일종의 국제적인 연합군이다.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 자기 조국의 해방이라는 같은 목적, 동북이라는 동일한 투쟁무대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의 감정과 공통한 처지, 이러한 것들이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의 무장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무력연합을 실현하게 하였다. 연군체계는 어디까지나 자원성의 산물인만큼 항일연군은 각 민족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연군의 간판을 띠고 중국혁명을 도와주면서도 조국해방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민족군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조선혁명에 주력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창건초기부터 자기 조국의 해방과 자기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조선의 민족군대라는 것은 만주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장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고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장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말한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1국1당제원칙을 코에 걸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대해 시비하면서 우리 민족군의 독자성과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려고까지 하였다. 그 후 국제당은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 것이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항일연군에서 갈라져나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라는 조

언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였다. 따로 세간을 내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의 지지가 약화될 수 있었고 우리의 활동도 불편해질 수 있었다. 연군을 민족별로 가르는데 대해서는 중국사람들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연군체계는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중 두 나라 전우들간의 혈연적 유대의 산물로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의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자주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또 중국사람들이 싫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앞으로도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몽골민족군대나 쏘련군대와도 항일연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우고 싶다.

박달은 나의 설명을 다 듣고나서 방안이 환해지게 미소를 지었다.

≪아참, 그런걸 우리는 괜히 낙망했댔습니다. **김**장군빨치산이 중국군 소속의 군대라면 기대를 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용기가 백배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해서는 신심을 가져도 됩니다. 일본군은 강군이긴 하지만 결코 무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백두산을 거점으로 조선국내에로 광복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국해방은 시간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그속에 바로 박달동무가 지도하는 갑산공작위원회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박달의 담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화제로 된 것은 우리의 통일전선정책과 조국광복회에 대한 문제였다.

박달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과 그것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반조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담고 있은 총적인 지향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조국광복회가 내세우고 있는 목적의 높이와 보편성, 포괄하고 있는 역량의 방대성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신간회나 근우회와 같은 좌우합작의 소산이었던 민족단체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대형의 단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우리의 조치와 방침들을 어느 것이나 다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조국광복회의 명칭이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기는 하지만 최종목적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건설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광복회 명칭이나 10대강령을 보면 이러한 공산주의적 강령의 요구를 멀리 떠나서 민족주의계선까지 후퇴한 감이 듭니다. 말하자면 최고강령을 포기하고 최저강령만을 내걸었다고 할까. ≫

박달은 아마도 우리가 운동의 최고목적을 포기하고 모종의 기회주의적 입장에로, 적극적인 투쟁형식보다도 타협적인 개량주의 운동에로 돌아섰다는 비난이라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도 역시 ≪대통영감≫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혁명이란 공산주의자들 몇 사람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총동원되어야 우리 혁명은 승산있는 혁명으로 될 수 있다, 동무도 다 아는 바이지만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는 노동자, 농민이나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압제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조선독립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역량을 다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야 한다, 동무는 조국광복회 명칭문제에 의견을 가지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떤 계층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명칭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단체명을 하나 지어도 혁명이라는 말이나 적색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좌경의 한 개 표현이다, 우리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의 명칭에 조국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단체가 어떤 한정된 계급이나 계층을 위한 조직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조직

으로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려 하였다고 말해주었다.

박달은 성진, 학성, 길주, 단천, 북청 지방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서로 경험도 나누곤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하활동을 우둔하고 거칠게 하고 있은 것 같다고 하였다. 가령 성진 같은 곳에서는 농조원들이 단오명절날 씨름판에 가서도 표가 나게 붉은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쪽 둘러앉는다는 것이였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비조직군중과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씨름판에서 자기편이 눌리게 되면 승산이 있건없건 연달아 선수들을 내보내는 인해전술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극성을 부리는데 실력으로 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씨름판에 고의로 분쟁을 일으켜 적색농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시상부에 앉아있는 사복경찰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농조핵심들을 장악하였으며 그것을 단서로 하여 농조열성분자들을 검거하거나 지하조직들을 색출해냈다.

그 당시 일부 지방들에서는 향교와의 관계에서도 좌경을 범하였다. 향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제사지내는 지방유지들의 봉건냄새가 나는 조직이였다. 여기서는 장의, 교감 등의 명예직을 주는 놀음을 하였는데 서로 만나 인사를 할 적에 아무개 장의님, 아무개 교감님 하면서 상대를 높여부르는 예법을 썼다. 이것은 물론 봉건유교도덕을 선양하는 것으로서 크게 장려할 것은 못되나 그렇다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루아침에 깨어버리겠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좌경에 중독된 어떤 청년들은 봉건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장의감투를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망동을 하여 늙은이들의 대통에 얻어맞는 창피까지 당하였다. 늙은이들은 공산당 패거리들이란 삼강오륜도 모르고 웃어른도 몰라보는 망종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야단법석을 하였다.

그 틈바구니에서 덕을 보는 것은 일본제국의자들 뿐이였다. 그들은 향교에서 공자의 제사를 지낼 때 군수도 함께 참석시켜 절을 하게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할아버지들을 반대하지만 일본 관청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시위하자는 속셈이였다. 적들은 이처럼 지방의 향교조직도 공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무슨 ≪적색≫이니, ≪혁명≫이니 하는 요란스러운 명칭이나 단다고 해서 단체의 일이 잘돼나가는 것도 아니며 조직의 혁명성이 스스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해당 지방의 형편과 대중의 각성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내올 수 있습니다. 가령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농민들은 농민조합을 조직하며 청년들은 반제청년동맹이나 공산청년동맹 같은 것을 조직하는 식으로 실정에 맞게 조직을 내와야 합니다. 우리가 요해한 바에 의하면 국내 여러 지방들에는 진흥회라는 어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적지 않은 군중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려면 이런 단체들에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혁명화하면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정신에 부합되게 단체의 성격도 점차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 혁명에 이로운 것이라면 그 어떤 명칭을 가진 조직이건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박달은 이 말을 듣자 자기를 뉘우치었다.

≪말씀을 듣고보니 확실히 우리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박달을 통하여 국내투사들의 사고방식에서의 허점과 제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고와 실천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과오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교조주의적인 이해였다. 그들이 민족주의운동일반을 배척하고 경원시하는 것은 그 당시 맑스-레닌주의를 씹어서 소화하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이던 행세식 공산주의자들과 독경식 맑스주의신봉자들 일반이 범하

고 있는 좌경적 편향이었다.

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족해방보다 더 큰 대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민족을 떠난 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런 공산주의운동은 필요도 없다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의 개념속에는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창조적 노동을 사랑하고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군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총동원의 기준이며 조국광복회 입회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하며 또 이룩할 수 있다는 자주독립사상에 기초한 민족의 총동원만이 조선의 운명을 칠성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박달은 사고와 실천에서 교조를 적지 않게 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교조로 대담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주장을 허심하게 받아들이였다.

나는 박달에게 갑산공작위원회를 조국광복회의 산하조직으로 하되 그 명칭은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바꿀 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박달은 그 제의에 흔연히 동의하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국광복회망을 국내에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임무와 구체적인 방도들을 협의하였다. 밖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불을 쪼이면서도 담화하였다. 박달이 밀영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그와 함께 국내에 당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인민혁명군원호문제, 적통치기관침투문제, 국내혁명가들의 신변보호문제, 앞으로의 연락방법과 연락장소, 암호, 연락원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이해와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박달과의 접촉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인상은 그의 솔직성과 소탈한 품성, 혁명에 대한 진지한 태도였다. 그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입으로는 좋다고 표현하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의 눈치와 시세를 봐가며 좋다고 말했다. 설사 상대방의 기분을 좀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웃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며 흰 것을 검다고 하거나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며 시세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방법으로 웃사람들에게 발라맞추는 것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다. 간신들의 혀끝에서는 진실이 서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박달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털어놓고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의 그런 성품에 완전히 반해버리었다. 매력이란 결코 복잡하고 현란하고 다사스럽고 야단스러운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솔직한 여기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매력의 핵이 있다.

공화국 정부의 초대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정준택도 소시민 출신의 인텔리이고 종파분자들에게서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은 간부였지만 내앞에서는 항상 바른 말을 하였다. 그는 경제정책집행에서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가령 내가 왜곡된 보고를 듣고 어떤 생산지표에 대하여 정확치 못한 견해를 가질 우려가 있으면 나의 집무실에 와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기어이 나에게 정확한 실태를 보고하고는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도움으로 나라의 살림살이 전반을 항상 진상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 해 나갈 수 있었다.

옛날에는 인재를 등용하는데서 첫째로는 문벌이 좋은 것을 취하고 둘째로는 모습이 청미한 자를 취하고 셋째로는 말씨가 순한 것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다나니 출신이 미천하고 체격이 왜소하고 말씨가 무뚝뚝한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장원급제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훈계하였다.

≪사람은 문벌이나 재산이나 생김새나 말씨를 보고 취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됨됨이를 보고 취해야 하느니라.≫

박달을 만나고보니 어째서인지 외할아버지가 하던 이 말이 되살아났다. 외형상으로 수더분하게 보이는 이 박달이야말로 속대가 바로선 사람이였고 허식이나 겉치레를 모르는 솔직하고 소탈하고 성실한 인간이였다. 요새 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는 정녕 심장에 남는 사람이였다.

≪내 몸이 열 조각, 백 조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리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염려말아 주십시오.≫

박달은 이런 말을 남기고 나와 헤어졌다. 물론 그는 약속대로 이제순이네 동네에서 만주산 메주콩을 한 달구지 사가지고 가서 순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37년 1월 갑산공작위원회의 지도핵심들은 박달의 사회하에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하기 위한 모임을 열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집행대책도 겸하여 토의하였다.

조직대열을 갑산지방범위로부터 도범위, 전국적인 범위에로 확대해나갈 데 대한 문제, 동맹조직내의 일체 종파주의적 요소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할 데 대한 문제, 비밀을 엄수할 데 대한 문제, 동맹원교양문제, 기관지발행문제 등 당면한 여러 가지 실천적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한 것은 조국광복회운동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변이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조국광복회조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시키는 하나의 발진기지로 되였다.

갑산공작위원회가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된 그때로부터 갑산지방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들은 조선민족해방동맹기관지 ≪화전민≫에 우리의 노선을 소개하는 글들도 실어 하부조직들에 배포하였다. 갑산을 비롯한 함남북일대에는 우리의 노선과 방침이 빠른 속도로 침투되고 조국광복회하부조직들이 급속히 자라났다. 반일투쟁의 불길은 전례없는 열도를 가지고 타올랐다.

1937년 5월에 나는 다시 박달을 만났다. 최현부대의 무산방면 진출과 관련하여 갑산일대의 정세는 대단히 험악해졌다. 국경일대에는 또다시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삼엄한 경비진이 늘여졌다.

그러나 박달은 이번에도 경찰을 잘 구슬려 합법적으로 자기 마을을 떠나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국내형편과 사업정형을 놓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내운동정형에 대한 박달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모두 만족해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전위투사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가고 있었다. 조국광복회조직은 갑산지방을 비롯한 현재의 량강도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성진, 길주, 단천, 흥원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주요지역들에 널리 뻗어가고 있었다. 투쟁방법도 훨씬 세련되어갔다.

우리는 박달에게 전투에서 노획한 경기관총 2정을 보여주었다. 박달이 그 무기

들을 만져보며 기뻐하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국내동무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내가 느낀 문제점은 그들이 운동의 국내적 측면만을 놓고 문제를 설정하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국제적 판도에로 확대하면서 폭넓게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 혁명이 처하여있는 국제적 환경, 말하자면 국제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 그리고 일본공산당과 같은 조직들과의 관계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변들과의 연관속에서 조선혁명문제를 설정하도록 그들의 안목을 넓혀주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바치였다. 이것은 국내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적극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였다.

그 무렵의 국제정세는 매우 유동적이였다.

구라파대륙이 에스파니아국제전쟁으로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때 아프리카대륙은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강점으로 하여 떠들썩하였다.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강점은 어떤 의미에서 에스파니아내전보다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에스파니아공민전쟁이 국제적인 성격을 크게 띤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것은 국내전쟁에 지나지 않는 사변이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강점은 한 약소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침략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른바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러한 무력침공을 조장하였으며 특히는 국제연맹이 아무러한 효과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디오피아를 침략의 희생물로 고스란히 바쳤다는데 있었다.

일본의 만주침략과 독일에서의 나치스 정권의 출현은 이탈리아로 하여금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침략행위를 감행할 수 있게 한 국제적 배경이였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대독일제국건설에 달라붙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열강들은 히틀러정권의 출현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의 반공정책에 공감하고 관대하게 양보함으로써 독일무력을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방벽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거기에서 고무를 받은 파쑈독일은 1935년 1월에 자르를 병합하였으며 그 해 3월에는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의 군사조항을 폐기하는데 이르렀다.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독일에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그 나라가 10만이상의 군대를 못가지며 탱크와 비행기는 물론, 1,000톤급 이상의 함선조차 못가지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독일은 이러한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36개 사단에 55만의 상비군을 설치할 데 대한 ≪국방군 편성법≫을 발표하였다. 게링그는 독일공군의 공식편성을 선언하였다. 나치스 독일의 이 모든 움직임은 이탈리아를 노골적인 무력침공에로 사촉하고 고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되었다.

이탈리아는 침공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탈리아의 대대적인 군사적 침공이 시간을 다투어 준비되고 있은 절박한 정세하에서 국제연맹 성원국이였던 에티오피아는 이 사실을 국제연맹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이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국제연맹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식민지 문제를 놓고 이탈리아와 엇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디오피아는 거듭 중재를 요구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이디오피아황제는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연맹의 총회에서 울면서 이디오피아를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 성원국도 아닌 미국에까지 각서를 보내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중립법≫ 제정 등으로 고립주의정책을 쓰던 미국도 아닌보살하였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는 선전포고 없이 이디오피아에 쳐들어갔다.

군민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는 패망하였다.

국제연맹은 이탈리아에 대한 아무러한 효과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형식상 선포하였던 경제제재의 막 뒤에서 영국,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못본 체하였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맞았다.

국제연맹의 위신은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하기는 제국주의열강들의 침략도구로 시종일관 복무해온 그 연맹이 강자의 편을 든다고 하여 크게 놀랄 것은 없었다. 국제연맹은 초창기에 벌써 ≪위임통치령 분배≫ 형식에 의한 식민지재분할을 노골적으로 비호하였고 노골적인 반쏘정책을 실시하였다. 국제연맹이 일제의 만주침략을 얼마나 뻔뻔스럽게 두둔하였는가 하는 것을 세계의 양심들은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제연맹은 파쑈독일의 자르강점과 에스파니아에 대한 독일, 이탈리아의 무력간섭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지어는 그 나라들의 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돌리지 못하였다.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사명을 띠고 출현하였던 국제연맹은 그 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독일의 침략행위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도와주고 고무하였다.


몸은 포승에 묶였어도 태연자약한 박달

파쑈세력과 군국주의 세력의 전횡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던 국제정세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연맹의 무맥한 존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주체적인 역량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내가 박달을 다시 만났던 그 시기는 중국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시간문제로 남아있던 때였다.

≪화북사변≫은 실제로 화북을 일본제국주의의 천하로 되게 하였다.

≪화북사변≫ 후 일본제국주의는 군비확장과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1936년 8월 히로다 내각은 일본은 동아대륙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양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기본국책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여 동시에 북진하여 쏘련을 반대하고 시기를 기다려 남으로 진공하려는 전력방안의 하나였다.

박달을 비롯한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매우 심중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멀지않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전제밑에서 국내의 혁명가들이 그에 맞게 역량결속을 잘하고 조성된 정세를 잘 이용하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조만간 중국에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네들이 전쟁수행을 위해서 수탈도 강화하고 목조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후방에는 빈구석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전선을 넓혀갈수록 우리도 넓은 판도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박달동무는 새로운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잘 움직여서 반일역량을 더 많이 집결시키며 폭동적 진출에로 나갈 수 있는 차비도 잘 갖추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박달에게 보천보시가의 약도를 그려오며 일제의 국경경비정형을 상세

히 조사보고할 데 대한 특별과업을 주어 밀영을 떠나보냈다. 박달은 우리가 준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가 그린 약도와 조사보고자료는 보천보전투의 성과를 보장하는데서 큰 기여를 하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엿새째 되는 날 우리는 통신원을 보내어 박달을 다시 불렀는데 부대를 데리고 간삼봉 쪽으로 총총히 가다보니 만나지 못하였다. 보천보가 된타격을 받은 후 조선총독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함흥 74연대병력과 장백현 주둔군, 국내경찰들을 집결하여 우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해 7월에 다시 박달을 불렀다. 그러나 그가 적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하여 이번에도 우리의 상봉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병선만이 박달의 체포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실태보고를 하였다.

나는 이병선에게 우리가 명천, 성진 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어줄 데 대하여 부탁하였다.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유격대를 내올 데 대한 과업도 겸하여 주었다.

이병선을 통하여 준 임무는 훗날 유치장에서 나온 박달에게 전달되었다.

1938년 6월 박달은 국내조직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 어려운 정세속에서 그 수습책과 관련된 우리의 조언을 받으려고 장백일대의 수림에서 한 달 이상이나 우리를 찾아헤매었다고 한다.

그 당시 임강, 몽강 방향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던 나는 퍽 후에야 그 소식을 들었다.

일제경찰은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핵심역량을 체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혜산경찰서의 조선인경부 최령이 사복경관, 자위단, 소방대까지 다 끌어내어 박달의 뒤를 추적하였다.

박달과 김철억은 김철억의 4촌형인 김창영의 변절로 하여 1938년 9월과 10월에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이용술(이경봉)도 붙잡혔다.

교형리들은 박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한 것은 우리의 위치와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조직성원명단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진 고문도 철석같은 의지를 지닌 박달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적들은 처음에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가 증거부족으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살인귀들의 고문장은 박달의 육체를 여지없이 파괴해버리었다. 척추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서졌다. 그렇지만 그의 넋은 변하지 않았고 동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불구의 몸으로 우리의 후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옥고를 치르며 7-8년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역경을 이겨냈다.

해방 후 어느 날인가 나는 박달이 살아서 서대문형무소를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다. 들것에 실리어 감옥문을 나선 박달은 한동안 서울에 주저앉아 부인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리었다. 후에 의학박사인 최응석이 다시 진찰을 하고 박달의 병명을 척수결핵이라고 정정하였다. 박달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사무국장을 서울로 보내어 박달을 평양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전 날의 박달은 하루밤에도 수백 리 길을 날아다니던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강기가 있는 혈기왕성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 날 남의 등에 업혀 내앞에 나타난 박달은 고문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옛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의 불구였다. 피골이 상접한 그의 갑삭한 몸은 한 줌안에라도 들것처럼 작아 보이었다.

그래도 박달은 두 팔로 나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좔좔 흘리었다. 살아서 나를 다시

만났으니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하였다. 박달을 진찰한 의사들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내리었다. 구원할 가망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박달은 감옥문을 나설 때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옆에 박달의 집을 잡아주고 그를 소생시키기 위한 면밀한 치료대책을 세웠다. 명약이란 명약은 다 구해다주고 명의란 명의는 다 데려다가 그의 치료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집무실에 오갈 때면 문병을 하고는 하였다. 어느 해인가는 남포 우산장에 젖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젖소를 가져다가 우유를 짜서 그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3년간의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주을휴양소에 ≪박달각≫을 따로 내오고 그를 치료해주었다. 박달이 주을에서 요양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그가 좋아하는 남새를 평양에서 실어다 공급해주었다.


박달의 수기

≪빨리 병을 고치고 장군님을 도와드려야겠는데 ≫

이것은 박달이 침상에서 노상 걱정하던 말이다. 그는 병마를 털고 일어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의료진의 성의있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세는 날을 따라 악화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달이 그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에서도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기 위해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49년에 있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산장휴양소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던 박달은 주변농촌의 과수원들에서 사과에 봉투를 씌우지 않아 병충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휴양소에 와있던 남반부 출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휴양소직원들을 발동하여 사과봉투를 만드는 일을 조직하였다. 박달자신도 침상에 누워 가슴에 널판자를 놓고 봉투를 만들었다.

전후 주을에서 치료받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박달은 우리가 보내준 삼륜차를 타고 주변농촌에 나갔다가 당에서 심으라는 벼종자를 심지 않아 벼이삭에 쭉정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쭉정이가 많은 벼이삭을 봉투에 넣어보내면서 당의 농업정책이 정확히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리는 그의 보고를 받고 어느 회의에선가 박달과 같이 불구의 몸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당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아파서 당중앙에 보고하는데 지방일군들은 왜 그런 현상을 모르고 있는가고 비판하였다. 그 후 함북도당위원장은 박달을 찾아가서 자기비판을 하였다고 한다.

박달은 자기가 영영 일어날 수 없다는 것과 또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부터 침상에 누워서 청소년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 바쁘게 박달을 찾아가 그런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그러자 박달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장군님 덕인데 조

금이라도 혁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나는 국내당공작위원회위원과 조선민족해방동맹책임자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일제경찰에게 붙잡혀서 결국 지금은 국가의 밥만 축내는 폐인이 되였지만 그날에 받은 혁명임무를 마저 수행하려는 심정에서 다소나마 힘을 바치고저하니 부디 막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오스뜨롭스끼는 눈먼 장님이 되어가지고도 혁명을 위해 장편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글이야 왜 못쓰겠습니까. 물론 글재간이 없어 걸작이야 못내놓겠지요.≫

박달은 한평생 자기의 손발이 되어주고 간호사가 되어준 충실한 아내 현금선과 의료일군들의 방조를 받으며 수기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와 항일혁명투쟁시기 갑산지방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자서전적 장편소설 ≪서광≫을 쓰기 시작하였다. 심장의 피를 찍어 한자한자 쪼아박듯이 쓴 그의 글줄들은 그속에 담긴 혁명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주었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앞으로 독후감과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박달은 자기의 글이 삶의 귀중한 길동무로 되고 있다는 독자들의 편지에서 고무를 받으며 여러 편의 글을 연방 써냈다.

어느 날 그는 자를 가지고 침대를 재어가며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숫자를 적은 종이장을 아내에게 내보이었다. 거기에 적은 치수대로 책상을 하나 짜주면 그것을 침대위에 가로건너놓고 글을 쓰겠다는 것이였다.

며칠 후 그가 부탁한 책상을 목수가 정성껏 짜서 보내왔다.

박달은 책상다리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책상을 아주 잘 짰소. 여보, 이 책상을 잘 건사해주오. 내 이제 좀 쉬고 이 책상을 놓고 글을 쓰겠소.≫

그러나 박달은 그 책상에서 한번도 글을 써보지 못하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충정으로 높뛰던 그의 심장이 고동을 멈춘 것이다. 그의 서거에 대한 부고를 듣고 온 나라가 깊은 애도의 정에 휩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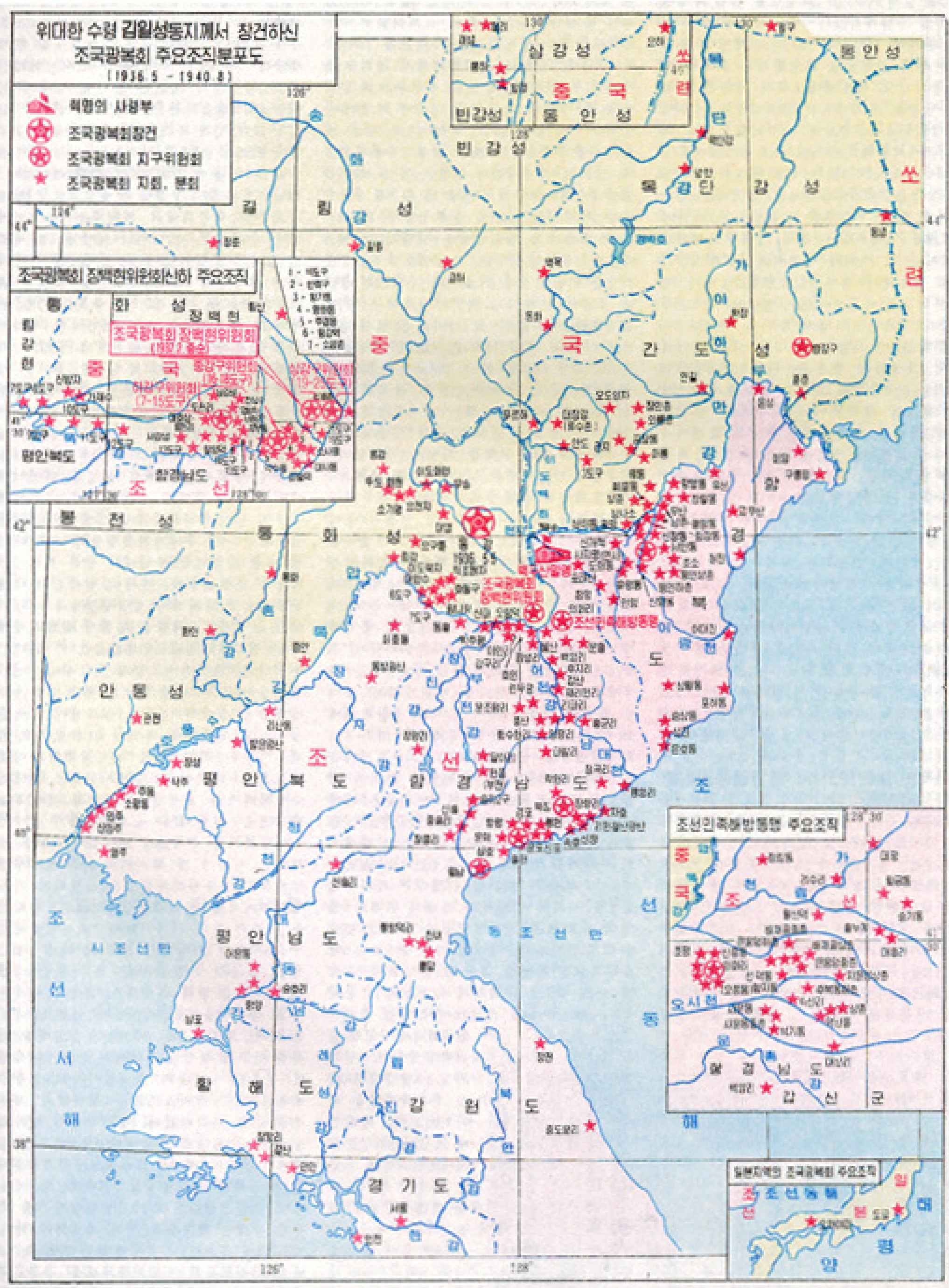
우리는 박달의 집에서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고인을 발인할 때 나는 영구와 함께 나갔다. 백두산에서 박달과 헤어질 때 멀리까지 바래주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항상 심중에 매달려 있었는데 영결하는 순간에나마 그를 바래주고 싶었다. 어떻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손수건이 푹 젖어있었다. 나는 김책을 잃었을 때처럼 또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해방된 조국땅을 제발로 걷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후 박달이 해방 전에 쓰던 보천군 운흥리의 집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집앞에 그의 동상을 세워주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혁명가들을 위해 건립한 최초의 동상일 것이다.

박달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날개를 잃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을 위해 굴함없이 싸운 투사이다.

참으로 박달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나온 이후시기 항일무장투쟁과 국내혁명의 일원화를 맨처음으로 실현한 국내혁명가의 당당한 대표자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일도 제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겪은 우리의 국내전권대표였다. 박달과 같은 이런 투사들의 덕으로 우리는 해방 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단시일안에 당을 창건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1936.5 - 1940.8)
혁명의 사령부
조국광복회창건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
조국광복회 지회, 분회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산하 주요조직
조선인족해방동맹 주요조직
일본지역의 조국광복회 주요조직
길 림 성
빈 강 성
삼 강 성
목 단 강 성
간 도 성
통 화 성
봉 천 성
안 동 성
중 국
조 선
평 안 북 도
평 안 남 도
함 경 남 도
함 경 북 도
황 해 도
강 원 도
경 기 도
동 조 선 만
서 조 선 만
조 선 동 해
조 선 서 해
일 본
태 평 양

2. 국내당공작위원회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공산당을 가지는 것은 조선혁명가들의 일관한 염원이였고 항일혁명투쟁을 전개하면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육성된 우수한 전위투사들로 당의 기층조직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항일혁명의 주력을 담당했던 조선인민혁명군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를 책임진 당건설의 주도적 역량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는 가운데 활발히 조직전개된 당건설사업은 무장투쟁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그에 대한 당적 영도와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전위투사들에 의하여 추진된 당조직건설사업은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당당한 주류를 이루었으며 확고한 정통성을 대표하게 되였다.

우리의 당건설사업은 처음부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힘들게 진척되였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특수한 사정과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과 관련되여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을 가지기 위한 투쟁노정에서 남달리 비싼 대가를 치르며 남이 곧추 가는 길을 멀리 에돌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고심참담한 진통을 겪어야 하였다. 우리는 식민지 나라의 항쟁투사들이 당을 창건하는데서 일반적으로 다 겪게 되는 보편적인 난관과 함께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였던 특수한 조건으로 하여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시련과 고충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당은 1928년에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것을 재조직할 것을 지령하였으며 1국1당제원칙에 따라 만주와 일본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재국의 당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세에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다른 나라 당에 들어가 좋은 때가 오기를 고대하는 수동적인 길을 택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국제당의 주관주의적인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에 역행하여 주재국의 당에 당적을 옮기지 않은



장백진출의 길에서 마을안민들에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선전하시는 김정숙동지

상태에서 얼마동안 종전대로의 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타성에 의해서만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죄다 주저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당에 적을 임시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인 동시에 계급적인 연대를 전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인 것만큼 그 운동을 담당한 투사들이 국적을 초월하여 일시 다른 나라의 당조직에 망라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상할 것이 없다.

국제당 본부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거기에 가있던 여러 나라의 적지 않은 공산당 지도자들과 정치망명객들은 자기 나라의 당적은 당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쏘련공산당조직에 임시로 이름을 등록하고 당생활을 하였다.

문제는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모체조직을 거세해버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차스러운 곁방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굴욕적인 처지에 떨어지게 한데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국제당의 처사를 온당하게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엇나가거나 운동 그 자체를 줴버리는 것과 같은 자포자기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제당이 취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체의 주동적 노력으로 새 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다.

우선 국제당에서 내놓은 원칙이 용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방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독자적인 당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추진시켜나갔다. ≪ㅌ·ㄷ≫의 전위투사들을 망라한 건설동지사의 조직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동만이나 북만 땅에서 활동하던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당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내깊이에는 얼마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그 시기에 벌써 우리는 온성, 종성 등 두만강 연안의 국내 여러 곳에 몇 개의 기층당조직을 꾸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조직건설을 위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

의 기본적인 활동판도는 아직은 동만이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데 주력하면서 간도 각 현의 당조직들과 밀접한 연계속에서 우리 당 조직을 확대해나갔으며 앞으로 국내에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핵심들을 육성하였다.

우리가 남호두회의 정신에 따라 당건설방침을 심화시키고 그 방침의 실현을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한 것은 1936년 5월의 동강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업이 상정되고 그 대책으로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투쟁의 골간들로 전위적인 당조직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가 협의되었다.



박달

그때 동강회의에서는 당조직건설사업은 유격대에 국한시켜도 안되고 동북일대만을 무대로 삼아도 안되며 국내깊이까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두만강대안 국경연선의 일부 지역들에만 기층당조직을 내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내의 광활한 지대에 당조직들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내에서의 당창건 준비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내와야 한다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내오는 문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게 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은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잘 꾸리자면 반드시 조선실정을 환히 꿰들고 있은 국내공산주의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해야 하였다.

박달이 우리 밀영으로 찾아온 것은 이런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당조직건설, 이것은 나와 박달과의 담화에서 논의된 중심주제의 하나였다.

조국광복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박달과 함께 국내에 당조직을 꾸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반나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달은 내가 국내에 조국광복회조직만이 아니라 공산당조직도 내올 의사를 표명하자 무척 놀라면서 어떤 공산당조직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 물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었다.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당을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거기에 바쳐진 투사들의 눈물겨운 노고와 열정이 철창 속의 서글픈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나라, 이미 오래 전에 결사의 자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공산당조직을 내오려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박달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내가 우리의 공산당, 조선의 공산당조직을 내오려 한다고 대답하자 그는 재차 물었다.

≪조선에 공산당조직을 내오는데 대하여 국제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국제당이 그것을 승인하였는지요?≫

≪그건 우리들끼리 하는 일인데 국제당의 승인이고 뭐고 상관할게 있습니까? 국내에 우리 당 조직을 내오는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국제당의 승인을 받아야 할 까닭이야 없지 않습니까.≫

박달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각 나라의 공산당은 다 국제공산당의 지부로서 그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당의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자기 당 조직을 내올 수 있겠습니까?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걸 국제당에서 허용할까요?≫

박달은 확실히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혁명이란 워낙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 누구의 지령이나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 좀 물어봅시다. 박달동무는 그 누가 시켜서 혁명을 시작했습니까? 또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맑스가 공산주의자동맹을 조직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또 레닌이 볼셰비키당을 조직할 때는? ≫

말문이 막혀버린 박달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맑스나 레닌은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당은 이미 1928년 12월 테제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당재건의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테제에 명시된대로 국내에 우리 당 조직을 내오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시비하겠습니까. 국제당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승인이고 비준이고 하는 문제자체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일을 우리 집안사람들끼리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괜히 바깥사람들에게 우리 집일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물을 필요야 있습니까? 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닙니까.≫

박달은 그제야 자기 생각이 너무나 짧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제안을 적극 찬성해나섰다.

≪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자신이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국제당이 각국 혁명을 좌지우지하는 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국내에 당조직을 꾸리게 되면 그 당조직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그리고 지도는 어디에서 받게 됩니까?≫

≪국내의 당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에 소속되고 또 그 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선에 공산당이 없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는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담당한 참모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위원회의 활동은 무력에 의해 튼튼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헌병경찰통치는 조선에서 당재건의 모든 가능성을 박탈해버리었습니다. 당 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투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철창속에 갇혀 있습니다. 적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은 것은 오직 무력의 담보를 받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조선혁명 전반에 대한 영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조선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수행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되게 될 국내당공작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박달은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우리는 곧 국내당공작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실무문제 토의에로 넘어갔다.

이 토의에서도 박달은 질문부터 하였다. 그는 언제나 질문을 앞세우고 논쟁마당에 뛰어드는 것 같았다.

≪지금 국내에서는 당을 먼저 건설하는가,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는가 하는 문제가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함흥패는 당건설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천패나 흥원패는 군중단체를 먼저 내온 다음 실지투쟁을 통해서만 당을 내올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달동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견해도 없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당을 먼저 내와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박달은 그런 논의가 생겨나게 된 연원을 국제당의 12월 테제에서 찾고 있었다. 그 테제의 원명은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이다. 국제당은 그 문건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 단체들속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이며 신간회를 비롯하여 신구민족해방단체안에서 투사들을 획득하기에 힘쓸 것과 당의 사상적 단결을 중시하는데 모든 주의를 집중하며 하루빨리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하고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그 테제가 마치도 당건설과 군중단체의 조직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데로부터 인식상 혼란을 빚어내게 되었다.

≪내가 보건대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후차를 결정하는 거야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이지 여기에 12월 테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조건에 따라 당조직을 먼저 내올만한 곳에서는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군중단체를 먼저 내올만한 곳에서는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3명이라도 있다면 그 3명만으로도 당장 공산당 소조를 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군중단체를 먼저 내오고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낸 다음 당조직을 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과 군중단체라는 이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고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후차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공산주의자들은 군중속에서 당의 후비대를 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자격을 갖춘 전위투사들만 있으면 당조직은 아무 때든지 내올 수 있습니다.≫

박달은 내가 내오려고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가 장차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는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국내당조직건설을 맡아보게 될 지역적 지도기관이다. 통일적 영도기능을 수행하는 참모부가 없는 것으로 하여 국내운동은 지금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이라는 두 가지의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애국지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결속하며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맡아 수행할만한 지도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지도기관이 바로 국내당공작위원회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조직되면 우리는 여기에 박달동무를 망라시키려고 한다. 박달동무가 이런 위원회가 파견하는 국내전권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국내각지에 널려있는 투사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에는 박달동무가 이제 돌아가서 우선 함남북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운동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국내당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박달은 내 말을 듣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정말 과분한 믿음이올시다. 제가 그럴만한 재목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박달의 솔직한 고백은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혀주었다.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소집하고 나를 책임자로 하고 김평과 박달을 위원으로 하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박달은 이 위원회의 현지집행인으로서 갑산지방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주관할 임무를 지니었다.

박달은 국내에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장차 당중앙기관을 조직하며 당창건을 선포할 데 대한 우리의 방법론을 지지하였다.

박달은 그 회의 후 국내운동가들의 사업방법에서 지적할 점이 있거나 참고로 될 만한 요령이 있으면 죄다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무엇보다 망명객식의 사업방법을 퇴치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금 국내동무들의 활동을 보면 망명객식방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한 방법입니다. 낮에는 산에 숨어있다가 밤에 가만히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조직원들은 놈들의 감시가 두려워 그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망명객식방법으로는 조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후지하활동을 하는 동무들이 생산에 참가하면서 합법적인 활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얻어야 합니다. 망명객식사업방법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박달은 내 말을 듣고나서 얼굴을 붉히였다.

≪나도 사실은 망명객식방법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면충돌만 생각하였지 때에 따라서는 우회적인 방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담화를 떠나서 잠시 한담을 하였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깃또구두를 신고 하이칼라를 하고 개화장을 짚고 현대인 행세를 하며 다니는 때에 어떻게 되어 구습을 싫어하는 박달동무가 중머리를 하고 다니는지 그 까닭을 말해줄 수 없는가고 물었다.

박달은 노조운동을 할 때 경찰서에 붙들려가면 순사놈들이 머리칼을 움켜잡고 담벽에 머리를 찧어대곤 하기 때문에 화가 동해서 아예 ≪벌초≫해 버렸노라고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박달의 그 ≪벌초≫가 아주 기지있는 처사로 느껴졌다. 박달은 내가 요구한다면 중머리를 하이칼라나 상고머리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달동무가 필요해서 한노릇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원상회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군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중머리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걸음을 또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박달은 실지로 그 후 경찰서와 감옥에서 닥달을 많이 당하였다.

나는 그에게 혁명에 이익이 된다면 순사시험 같은 것을 쳐 볼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눈을 크게 치뜨고 어리둥절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저를 순사로 둔갑시킬 생각이야 아니겠지요?≫

≪혁명이 요구한다면 순사 같은 것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박달동무를 순사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순사모자는 써도 좋고 안써도 좋으니 그런 일을 통해서 주재소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박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피어났다.

≪제가 순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순사시험을 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달은 이듬해 봄에 정말 순사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는 시험을 치기 전에 먼저 주재소 수석순사를 찾아가서 희떠운 소리부터 하였다.

≪수석님, 나도 순사로 발전하고 싶은데 수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순사로 발전할만한 재목이 되겠습니까?≫

수석은 그 말을 듣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그게 정말인가?≫

≪정말 아니구요. 오죽 순사가 되고 싶었으면 내가 수석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당신은 재목이 되고도 남는다. 잘만 하면 이 주재소 수석도 할 수 있다.≫

≪제가 수석님 자리야 가로타고 앉을 수 없지요. 그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수석을 못하더라도 박달과 같은 사람이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개

조된다면 나는 대일본제국을 위해서 기꺼이 수석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다. 그 포부가 아주 좋다. 어서 순사시험을 치라.≫

박달은 순사가 될 것처럼 소문을 크게 내면서 빼젓이 순사시험을 쳤는데 답안을 적당히 썼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끝나고 합격은 되지 못하였다. 그는 우리가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를 능란하게 하였다. 일본인들도 그의 경력을 밝히면서 비밀문건에 ≪소화 12년(1937년) 3월 함경남도 순사에 자원하여 갑산서에서 응시, 낙제≫하고 한조목 적어넣었다.

박달은 순사시험을 친 것으로 하여 일본인들한테서 신용을 얻게 되었다. 그곳 주재소에 있는 김순사는 박달을 순사시험까지 친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신원을 여러 번 보증해나서기까지 하였다. 박달은 이처럼 순사들은 업고 그들에게 충실한척하면서 하고싶은 일을 다하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결성은 우리가 내놓은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을 고수하여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실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었다.

이것은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던 당재건운동의 단순한 연장이나 반복이 아니었다.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지도밑에 전개된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이야말로 국제당이 직접 주관한 당재건운동이나 또 국제적색노동조합(프로핀테른)이 적색노조운동을 통하여 이룩해보려고 시도한 당재건운동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철두철미 자주적인 당재건운동, 당조직건설투쟁이었다.

국제공산당은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에서의 민족해방투쟁, 특히 당재건운동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구라파에서의 파시즘에 못지않게 일본군국주의가 날로 위험한 세력으로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제공산당에서는 조선에서의 공산당 재건문제를 두고 꾸우씨넨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제나름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당 제7차대회 이후 시기에 논의되었던 조선민족혁명당조직에 관한 제안이었다. 조선에서 반일을 목적한 민족혁명당조직에 관한 국제당의 의사를 보다 상세히 밝힌 것은 ≪공산국제≫에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 쓴 양송의 글에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간도에 있어서의 현재의 국면은 중국공산당조직을 확충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중조 노동자, 농민을 더 많이 당내에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반일과 조선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새로운 당의 창립자는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썼다. 그리고 그 당은 성격상 반일통일전선적인 당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당의 견해와 당시 국제당에 가있던 중국당일군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에서의 당조직건설문제와 통일전선결성문제를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해결하였다.

우리는 당조직건설문제와 통일전선결성문제를 같이 밀고 나가면서도 그것을 서로 뒤섞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당이 통일전선을 대표하거나 통일전선체조직이 곧 당으로 될수 없기 때문이였다.

그 당시 일부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민족유일당이라는 명목으로 좌우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포섭하는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정치단체를 내올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제공산당제7차대회회의장

우리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조직건설을 밀고나가는 한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내오는 방법으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였다.

물론 국제당은 그 이전시기에도 조선에서의 당재건을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다.

국제공산당의 지도밑에 있던 국제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이 1930년 9월에 발표한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세칭 ≪9월 테제≫)는 주로 공산당을 재건하는데서 혁명적 노동조합의 조직을 필수조건으로 내놓고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9월 테제에 의거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적색노동조합) 조직에 힘쓰고 그것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여 공산당의 재건을 추진시키었다.

그 다음해 10월에 국제적색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상해에 있는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도 ≪태로 10월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급격문≫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여 공산당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적색노조계통의 이러한 문건들은 1931년 5월에 발표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꾸우씨넨의 의견서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에 관한 의견서≫와 더불어 내용상으로는 조선에서의 공산당 재건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꾸우씨넨

1934년 6월 모스크바에서는 조선공산당 발기자 그룹 명의로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에서 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극악한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고 혁명운동에 대한 탄압이 날로 우심해지는 가운데서도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당재건운동을 면면히 벌려나갔다. 함남, 함북에서의 공산당사건, 조선공산주의자동맹사건, 조선공산당재건 코민테른노선레포트회의 사건,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사건 등은 이 시기 국내 여러 지방에서 있었던 당재건운동의 일부이다.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당재건운동도 있었다.

엠엘파와 서상파는 중국 길림일대를 중심으로 당재건준비위원회, 당재조직중앙간부회, 당재건동맹, 당재건정리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당재건운동을 벌이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거점으로 당재건운동이 벌어졌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기까지 전국적 판도에서 전개된 적색노동조합, 적색농민조합 운동도 당재건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합법적인 형태로부터 지하운동형태의 비합법적 형태로 전환된 적색노조와 적색농조의 기본적인 투쟁목적은 공산당재건에 있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전개된 당재건운동은 대부분 기성의 낡은 운동형식과 사대주의적 경향, 파벌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래의 재건운동이 거둔 성과를 타고 국내에 새 형의 당조직을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말하자면 지난 시기의 적색노조, 농조 선들을 찾아 거기에 우리의 당세포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다.

1937년 5월 하순 우리는 백두산근거지에서 국내당공작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과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 결성 이후의 당조직건설정형을 총화하고 국내당조직건설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나는 그때 당조직건설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명조직들에 받아들이며 당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조직지도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몇 가지 방도를 제기하였다.

그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내용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선경내에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당조직건설과 국내혁명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로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국내당공작사업을 방조할 사명을 지닌 정치공작대를 파견하였다. 1937년 여름과 가을에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 김평과 권영벽, 정일권, 김주현, 마동희, **김정숙**, 백영철, 이동학, 최경화, 김운신, 이창선, 이경운, 이병선 등을 성원으로 하는 정치공작대가 북부조선의 여러 지역들에 파견되어 당조직건설사업과 군중과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공작대를 북선정치공작대라고 불렀다. 북선정치공작대는 북부조선 일대를 혁명화하는 방법으로써 국내당조직건설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는 북선정치공작대원들에게 정치사업구역을 맡겨주었다. 그 당시는 이런 정치사업구역을 정치구라고도 하였다. 정치구는 1호 정치구, 2호 정치구, 3호 정치구, 4호 정치구, 5호 정치구 등으로 나누었다. 정치구의 지역범위는 주로 김평이 우리와 토의하고 설정하였다. 정치구는 동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서해안으로 이르게 되어 있었고 번호도 그에 따라 설정하였다.

북선정치공작대원들은 해당 공작지에 가서 직접 조직정치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자기가 육성해낸 우수한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업할 수도 있었다.

이동학을 책임자로 하는 북선정치공작대의 한 소조는 국내당건설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1937년초 이제순의 안내밑에 갑산군 운흥면 일대의 농촌부락들에서 반일애국사상과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수백 매의 포고문, 격문을 살포하고 군중선전을 진행한 다음 번개같이 귀대하였다.

삼수군일대를 담당한 마동희조, 지태환조도 연이어 국내에 들어가 영활하고 용의주도한 정치공작으로써 영북지방의 민심을 뒤흔들어놓았다.

우리는 박달의 편의를 도모해줄 목적으로 그에게 어린 연락원 한 명을 파견하였다. 그가 손장복이었다.

나는 손장복에게 국내에 들어가면 일본관청의 호적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조선에서 나서자란 사람으로 행세하라고 하였다.

박달은 손장복을 데리고 주재소에 나타나 수석을 향해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수석님, 나를 축하해 주시오다.≫

수석은 멍청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보았다. 박달이 순사시험에 응시한 후부터 수석은 여간만 싹싹해지지 않았다.

≪당신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가?≫

≪네, 동생이 공짜로 하나 굴러들었습지요.≫

박달은 뒤에서 쭈밋쭈밋하는 손장복을 보란 듯이 내세우고 나서 온 주재소가 다 듣게 떠들었다.

≪내 늘 수하에 동생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한탄해왔더니 아버지가 그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그려.≫

≪그럼 저 총각은 아버지가 붙여준 의형제인가?≫

≪의형제라니요. 아버지가 길주에 있을 때 딴장을 봐서 벌어놓은 이복동생이오다. 생모가 죽은 다음 고아로 떠돌아다니다가 이복형이 갑산에 있다는 소문을 듣구 이렇게 덜렁덜렁 찾아오지 않았겠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애를 내가 돌보기로 결심했습지요.≫

≪아, 공짜로 저런 아들 하나 벌었으면 당신 아버지 재간이 대단하다.≫

수석의 그 말에 주재소 순사들은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기분이 거나해진 수석은 아무런 트집도 걸지 않고 수속을 해주었다.

박달은 손장복을 박영덕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었다. 그때부터 손장복은 지하활동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갑산지하조직의 사업에 피해를 주었다. 갑산군 운흥면 대중리의 어느 농가에 강도가 나타나 돈 20원을 빼앗아 간 일이 있었는데 그 강도가 자기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사람인 체 하였다. 그 당시는 유격대원을 ≪산사람≫이라고 하였고 유격대공작원을 가리켜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였다. 강도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무렵 박달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려고 대중리에 다녀왔다. 이 우연한 일치로 하여 박달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피검되었다. 경찰들은 그때 박달의 집에 길주에서 온 이병선이라는 사람이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그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당자가 없어 헛물을 켰다.



국내당 공작위원회 위원 조선인민혁명군의 연대정치위원 김평

이병선은 길주에서 적색농조사건에 관계하였다가 김영국과 함께 그 전 해에 갑산에 온 사람이었다. 김영국이 유격대에 입대한 뒤 이병선은 보천면의 한 목재소에 적을 두고 그 일대의 민족해방동맹조직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제경찰은 그 날 박달의 집에 있는 손장복을 이병선으로 알고 덤벼들었으나 나이로 보아 이병선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돌아가버리었다.

우리는 그때 장백과 국내에 정치공작원들을 많이 파견하였는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필요한 공작인원을 다 채우자면 적어도 1개 연대인원만한 정치일군들이 있어야 하였는데 유격대가 군사활동은 뒤전에 미루고 정치활동만 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정치사업경험이 풍부한 장백지방의 지하조직성원들과 지난날 동만일대에서 혁명조직에 망라되어 군중과의 사업을 많이 해본 준비된 동무들을 선발하여 국내에 파견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백현조국광복회조직에서도 이제순의 선을 타고 수많은 공작원들이 국내로 들어갔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는 사업은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인 김평이 주관하였다.

그 당시 김평의 직급은 7연대 정치위원이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 적후공작에 대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유능한 정치군사일군으로서 풍부한 지하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는 물론,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그가 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김평은 항일혁명시기 내가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정치군사일군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 후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적에게 체포되어 고생도 하고 정치생활에서 일정한 오점도 남기었으나 우리에 대한 충실성만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다. 김평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당위원회 사업에 많이 관계하였고 우리가 국내혁명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본격화하던 시기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군사문제와 함께 특히 비밀리에 진행된 정치공작과 관련된 사실들 중 그만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다. 그가 남긴 기록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를 풍부화하는데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김평이 끝까지 유격대오에서 투쟁하다가 조국해방을 맞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나의 사업을 그처럼 충실하게 보좌해온 백두산 시절의 김평을 잊지 못한다.

국내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노조, 농조를 비롯한 기성의 조직들과 개별적인

공산주의 그룹에 깊이 침투하면서 당조직건설사업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늘이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갔다.

정치공작원들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국내인민들속에는 ≪백두산바람≫이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강하게 스며들어갔다. 그들의 영향밑에 국내의 동포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에 참군하려고 백두산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국내당조직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조선민족해방동맹조직에서 단련된 우수한 동맹원들을 망라하는 국내당소조를 무어주었다. 역사가들은 박달을 책임자로 하는 이 소조를 ≪3인조≫라고 부르고 있다. ≪3인조≫는 기층당조직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당건설을 위한 모체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당조직을 확대하고 당대열을 늘이기 위한 박달의 사업방법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당조직의 결성이다. 무명의 당조직이란 정식명칭은 없으나 실지로는 비밀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당원들의 당조직을 말한다. 이런 조직은 조국광복회의 내부에도 있었다.

무명의 지하혁명조직은 적들의 탄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직을 건설하는 하나의 독특한 방법이다.

조직명칭을 달지 않고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양도 하고 투쟁방법도 대주고 분공도 주면 유사시 어느 한 사람이 검거된다 하여도 다른 조직성원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박달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갑산에 돌아가 국내당조직건설을 위한 사업에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치었다. 그는 우리가 세운 방침대로 갑산과 삼수 일대를 국내당조직건설을 위한 원종장으로 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점차 타군, 타도로 활동선을 뻗치었다.

우리가 그 지방을 국내당조직건설의 원종장으로 꾸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그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이였다.

삼수, 갑산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으로 통한다.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조선속담은 이 지대가 유명한 정배지라는데서 생겨난 말이다. 이조때 봉건조정의 박해로 이곳에 쫓겨와 정배살이를 하던 몰락양반들의 후손들은 대체로 화전농이 되거나 광산 노동자가 되어 최하층의 생활을 하였다. ≪한일합병≫ 후 살길을 찾아 개마고원 일대에 밀려든 유랑민들도 이 일대에 와서는 모두 괭이로 드덜기를 찍어내고 푸장불을 피우면서 힘에 부친 화전농사를 하였다. 그 지방의 주민구성을 계급적인 각도에서 분석하면 본바탕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유격활동에 편리한 고원지대의 웅심깊은 자연은 1910년대로부터 의병들과 독립군들이 화승대를 들고 결사보국의 이념을 안고 출몰하는 전장으로 되었으며 사회운동자들을 품어주는 조선최대의 피신처로 되었다. 북부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인 활동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회운동자들이 은신처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조선경내는 물론이거니와 북간도와 서간도, 시베리아지방에서까지 뜻있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박달의 말에 의하면 1920년대 중엽에 평양숭실중학교에서 동맹휴학을 주도하던 4명의 반일운동자들이 삼수, 갑산 일대에 와서 화전민들을 망라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소조를 조직한 것이 이 지방 사회주의운동의 시초로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동해연선의 여러 지방들에서 노조, 농조 운동에 부심하다가 망명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청년동맹도 내오고 농민동맹도 내오고 전위동맹도 내왔

다.

이상의 이유만으로도 삼수, 갑산 지방은 국내당조직건설의 원종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갑산공작위원회는 처음에 특정의 명칭이 없는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193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이경봉을 인입하고 연이어 김철억을 쟁취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심창식 또 그다음에는 누구누구를 망라시켜 아마강제재배반대투쟁도 하고 미신반대투쟁도 하고 조혼반대투쟁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나서 서로가 조직원이라는 것을 다 간파하게 되자 그 무명의 조직에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


김철억

우리는 국내당조직건설에서 얻은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그 후 당지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쓴 글에서 이 방법을 정식화하였으며 1940년대 전반기에 소조공작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가는 동무들에게 이 방법을 활용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한 조직원은 해방 후 이렇게 회상하였다.

≪무슨 조직엔지 가입하였다. 그 조직의 명칭과 내용은 비밀에 붙여서 몰랐다.≫

갑산출신의 한 혁명가는 박달이 비밀서적을 주면서 몰래 읽으라고 하기에 그것을 읽고 심부름을 하였을 뿐인데 일제의 법기관은 자기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었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명칭이 없는 무명의 조직원들일 것이다.

박달은 삼수, 갑산 일대를 국내당조직건설의 원종장으로 꾸린 다음 거기에서 키워낸 우수한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인접군과 인접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박달이 그들에게 준 임무는 파견지에 가서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토대를 꾸리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방침대로 파견성원들이 철저히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하였다. 공작지에 파견되어가는 조직원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신분이 사회적으로 합법화되고 맡은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망명객식사업방법을 근절하고 군중속에 튼튼히 발을 붙일 수 있었다.


심창식

박달은 무산군에만 해도 5-6명이나 되는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 산하조직인 보천면 선덕동 반일회 책임자인 채응호도 그때 무산군에 파견되어 정치공작원들과의 연계밑에 유격대 후방물자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모연공작과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생산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맹렬하게 다그치었다. 그는 ≪혜산사건≫이후에도 연길, 화룡 일대에 망명지를 정하고 무산지방에 들락날락하면서 임업노동자들을 혁명조직에 꾸준히 묶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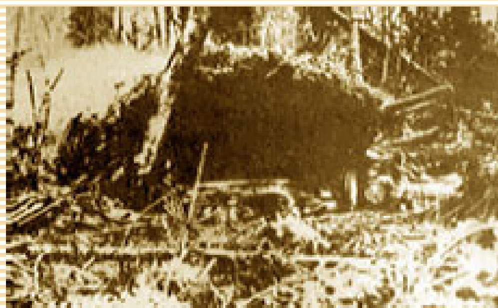
박달은 조선민족해방동맹 청년부 책임자인 이용술과 이병선을 함경북도의 남부군들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을 통하여 국내혁명운동과 당조직건설에 대한 우리의 방침이 성진 적색농조 지도자의 한 사람인 허성진에게 전달되었다. 우리의 노선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약한 허성진은 우리를 만나려고 갑산까지 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때 우리는 ≪열하원정≫의 후과를 가시느라고 임강, 몽강일대에 나가있었다.

박달은 당조직건설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혁명의 군사적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우리는 이병선이 밀영에 왔을 때 그를 통하여 박달에게 국내당조직성원들과 조국광복회 청년핵심성원들로 생산유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박달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첫 준비작업으로 자위단을 이용하였다. 일제는 ≪향토보위≫의 미명아래 자위단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까지 공급해가면서 단원들을 훈련시키었다. 생산유격대원들을 이 조직에 모조리 밀어넣는다면 그들이 모두 무기에도 정통하고 적들의 신임도 많이 받을 것이 아닌가. 유사시에는 한꺼번에 와 들고일어나 놈들에게 총부리를 돌려댈 수 있을 것이다. 박달은 이런 타산을 가지고 걸치기자위단 부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적들이 규정해놓은 입단연령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생산유격대원들을 자위단에 빠짐없이 입단시키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따내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국내혁명조직들이 이용하던 비밀연락장소

그는 북선반일유격대조직과 관련된 우리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우리는 북부조선일대에서 무장투쟁을 급격히 확대발전시킬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국내당조직성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선반일유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구상을 제기하였다. 무산, 갑산으로부터 부전령에 이르는 영북의 광활한 대지는 유격활동을 벌이기에 알맞춤한 이상적인 지대였다.

나는 그때 국내동무들에게 북선반일유격대를 조직하라, 부대의 지도핵심으로 될 수 있는 우수한 유격대원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보내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들을 원종으로 하여 대오도 확대하고 훈련도 하라고 하였다. 북선반일유격대 대장으로는 7연대의 최일현이 임명되고 정치위원으로는 박달이 임명되었다. 만일 박달을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지도간부들의 대다수가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북선반일유격대의 편성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되었을 것이다.

국내당조직성원들은 김주현별동대가 국내에 파견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박달은 일제교형리들이 국내당조직성원들과 조선민족해방동맹성원들을 마구 검거하고 있는 살벌한 환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꾸려놓은 기층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지하에 은밀히 보존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혜산사건≫으로 하여 국내당조직과 조선민족해방동맹성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는 김평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해주었다.

나는 그 통보를 받기 바쁘게 마동희와 장증렬을 국내에 들여보냈다. 그러나 이 구원조치는 박달을 찾아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던 마동희와 장증렬이 적들에게 붙잡히는 것으로 하여 효력을 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공작경험이 풍부한 **김정숙**을 대진평에 파견하였다. 그 동안 단천, 북청, 흥원, 신포를 비롯한 동해안 지구에서 조직을 확대해가던 박달은 대진평에 돌아와 곤경을 겪고 있는 조직을 수습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천신만고 끝에 박달을 만나고 그와의 회견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고 우리는 백영철을 책임자로 하는 연락소조를 갑산지방에 보냈다. 백영철은 유격대 활동을 하면서도 국내공작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럭골지방에 밀영을 짓고 여러 지방에서 식량공작을 하다가 마동희와 장증렬이 체포된 후

부대에 소환되어 와있었다.

백영철은 국내에 들어선 첫날부터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였다. 형언할 수 없는 고생 끝에 박달, 김철억, 이용술 일행을 만났다. 우리는 연락소조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찾아온 박달일행에게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고 국내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릴 데 대한 과업을 주어 다시 갑산지방에 내보냈다.

박달 일행과 함께 다시 국내에 나왔던 백영철은 속신지구에서 공작하던 중 일제경찰과 조우하였다. 복부에 총탄을 맞은 그는 흘러내리는 밸을 안고 적과 싸우다가 잡혔다. 일제경찰들은 그를 구뎅이에 꿇어앉히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산비적≫이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 생매장하게 하였다. 박달과 국내당조직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은 실로 막대한 노력과 희생을 동반하였다.

적들은 박달을 체포하려고 밀정들과 변절자들을 도처에 풀어놓아 산이란 산은 다 뒤지면서 소동을 벌이었다.

박달은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를 도와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하는데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로 그는 국내당조직의 주되는 담당자였다.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데서 김평, 권영벽, **김정숙**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신파, 풍산, 낭림, 부전, 흥남, 신흥, 이원, 단천, 허천을 비롯한 북부조선 일대와 장백 일대에서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여러 지역에 당조직들을 내오고 공산주의자들을 튼튼히 묶어세웠다.

우리 당 전위투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갑산, 신파, 풍산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와 양덕지방 그리고 평양, 벽성 등 서선일대의 여러 광산, 탄광, 공장, 농촌, 어촌, 도시들에 혁명조직들이 속속 건설되었다. 적색노조나 적색농조 운동으로 들끓다가 잠잠해진 지역들에서 다시금 혁명적인 노조, 농조 운동이 전개되었다. 어제날의 노조, 농조들이 재조직, 재편성되는 과정은 곧 당조직들이 생겨나는 과정과 일치하였다. 당조직망과 조국광복회망은 북부조선 일대의 영역을 멀리 벗어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조선 일대와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제주도와 현해탄을 넘어 일본땅에까지 확대되었다.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은 장백과 임강 일대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과 밀접한 연관속에서 추진되었다. 장백, 무송, 임강 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도 당조직들이 뿌리를 박았다. 동만과 남만 일대에도 당조직들이 확대되었다. 전국적 판도와 전민족적 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영도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전국적 범위의 강력한 당조직체계가 세워졌다. 최고영도기관인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인 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에 따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축성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또 하나의 크나큰 전취물로서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앉은 후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지구에서 얻은 군사작전들에서의 승리에 못지 않은 정치적 승리였다. 당조직건설을 위한 우리의 피어린 투쟁은 조국해방을 앞당겨오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강유력한 기초로 되었다.

파쟁과 이론적 결핍과 실천적 능력의 부족으로 소외되고 경시당해오던 조선공산주의운동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가기 시작하였다.

3. 백두산 기슭에서의 싸움

우리가 백두산으로 나온 다음 장백땅이 자리잡고 있는 동변도, 특히 북부 동변도 일대는 관동군과 만주국 치안당국에 있어서 매우 골치 아픈 최대의 ≪치안불량지대≫로 되였다.

일만군경의 모든 신경은 동변도로 쏠리게 되였다. 신문지상에는 장백땅의 소란스러운 사변들에 대한 기사들이 그칠새없이 나돌았다. 그전만 해도 치안양호지대로 치부되어왔던 백두산 기슭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만주강점직후부터 조선과 함께 만주를 아시아제패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동변도의 치안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동변도는 중국의 북양정부가 동북을 요령, 길림, 흑룡강의 3개의 성과 10개의 도로 나누면서 생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지금의 길림성과 요령성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다. 동변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잇닿아있으므로 ≪선만일체화≫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에도 그렇고 엄청난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일만 정계와 실업계는 물론, 군부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을 모으게 되는 주요한 대상지의 하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대의 북부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군사정치활동을 쉴사이없이 벌이게 되자 적들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바빠맞은 관동군은 동변도를 포함한 만주일대에 항구적인 치안대책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만주국치안숙정계획대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에 기초하여 만주국정부는 ≪3개년 치안숙정계획요강≫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특별공작대상지로 정한 것이 바로 북부동변도(장백, 임강, 무송, 동강, 휘남, 금천, 유하, 통화, 즙안현)였다. 만주국은 중앙에 ≪동변도 부흥위원회≫, 통화에 ≪동변도 부흥판사처≫와 ≪동변도 특별치안유지회≫를 설치하는 한편 만주국 군부 최고고문인 사사끼를 우두머리로 하는 ≪통화토벌사령부≫를 내오고 북부동변도의 치안확보를 겨냥하는 ≪동기대토벌≫전을 개시하였다.



일본관동군 사령관과 조선총독사이에 진행된 도문회담

일본군부의 군경을 제일 날카롭게 자극한 것은 우리 인민혁명군부대들에 의하여 서간도땅에서 매일같이 울리고 있는 총소리와 그 뒤에서 도처에 건설되는 백두산밀영망과 지하광복전선을 핵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근거지였다.

이미 도쿄에서는 식민지조선의 최고통치자인 조선총독 미나미육군대장과 만주의 사실상의 최고통치자인 관동군사령관 우에다육군대장으로 하여금 항일무장부대들을 완전소탕하고 치안을 도모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모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문회

담≫이라고 부르는 악명높은 회담이 조만국경의 자그마한 세관도시 도문에 있는 일본영사관 분관의 밀실에서 열리였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전까지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있었던 미나미가 조선총독으로 부임되자마자 우에다와 함께 조선유격대 ≪토벌≫문제를 놓고 얼마나 전전긍긍했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미나미와 우에다의 밀담에 이어 그 수행원들이었던 관동군 헌병대사령관 도죠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쯔바시 사이에도 회담이 진행되였다. 그 회담들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국경경비의 강화, 대규모적인 공동 ≪토벌≫작전의 전개, 서간도 일대의 집단부락화를 골자로 하여 항일무장부대들의 압살을 노린 이른바 ≪3대정책≫이였다.

도죠와 미쯔바시 사이에는 쌍방이 연합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이 토의되였다.

≪3대정책≫의 핵은 1936년 ≪동기대토벌≫이였고 그 기본목표는 우리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백두산이였다. ≪동기대토벌≫이 종전에 벌인 작전들과의 차이점은 만주로 출전한 조선주둔 일본군 병력과 만주에 있는 관동군과의 혼성 ≪토벌≫작전이라는데 있었다. 그 전술은 대병력에 의한 포위에다가 참빗으로 머리를 빗듯이 산골짜기와 등성이를 샅샅이 훑는다는 새로운 비소식방법을 배합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 해 겨울을 마감으로 하여 항일무장부대들을 완전히 소멸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음흉한 목적밑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치안유지와 국경경비의 강화≫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국경경비역량을 증강하고 방어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일본제국의 국가예산에서 막대한 추가자금까지 보장받도록 하였다. 조선주둔 일본군 부대들과 특설국경경비대, 국경일대의 경찰부대들에는 대거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관동군 측에서도 동변도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토벌≫작전을 준비해나갔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국경일대에는 각양각색의 ≪토벌≫부대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였다. 남부조선에 있던 경찰부대들도 북부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였다. 치치할에 있던 관동군 부대들도 백두산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고 조선주둔 일본군 제19사단 산하 부대들도 또한 압록강을 건너왔다. 일만경찰부대들과 위만군 ≪토벌대≫들도 우리를 향해 몰려들었다. 압록강 연안에는 경찰관 주재소들이 부쩍 늘어났다. 곳곳에 단속초소들이 생겨났으며 강위로는 전화선들이 줄줄이 늘어졌다. 바로 이 무렵부터 적들은 경찰관의 아내들까지 사격훈련을 시키었다. 달구지나 발구, 말파리 같은 것이나 겨우 드나들던 백두산일대 산간오지의 오솔길들로는 대포바퀴와 치중마차들이 굴러다니게 되었고 밀림속 곳곳에 군마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지기 시작하였다.

백두밀림에는 그 해 초겨울부터 ≪토벌대≫들이 쫙 깔렸다. 적들은 ≪이번의 토벌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여 치안을 결정적으로 확립한다≫고 하면서 백두산일대의 밀림을 샅샅이 뒤졌다. 백두산 기슭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일본침략군 사이의 새로운 결전이 바야흐로 박두하고 있었다.

형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우선 역량상으로도 적들은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게다



일본관동군
토벌대들의 행렬

가 항공대의 지원까지 받는 정예무력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적들은 행정, 경제, 경찰 등 모든 단위를 다 발동하고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발동시킬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인민의 은밀한 지원뿐이였다.

보편적인 군사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런 정황에서는 공격은 설정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성관례와 상식을 뛰어넘어 공격위주의 새로운 우리 식 전법으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우리는 1936년 11월 곰의골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남호두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총화하는 한편 적의 ≪동기대토벌≫공세를 격파하고 백두산근거지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우리의 기본전략은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 전술적 우세로 격파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전투원들의 사상적 각오를 고도로 높인데 기초하여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유인매복전과 불의의 기습전, 철벽의 방어전 그리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대오를 토막내어 소멸하는 전법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전술을 활용하여 매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의 영활한 군사작전에 의하여 적들은 ≪동기대토벌≫의 첫걸음에서부터 골탕을 먹었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압록강 연안으로 나온 첫시기에는 우리가 반만군부대들처럼 거기서 겨울을 나지 못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적들이 ≪토벌≫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밀림속에 더 깊숙이 숨어서 신출귀몰의 수를 써가면서 백두산 주변과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에서 더욱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려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새로 꾸린 백두산근거지를 공고화해나갔다.

적들에게 된매를 안긴 그 해 겨울의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곰의골어귀전투와 홍두산전투 그리고 도천리, 이명수 전투들을 꼽아야 할 것이다.



만주국 국경선을 넘어 화북지방을 강점한 일본군

곰의골어귀전투는 우리 밀영에 대한 적들의 기습소탕작전을 앞질러 좌절시킨 방어전투였다.

≪동기대토벌≫의 첫시작에서부터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본 적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작전을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많은 밀정들을 파견하여 우리 사령부의 행방을 탐지하려고 하였다.

적들의 ≪동기대토벌≫이 개시되자 나는 부대의 주력을 거느리고 주로 곰의골밀영쪽에 나가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대원 몇 명을 데리고 전방초소에 나가 경계근무를 서던 오중흡이 농민옷차림을 한 수상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밀영으로 돌아왔다. 조사하여보니 적들의 밀정들이었다. 그들은 수림속을 살금살금 헤치며 밀영쪽으로 접근해오다가 미리부터 그 거동을 살피고 있던 우리 대원들에게 꼼짝못하고 잡혔는데 능청스럽게도 일제놈들의 핍박에 못이겨 혁명군을 찾아온다고 하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행색이 하도 수상해서 몸을 뒤졌더니 한 놈의 바지괴춤에서 날이 시퍼런 조막도끼가 나왔다. 그 도끼는 특무기관에서 살인흉기로 만든 것이었다. 심문결과 한 놈은 행상으로 가장하고 이미 여러 해 동안 밀정노릇을 해오는 악질적인 특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순박한 농민인데 강박에 못이겨 길잡이로 그와 동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이 받은 임무는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어 뒤에서 밀림을 샅샅이 훑으며 올라오고 있는 ≪토벌대≫에 신

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밀정의 진술에 의하면 적은 일만함동 ≪토벌대≫를 편성하였는데 그 중 한 부대는 이도강을 떠나 곧바로 곰의골로 밀려오고 다른 한 부대는 16도구의 마가자 서북쪽을 거쳐 유격대 밀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약속된 소리신호를 하게 되면 곧 공격을 하기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밀정은 이 ≪토벌≫을 회령에 있는 비행기들이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그의 진술은 우리 정찰조들이 수집한 정보자료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아직 포위환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밀정을 통하여 사령부의 위치를 낌새맡은 적들은 결국 나남 19사단 산하 일본군 ≪토벌대≫와 이도강에 주둔하고 있던 위만군 ≪토벌대≫를 곰의골로 들이밀어 사령부와 우리의 주력을 불의에 타격함으로써 ≪불안의 화근≫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곰의골밀영

정황은 매우 불리하고 위급하였다. 적들이 수색을 벌이면서 밀영으로 조여들고 있은 형편에서 우리는 밀영근처의 유리한 지대에서 적을 치고 슬쩍 빠져나갔다가 되돌아가는 적을 삼개골지대에서 밤을 이용하여 한번 더 때리기로 하였다.

곰의골의 남쪽은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적의 주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골에는 잘룩한 병모가지처럼 묘하게 생긴 곳이 있었다. 이 골의 양쪽비탈은 경사가 몹시 급한 벼랑을 이루고 있어 벼랑을 잘 타는 산짐승들조차도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적들을 좁은 홈통속에 몰아넣고 족치기에는 둘도 없는 싸움터였다.

나는 2중대와 4중대를 서북쪽과 동북쪽 고지들에 매복시키고 골 안 깊은 곳에 허위진지를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몇 명의 대원들을 거기에 배치하여 마치 주력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불도 피우고 소리도 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유인조를 파견하였다. 적진에 들어가 밤새껏 소란을 피우다가 날이 밝으면 대부대가 움직인 것 같은 흔적을 내면서 철수해오라고 지시하였다.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 유인조는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의 추위가 몹시 맵짰다. 그러나 나는 매복위치를 숨기기 위하여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

유인조는 적을 우리 주력이 배치되어있는 곳으로 끌어오려고 골바닥에 대부대가 지나간 듯이 무질서한 발자국을 내면서 허위진지쪽으로 올라갔다. 잠시후에 그쪽 산비탈에서는 여러 개의 우등불 연기가 솟구쳐오르고 떠들썩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것은 미리 짜준 유인각본에 따르는 기만동작이었다.

우리의 유인조를 뒤따라 골안에 기어든 적들의 신경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법석떠들어대는 허위진지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었다. 적이 척후대는 기마대열이었다. 잠시 한자리에 몰켜서서 골안쪽의 허위진지를 살펴보며 쑥덕거리던 기마척후대의 일행중에서 검정말을 탄 기병 하나가 말무리를 헤치고 나와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다른 두 필의 말도 그 말을 따라갔다.

반시간쯤 지나서 기마척후대는 길다란 보병중대를 달고 다시 골안에 나타났다. 종대의 선두마다에 말을 탄 장교들이 긴 군도를 번쩍거리며 오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나남 19사단 관하 부대 패거리들이었다. 정안군 장교들은 말을 얻어타지 못한 채 병사들과 같이 걸어왔다. 적부대들의 뒷꼬리에는 박격포를 분해하여 기르마에 얹은 말들이 뒤따랐다. 다른 골로도 적들이 기어들었다. 분명 포위환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100여명 되나마나한 우리 역량에 비하면 실로 5배도 더 되는 어머어마한 ≪토벌≫역량이었다.

이 전투에서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는 시간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적들

이 포위진을 완성하기 전에 1차 타격을 강하게 안기고 슬쩍 빠져서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였다. 우리는 밀정을 처단하는 총소리를 신호로 하여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신호총소리와 함께 적들은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되었다. 대부분의 적들은 공격개시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나가너부러졌다. 포탄이 장탄된 포들은 그냥 전장에 나딩굴었다. 곰의골어귀의 골짜기는 적들의 무덤으로 되고 말았다.

우리는 전장수색을 끝낸 다음 어둠을 타서 은밀히 빠져나왔다.


오중흡

예견대로 정찰조원들은 패잔병들의 안내를 받으며 추격해오던 적의 증원부대가 해가 지자 한곳에 몰켜 숙영준비를 하고 있다는 적정자료를 사령부에 통보해주었다. 나는 오중흡에게 적숙영지를 야습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오중흡은 곧 1개 소대역량으로 습격조를 무었다. 야간습격전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없었다.

습격조를 데리고 적의 숙영지로 은밀히 접근해간 오중흡은 나무밑에서 졸고 있은 보초병을 사로잡아 간단한 심문을 하였다. 숙영지의 자리배치를 잘 알지 못하고 섣불리 쳐들어가면 짐군으로 끌려온 인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 보초는 입이 가분가분한 놈이었다. 그는 일본군대가 숙영지 복판을 차지하고 위만군이 그 두리에 잠자리를 잡았다는 것, 짐군으로 끌려온 인민들은 맨 바깥쪽에 총알받이가 될 수 있게 자리를 정해주었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보초는 위만군들만 서고 조선에서 건너온 일본군은 우등불 곁에 젖은 신발들을 걸어놓고 말리우면서 곤하게 자고 있다고 하였다.

오중흡은 습격조를 3명씩 나누어 순찰병으로 가장시켰다. 군호를 대면서 보초선을 무사히 통과하여 숙영지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간 습격조원들은 조단위로 일본군의 천막을 향해 불의에 사격을 들이댔다.

총소리에 놀라 깨어난 천막안의 적들은 신발도 찾아 신을 사이없이 헤덤벼쳤다. 적아를 가리지 못하고 제놈들끼리 향방없이 마구 쏴갈기는 눈먼총알에 숱한 장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너부러졌다. 숙영지 안은 마치 벌둥지를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히었다. 습격조원들은 적이 혼란된 틈을 타서 전장밖으로 감쪽같이 빠져나왔다. 그날 밤 적들은 저들끼리 밤새껏 총격전을 벌려 무리죽음을 내었다. 간신히 살아 도망친 적병들은 거의 다 얼어죽고 말았다. 신발도 못신고 털외투도 못입은 채 들고 뛴 자들이 백두산의 혹한을 이겨낼 리가 없었다.

패잔병들은 숙영지 자리에 널려있는 수백 구의 시체들을 그대로 다 운반할 수가 없어 머리만을 잘라서 마대에 넣어가지고는 마차에 처싣고 황황히 달아났다.

곰의골어귀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우리는 압록강 우안의 여러 고장들에서 맵시있는 전투들을 하였다. 11월 20일에는 적의 ≪토벌≫ 거점의 하나인 장백현 14도구시가 습격전투를 하였으며 그 며칠후에는 13도구 도천리 상촌에 있는 적을 기습소탕하였다. 일부 소부대들은 15도구와 19도구 일대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벌였다.

적들은 곰의골어귀전투와 뒤이어 계속된 전투들에서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그 후 두석달 동안 우리가 있는 백두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토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적들은 시간을 얻어 새로운 ≪토벌≫을 감행하려고 획책하였다. 우리는 경각성을 높이었다. 전부대가 밀정들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다른 한편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새로운 전술적 대책도 세웠다. 백두산 기슭에는 얼마동안 정적이 깃들었다.

내가 장백현 19도구 구장 이훈을 밀영에 불러다가 지하공작 방향과 방법에 대한 요령을 이야기한 것도 이 시기였고 원호물자를 지고 밀영에 온 17도구 인민들과 담

화를 한 것도 이무렵이였다. 박달, 박인진과의 상봉,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의 공포, 조국광복회조직들의 급속한 확대, 이 모든 사연들로 하여 1936년 말-1937년 초의 백두산지구 겨울은 우리의 기억속에 지금도 인상깊이 아로새겨져있다.

그 기억에 한쪽모퉁이에는 장백현 19도구의 안덕훈농민도 있다. 안덕훈을 만나던 당시는 장백현 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신화같은 전설들이 파다하게 퍼져 **김일성**이 솔방울을 만지면 정말로 총알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안덕훈은 그런 기담들에 유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집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한 질문을 연거퍼 들이대였다. 다행히도 주인이 아랫방에 있는 김평을 대장으로 알고 그하고만 상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끼여들지 않아도 되였다. 그들의 대화가 아주 해학적이였다.


김평

≪장군은 3일천기만이 아니라 훨씬 더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안덕훈이 김평에게 던진 첫 질문이였다.

≪사실이구말구요.≫

김평은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안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들이댔다.

≪웃마을 영감들이 그러는데 장군은 일이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일이 없을 때는 눈을 감는다고 하더구만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네, 사실로 믿어도 됩니다. 장군은 일이 없을 때는 눈을 감지만 일단 눈을 뜨면 아예 큰 변이 나지요.≫

≪장군이 축지법을 쓴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지요. 장군은 산을 주름잡아가지고 사방으로 훨훨 날아다니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지요.≫

≪들리는 소문에는 **김**장군이 옛날의 홍길동이도 무색케하는 신출귀몰의 장수라더니 과시 그렇구만.≫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는 물음이고 또 그 물음에 못지 않게 어처구니없는 대답이였으나 주인이 하도 정색해서 질문하고 손님이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정색해서 대답하는 바람에 나는 그 일문일답을 제지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듣기만 하였다. 더욱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평소에 그렇게도 솔직하고 고지식한 김평이 그런 엉터리없는 대답을 연방 둘러대면서도 전혀 어색해하거나 면구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였다.

안덕훈은 김평에게 당신은 장군을 몇 번이나 만나보았는가, 지금 **김**장군이 우리 마을에 와있는가고 물었다.

김평은 이번에도 자주 만나본다, 지금 **김**장군이 당신네 마을에 와있다고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주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나는 김평에게 그런 싱거운 소리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고 가볍게 나무랐다.

김평은 웃으면서 인민들이 전설을 믿으면 그 전설을 100프로 긍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민들이 우리 조선에 하늘이 낸 신비로운 장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장수가 나와서 나라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런 천출장수가 정말로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빼앗긴 나라를 꼭 되찾을 수 있다는 신심을 안고 우리를 따라 반일성전에 더 기운차게 떨쳐나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였다.

≪우리 동포들은 지금 일본놈들이 아무리 너덜거려도 우리 민족가운데는 신술이 도통한 장군이 있다, 그러니 왜적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김장군을 따라 싸우면 능히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령관동지 일개인에 대한 숭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 기대이지요. 인민이 그러기를 바라는데 군이 아니라고 해서 맥을 떨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김평의 말을 듣고 앞으로 군사작전을 더욱 대담하고 영활하게 벌려 인민의 기대와 신임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김평의 말과 같이 우리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에서 인민들은 큰 힘을 얻었다. 조선에 왜놈들을 쩔쩔매게 하는 장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심을 가다듬은 수많은 열혈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인민혁명군에 참군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이 민간설화들의 덕을 많이 본 셈이었다.

그 후 안덕훈도 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다른 대원들 못지 않게 잘 싸우다가 몽강의 어느 전장에서 희생되었다. 이치호는 가랑잎과 눈으로 그를 안장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의 일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추억하였다.

적들이 우리 밀영지들에 다시 범접하기 시작한 것은 새해 1937년에 접어들어서부터였다.

만주와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에 출몰하는 항일무장세력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리려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일본의 소화천황은 군부의 제기를 수락하여 자기의 시종무관 시데이를 특별사신으로 파견하여 혁명군의 맹렬한 유격활동으로 하여 ≪치안유지≫가 엉망이 돼버린 압록강연안의 국경일대를 한 달동안이나 현지시찰하게 하는 동시에 조선총독 미나미와 관동군사령관 우에다 그리고 조선주둔일본군사령관 고이소 등과 함께 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강화할 대책을 모의케 하였다. 어명을 받은 천황의 시종무관은 도쿄로부터 압록강 상공으로 날아넘어왔다. 그의 행차를 계기로 적들은 ≪토벌≫에 더 열을 올렸다.

홍두산밀영에 대한 적들의 기습 ≪토벌≫은 시데이가 국경일대시찰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 단행되었다. 혁명군의 후방부성원들은 그때 음력설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의 기본전투부대들은 전방출전기지인 지양개밀영과 곰의골밀영에 나가있었고 나는 호위성원들과 함께 홍두산밀영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치 못할 몇 가지 사정이 있어 음력설을 이틀 앞두고 홍두산밀영을 떠났다.

나는 우선 홍두산과 횡산 사이의 한 산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되골령밀영에 들러 김정부를 위문해주고 백두산 최후방밀영으로 향하였다. 잡지 ≪삼천리≫ 지면에 나타난 나와 김정부와의 회견이 있었던 고장이 바로 그 밀영이었다.

백두산 최후방밀영이라고도 부른 횡산밀영에는 병약한 아동단원들이 보양생활을 하고 있는 귀틀막도 있었고 이계순, 박순일을 비롯한 병약자들과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도 있었으며 박영순이네 무기수리소와 박수환이네 재봉대도 있었다. 심장병 때문에 신고하던 위증민도 그곳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대통영감≫을 비롯한 비서처일군들도 ≪하늘아래 첫 동네≫인 여기에 와서 일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밀영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형편을 요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취해준 다음 김평, 권영벽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먼저 곰의골 군정간부회의 후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군사정치활동을 총화하고 적의 ≪동기대토벌≫을 결정적으로 격파할 데 대한 당면한 투쟁

과업을 토의하였다. 특히 도천리, 이명수 계선과 무송지구에로의 전투부대들의 전술적 및 전략적 이동문제와 국내진공작전의 시기선택문제 등이 논의되였다. 그 문제는 훗날 서강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당조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토의하였고 권영벽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제순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장백현당위원회와 리제순을 책임자로 하는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날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회의는 적의 ≪동기대토벌≫을 격파하고 백두산근거지를 지키는데서 뿐 아니라 우리 나라 당조직건설력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홍두산전투장

그 회의에 위증민도 참석하였다. 횡산에서 쉰 음력설이 매우 인상적이였다. 박영순이 깡통으로 국수분틀을 만들어서 농마국수를 눌러 명절상에 올린 것이 바로 그 음력설이였다. 재봉대에서는 교즈를 빚고 병원사람들은 우동을 만들었다. 횡산사람들은 갖가지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푸짐하게 대접하였다.

위증민은 그 후 횡산밀영에서 나와 함께 농마국수를 맛있게 먹던 1937년 음력설을 두고두고 회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영순의 재간을 칭찬하였다.

1937년 음력설을 생각할 때면 교방신이라는 중국인경위대원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교방신은 교즈를 15개나 먹고도 국수 두 그릇을 또 먹었다. 교방신네 다섯 형제는 지양개에서 한날한시에 참군하였다. 그는 다섯 형제 중의 막내였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를 ≪쑈우즈≫(다섯째)라고 불렀다.

그 ≪쑈우즈≫가 한 번은 손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면도칼로 그의 손을 수술해주었다. 특별한 마취제도 없이 강짜로 한 수술이여서 몹시 아팠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용케 참았다. 수술자리가 잘 아물지 않아 교방신은 변소에 갔다가도 제 손으로 허리띠를 메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매번 그를 거들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신발이 젖으면 벗겨서 불에 말리워 주었다. 한 번은 회의에 참가하려고 경위대원들과 함께 안도현 오도양차에 갔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적의 포위에 든 적이 있었다. 그때 교방신이 아주 잘 싸웠는데 그 전투에서 아깝게도 그의 형 하나가 희생되였다.

횡산에서 음력설을 즐겁게 보내고 이튿날 홍두산밀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되여 망원초 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리였다.

정황은 아주 긴박했고 형세는 우리에게 몹시 불리하였다. 우리의 병력이란 리두수네 중대원 몇 명과 나를 호위할 임무를 맡고 있었던 기관총반원들 뿐이였다. 적의 병력은 자그만치 500여명이나 되였다. 그런데다가 우리 망원초에서 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적들이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망원초 고지에 거의 다 오른 뒤였다.

나는 즉시 대원들에게 남쪽능선을 재빨리 차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리두수 중대장에게 망원초에 있는 대원들을 철수시켜 적들에게 길을 열어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하는 망원초성원들은 반드시 적들의 눈에 뜨이게 칼능선을 타고 내려오게 하였다. 칼능선은 한발자국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골짜기의 눈속에 굴러떨어져 파묻힐 수 있는 외통길이였다. 그 외통길로 적들을 유인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0명, 1,000명도 능히 제낄 수 있었다. 홍두산 남쪽능선은 칼능선으로 달려드는 적을 손금보듯 내려다보면서 답새길 수 있는 전술적 지탱점으로서 적들이 퇴각하면 능선아래 골바닥에 몰아넣고 모조리 족칠 수 있는 곳이였다.

나의 명령을 받은 망원초성원들은 적들을 칼능선으로 유인하였다.

칼능선과 남쪽능선 사이의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적들의 ≪함정골≫로 되었다. 우리의 승전을 도와준 또 하나의 요인은 명령을 받고 이두수가 남쪽능선의 비탈을 얼음강판으로 만들어놓은 데 있었다. 그 얼음강판 때문에 적들은 단 한 놈도 우리가 차지한 능선으로 기어오를 수 없었다.

홍두산전투는 보통 군사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역량상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을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중대장 이두수가 총상을 당하여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뿐이었다.


한익수

전투가 끝난 다음 나는 적들의 숙영지에 야간습격조를 파견하는 한편 무송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적들이 일단 물러났지만 불원간 증원대를 끌고 다시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었다. 이런 때에는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우리가 철수대책을 토의하고 있을 때 골아래쪽에서 우리 유격대의 돌격나팔소리가 울리고 연이어 요란한 총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오중흡이 인솔한 대오가 적들을 녹여내는 소리였다.

오중흡은 인민들로부터 적 ≪토벌대≫가 홍두산 방향으로 밀려갔다는 말을 듣고 사령부의 안전이 걱정되어 천방지축 달려왔다. 그는 우리가 파견한 야간습격조와 함께 적의 숙영지 복판을 가로질러 몰사격으로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마저 깡그리 요정냈다.

오중흡은 적을 족친 다음 한익수를 나에게 보내어 부대를 끌고 홍두산으로 들어오라는가고 물어왔다. 나는 홍두산밀영에 대한 적들의 습격이 완전히 좌절된 조건에서 본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을 지시하였다. 오중흡은 우리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사령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곰의골로 되돌아갔다. 오중흡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홍두산전투 때 일본군의 짐을 지고 갔다가 적들의 송장처리까지 한 이도강의 한 농민은 훗날 우리의 답사단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때 일본군대는 매 호당 한 사람씩 인부를 강제징발했습니다. 한번 그런데로 끌려갔다오면 우리는 대개 발에 동상을 입고 심지어는 열 발가락이 다 빠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끌려갔을 때는 겁이 났고 또 실지 전투마당에 엎드려있으면 온몸에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언제나 유격대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속으로 는 어찌나 기뻤던지 피곤을 다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도망쳐갈 때 면 그 더러운 송장을 끌고오라고 하는데 여간만 질색이 아니였습니다. 홍두산전투 때만 해도 어찌나 시체가 많았던지 담가로 다 나를 수 없어서 죽은놈의 각반을 풀어 목을 매어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언제인가 나는 일본에서 우리를 찾아온 한 언론계 대표단일행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키가 구 척이나 되는 신문기자가 한 명 끼여있었다. 접견석상에는 내내 아무말없이 기록만 하던 그가 오찬회 때에야 불쑥 입을 열고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김주석은 ≪백두산호랑이≫로 소문났던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인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보니 무척 인자하다고 하면서 실은 자기가 홍두산전투에서 혼쌀난 옛 일본군소위라고 실토하였다. 자기는 야습당하던 날 밤에 보초소 검열을 나갔던 덕에 용케 생명을 건진 사람이라는 것이였다. 그는 살아나왔다고 하여 헌병놈들한테서 억울한 매도 맞고 된 봉변까지 당했는데 그때 속이 꼬여 군직을 버렸고 후에 기자로 돌았다고 하였다.

홍두산전투에 참가한 적군은 일만합동 ≪토벌대≫였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일본군뿐이였고 위만군측에는 희생자가 별로 없었다.

일본군장교들은 위만군장교들을 보고 어떻게 되어 전투에서 죽은 것은 황군뿐이고 너희들만 고스란히 살아올 수 있었는가? 빨치산의 탄알에 황군만 따라 다니는 지남철이라도 달려있는가? 그런 지남철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아온 것은 분명히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면서 마구 때리고 차고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홍두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은 주되는 요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강한 정신력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헌신성과 희생성, 이런 정신에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다.

수배 혹은 수십배의 적앞에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지, 자기 희생성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적들과 맞서도 패한 적이 없었다.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지가 얼마나 굳센 것이였는가를 실증해주는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두수는 바위굴 속의 병원에서 송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이계순, 박순일을 비롯한 서너명의 병상자들과 함께 간고한 나날을 보내었다. 말이 병원이었을 따름이지 변변한 약도 주사도 없었고 수술칼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 허술한 병원에도 ≪백두의 혁명정신≫만은 넘쳐있었다.

중환자인 박순일은 2사의 군수부장이었는데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한 탓으로 발이 썩어들기 시작하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직후 나는 병원동무들에게 식량과 함께 전투에서 노획한 의약품들과 통조림, 여름군복, 신발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내주면서 병마와 싸워 반드시 이겨달라는 것과 완치된 다음 전장에서 만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써보낸 적이 있었다.

그 편지를 받은 자리에서 박순일은 통조림통으로 자작 만든 양철톱을 내놓으면서 썩어들어가는 발을 제 손으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송의사를 비롯한 모든 동무들이 그의 결심을 말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박순일 자신은 그 결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동정하는 동료들을 소극적이라고 나무라기까지 하면서 나는 이미 발을 내 손으로 잘라낼 각오를 한 사람이다, 나의 결심을 실천하는데는 동무들의 약간한 방조가 필요할 뿐이다, 내 발을 잡아만 달라, 나는 빨리 완쾌되어 혁명초소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휘친거리는 양철톱으로 옹근 엿새동안이나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썩는 발을 자기스스로 잘라냈는데 수술을 다하고서야 쓰러졌다고 한다. 다행히 상처자리는 용케 아물어갔다.

그 해 초겨울에 병원동무들은 더 깊은 산중으로 옮겨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냈다. 그런데 초막병원이 그만 적≪토벌대≫의 수색에 걸려들었다.

제일 선참으로 적을 발견한 박순일은 동지들을 구원할 일념으로 자기를 생포하려고 달려드는 적병은 붙안고 벼랑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토벌대가 왔다≫고 고함을 질렀다.

혁명을 위하여서는 스스로 자기 발을 자르면서까지 생명을 귀중히 보존하였지만 동지들을 위하여서는 자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백두산에

서 살며 싸웠다.

박순일이 알려준 덕분에 나무를 베려고 병원초막을 떠났던 이두수는 쉽사리 피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계순을 포함한 몇 사람은 붙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희생되었다.

동지들도 초막도 양식도 없이 산중에 홀로 남은 이두수는 혹심한 참경을 당하게 되었다. 옹근 엿새동안이나 그는 낟알 한 알 구경 못하고 꼬박 굶었다. 그러다가 이계순이 끼니를 마련할 때마다 몇 알씩 절약하여 남겨둔 뒤 사발 되는 콩을 발견하였다. 콩이 다 거덜난 다음에는 메돼지가 뜯어먹곤 한다는 속새풀을 씹으며 목숨을 이어갔다. 그 무서운 백두산 추위속에서 옷마저 다 꿰져 헌 마대쪼박으로 몸을 가리우고 원시인처럼 한지에서 지내야 하였으니 그 간난신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까마귀떼들은 주변의 나무가지들에 매일같이 날아와 소란스럽게 울어댔다. 때로는 번갈아 한 마리씩 날아내려와서 그의 얼굴을 슬쩍 다쳐보기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중대장 이두수

이두수 자신도 죽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재속에 묻어 가까스로 살려오던 불씨마저 스러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최후를 각오한 그 순간에 그는 완쾌되어 전장에서 만나자고 한 우리의 당부와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진 박순일의 최후를 상기하였다고 한다.

≪나에게는 죽을 권리가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켜 나를 살려준 동지들에 대한 배신이다. 살아서 다시 전장에 나서라는 것은 사령관동지가 내게 준 명령이다. 나는 그 명령을 어길 권리가 없다.≫

이두수는 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였다. 그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절해고도와 같은 산중에서 무려 석달스무날 동안이나 홀로 지내면서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이두수와 마찬가지로 박순일과 이계순 그리고 희생된 모든 전우들도 역시 몸은 한 점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정신만은 백두의 영봉처럼 도고한 불사조들이였다.

우리는 홍두산전투가 있은 다음 연이어 도천리전투와 이명수전투를 치르었다.

홍두산전투 후 나는 곧 부대주력을 이끌고 장백현 하강구쪽으로 내려갔다. 적들이 백두산 주변일대에 다시금 대병력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수색전을 펴고 있은 조건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벌이려면 적들의 주의를 다른데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우리 주력부대가 하강구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적 ≪토벌≫ 역량을 분산시켜놓고 혼란을 조성한 다음 적의 ≪동기토벌≫을 결정적으로 분쇄하려는 전술적 이동이였다. 원래 우리는 음력설만 지나면 남만동무들과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부대가 요방자근방마을에 이르자 나는 숙영명령을 내리고 도천리에 정찰조를 파견하였다. 정찰조원들은 마을로 내려가던 도중 마침 적정통보를 가지고 우리의 소부대를 찾아오던 도천리지하조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통보에 의하면 우리의 대소부대배합전술에 걸려들어 겨우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허탕을 친 정안군부대가 우리와 결판을 내겠다며 사령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요방자에서 도천리나 최영감골로 가려면 봇나무, 자작나무, 가시나무와 키가 넘는 갈대들, 새초풀들이 얼기설기 뒤엉킨 무연한 소로길을 지나야 하였다. 우리는 이 길로 도천리 상촌에 갔는데 그때 전령병 최금산이 뗄기나무숲에 들어섰다가 가시에 눈을 찔려 소동이 벌어졌다.

만약 이 30리길에 적들을 끌어들인다면 적들은 외줄로 행군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기본부대가 진대통이 가로놓인 요소요소에 매복했다가 쉽게 놈들을 토막쳐 족



칠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우선 소부대유인전으로 적들이 잔뜩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놓은 다음 대부대매복전으로 모조리 소멸할 결심을 내리고 오중흡을 사령부로 불렀다.

나는 오중흡에게 적들을 그 등판의 오솔길로 유인해들여다 토막내어 족치라는 임무를 주었다. 유인조성원들은 적의 행군종대가 나타나자 그 선두대열에 일제히 불의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피하여 매복조들이 잠복하고 있는 가시덤불 등판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알리 없는 적들은 무작정 그들의 뒤를 쫓았다.

우리의 유인조성원들은 가시덤불이 뒤엉킨 등판길에 들어섰다. 가시덤불은 산생활에서 단련되지 못한 적들에게 있어서 가시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이었다. 그 가시덤불의 성화 때문에 적의 대오는 자연히 토막토막 끊어지게 되었다. 매복조 성원들이 적대열의 도간도간에 불소나기를 들씌웠다. 적들은 골짜기를 따라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는 눈위에 피를 뿌리며 고꾸라졌다. 수백 명에 달하는 병력이 우리의 토막치기 전술에 걸려들어 녹아나고 말았다. 적들은 날이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상자들을 전장에 팽개치고 도천리 부락으로 도망쳤다.

도천리 지하조직에서는 적들이 그날밤중으로 저들의 소굴로 돌아갈 것 같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적들은 우리의 야습이 두려워 몹시 서둘고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 부대의 집결장소에서 도천리 앞도로까지 가려면 적어도 2시간나마 걸려야만 하였다. 우리가 그 도로계선에 가닿을 시간을 얻으려면 구실을 만들어 적의 출발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도천리지하조직에 될수록 적들이 저녁식사준비를 질질 끌라는 지시를 주었다.

도천리 지하조직에서는 우리 부대가 산에서 내려와 매복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식사준비를 질질 끌었다. 적들은 초조해서 저녁을 빨리 지어달라고 독촉하였지만 지하조직원인 구장 정동철은 무슨 큰 성의라도 베풀 듯이 정안군어른들이 모처럼 우리 마을에 왔는데 어떻게 대접을 소홀히 하겠는가고 하면서 닭도 잡게하고 쌀도 찧게 하는 등으로 식사준비를 늦잡았다. 결국 적들은 한밤중이 거의나 되어서야 마을에서 떠나게되였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도천리 앞의 큰길 좌우에 매복을 끝내고 반시간 가까이 적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이 매복전에서 우리는 정안군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새초가 깔린 등판에 적의 주검이 한 벌 널려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 시체들에서 총만 벗겨가지고 유유히 철수하였다. 이 시체들을 실어 나르는데만 해도 24필의 소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소발구 하나에 주검 9구씩 처싣고 13도구까지 날라갔다는 것이였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소발구 하나에 아홉 개씩 스물네 발구면 모두 얼마요?≫하면서 적들이 당한 패배를 깨고소해 하였다.

도천리전투를 치른 다음 우리 부대는 부후들 골짜기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만동무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연합작전으로 또 한차례의 통쾌한 싸움을 하였다. 그것은 적들의 ≪동기대토벌≫작전을 결정적으로 분쇄한 최종전투였다.

적들이 전력을 다하여 구상하고 감행한 ≪동기대토벌≫의 격파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연전연승으로 하여 장백땅은 완전한 우리 세상으로 되고 말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면서 혁명군의 조국진출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으나 오히려 싸움을 벌이는 족족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적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키고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하여 ≪비적수괴≫니, ≪공비괴수≫니 하는 험담을 해가면서 별의별짓을 다하였으나 거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들자신도 우리의 유격전술을 놓고 ≪신출귀몰≫이니, ≪승천입지≫니 하고 아우성을 쳤으며 벌벌 떨었다.

일만군경들은 천변만화하는 우리의 전법에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였다. 적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라와전법≫이였다. 그들은 출판물과 내적인 훈령을 통하여 산악지대에서 ≪라와전≫의 함정에 빠지지 말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일단 ≪라와≫에 걸리기만 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공포심리가 일만군경들속에서 열병처럼 만연되였다.

≪라와전법≫이란 조선인민혁명군의 가장 대표적인 유격전법의 하나인 매복전에 대하여 일만군경들이 붙인 이름이다. ≪라와≫라는 것은 라망의 중국식 발음인데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빠질 곳이 없는 천라지망 즉 포위망, 함정이라는 뜻이다.

1936년 말부터 1937년 초에 이르는 ≪동기대토벌≫에서 패배한 적들은 그때의 ≪토벌≫ 경험에 대하여 떠들면서 우리의 ≪라와전법≫에 걸려서 혼이 난 이야기를 많이



이명수전투장소

하였다.

1937년 5월호의 만주경찰잡지 ≪철심≫은 혼성여단 군사교관 이시자와가 쓴 ≪**김일성**빨치산 기습전에 대하여≫와 ≪이번 토벌에 관한 소감≫, 그리고 그 후의 좌담회 기사 ≪토벌체험을 이야기하다≫ 등의 글에서 ≪라와전법≫의 전술적 완벽성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빨치산의 전법은 이번 ≪토벌≫ 기간을 통하여 보면 어디까지나 대체로 ≪라와전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빨치산은 우리보다 병력이 적을 때에 이 전법을 쓸 뿐 아니라 병력이 많은 때에도 이 전법을 쓰는 것을 상투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올해 2월 무송현성 서남방 대쟈피거우 부근에서 있은 **김일성**빨치산과의 조우에서 모두가 용전분투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영예의 전사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빨치산의 전술 ≪라와전법≫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른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라와≫를 경계할 데 대한 경종을 울리였다.


용감한 유격대원들

우리의 유격전술에 대해서는 국제당학교에서도 주의를 돌렸던 것 같다. 항일혁명투사 박광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당학교의 일군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유격전법을 자주 강조한데 대하여 회상하곤 하였다.

쏘련에는 국제당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만주지방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학교들을 국제당학교 또는 국제당대학이라고 불렀다. 국제당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아오는 유학생들과 공산주의운동자들에 대한 정치군사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박광선도 여기서 얼마동안 학창생활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땅에 울린 총소리들은 총독부 수뇌들과 조선주둔 일본군경들, 일본본토의 정객들과 군벌들, 자본가들을 전율케 하였다. 침략자들과 반동들이 그 총소리를 듣고 아연해 하였다면 우리 인민들은 기뻐하였다.

우리가 장백에서 연전연승으로 수행한 대담한 군사작전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놓았다. 이 작전들로 하여 조선혁명의 실제적 주력으로서의 우리 혁명군의 지위는 확고한 것으로 되었다.

나는 우리가 장백에서 벌인 싸움들이 세계를 들었다놓은 규모가 큰 것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세계전쟁사에는 수 천, 수 만, 지어는 수십 만의 사상자를 낸 요란한 전역들과 대결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 전투에 투하한 병력은 불과 수백 명, 적살상도 백이나 천단위를 헤아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들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본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간고한 싸움에서 발현된 혁명군의 넋이다. 인민혁명군의 의지는 적들을 압도하였다. 적을 정신적으로 압도하면 승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장백땅에서 벌인 혈전의 자취들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박인진도정


천도교 도정 박인진

조국광복회 기관지 ≪3 · 1월간≫ 창간호에는 ≪천도교 상급영수 모씨! 우리 광복회 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내외에서 유력한 군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는 천도교 위원 모씨가 끓어넘치는 애국열정을 가지고 친히 조국광복회 대표인 나를 방문하였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조국광복회 강령과 일체 주장에 찬동하였으며 아울러 천도교 청년당원 100만명을 조선독립전선에 출동시킬 의향을 표시하고 장차 조국광복회와 보다 긴밀한 연계를 취할 데 대하여 굳게 약속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인 모씨가 박인진도정이다. 비밀보장을 위하여 모씨라고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몇 줄짜리 보도기사의 뒤에는 옹근 한 책을 써도 다 담기 어려운 깊은 사연이 숨겨져있다. 박인진도정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으로 찾아오게 되기까지의 내막을 이해하자면 같은 호에 실린 피끓는 청년애국용사들이 우리 부대에 속속 입대한데 대한 기사와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그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조국 서북부 각지의 피끓는 청년애국용사들은 떼를 지어 매일 7-8명씩 압록강, 두 만강을 건너　　**김**사장 부대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국내의 지세와 도로 및 각지의 정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장부대의 전위로서 국내출입의 선두에 설 것을 자원하였다.≫

우리가 국경지대에 나와서 두 번째였던지, 세 번째였던지 신창동 마을에 갔을 때였다. 그 마을 청년 몇 이 우리를 찾아와서 참군을 청원하였다. 국경지대의 입대지망자들인 것만큼 신체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다 받아주도록 하라고 일렀더니 이동학은 다른 청년들은 다 합격시킬 수 있음직한데 풍산출신의 ≪천도쟁이≫만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하면서 통일전선도 분수가 있지 천도교를 믿는 종교쟁이야 어떻게 함부로 혁명군에 입대시킬 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였다.

나는 이동학을 시켜 마을사람들이 ≪천도쟁이≫라고 부른다는 그 청년을 사령부로 데려오게 하였다. 비록 허줄한 옷을 걸치였으나 촌티를 벗은 꽤 멀쑥한 청년이 이동학을 따라 당돌한 걸음걸이로 내앞에 나타났다. 인상적인 것은 쌍까풀진 눈과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금이빨이였다.

그는 풍산군 천남면 슬리라는 고장에서 영북지방의 천도교 도정 박인진과 한마을에서 살면서 그의 교육과 영향을 받아 천도교 청년당원이 된 이창선이였다. 박인진의 총애를 받는 수제자라는 사실로 하여 그는 경찰들의 부단한 감시와 미행속에

들게 되었다. 스승 박도정은 풍산에서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옥살이를 한 요시찰인이였다. 왜경들은 도정네 집 처마밑에 순찰함을 달아놓고 주에 한번씩 순찰을 등대고 정기적으로 찾아와 그의 동향을 탐지하였으며 한달에 한번씩은 수석경찰이 직접 다녀갔다. 그 달갑지 않은 정기적인 순찰과 무시로 되는 감시는 이창선에게까지 미치였다. 도정의 집에 내려오는 경찰들은 그의 집을 그저 스쳐지나는 때가 없었다. 이창선은 스승의 동의밑에 왜경의 감시와 성화를 덜 받을 수 있는 장백땅에 옮겨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창선의 입대를 거침없이 승인하자 이동학은 불공정한 판결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볼이 부어 말하였다.

≪사령관동지, 종교쟁이가 빨치산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로청년들도 디글디글한데 하필이면 저런 천도쟁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대오의 구성성분을 어지럽힐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농담절반, 진담절반의 말로 이동학을 나무랐다.

≪동무의 눈은 알다가도 모르겠소. 이제순이가 인재라는 것은 제꺽 알아보았는데 저 사람이 보배라는건 알아보지 못하니 말이요. 사팔뜨기가 아닌데 어떤 때는 왕청같이 비뚤어지게 보거든.≫

≪맑스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구요. 저따위 천도쟁이가 보배는 무슨 보배란 말입니까? 우환단지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그의 편견은 확실히 지나쳤다.

나는 진지하게 그를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이창선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극단적으로, 일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 명제는 종교적 환상에 유혹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종교인 일반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애국적 종교인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건 다 포섭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 유격대는 항일구국을 자기의 첫째가는 사명으로 삼고 있은 애국적 무장력이며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유격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장력이라고 하여 다른 계층이나 세력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설사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원한다면 주저없이 우리의 무장대오에 받아들여야 한다, 동무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호박을 잡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저 청년의 줄을 타면 갑산, 풍산, 삼수 지방의 천도교도들속에 조국광복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북의 광활한 대지를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두고보면 저 청년의 가치를 알게 될 테니 그를 잘 대해주고 귀중히 보호해주라고 말해주었다.

이동학이 내 말을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신창동사람들이 달아준 ≪천도쟁이≫라는 별명은 이창선이 입대한 후에도 그냥 그를 따라다니었다. 그 별명에서 풍기는 것은 동지적 애정이 아니라 비우호적인 조롱기와 경멸이었다. 이창선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었다.

한번은 밀영에서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락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구대원들과 신대원들이 엇바꾸어가며 출연하는 오락회였는데 아주 흥미가 있었다. 그 날 구대원들은 신대원들을 위하여 있는 밑천을 다 털어놓았다. 신대원들도 흥이 나서 연방앞에 나섰다. 그런데 모처럼 마련된 오락회가 소개자의 실언으로 해서 그만 파투가 되고 말았다. 이창선이 나설 차례가 되자 소개자는 ≪다음은 신창동에서 새로 입대한 ≪천도쟁이≫동무의 노래를 들어봅시다≫하는 엄중한 실수를 하였다. 비위가

상한 이창선은 그 맹랑한 소개자의 말을 듣자 노래를 부르지 않고 퇴장해버리였던 것이다.

이 일로 하여 부대에서는 여론이 분분해졌다. 비난의 화살은 오락회 책임자에게 집중되였다. 구대원도 아닌 신대원에게 ≪천도쟁이≫라니 무슨 당치않은 소리인가, 사람을 깔보고 조롱해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창선을 쬐쬐한 인간이라고 욕하였다. 별명을 들으면 들었지 지명을 당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퇴장해버리면 오락회는 어떻게 되는가, 혁명군대가 되겠다고 집을 떠난 대장부가 그만한 노염도 삭이지 못하고서야 무슨 사내인가, 싸움군이 되기는 글렀다, 옹졸하다고 비난하였다.



동학 1세 교조
최제우

오락회 책임자와 이창선을 두고 벌어진 상반되는 논의는 결국 일반적으로는 종교인들, 구체적으로는 천도교들을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번져갔다. 나는 부대의 전체지휘성원들과 병사들앞에서 천도교와 관련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명백히 해설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천도교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민족종교이다.

최제우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명명하여 ≪서학≫(천주교)과의 차이를 명백히 한 것만 보아도 이 종교가 가지는 민족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천도교는 그 기본 사상과 이념에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종교이다. 천도교가 내세운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구호만 보아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천도교도들은 수십 년동안 그 구호를 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만백성이 복락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투쟁해왔다. 그런 민족종교를 종교라는 한 가지 이유로 무작정 배척하며 그 교의 신도들을 ≪천도쟁이≫라는 말로 모욕해야 하겠는가.

천도교 이념의 애국애민성과 천도교인들의 애국투쟁에 대하여 해설을 해주고 천도교인들을 대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 입장과 통일전선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주지시킨 다음부터 이창선에게는 ≪천도쟁이≫라는 별명이 없어지고 그 대신 ≪김빠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겨났다. ≪김빠이≫란 금이빨쟁이라는 뜻이다. ≪김빠이≫란 별명이 유격대오 안에서 이름처럼 고착되어버리자 본인도 그에 맞추어 자기의 성을 ≪김≫가로 바꾸고 이름은 ≪갑부≫로 고쳐서 자기를 ≪김갑부≫라고 하였다. 훗날 그는 정치공작을 하느라고 돌아다닐 때에도 그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이창선은 농촌태생이였지만 매우 유식하고 총명하였으며 문화적 소양도 높은 편이였다. 특히 가무와 만담 같은데 장기가 있어서 오락회가 벌어질 때면 독판을 치다시피 하였다. 푸접이 또한 좋아 처음 대하는 사람들과도 쉽게 사귀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영웅주의적 기질이 있었다.

그가 입대한지 한두 달밖에 안되던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부대정치부에서 조직과 장사업을 맡아보는 김평이 나를 찾아와서 ≪김빠이≫가 자기를 중대정치지도원 이상의 자리에 승진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당시 ≪김빠이≫네 중대정치지도원의 정치이론실무수준이 그닥 높지 못하였다. 일찍이 천도교청년당 간부사업까지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식한 ≪김빠이≫로서는 자기보다 못해보이는 상급의 지도를 받기가 어지간히 삐근했던 모양이다.

나는 이창선을 불러다놓고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중대정치지도원의 장점

들과 공적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필요한 조언도 주었다.

동무는 앞으로 중대정치지도원 정도가 아니라 더 주요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100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되고 대학생도 소학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유능한 군사정치일군도 기초견습과 훈련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무는 지금까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서의 견습단계를 거쳤다. 이제부터는 유능한 정치공작원으로 되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하겠다. 나는 입대시킬 때부터 동무에게 앞으로 천도교인들과의 정치공작을 맡겨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는 1개 중대인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대열에 이끌어들이고 지도하는 정치공작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큰 정치일군이 되어야 하겠다. 사령부 조직과장 김평과 선전과장 권영벽동무들을 개별담당 강사로 붙여주겠으니 정치이론도 배우고 군중공작방법과 지하사업경험도 터득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적 품성을 배우는 것이다. 겸손성은 가장 훌륭한 미덕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혁명선배들만이 아니라 동년배들과 후배들도 모두 스승으로 간주하고 일생동안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무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얼마 후 우리는 그를 전투중대에서 소환하여 사령부 정치부에 옮겨놓았다. 이때로부터 ≪김빠이≫는 대내에 있을 적에는 7연대 선전간사로 사업하였고 대외에 나가서는 천도교방면담당 정치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 후에는 선전간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전문적인 정치공작원이 되었다.

이창선은 박인진을 비롯한 북선지구의 수많은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조직망에 흡수하는데서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박인진과 천도교 내부형편에 대한 사전요해를 하였고 또 천도교들과의 접촉도 하였다.

박인진은 천도교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다.

도호를 문암으로 쓰고 있는 박인진은 1909년에 입도한 후 천도교의 여러 급의 교직을 맡아보다가 1932년에 지원포의 도정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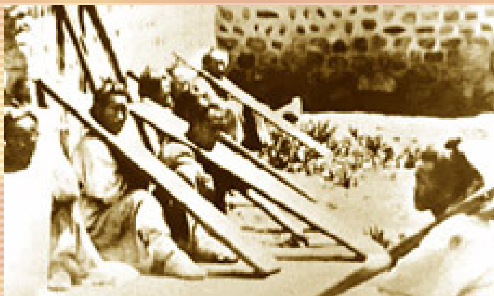
그 당시 천도교는 전국적으로 29개의 포를 설치하였는데 주로 풍산, 삼수, 갑산, 장백 등지를 포괄하였던 지원포는 전국의 천도교포들 중에서 가장 큰 포조직의 하나였다고 한다. 박인진은 일명 영북도정이라고도 불리웠다.

박인진의 아버지는 전봉준 휘하의 남접군에서 갑오농민전쟁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운 동학당의 한 성원이었다.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난 다음 수십만을 헤아리는 그 전쟁의 관련자들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되자 그는 고향을 하직하고 머나먼 전라도에서 영북땅으로 피신하였다.

박인진은 부친이 옛말처럼 들려주곤 하던 천도교조들과 부친의 저항적인 생애에서 자기의 인생행로를 찾았다.

3.1 인민봉기는 그의 의지와 신념을 검열한 최대의 시련이었다. 그는 풍산에서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시위대열의 맨 앞장에서 1,000여명의 군중을 이끌고 관청에 돌입하다가 몸에 적탄을 받고 중상을 당하였다.

박인진은 3년동안 함흥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그 가혹한 옥고도 그의 심장속깊이 뿌리박혀있는 신앙심과 저항의지를 말살해버리지는 못하였다. 출옥 후 박인진은 독립군들과 손을 잡고 3-4년동안 여러 지


투옥된 동학농민군

방을 떠돌아다니며 그들을 후원하는 사업에 몸을 깊숙이 잠그었다. 그러나 독립군이 별로 맥을 추지 못하고 타국땅으로 쫓겨가게 되자 한숨과 눈물속에 그들을 바래주고 왜놈들의 꼴을 덜 보면서 살 수 있는 고장을 찾던 끝에 풍산군 천남면의 깊은 산골로 솔가이주하여 전교실도 꾸려놓고 야학방도 차려놓았다. 그리고 이창선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에게 천도교 교리도 선전하고 애국정신도 주입하였다. 하지만 그 산골도 완전한 피신처로는 되지 못하였다. 주말과 월말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불청객들의 정기적인 가택방문은 그로 하여금 풍산땅을 뜨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박인진은 장백현 신거리로 이주하였다.


전봉준

이창선은 인간 박인진을 파악하는데 참고로 될 수 있는 흥미있는 일화도 한 가지 들려주었다.

박인진이 29살의 노총각으로 이웃동네에 선보러 갔을 때의 일이었다. 양측에서 맞선을 보고난 다음 중매꾼 노파는 총각의 의향을 물었다. 박인진은 반대가 없다고 대꾸했다. 그런데 장인될 영감은 곰방대만 빠금빠금 빨면서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임자 나이가 24살이 옳기는 옳은가?≫

영감이 한참만에 싸움이라도 걸 듯 퉁명스럽게 내던진 말이었다.

평생 거짓말이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는 고지식한 박인진은 중매꾼이 자기의 나이를 5살이나 줄여서 24살이라고 선통한 줄도 모르고 사실대로 29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중매꾼 노파의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총각의 나이 20살만 넘어도 병신이나 시라소니라는 의심을 받던 조혼의 시대이니 29살이라는 대답을 듣고 장인될 영감이 오만상을 찌프릴만도 하였다. 박인진은 집이 너무 가난했던 탓에 장가를 제때에 가지 못하고 노총각이 되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박인진에게 폭탄같은 선언을 하였다. 30살이 다된 노총각한테는 딸을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박인진은 눈앞이 아찔해졌으나 용기를 가다듬고 열띤 목소리로 내게 코가 없는가 눈이 없는가, 도대체 주인장이 나를 타발하는 까닭이 뭔지 어디 좀 들어보자고 따지고 들었다.

상대방은 몹시 난처해하며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다 좋은데 임자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흠이다, 우리 딸애보다 11살이나 이상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혼약을 허락하면 귀한 딸자식을 길러 늙은 홀아비한테 주었다는 망측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박인진은 그런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나는 기어코 이 집 딸에게 장가를 들어야겠다, 나이는 많을망정 여자손목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숫총각인데 어떻게 홀아비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혼약을 받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겠다, 정 허락치 않으면 딸을 자루속에 훔쳐넣어 메고라도 갈 테니 그리 알고 어서 시원한 대답을 달라고 강짜를 썼다.

그때 처녀의 오빠가 빙그레 웃으며 우리 여동생에게 정 장가들 생각이 있으면 돈을 1,000원만 내라고 넌지시 귀띔하였다. 돈 1,000원이면 20마리 이상의 소값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박인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박인진은 시치미를 떼고 딸만 주면 돈을 주겠다고 장담하였다. 노총각의 얼굴을 관상쟁이처럼 유심히 살펴보던 주인장은 마침내 약혼을 허락하였다.

박인진은 노총각의 신세를 면하고 그 집 사위가 되었다. 물론 1,000원 돈은 문제

로도 되지 않았다. 돈소리는 신랑감의 속대가 어떤가를 중떠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확실히 박인진도정은 줏대가 있고 자존심이 세고 결패스럽고 투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짐작되었다. ≪김빠이≫와의 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파악하게 된 박인진의 인간상에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그 무엇이 있었다.

이창선을 천도교방면담당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 나는 그에게 우리와 천도교인들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이며 ≪척왜≫와 ≪보국안민≫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투쟁해온 번천민중의 벗들인 것만큼 서로 손을 잡고 합세하여 단합된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과 가까운 장래에 양측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진지하게 협상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박인진에게로 떠나보냈다. ≪김빠이≫는 사흘 후 밀영에 돌아왔다.


천도교 종리원장
이전화

박인진은 합세하여 반일전을 전개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협상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박도정과의 협상마당에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몇 가지 피치못할 사정이 나로 하여금 밀영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미나미와 우에다 사이의 ≪도문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적들의 ≪동기대토벌≫ 작전의 개시로 하여 인민혁명군앞에는 험악한 난국이 조성되었다. ≪토벌≫ 공세와 때를 같이하여 수많은 밀정들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돌아쳤다.

전우들은 새로 창설된 밀영의 운영을 위해서나 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나 사령관이 직접 협상마당에 나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의 출발을 한사코 막아나섰다. 밀정이 우리 사령부 근처에까지 기어든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으므로 모두가 신경이 예민해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김평과 이창선을 박인진과의 협상에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평은 어릴적부터 못해본 일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으며 무슨 일이건 손쉽게 해제낄 줄 아는 능란한 실무일군이었다. 그는 한문에 밝은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5-6년간이나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한 덕이였을 것이다. 커서는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았고 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에는 유격대의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수영학교에서 군정교육도 받았다. 김평은 교원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창선과 함께 김평이 천도교인들과의 협상대표로 물망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천도교방면에 대한 지식과 정치사업경험이 많이 고려된 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인진과 우리 대표들 사이의 면담은 장백현 17도구 왕가동에 있는 천도교 장백종리원 원장 이전화의 집 안방에서 진행되었다.

김평은 먼저 상대측에 우리의 서명날인이 있는 대표신임장을 보여주고 박인진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전한 다음 천도교 세력과의 제휴문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박인진은 일제를 몰아낸 후에 우리가 어떠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구한국 정권과 같은 왕권복귀도 반대하였고 러시아땅에 수립된 쏘비에트식 정권도 반대하였으며 ≪망명정부≫라는 평판을 받고 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법화하는 형식의 정권을 만드는 것도 반대하였다.

김평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제1조를 놓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의 대의제에 기초한 인민의 정권을



갑오농민전쟁

수립하려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자 박인진은 10대강령에 명기한 대로 민중정권을 세운다면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데 정작 나라가 광복되고 정권을 세워야 할 때가 되면 약속을 어기고 쏘련식의 공산정권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의심을 기탄없이 털어놓았다.

그 당시 쏘련에서는 반당분자들과 적대분자들에 대한 숙청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웃나라들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평은 광복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쏘련식의 공산정권을 세우지 않으리라는 것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된 조국땅에 우리가 세우게 될 정권은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구현한 정권으로 될 것이며 민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정치를 하는 정권,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역량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인민의 정권으로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쏘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던 때의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박인진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 강령과 선언이 선전이 아니라 당신들의 진심이고 확고부동한 실천의지라면 우리 천도교인들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참가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은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결심하고 처리할 가벼운 일이 아니니 동덕들과도 협의하고 천도교 중앙의 교령인 최린과도 협의한 후에 대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린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밀영을 방문하여 나와의 회견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김평은 그 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박인진은 우리와 손을 잡겠다든가 말겠다든가 하는 말을 섣불리 내뱉지 않았다. 조건부를 내걸고 어정쩡한 대답만 하였다. 손을 잡는가마는가 하는 것은 나를 만나본 다음에 결정지으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어쨌든 회담은 매우 건설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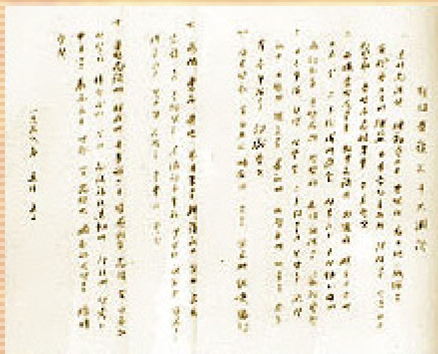
다음날 박인진은 장백종리원 산하의 남녀교도들을 50여명이나 불러다가 조선인민혁명군 대표들을 환영하는 큰 잔치판을 펼쳐놓았다. 돼지도 잡고 떡도 쳐서 우리

대표들을 환대하였다. 천도교 청년당원들로 보초를 세워놓고 오락회까지 벌였는데 그 가무들이 한결같이 애국심과 투쟁열을 고취하는 것들이어서 김평은 천도교도들의 애국정신에 새삼스럽게 감복되었다고 하였다. 집주인인 이전화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하기 위하여 하얼빈으로 떠날 때에 그와 동행한 우덕순이 불렀다는 ≪만났도다 만났도다 원쑤들을 만났도다 ≫하는 노래를 어찌나 비장하게 불렀던지 모두가 다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뿌렸다는 것이다.

박인진이 우리 밀영을 방문한 것은 1936년 초겨울이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인물은 이전화이다.

그들은 모두가 검정두루마기 차림새였다. 그 두루마기들에는 한결같이 고름대신에 단추고리가 달렸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채우게 된 고리였다. 천도교도들은 그처럼 유표한 단추고리를 단 두루마기를 입는 것으로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복식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박인진은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밀영으로 초청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장군을 만나뵙게 싶던 소망이 이토록 수월하게 이룩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항일독립전에 총한 자루, 단돈 한 잎 보탠적 없는 우리들이 부끄럽기 그지없소이다.≫

그 말만 들어보아도 박인진이 무척 겸손하고 예절바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진정을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돈이나 물건보다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 몇 잎이나 무기 몇 자루를 보태주었는가 하는 것보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 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도정님이 지금껏 애국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신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결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몇백 배나 힘있는 보탬으로 됩니다. 이 어수선한 세월에 애국의 지조를 고수하고 있는 도정님과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고 기쁨으로 됩니다.≫

박인진은 ≪그건 과찬이올시다.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만한 체면이 못됩니다≫하고 말하였다. 일본사람들의 악선전에 속아서 비록 한때나마 광복성업을 위해 매진하는 인민혁명군을 ≪비적단≫이라고 오해한데 대하여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래서 나는 서로 잘 모르고 지내면 곡해도 생길 수 있고 적의도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허물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앞날의 일이다, 과거는 백지로 만들고 우리 다같이 뜻을 합쳐 앞날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우리 대표들에게서 들었겠지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왜적을 미워하는 각계각층 동포들을 다 집결하여 거족적인 항일대전을 벌이기 위하여 지난봄에 조국광복회를 내왔다, 그 강령에 반대가 없다면 양심적인 천도교인들도 항일대전에 합류해달라, 단결하여 싸워야 승리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면 조국의 광복도 이룰 수 없고 백전백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쓰라린 교훈이다, 만일 갑오농민전쟁의 최전성기에 호서지방의 북접군을 총지휘하고 있던 최시형이 호남의 남접군을 지휘한 전봉준의 연합제기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서울진격을 방해해나서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얼마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동학당란이 실패로 끝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각지, 각계의 모든 애국역량이 일치단결하여 싸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제멋대로 싸웠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반일성전을 승리로 결속짓고 광복을 이

룩하려면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 민족단결은 반일에 민족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책이며 민족대승의 길이다. 천도교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척왜≫에 성공하고 ≪보국안민≫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조선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 다른 반일애국역량도 다 묶어세워야만 승산을 내다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민족대단결을 꼬는 단심줄이 되어 조국광복회 두리에 뭉치자고 하였다.

박인진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강령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고 장군의 의견도 천만번 지당하니만큼 반드시 천도교 중앙의 최린을 설득시켜 전국의 300만 교도들이 단꺼번에 모두 조국광복회에 가입하도록 해볼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엄하게 준수되고 있는 천도교단에서는 중앙에 절대적인 재결권이 부여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천도교 중앙의 상층이 부패타락, 변질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옥중의 동학 2세 교조 최시형

나는 자기의 견해를 박인진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최린에게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의 최근 동향이나 써내는 글들을 보면 천도교 역대 교도들과는 판판 다른 길을 걷고 있은 것 같다. 그는 동학이념도 배반하고 민족도 배반하고 원쑤들의 권력시녀로 전락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박인진은 어떻게 최린에 대해서까지 그처럼 잘 알고 있는가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 천도교들 중에도 최린이 이상스럽게 번져가고 있는데 대하여 좋지 않게 보고 있은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자기도 역시 그를 의심한다고 고백하였다.

최린은 3.1 독립선언서 작성에 관계한 사람이었다. 그는 3.1 운동의 발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 때문에 감옥맛도 보았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 3세교조 손병희의 천거를 받아 천도교교령의 지위에 올라앉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행로에서는 ≪방향전환≫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형당한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그는 천도교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후천개벽≫으로 ≪지상천국≫을 이룩하려면 세계만방을 순방하여 동서방의 정국도 살펴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해 동안이나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와서는 현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일본의 세력은 세계적 판도에서 나날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천도교도들은 일본과 백해무익한 충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치운동≫이나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설교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천도교를 보호하려면 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린의 입에서 흘러나온 주장이었다.

≪최린이 이처럼 총독의 들러리노릇까지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천도교를 위하고 천도교 동덕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교인들은 그 말이 위선이라는 것을 감촉하지 못했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최린을 여전히 우상화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전화종리원장이 서울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와 하는 말이 최린이 집이랑 꾸며놓고 사는 꼴을 봐도 그래, 언행을 봐도 그래 전과는 퍽 달라졌더라는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그를 변절자로 낙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서울에 가게 되는 기회에 그와

한번 맞쪼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래지 않아 서울에서 천도교 중앙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나도 서울에 가게 됩니다. 그가 썩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그를 버려얍지요. 우리는 우리 배짱대로 할렙니다.≫

박인진은 칼로 무를 베듯이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었다.

우리들의 면담에서는 내외의 정세와 민족주의 운동의 현실태, 항일무장투쟁의 발전과정, 조국광복을 이룩한 후의 조국건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정되고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야기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였다. 쉴참이면 손님들에게 우리의 부대생활모습도 보여주었다.

박인진은 우리 인민혁명군의 무장장비가 예측보다 현대적이라는 것, 대원들의 면모가 아주 늠름하고 생기발랄하다는 것, 병실들이 규모있게 꾸려지고 주변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일과생활이 째여져 있다는 것, 군인들이 한 사람같이 규율있고 절도가 있어 정규군과 같은 멋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의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 밀영지의 기묘한 산세에 대해서도 탄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격대밀영의 산수는 마치 천도를 창명한 최제우가 두 차례나 들어가 있으면서 도를 닦았다는 경상도 양산의 천성산 골짜기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었다. 천성산 내원암에는 유명한 ≪화왕계≫의 저자 설총의 아버지 원효대사가 당나라 중 1,000여명에게 불타의 만가지 선행을 찬양한 ≪화엄경≫을 가르쳐 모두 성인이 되게 하였다는 고사가 깃들어있는데 동학시조는 유서깊은 그곳에서 도를 닦고 동학을 창시하였다는 것이다.

박인진은 우리가 백두산 청림속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도를 닦으며 ≪화엄경≫이나 ≪동경대전≫보다 더 사활적인 민족재생의 대경륜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까지 마련해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군사로 키우는 모습만 보아도 기운이 부쩍부쩍 난다고 하였다.

그가 우리 밀영에 들어와서 가장 큰 자극을 받은 것은 내가 그에게 청수봉전의 기회를 마련해준 순간이었다.

천도교에는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등 교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5관공덕이라는 것이 있다. 놋그릇에 청수를 떠서 모시는 것을 청수봉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도교 세계에서 단 하루도 어길 수 없는 법도로 되고 있다. 청수는 천지의 근본을 상징하며 거기에는 천지의 은덕을 잊지 않으려는 교인들의 맹세가 담겨져 있다. 최제우가 수도생활을 할 때 하루에 세번씩 청수를 떠놓고 깊은 명상에 잠기고는 하였고 또 그가 효수를 당하던 최후순간에도 청수를 떠놓았기 때문에 천도교인들은 시조의 영혈을 상징하는 청수봉전을 전통적으로 법도화, 관습화해온 것이다. 우리는 화성의숙에 다닐 때 최동오나 강제하를 비롯한 천도교도들이 저녁 9시만 되면 온 식구를 한 자리에 모여놓고 청수를 모시곤 하는 것을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았었다.

나는 박도정과 함께 저녁에 한담을 계속하다가 9시가 다가오자 문득 청수봉전시간이 다됐다는 생각이 나서 전령병을 시켜 맑은 물 한 사발을 떠오게 하였다. 물그릇이 들어오자 투박한 통나무상 한복판에 정히 올려놓고 도정에게 청수봉전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성지의 물인데 놋그릇 대신 법랑그릇에 담아오게 해서 안되었습니다. 놋그릇이 아니라고 나무람마시고 도정님, 어서 청수를 모시십시오.≫

내가 이렇게 권하자 박인진은 몹시 놀라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천도교를 숭상치도 않는 장군님네 군영에 와있으면서 제 어찌 감히 청수봉전을 하겠습니까?≫

≪동학당란 때 동학도들은 전장에서도 매일 청수를 떠놓고 주문을 외웠다던데 도정 어른께서 수십 년간이나 지켜온 법도를 우리 밀영에 왔다고 해서 어찌 어기겠습니까? 어서 마음놓고 주문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박인진은 손님으로서의 예절을 지켜 굳이 사양했지만 나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인륜적 평등과 신앙의 자유 보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신자의 앞이라 하여 신앙심이 남달리 강한 도정님이 평시의 법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에게 청수봉전을 거듭 권하였다.

결국 박도정은 청수를 모시고 앉아 21자의 주문을 외웠다. 거듭 세 번을 외운 다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그는 숙연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백두산곡의 청수가 참 별맛입니다. 우리 나라 조종이 마시던 물로 청수봉전을 하였으니 오늘저녁 일은 평생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장군과 같은 무인이 우리교의 법도를 이처럼 존중해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러고보면 박인진은 반공에 오염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와 종교상의 모든 법도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증오한다고 생각해온 것이 분명하였다.

어느 해인가 미국에 사는 교포 김성락목사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그와의 오찬석상에서 식전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그때 김성락목사는 우리가 그런 권고를 하는데 대하여 몹시 놀랍게 생각하였다. 공산국가의 주석이 어쩌면 종교인의 식전기도에까지 관심을 돌리는가, 이것이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날 내가 김성락목사에게 식전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한 것은 그 무슨 생색을 내자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종교와 종교신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전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손님을 손님답게 대하고 싶은 주인으로서의 예절과 일생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살아온 그가 조국에 와서도 구속을 받지 않고 교도를 지킬 수 있게 하자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그런 권고를 했을 뿐이었다.

우리 나라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빈말공부나 비누거품 같은 약속이 아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자유를 유린해본 적도 없고 종교신자들을 탄압해본 적도 없다. 만일 공화국정권하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정치적 시련을 겪은 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팔아먹은 범죄자들과 민족반역자들뿐일 것이다.

해방 후 일부 지방에서 종파분자들이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종교자체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편향이 발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실례들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다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었고 더욱이는 중앙의 조직적인 의사나 지령에 의해 발생되었던 폐단도 아니었다.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 전쟁 직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예배당과 절간이 있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칠골에 가보니 거기에도 창덕학교시절에 보던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금 인민대학습당이 자리잡고 있는 평양의 남산재에는 큰 예배당이 두 개나 있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도들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건물들을 다 파괴해버리었다. 부처를 모신 큰 절간과 암자들도 폭탄세례를 받았다. 십자가와 성상, 성경책들은 불타서 재가 되거나 폐허속에 파묻히었다. 교인자신들도 시체가 되어 저승으로 떠나갔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사람들이 예배당도 파괴하고 교인들도 죽이었다. ≪하느님≫은 그러한 만행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전쟁기간 우리 인민들속에

서는 예배당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종교신자들은 ≪하느님≫앞에서 천당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았다. 종교가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들은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 사람이 이 세계의 창조자이며 지배자라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그들은 성금을 모아 두 번 다시 예배당을 지으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 대신 살림집과 공장, 학교들을 먼저 건설하였다.

우리의 후대들속에는 ≪하느님≫이나 ≪한울님≫이나 부처님을 믿어야 복도 받고 천당에도 간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없다. 그들이 신자가 되거나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종교를 나쁘게 보거나 종교인들을 학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생활조건도 보장해주고 있다. 몇해 전에는 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종교과도 새로 내왔다. 그 과에서는 종교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종교단체들과 교인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며 남조선에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 신자들 중에는 민주, 통일, 평화를 위한 3대 전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은 애국자들과 투사들이 적지 않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종교인들속에서 연공애국인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산당 선언≫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와 그들을 결합시켜주고 있는 유대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이다.

이러한 유대는 1930년대에도 존재하였다. 애국애족만 있으면 그 어떤 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천명된 통일전선의 원칙이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박인진도정과도 손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통일전선의 그물속에 종교인들을 끌어넣기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회유책이라고 왜곡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날조는 그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 오동진, 손정도, 최동오, 강제하 등의 신자들과 나를 이어주고 있던 친교는 순결한 애국애족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였지 그 어떤 책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였다. 나는 그들을 맑스의 신봉자로 만들려고 시도해본 적도 없으며 공산당의 들러리로 내세우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다만 진정으로 그들의 신앙심을 존중했고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여 주었을 뿐이다.

박인진도정이 청수를 모신 뒤 우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그 날 박도정은 청수봉전을 치르고 나서 나에게 불쑥 물었다.

≪제가 꼭 여쭈어 알고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정의 그 질문을 우리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대답하였다.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 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 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박인진은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백두산에 온 보람이 있다, 좀 때늦긴 하지만 진짜 ≪한울님≫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

였다. 그리고 천도교 시조 최제우의 ≪인내천≫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상통한 데가 있다면서 대단히 흡족해하였다.

박인진도정과 그 일행은 사흘동안 머물러있으면서 출판소와 재봉소도 돌아보았고 실탄사격도 참관하였으며 유격대원들의 연예공연도 관람하였다.

≪나는 5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고 처음 봤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밀영에 완전히 매혹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바도 똑바로 알았고 결심도 섰습니다. 내 이제 최린을 찾아가서 모든 천도교도들을 조국광복회에 끌어들이는 거사를 치르겠습니다. 그 거사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내 산하에 있는 영북의 8개 종리원에 속한 천도교인들만이라도 전부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피끓는 천도교 청년당원 100만명도 모두 총을 메고 장군의 수하병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밀영을 떠날 때의 박인진의 말이였다.

밀영을 방문하고 돌아간 박인진은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 나갔다. 나는 장백의 천도교도들을 조국광복전선에 묶어세우는 한편 1937년 8월에는 직접 삼수종리원에 가서 그곳 종리원장 조완협, 장백종리원장 이전화 등과 협의하여 우리와의 통일전선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김빠이≫가 그를 적극 방조하였다. 박인진은 장차 자기 사업을 보좌할 수 있는 창선이 같은 인재를 키워달라고 하면서 7-8명의 청년들을 이미 우리에게 파견하였던 것이다. 천도교 청년당 풍산군 대표 이경운 등도 이무렵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입대하였다.

박인진은 우리앞에서 말한대로 그 해 12월 천도교 중앙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갔다.

최린이 밀고하거나 테러행위를 조직하게 되면 박인진의 신변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가 하려는 담판도 도와주고 그의 신변도 보호하기 위하여 나는 이창선에게 나의 전령병 김봉석을 붙여주어 박도정을 서울까지 무사히 호위해가게 하였다.

박인진은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최린이 그사이 명륜정에 있는 양옥자택을 더 호화롭게 꾸려놓았다는 것과 그가 ≪독립을 위한 자치≫를 실현하자면 일본과 화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천도교 자금을 총독부에 ≪국방헌금≫으로 갖다 바쳤다는 것 등 기막힌 소식을 들었으나 의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그를 인내성있게 설복해보았다.

그러나 최린은 안하무인이였다.

박인진은 격분을 금할 수 없어 지금 당신이 하고 있은 헌금놀음은 독립성업에 역행하는 매국배족적인 배신행위로서 오히려 일본의 국력이나 더 한층 증가시키고 조선의 예속을 더욱더 지속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최린의 면전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흔들며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은 헌금이 아니라 바로 이 강령에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무이한 길은 이 길 뿐이다, 우리 교도들은 **김일성**장군이 조직한 조국광복회에 들어가서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항일대전을 벌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최린은 10대 강령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나서 덤비지 말라, **김일성**이 가자는 목표도 대해이고 내가 가자는 목표도 대해이다, 대해로 가는 노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큰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다, 지금은 소란을 피우며 큰길로 나갈 때가 아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그릇만 닦아놓으면 된다, 물은 언제든지 담을

수 있다고 박인진을 설유하였다. 격노한 박인진은 최린과 한바탕 싸우고 그의 집에서 나와버렸다.

최린과의 결별을 단행한 박도정은 인차 풍산군안의 천도교인들을 망라하는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를 결성하였고 뒤이어 갑산, 삼수, 혜산, 장백 지대에서도 천도교핵심성원들로 조국광복회 지회들을 내왔다. 그 지회들은 자기 주위에 많은 천도교인들과 농민들을 결속하였다. 박인진의 영향하에 있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우리밀영에 많은 원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 박인진 자신도 우리에게 보낼 원호물자를 구해들이느라고 혜산과 풍산으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언제인가 도정은 유격대원들이 한지에서 숙영할 때 깔개로 쓰라고 여라문장의 짐승가죽까지 직접 마련해보낸 일이 있는데 그때 나의 전우들은 모두 그 짐승가죽을 보고 박인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천도교 경전

지양개에 있는 박인진의 제자들 중에는 김정부한테서 소작지를 수천 평이나 받아가지고 인민혁명군에 보낼 원호미를 생산하기 위해 남모르는 땀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 소작지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의 밀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박도정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와 딸들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기 위해 후방물자운반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투신하던 박인진은 1937년 10월 불행하게도 ≪혜산사건≫의 여파로 일제경찰에 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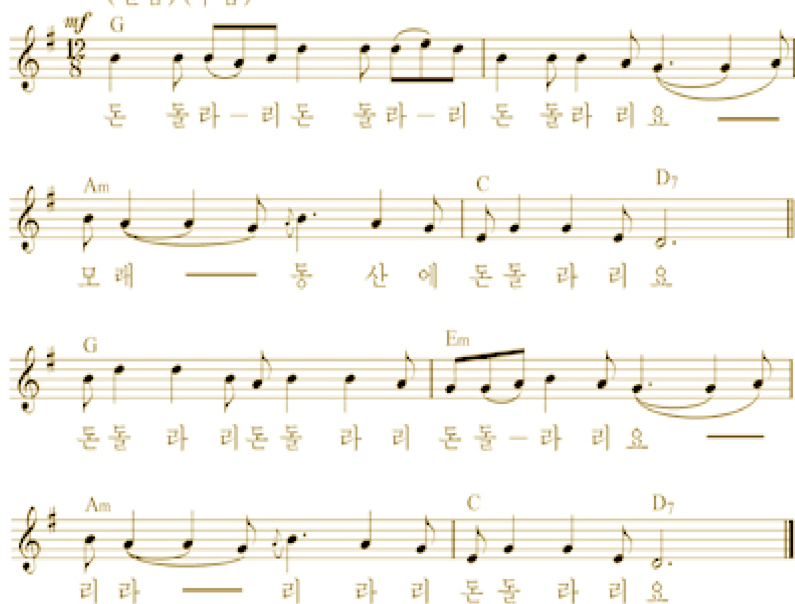
박인진도정의 투쟁실적과 우리와의 연고관계를 어렴풋하게 짐작한 적들은 집요하게 자백을 강요하였다. 네가 **김일성**빨치산과 오래전부터 내통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네가 국경양안에서 불온분자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들을 무어가지고 국제변혁을 실현하려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김일성**장군한테서 무슨 지령을 받았고 너희 조직들이 어디어디에 분포되어있는가를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인진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적들은 박인진의 지조와 의지를 굽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자 천도교를 걸고들었다. 너희네 천도교에서는 사람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아래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늘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항일독립이라는 구실로 싸움마당에 마구 내몰아 헛되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도에 대한 이단이고 인륜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고 하였다.

박인진은 적들의 그 망발에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인륜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우리 천도교의 종지를 짓밟은 장본인들이다. 네놈들은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조선의 ≪한울님≫들을 소나 돼지처럼 매일같이 도살장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군경들의 총칼이 번뜩이는 곳에서 우리 백의민족의 피가 내와 강을 이루고 산 사람의 간장마저 원한에 썩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답해보라. 죄는 누가 짓고 재판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조선국의 신성한 천도를 짓밟고 백성들을 무수히 살해한 강도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불법적으로 조작해낸 국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300만 교도는 2천 만의 동포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피의 항쟁을 하는 것이다. 내 한 몸의 피가 너희들의 제국을 불사르는 한 점의 불꽃이 된다면 나는 죽어서 재가 된다 해도 보람을 느



길 것이다!≫

그 불같은 성토에 원쑤들을 전율하였다. 악에 받친 적들은 늙은 도정에서 극악무도한 고문을 들이대며 그를 운신조차 할 수 없는 페인으로 만들어버리였다. 중병까지 겹친 도정은 사경에 이르렀다.

박인진의 생명이 경각에 다달았다는 것을 직감한 적들은 병보석의 명목으로 그를 가출옥시키였다.

박인진은 병석에서 1939년 봄을 맞이하였다. 임종을 앞둔 그는 한평생 남편의 뒷시중을 충실하게 해온 부인에게 혼신의 힘을 모아 말하였다.

≪나는 죽음을 앞둔 이 시각에 행복을 느끼고 있소. 그건 내가 수운대사의 후대답게 인생말년을 값있게 결속했기 때문이요. 이 박인진은 조선의 사나이로 태어났다가 조선의 사나이로 가오. 조국이 해방되면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김일성**장군을 따라가오.≫

박인진이 운명직전에 이르렀다는 연락을 받고 그의 총애를 받던 한 제자가 침상곁으로 달려왔다. 도정은 그를 보자 평소에 자기가 즐겨부르던 ≪돈돌라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돈돌라리≫라는 제명은 ≪동틀 날이 오리라≫는 말이 줄어지면서 붙은 것이라고 한다. 일제침략자들을 구축하고 다시금 평화롭게 살날이 동터올 것이라는 신념이 구가된 노래였다.

후치령을 사이에 두고 북청과 잇닿아있는 풍산땅에는 1930년대초부터 ≪돈돌라리≫노래와 춤이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박인진의 주도하에 조국광복회 하

부조직이 유격대원호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된 때로부터 풍산지구 지하조직들에서는 ≪돈돌라리≫가무를 원호사업을 위한 공동노력을 조직할 때마다 적들의 눈속임을 위한 방편으로 자주 이용하였다고 한다.

충실한 제자는 스승의 부탁대로 ≪돈돌라리≫를 부르기 시작했으나 목이 막혀 더 부르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었다.

박인진은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끝없이 흐느끼는 제자의 손목을 잡아 쥐고 조용히 말하였다.

≪**김**장군이 건재하고 혁명군이 백두산에 건재하는 한 우리 백의동포들은 반드시 동틀 날을 맞이하게 될거네. 자네들은 이제 백화가 만발하는 ≪한울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걸세. 내 눈에는 그 날이 환히 보이네. 암 보이구말구.≫

연공구국의 길에서 거대한 공적을 세운 박인진도정은 항일혁명이 낳은 애국지사의 한 사람이다.

해방 후 나는 박인진이 생각날 적마다 여러 번 그의 미망인과 후손들을 찾아보곤 하였다. 1992년 여름에 항일혁명투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에도 미망인이 90이 넘도록 건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걷지 못하면 업어서라도 모셔오라고 일렀다. 도정의 늙은 미망인은 차에서 내리는 길로 누구의 등에도 업히지 않고 제발로 걸어서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처럼 나를 ≪장군님≫이라든가 ≪수령님≫이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한울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렇게 부르면 안된다고 해도 그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꿈에서도 ≪한울님≫을 보았습니다.≫

박인진의 부인만이 입에 올릴 수 있는 그 호칭과 솔직한 고백에 나는 도정과 만나던 옛 추억이 되살아나 눈굽이 뜨거워졌다.

박인진을 각방으로 적극 도와주던 천도교 청년당원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이였던 이창선은 엄혹한 백두산 추위가 가져다준 동상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가 동사한 것이 아마 1938년 겨울이었던 것 같다. 최근에 관계부문 일군들은 ≪김빠이≫의 4촌처남의 사진첩에서 자못 놀라운 사진 한장을 찾아내었다.

이창선이 천도교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결의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이인모라는 것이다. 그는 박도정의 많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러고보면 박인진은 희세의 애국자들을 키운 은사이기도 하다.



황수원언제공사장 노동청년들과 함께 있는 이인모

5. 민족종교 천도교를 두고


천도교
중앙대교당

박인진과 같은 이름있는 종교인을 혁명의 동반자로 삼는데서 천도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입장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만일 우리가 천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었거나 편견과 적의를 가지고 이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는 애당초 박인진과의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백만에 달하는 전국의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도 벌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말이 난 김에 천도교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여기서 좀더 밝혀보고 싶다. 동학의 이념이라든가 그 발전역사와 관련해서는 나도 하고싶은 말이 많다.

인간이 어떤 주의주장이나 교리를 파악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맑스-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안내한 것이 책이었다면 기독교를 안내한 것은 예배당이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 자주 다니었다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나는 그 예배당에서 종교의식을 처음으로 보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선전하는 목사의 설교도 처음으로 들었다. 숭실중학교 출신인 아버지와 칠골교회의 장로이며 교육자인 외할아버지는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닐 때 칠골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 강양욱선생도 기독교 신자였다.

손정도, 오동진, 장철호, 김사헌, 김시우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친지들 가운데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 시절에 나는 예수를 숭상하는 신도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소학교 시절의 나의 동창생들 중에도 많았다. 그 당시는 항간에 기독교를 선전하는 책들도 많이 나돌았다. 그런 주위환경은 나에게 기독교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슬람교(회교)를 파악하게 된 경로는 이와 좀 달랐다. 그 경로는 웃음을 머금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재미나는 사연과 결부되어 있었다. 나에게 이슬람교의 맛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은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 마금두였다. 마금두는 이슬람교도였다. 식성이 좋은 그는 교의 계율을 어기고 자주 식당에 가서 술과 돼지고기 안주를 청해다 먹었다. 그는 늘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연송 불안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하였다.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이슬람교도로서의 체면도 세울 수 없고 교단에서 엄한 추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금두와 함께 몇 번 식당에 드나들면서 이슬람교도들속에서는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 시절에 알게 된 이슬람교에 대한 상식은 마금두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들은 것이다.

내가 천도교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갑오농민전쟁이 낳은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 알게 된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선열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마다 녹두장군의 이름은 홍경래, 이준, 안중근, 홍범도 등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놓이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전봉준에 대한 지식은 그가 갑오농민전쟁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은 용감무쌍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뿐이었다. 내가 어린 때여서 아버지는 그 이상의 지식은 주지 않았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나에게 녹두장군의 생애와 갑오농민전쟁의 전모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소개하여준 사람은 강양욱 선생이었다.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도였지만 천도교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의 조리있는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나는 갑오농민전쟁과 천도교를 결부시켜 보게 되었다. 동학당란의 처참한 종말과 녹두장군의 비극적인 최후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국정을 도탄속에 몰아넣은 봉건조정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을 두고, 일청 양국의 야심과 내정간섭을 두고 치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동학당란이야말로 근대 우리 나라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역사를 빛나게 장식한 큰 사변이며 이 전쟁이 배출한 용사들이야말로 근대조선민족의 정치생활과 정신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수리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은 내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 점의 불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천도교에 대한 나의 인식은 화성의숙시절에 와서 더 깊어졌다. 의숙에는 천도교 신자들이 많았다. 숙장 최동오선생이 천도교 3세교조 손병희의 제자였다는 것은 그의 자제인 최덕신도 이미 회상하였다. 숙감 강제하와 그의 아들 강병선 역시 독실한 천도교도들이었다. 화성의숙에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와 같은 동학경전들을 뜬금으로 줄줄 외우면서 유식을 뽐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고 천도교 중앙이 발간하는 월간잡지 ≪개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학의 시점에서 본 조선농촌이 어떻소, 이돈화의 문장이 어떻소 하고 역설하는 열성독자들도 있었다.

최동오는 학생들이 ≪공산당선언≫을 읽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동경대전≫이나 ≪개벽≫을 열독하는 것은 장려하였다. 역사선생이 결근할 때마다 숙장은 이따금씩 우리앞에 나타나 대리강의를 하곤 하였는데 그런 경우의 역사수업은 예외없이 동학사강의로 전환되고는 하였다. 선생은 우리 나라 근대역사에 존재하였던 충격적인 모든 사변들과 사실들을 항상 동학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최동오는 천도교 교리로부터 출발하여 국본, 민본, 인본의 삼민주의를 많이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손문이 내놓은 삼민주의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천도교와 관련하여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운 것은 이 교의 창시자이며 1세 교조인 수운 최제우에 대한 소개였다. 선생이 최제우의 경

력과 동학의 창시경위를 소개하고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역점을 찍어 강조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동학을 창제한 최제우 선생을 모두 수운대신사라고 경칭한다. 그런즉 학생들도 ≪최제우≫, ≪최제우≫하지 말고 수운대신사라는 존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동오의 말에 의하면 9세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이 최제우의 먼 조상이였다고 한다.


최덕신

최제우의 부친 최옥도 시재가 특출한 사람이였다. 그가 내놓은 ≪근암문집≫은 당대의 유명한 시집으로 알려져있다.

6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16살 때에 아버지를 여읜 최제우는 스무해 가까이 전국을 방랑하면서 악정, 악폐로 가득차있는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낼 길을 모색하던 끝에 1860년 4월 마침내 우리 나라 근대역사발전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 천도교의 교리를 발표하고 동학의 창시자가 되였다.

최제우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한 것은 ≪서학≫인 천주교에 대치시켜 동방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신앙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최제우가 활동하던 시기는 세도정치와 당쟁으로 그 피해가 말세에 이르고 국력이 극도로 쇠잔해지던 때였다. 봉건적 학정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기근과 홍수까지 겹쳐 사회정치적 혼란은 문자그대로 절정에 이르렀다.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적, 계급적 대립도 극한점에 도달하였다.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왕조의 존립을 제도적으로 받들어온 봉건적인 신분관계는 나라의 중흥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저주로운 질곡으로 되었다. 탐관오리들의 학정과 핍박으로 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허울조차 없는 민권은 통곡하였다.

수백 년을 두고 쇄국을 지켜오고 있는 동방의 조선은 끝없는 치부와 영토팽창에 환장한 열강들이 침을 흘리는 야망의 대상이 되었다. 천주교를 길잡이로 한 구미열강의 촉수는 시시각각으로 조선반도를 노리고 있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전주곡은 사실상 벌써 그 무렵부터 마련된 셈이였다. 그런 때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대의 선각자들이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찾게 되는 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최제우는 바로 그 선각자들의 앞장에서 ≪인내천≫, ≪보국안민≫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는 동학을 창시하고 그 교리를 만방에 전도하기 위한 정열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였다.

≪제군들, 동학을 알려거든 ≪보국안민≫의 구호부터 보라!≫

최동오는 천도교에 대한 선전을 할 때마다 매번 이런 표제를 프랑카드처럼 내들었다.

≪밖으로는 외래침략에 대처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보국≫이고 안으로는 악정에 대처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안민≫인즉 이거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천 도인가. 성주, 자넨 ≪보국안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언제인가 숙장은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보국안민≫을 제창한 것이 천도교라면 나는 그 교를 지 지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심이였다. 공산주의이념이 벌써 우리의 생활에서 주요한 사상적 지주로 되고 있던 때였으나 나는 동학에 대한 지지를 서슴없이 표시하였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편안을 도모하는 것은 지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다 다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였다.

최동오는 입가에 미소를 담고 흐뭇이 나를 바라보았다.

≪≪보국안민≫을 반대하면야 조선사람이 아니지. 공산당이 부르짖는 세계혁명의 구호도 좋겠지만 이 ≪보국안민≫이야말로 우리 나라와 배달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 구호인가. 확실히 수운대사님은 영험한 분이야.≫

천도교에 대한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지식은 실천과 결부되지 못한 협소하고 생경한 것이였으며 아직 범속하고 단편적인 것이였다.

내가 동학을 실천과 결부시키면서 주의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길림시절부터였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은 이미 역사에 의해 부정된 주의주장이나 해석을 대체로 멀리하는 것이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과거의 이념이나 운동 그 자체를 허무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성이론이나 남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거기에서 좋은 것은 허심하게 섭취하였다.



개벽 창간호

카륜회의를 전후한 시기 우리의 혁명실천에서는 통일전선문제가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상정되었다. 어떤 세력을 포섭하고 어떤 세력을 배척하여 어떤 세력을 고립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도처에서 제기되어 무시로 복잡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었다. 통일전선대상이 논의될 때마다 종교문제는 민족자본가문제와 함께 매번 무시할 수 없는 중심화제를 이루곤 하였다.

천도교는 기독교와 함께 내가 가장 중시해온 종교의 하나였다. 천도교가 우리의 주시대상이 되고 그 교도들의 활동이 우리의 관심사로 된 것은 그것이 조선의 민족종교로서 이념이나 실천활동에서 시종일관 애국애민을 지향해왔다는 것과 포교의 범위가 대단히 방대하며 침투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자본론≫과 마찬가지로 ≪동경대전≫도 파고들 재미는 있지만 독파하기가 힘든 난해한 글이였다. 우주자연현상과 사물현상을 신비하고 오묘하게 서술한 최제우의 글에는 알듯하면서도 잘 알 수 없거나 보일듯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 아리숭한 데가 있었다. 해방 후 천도교 중앙에서 간부로 활동한 김달현도 수운대신사의 글이 난해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김달현은 그 글이 유인석의 격문만치만 헐해도 동학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 수십만의 교도들을 더 끌어들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천도교를 이해하는데서 우리의 안내자로 된 것은 잡지 ≪개벽≫이였다. ≪개벽≫이라는 제명은 천도교의 주요교리인 ≪후천개벽≫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다. ≪개벽≫은 창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십 호를 발행하는 전기간 종합적인 정치시사잡지로서의 체모를 잃지 않고 민족의 계몽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잡지였지만 사회주의 이념을 소개하는 글도 실었다. 당시로서는 독자들의 인기를 많이 끈 참신하고 혁신적인 대중잡지였다.

천도교 청년당조직이 조선의 북부지역과 함께 멀리 동만, 남만과 북만의 하얼빈 일대에까지 그 지부를 늘이고 있는 때여서 ≪개벽≫은 만주영내에도 많은 독자들을 두고 있었다.

나는 ≪개벽≫에서 길림시절에 내가 잘 알고 있던 논적인 신일용의 글도 보았다. 그는 1920년대 중기의 농촌문제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다. 신일용이 잡지에 발표한 ≪농촌문제의 연구≫라는 논문은 이론적 깊이가 있는 글이였다.

≪개벽≫에는 세계각국의 문물을 소개하는 글들도 많이 실리었다. 그런 글들 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고유수인가 오가자인가에 있을 때 본 ≪남만주행≫이

라는 기행문이다. ≪남만주행≫은 이돈화가 쓴 글인데 만주지방의 자연풍경과 중국사람들의 생활풍습, 무순탄광 노동자들의 참혹한 생활처지와 우리 나라 독립운동자들의 활동형편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그 기행문에 의하면 남만주지방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 땅에 묻지 않고 밖에 놓아두며 나아가 7살이 못된 어린이가 죽으면 거적에 싸서 나무에 매달아놓는 별스러운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개벽≫에 실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들 중에서 독자들의 구미를 제일 강하게 자극한 것은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의 글들이었다. 잡지에는 ≪조선민족만이 가진 우월성≫, ≪고구려 국민의 기상과 노력≫, ≪천혜가 특다한 조선의 지리≫ 등 조선의 역사와 지리, 자연경개와 지방별 특성이며 물산을 자랑하는 글들이 자주 실리었다. ≪8도대표의 8도자랑≫도 바로 그런 글들 중의 하나였다.

≪8도대표의 8도자랑≫이란 조선 8도의 대표들이 저마다 나와서 자기 도의 자랑을 하는 것을 엮은 것이었는데 그 골자는 어느 실학사상가가 평하였던 8도사람들의 기질평가에서 취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평안도사람들의 기질을 ≪맹호출림≫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상은 ≪수풀에서 나오는 범≫ 같으나 뒤가 조금도 없는 평안도 사람이 나와서 자기고장 자랑을 하는가 하면 ≪이전투구≫, 다시말하여 ≪진창에서 싸우는 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미를 가진 함경도의 ≪조얄개≫라는 사람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바로 함경도에 있다는 것으로 운을 슬쩍 떼고는 입에 침이 마르게 자기 도의 자랑을 늘어놓는 등 8도 사람들의 특징을 어찌나도 방불하게 그려냈던지 글을 읽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8도자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을 통하여 알아본데 의하면 ≪8도대표의 8도자랑≫은 1925년 7월호에 게재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 그 잡지를 구해다가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았다. 반세기 이전에도 느낀 바이지만 역시 재미나게 쓴 글이었다.

≪개벽≫에 실린 인기기사들 가운데는 ≪외국인이 본 조선의 인상≫이라는 글도 있다. 그 글은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인상은 ≪재예는 세계제일≫, ≪3대 감탄≫, ≪예의가 천하제일≫, ≪조선의 4대미≫, ≪조선에 대한 7대 신조≫, ≪자연미 인정미≫, ≪조선인의 인상≫과 같은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기록하였다. 외국인의 시점에서 본 조선을 조선사람의 시점에서 다시 음미해보는 것은 참으로 흐뭇하고 유쾌한 일이었다.

≪개벽≫ 잡지는 조선인이 본 조선의 자랑을 두고 ≪순량성은 천하제일≫, ≪건강상으로 우월점≫, ≪윤리도덕 무비류≫, ≪장래세계모범민≫, ≪잔인포악이 없는 조선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동학당과 중국의 국민당≫이라는 글도 독자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필자는 동양천지에서 사회를 혁신할 대의를 품고 분투하는 집단으로는 중국의 국민당과 조선의 동학당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제우가 손중산보다 40여년 전에 벌써 동학을 창제한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였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개벽≫의 필자들 중에서 글을 그중 많이 쓴 사람은 천도교 중앙의 편집과 주임이며 ≪개



개벽

벽≫의 편집인인 이돈화였다고 생각된다. 이돈화의 호는 야뢰였다. 그는 동학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재능있는 이론가였다. ≪인내천 요의≫, ≪신인철학≫, ≪수운심법강의≫, ≪천도교 창건사≫ 등의 저서들을 통하여 그가 포교활동에서 이룩한 공적인 천도교 역사에서 응당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벽≫의 독자가 된 다음부터 이돈화에 대하여 은근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야뢰선생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소개를 해준 사람은 박인진이었다. 그도 야뢰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박인진은 심지어 나에게 이돈화와의 회견까지 권고하였다. 그러나 산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던 나로서는 서울에 있는 그를 만나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해방 후 그가 양덕에 살면서 천도교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짬을 내지 못하여 종시 그를 만나볼 수 없었다. 다만 천도교 청우당위원장인 김달현을 통하여 이따금씩 그의 활동과 관련된 토막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돈화

이돈화의 최후에 대해서는 김달현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이 후에 통보해온데 의하면 그는 1950년 가을에 북상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자강도 지역까지 후퇴해 갔으며 거기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미국비행기폭격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돈화와 같은 재사를 잃은 것은 그를 아껴온 ≪개벽≫의 옛 독자들과 천도교들에게 있어서 애석하고 가슴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돈화는 정치적 견해로 볼 때 소장파 혁신세력에 속하지 않는 보수적인 온건파였던 것 같다. 그러나 민족성의 고수, 민족적인 체면의 유지, 도덕적인 자아완성을 주장한 그의 글들로 보아 그는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 깨끗하고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강병선과 함께 ≪개벽≫에 실린 글들을 읽고 독후감을 자주 나누었으며 동학의 지위와 교리에 대한 문제를 걸고 투쟁도 하고는 하였다. 강병선은 ≪ㅌ·ㄷ≫성원들 가운데서 천도교에 제일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공산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면서도 자기가 숭상하던 동학사상과 천도교 조직에 상당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강병선의 고향인 창성과 의주, 벽동, 삭주 지방에는 천도교도들이 많았다. 강제하, 최동오, 공영 등은 모두 그 평북도지방의 천도교 사회에서 주역을 담당한 애국지사들이었다. 강병선은 천도교줄을 타고 1930년대 후반기 평안북도 지방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많이 늘이었다.

천도교 소장파 혁신세력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그도 처음에는 동학당란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서 천도교가 논 역할을 거의 절대시하면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제기되는 모든 대소사가 천도교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천도교 문제를 놓고 우리들 사이에 벌어진 주되는 논쟁점은 이것이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봉건을 반대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동학이 쌓은 공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 동학의 민족성과 애국애민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의거해야만 만사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강병선 자신도 그 후 실천투쟁을 통하여 천도교 만능의 관점을 극복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장울화와 함께 무송에서 지하활동에 헌신하던 그는 1930년대 후반기 북만에서 우리의 정치공작원으로 활약하다가 경찰에 피검되어 감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었다.

동학도들이 주장한 ≪인내천≫의 사상은 사람을 하늘에 비기며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이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 자체를 신적 존재로 보는 것으로 하여 이론적 불합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나 그것을 계승한 2세, 3세 교조들은 천도교가 유교, 불교, 선교의 3교 종합, 다시말하면 여러 종교를 유기적으로 합일한 최후의 진리이며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천주교와 같은 이단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천도교 경전

천도교의 이론가들은 그 후 선배들이 주장한 단순한 3교 종합설을 한걸음 전진시켜 민족종교로서 동학이 가지고 있은 고유한 특성과 독창성을 자랑하였다.

천도교의 어느 한 혁신파이론가는 천도교교리의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과거의 모든 종교들의 이러저러한 교리, 예컨대 불교의 적멸설, 선교의 현묘설, 기독교의 천당설, 유교의 천명설과 기타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적 가면을 모두 부인하고 사람이 곧 부처이고 선이고 신이고 하늘이다, 따라서 사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신인일체≫, ≪인내천≫을 설파하였다.

≪신인일체≫, ≪인내천≫, 곧 사람이 ≪한울님≫이라는 이것이 바로 동학의 기본사상이다.

천도교에서는 ≪한울≫ 즉 우주전체가 ≪지기≫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한 기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으로서 자연도 사람도 신도 모두 ≪지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지기≫를 세계의 시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동학의 ≪지기설≫은 모든 물체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영혼설의 일종으로서 범심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지기설≫에 기초하여 천도교에서는 인간도 살았거나 죽었거나 ≪한울≫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사람은 세상만물 중 가장 으뜸가는 영혼을 지닌 특수체라는 것이다.

영혼설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의식과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배밑에 그 어떤 숙명적인 삶의 궤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혼설은 불가불 숙명론에 떨어진다. 숙명론으로부터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지론이 나올 수 없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도 도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학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전망도 사회발전법칙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목표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비폭력적인 투쟁으로 온 세상에 덕을 펴나가느라면 모든 인간이 신선처럼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마침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신선화는 사람마다 일상적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반성과 자각을 거듭하여 양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내천≫의 사상은 유물론에 기초하지 못하고 유신론에 기초한 사상이었다.

천도교는 그 계급적 제한성과 이론적, 실천적 미숙성으로 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이것이 동학만능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주되는 논거였다.

우리는 천도교를 이러한 관점으로 대하면서도 좋은 측면을 보다 중시하였으며 천도교가 이념상에서나 실천상에서나 통일전선의 대로에서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천도교는 지상천국건설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 과거의 종교가 이 세상을 괴로운 것으로 보고 견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면 천도교는 이 세상을 개벽하여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천도교는 ≪후천개벽≫을 교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간주하고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으로 불리우는 3대개벽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손병희

천도교는 순수 신앙으로부터 내세의 행복, 사후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와 윤리적 수양과 지식의 섭취를 교화의 기본으로 삼고 현세적 실천도덕을 중시하면서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유교와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다 부처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비를 기본종지로 하는 불교와도 구별된다고 동학의 이론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적인 불교에 비해 기독교가 보다 동적이라고 한다면 천도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동적인 종교이며 불교가 이성적 경향이 많고 기독교가 감성적 측면이 많다면 천도교는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교리에서 하늘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람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과 다른 종교들에서처럼 하늘이나 신의 초자연성과 초인간성을 운운하면서 봉건사회제도나 봉건적 신분제도를 하늘이 정한 질서라고 설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놓고 천도교가 인간의 존중과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종교로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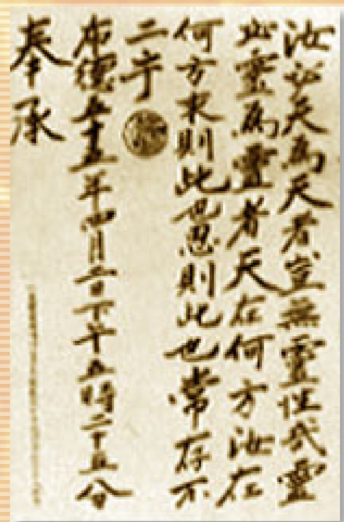
물론 나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세워나가면서 기성의 이러저러한 이론과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민족종교로서의 천도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긍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혁명이 처하고 있는 환경, 선행운동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인 전통과 계급역량관계를 충분히 타산한 과학적 기초 위에서 주체학설을 세우고 우리 혁명의 진로를 탐색하였으며 그에 부합되는 전략전술을 작성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어떤 하늘의 도움이나 천명에 따라 혁명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우리 인민자신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싸워야 한다는 이론적 대의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

천도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보다 많은 논의를 한 것은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이후시기였다. 특히 박인진도정의 우리 밀영방문을 전후로 하여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속에서는 동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박인진이 밀영에 다녀간 후 천도교도들과의 통일전선방침을 더욱 확신성있게 밀고나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천도교는 자기의 종교적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독립과 국민주권의 확립으로 민생의 안전을 기하는 ≪보국안민≫을 이루는 동시에 나아가서 세계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으로 평화로운 세계, 지상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3세 교조 손병희의 필적

천국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떨쳐나섰다.

동학은 그 주의주장의 애국애민성과 강한 저항정신으로 하여 광범한 천민대중과 몰락양반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 동학사상의 전파확산은 귀천의 차별을 절대화한 봉건유교사상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였고 봉건적 특권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였다. 이 때문에 동학의 창시자인 1세 교조 최제우는 1864년 3월 좌도란정(도를 어기고 정치를 문란케 한다)의 죄를 쓰고 대구에서 처형되였으며 이조봉건정부의 혹심한 탄압과 추적속에서도 비밀리에 동학의 보급과 조직의 확대에 진력하였고 갑오농민전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던 2세 교조 최시형도 서울에서 사형당하였다.



체포되어 압송되는 전봉준

동학을 창시자의 본의대로 천도교로 명명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그 발기자의 한 사람으로 되었던 3세 교조 손병희도 일제교형리들로부터 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역대 교조들의 생애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천도교는 시발은 물론, 발전과정도 철저히 애국적이고 애민적이였다.

천도교 사회에서 동학 제1혁명이라고 부르는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후반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렬성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루는 농민전쟁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천도교 상층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그의 지령에 따라 발발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패무능한 봉건특권층의 전횡, 야수적인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의 폭동이였고 반정부농민전쟁이였다.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밑에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은 동학 상층부와는 무관계하게 전봉준을 위시한 농민폭동 지도자들에 의하여 개시되였다. 폭동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동학조직을 이용하여 각 지방의 동학포조직과의 연계밑에 고부농민폭동(고부민란)을 전면적인 농민전쟁으로 확대발전시켰다.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아시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 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시아 3대 항전으로 특기할만한 것이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일청 양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비록 실패하였으나 각지로 흩어진 농민군은 그 후 반일의병운동의 주력으로 되어 구국항전을 계속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은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 큰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동양과 세계정치정세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동학혁명의 의의를 세계적인 판도에서 고찰한 우리 나라의 한 역사가는 20세기에 이르러 세계를 대동란속에 몰아넣은 모든 세계사적 사변의 시발이 바로 조선땅에서 일어났던 동학혁명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쓰기를 조선동학당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청일 양군간의 전쟁은 없었을 것이며 청일전쟁에서 만약 청나라가 승리하였더라면 러시아의 만주침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러시아의 만주침입이 없었더라면 러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배가 없었더라면 오홍(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발칸반도에로 날개를 펼 수 없었을 것이며 오홍제국의 보스니아와 헤르쩨고비나 병합이 없었더라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제1차 세계

대전이 없었을 것이며 또 세계대전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러시아의 로바노브황제의 전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적색 러시아의 출산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 동학당이여, 너는 간접적으로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되며 노농러시아의 산모이다라고 하였다.

동학사상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동방근대화의 첫걸음을 이렇게 동학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1 운동 때에도 천도교 세력은 큰 역할을 하였다. 3.1 인민봉기의 주력군은 물론 광범한 노농대중과 청년학생, 지식인 계층이었다. 하지만 그 봉기를 발단시켰던 민족대표들 가운데 기독교도, 불교도들과 함께 천도교인이 들어가 있었으며 당초의 발기를 천도교 측에서 하였다는 사실과 300만이나 되는 전국 천도교도들의 과반수가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던 사실들은 그 반일투쟁에서 천도교측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천도교의 투철한 저항정신은 우리가 그와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게 한 주되는 요인의 하나였다.

천도교는 조선의 토착종교로서 그 이념과 주장이 참신하고 저항정신이 강한 것과 함께 교의 예의법식이 단순하며 운영방법이 매우 소박한 평민성을 가지고 있었다.

공화국 내각의 초대체신상이었던 김정주는 동학이 소박한 민족종교라는데 대해서 늘 자랑하였다. 우리가 항일유격대를 조직할 무렵에 입도하여 왕년에 천도교청년당 중앙집행위원으로까지 발탁되었던 그는 자기 교의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정주는 풍채가 좋은 천도교인이었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우스개소리를 잘하였다.

≪수상님, 하루종일 집무를 보시느라고 머리도 아프시겠는데 이제는 저의 고담이나 들으시면서 피곤을 푸십시오.≫

내 집무실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꼭지를 떼고 한참씩 고담을 늘어놓았다. 그가 한번은 명절날에 나한테 왔다가 천도교 자랑을 한바탕하였다.

≪우리 천도교에서는 구수한 토장국 냄새가 나지요.≫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토장국 냄새라고 하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청수봉전≫한 가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청수봉전≫을 할 때 앉음새를 통제하지 않는데 올방자를 틀어도 좋고 두 무릎을 곤두세워도 좋고 두 정갱이를 모로 눕혀도 좋다고 하는 자유는 다른 교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나는 김달현과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왜정시대에 천도교 조직에서 활동할 때 체험한 일화들을 자주 회상하였다. 상담회수가 잦아짐에 따라 나와 그 사이에는 수상과 천도교청우당당수라는 실무적 개념을 떠난 인간적 유대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한 번은 그가 밤 12시가 지나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청사로 찾아와 나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내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을 때였으니 아마 1946년의 일이었던 것 같다.

자정도 넘은 심야에 그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고 나는 어지간히 놀랐다. 혹시 나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될 어떤 비상사건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조차 들었다.

그런데 김달현은 뜻밖에도 공식적인 사업문제와는 인연이 먼 기상천외한 청탁으로써 나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이 늙은 것이 체신머리없다고 나무람 마십시오. 이거 너무 외람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산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을 좀 구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는 집무실에 들어온 다음에도 용건을 선뜻 꺼내지 못하고 쭈밋쭈밋하다가 용기를 가다듬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나서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내 얼굴을 면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이 위원장 노인이 왜 이럴까 하고 유심히 바라보니 귀뿌리가 어느새 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선생이 늘 건강자랑을 하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되어 보약을 갑자기 찾으십니까?≫

나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친절하게 물었다.

≪사실은 여편네를 휘어잡지 못해서 그럽니다. 얼마전에 젊은 여자를 골라 재취하였는데 여간 천대가 심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줍시다. 부인이 선생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합시다.≫

김달현은 그 말을 듣고 희색이 만면해서 나의 집무실을 나갔다.

나는 산삼과 녹용을 구해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한해가 지나서 김달현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덕으로 70나이에 제 생남을 했습니다. 글쎄 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애의 백일잔치에 장군님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그것 참 대단한 경사입니다. 세월이 좋으니 그런 경사도 생기지 않습니까. 초청을 쾌히 수락합니다. 부인에게 생남을 축하한다는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김달현은 이번에도 싱글벙글하면서 집무실을 나섰다.

나는 약속대로 백일잔치에 김달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들어와서 장군님 덕분에 우리 집안에는 꽃이 폈습니다 하고 절을 하였다. 그 여자는 그 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온밤 싱글벙글하면서 손님대접을 하였다.

전쟁 때 나는 김달현을 자강도 별오에서 만났다. 우리는 국수를 먹으면서 천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달현은 이날 성미는 천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법도라고 하면서 성미가 바로 교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정적 원천으로 된다고 하였다.

사실 최린 등 몇몇 인물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역대 천도교지도자들은 모두 사리나 공명과는 담을 쌓고 살았으며 생활도 검박하게 하였다. 그들은 늘 재원의 부족으로 고충을 겪었다. 생활비를 받지 않고 교를 운영해나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천도교에서는 교를 운영하는 교직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조선의 천도교인들은 한때 개벽사의 인쇄공장 자리에 극장을 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교의 재정을 충당했다고 한다. 중앙대교당에 설치한 두 개의 결혼식장도 재정을 보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사용비를 받았다고 한다. 좀 궁색한 노릇이긴 하지만 재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도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게 된 보다 주요한 이유는 그 상층의 우유부단이나 기회주의와는 관계없이 절대다수의 교인들이 반일적이며 애국적이라는 측면과 계급구성에서 빈천자들, 가난한 농민들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원래 천도교는 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농민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념도 농민적인 것이었다. 자본주의적인 발달이 미미한 단계에 있었고 현대적 노동계급의 부대가 전혀 없었던 당시의 우리 나라 실정에서 동학운동이 농민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게 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학운동은 농민만을 위한 운

동이 아니였다. 그것은 도시빈민들과 소상인들을 포함한 모든 빈천자들의 지향과 이해관계를 대변한 광폭적인 대중운동이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강렬하게 지향한 거족적인 반침략애국운동이였다.

3.1 운동에서 실패한 후 천도교 상층은 투쟁정신을 상실하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미미한 포교활동과 이론활동을 벌이는데 머물렀으며 그 일부 상층들, 례컨대 최린 같은 사람은 3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온 다음부터 친일파로 전락되였다.

그러나 상층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하층은 일제강점하의 엄혹한 조건에서도 천도교의 애국적 전통을 이어나가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도교와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기초였다.

천도교의 운동을 나라의 다른 혁명역량과 연결시키며 국제혁명과의 제휴를 모색하여 동분서주하던 이 운동의 혁신적 지도자들은 천도교를 ≪빈천민중의 충복≫, ≪이규모 동질성의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제당과의 연계를 희망하였다.

1925년 10월말에 조선농민사 이사회의 명의로 이돈화가 적색농민인터나쇼날에 가맹청원을 낸 사실은 그에 대한 하나의 례증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농민사라는 것은 1925년 10월 서울에서 창립된 천도교 청년당 산하의 농민조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러시아에서의 노농정권의 수립 그리고 3.1 인민봉기에 뒤따르는 내외정세의 발전속에서 1919년 9월 천도교 교리의 연구, 선전과 조선신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천도교 청년들인 이돈화, 정도준, 박내홍 등은 천도교 청년교리강연부를 창립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운동적 색채를 띤 청년단체를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얼마 후 천도교청년회로 개칭되였다. 청년회는 자기 산하에 언론기관으로 개벽사를 설립하여 1920년부터 정치시사잡지 ≪개벽≫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년부를 조직하고 조선어린이들의 정서를 높이고 윤리적 대우와 사회적 지위를 인내천 주의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였다.

이 천도교청년회는 1923년 천도교청년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는데 ≪후천개벽≫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천도교의 전위조직으로 되였다.

이 당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부와 군에 지방부, 면과 동에 접이라는 말단조직을 꾸리는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당세확장 3개년계획을 내걸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여 짧은 기간에 많은 빈천자 청년들로 대열을 확대하였다. 천도교 청년당은 특히 동학당란의 피해를 받지 않은 례성강 이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교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935년도에 간행된 천도교 청년당사에 의하면 그 당시 당지방부는 국내외를 합하여 100여개소나 있었다고 한다. 그 중 북선지역이 70프로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평안도가 40개소로서 제일 많았다. 사실상 그때 지금의 자강도와 평양시, 남포시까지를 포괄하는 어제날의 평안도지역에는 그 어느 군이나 할 것 없이 천도교 청년당지방부가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천도교 세력의 압도적 다수가 북선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천도교와의 통일전선을 중시하게 된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천도교 혁신세력도 3.1운동이후 세계대세를 타고 교파세력을 확장하여 반일애국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천도교 3세 교조 손병희가 서거한 다음 1922년 7월 천도교의 소장파 혁신세력은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천도교역량의 재수습, 재편성에 노력하면서 연해주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와 국내에서의 활동을 적극화해나갔다. 고려혁명위원회는

그 후 비밀지하혁명조직인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로 재조직되였다.

천도교 비상혁명최고위원회의 활동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쏘비에트러시아정부와 국제당을 상대로 천도교 혁명활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그들은 시베리아의 치따부근에 있는 3개의 금광구역을 이용하여 역부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2년안에 1,000명 정도의 군사를 키우며 나아가서는 15개 혼성여단의 고려국민혁명군을 창설하려고 계획하였다고 한다.

천도교의 비밀조직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농쏘비에트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줄 것을 호소하였다.

천도교 혁신세력이 1924년초 원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쏘비에트러시아와 국제당 인물들을 상대로 벌인 외교활동의 일단을 보여주는 고문서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때 최동희는 가다야마 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제당이 조선혁명, 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묻고 조선혁명을 편견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천도교는 조선에서의 혁명발발시에 동으로는 일본의 사회혁명세력, 북으로는 쏘비에트러시아 및 국제공산당의 깊고 밀접한 연계를 취하여 조선, 일본, 러시아가 삼각형으로 연쇄적 활동을 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천도교 혁신세력은 수구파의 저해와 증오를 받으면서도 국제혁명과의 제휴속에 무력항쟁을 벌여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천도교 혁신세력은 동학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 애국애민의 열정과 울분을 그대로 반일투쟁에 바쳐보려고 어지간히 모대기었으나 실은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게다가 3.1 운동 실패 후 천도교 내부에서 급진파와 온건파간의 심한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또 일제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조건에서 급진파가 분열을 방지한다는 명분밑에 타협한 것으로 해서 천도교 혁신세력은 거세되고 반일운동은 모종의 개량운동으로 점차 퇴화한 것 같다. 상층이 민족개량주의에로 굴러떨어지고 노골적인 친일에로 기울어지는 조건에서 천도교는 혁명성과 시운을 점차 잃게 되었다.

그러나 천도교의 지방조직과 그에 속해있는 절대다수의 교도들과 청년당원들은 이러저러한 합법, 비합법 조직들을 뭇고 일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여러 갈래의 투쟁을 벌였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똑똑한 투쟁방략이 없었고 그들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이끌어줄만한 지도역량이 없는 것이였다.


가다야마 센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백두산으로 나왔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표하였다.

수백만 천도교도들은 우리의 10대 강령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들은 오매불망 바라던 새날의 계명성이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울려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였다. 이렇듯 천도교가 우리와의 통일전선에 응해나서고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광범히 망라되게 된 것은 천도교에 대한 공명정대한 평가와 폭넓은 이해에 기초한 우리자체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애국애족, 반외세를 이념으로 삼는 천도교조직 자체발전의 역사적 필연이며 합법칙적인 귀결이였다.

이념과 종지, 주의주장에서 물론 일정한 차이가 있고 운동의 출발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대의에서 서로 손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때 민족을 떠난 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급적 이익과 함께 언제나 민족적 이익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였다.

바로 이러한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는 지난날 반공일선에 서있었던 최덕신과도 손쉽게 화해할 수 있었다.

나와 최덕신은 70살이 지나서 서로 만났지만 지난날의 숙적이라는 관념은 조금도 없이 최동오 선생 슬하에서 애국의 넋을 키우던 그런 심정으로 해후도 감격적으로 하였고 공산주의와 천도교라는 이념차이를 훨씬 초월하여 한 민족, 한 혈육으로서 대화도 친밀하고 따뜻하게 나누었다.

얼마전에 나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공포하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와서 박인진과의 제휴를 성사시키던 1930년대에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광복이 지상의 대과제였다면 20세기가 다 저물어가는 오늘은 분단조국을 통일조국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의 종지로, 이상으로 되고 있다. 외세를 박멸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우리의 투쟁이 일찍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들었던 동학도 천도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은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동학농민운동

분단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벌써 반세기 가까이 갖은 수난을 다 겪고 있다. 이것이 민족자체의 잘못에 의한 자율의 비극이 아니고 외세의 강요로 인한 타율적인 수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찌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통일과 민족자강, 민족대단결을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지금 조선의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애국적인 천도교도, 기독교도, 불교도들이 하나같이 외세에 의한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겨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우리가 20여성상 만주광야와 백두대지에서 무장항일을 해온 것도 결국은 일신의 안일이나 영달,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기 위한 것이였다.

민족위에 신이 없고 민족위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 이익이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의 한결같은 종지이며 날과 더불어 더욱더 절감하는 현실이다.

나는 지금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해 한 생을 바쳐 싸운 그 목적과 이상이 실현되고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세세년년 복락한다면 그것이 바로 동학열사들이 바라던 그런 세상, 그런 지상천국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민족의 얼이 맥맥히 살아 숨쉬는 동학이념, 천도교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자랑이다. 애국과 애족, 애민에 바쳐진 천도교 선열들의 애국충정은 민족사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6.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인민의 지지를 떠난 군대가 결코 강군으로 될 수 없으며 싸움에서 승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은 항일혁명의 전 기간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진리이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해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호가 바로 ≪옹군애민≫이였다. ≪옹군애민≫이란 인민은 군대를 옹호하고 군대는 인민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싸울 때 인민들의 지지성원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였던가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동서고금의 유격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옹군열의와 원군기풍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옹군의 주체가 되고 원군의 담당자가 되여 시종일관 인민혁명군을 결사적으로 지지성원하게 하였는가?

그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군대의 인민적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군대,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이니 그런 군대를 인민이 따르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성과 사명이 인민적이라고 하여 인민이 모든 군대를 다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후원하는 것은 아니다. 간판에 ≪인민≫자가 있어도 행실이 좋지 않고 군풍이 문란하면 인민은 그런 군대를 곱게 보지 않는다.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대하며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군대만이 인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군풍에서 핵을 이룬 것은 철저한 애민성이였다. 인민혁명군의 매개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인민에게서 찾았다. 그들은 인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존재하고 인민이 행복해야 자기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민의 기쁨이 곧 자기들의 기쁨으로 되고 인민의 슬픔이 곧 자기들의 슬픔으로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인민을 떠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였다. 인민을 떠나서는 우리 유격대가 그 존재를 유지해나갈 수도 없었다.

우리는 유격전쟁을 개시한 첫날부터 인민의 품을 우리 삶의 보금자리로 여겨왔고 인민의 지지성원을 우리 삶의 젖줄기로 여겨왔다.

워낙 우리 유격대의 모체자체가 인민이다. 우리들의 부모도 다름아닌 인민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보호자도 다름아닌 인민이였다.

그러므로 군민일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어있었다.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며 또 인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승패문제이기 전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하는 존망문제였다. 우리가 만일 이 점을 중시하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곧잘 묘사하던 ≪창해일속≫과 같이 미미한 존재가 되어 이리저리 밀리다가 지리멸렬되였을 것이다.

우리는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군민관계나 관병관계, 부대의 일상생활에서 혁

명군대의 규범과 행동준칙으로 될 수 있는 사상을 새롭게 성문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었다. 그래서 작성공포한 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였다.

조례작성의 기본목적은 우리 혁명군의 인민적 성격을 강화하고 애민성을 법화하여 그것을 튼튼히 유지하려는데 있었다.

인민혁명군은 물론 정규군은 아니었으나 그에 못지 않은 무력과 정연한 군사편제를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대원들을 지휘관들의 명령, 지시나 관습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1930년대 중기는 적들이 서간도에서 집단부락건설을 다그치고 인민혁명군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비민분리≫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유격대와 인민사이에 쐐기를 박고 유격대의 생명선으로 되고 있는 원군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인민혁명군의 영상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일, 혁명군을 군사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하였다.

우리 군대가 비적의 행실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고 자기네 군대하고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도덕적인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혁명군을 가리켜 ≪비적≫이라고 헐뜯는 거기에 바로 적들의 간교성이 있었고 우리 군대의 정치도덕적 권위를 허물어버리려는 그들의 본심이 있었다.

우리가 군민일치를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적들은 ≪비민분리≫를 집요하게 꾀하였다.

일제는 마적단이 저지른 죄행까지도 우리한테 넘겨씌우면서 우리 인민혁명군의 인민적 성격을 깎아내리려고 하였다. 적들의 악선전으로 인해 전도된 혁명군의 영상을 원상대로 회복하고 그것을 최상의 높이에로 끌어올리자면 우리 군대의 고유한 인민성을 보다 더 발양시킬 필요가 있었다. 인민성을 고도로 발양시키자면 그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성문화하여 고착시켜야 하였다.

지난날 만주 각지에 할거하던 독립군 단체들도 군민관계에서 좋은 인상도 주었지만 좋지 못한 인상도 또한 적지 않게 남기었다. 인민들이 의병이나 독립군에 대하여 더러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기본원인은 그들이 군민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끼친데 있었다. 어떤 독립군 지휘관들은 정의부의 어느 중대장처럼 인민들한테서 군자금이나 독립운동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품을 모아가지고 개인의 향락을 위해 서슴없이 사취하였다.

일제는 이런 유의 비행까지도 우리 인민혁명군을 비방하고 모독하는데 이용하였다. 독립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다 인민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사취하는 강도무리라고 독립군과 인민혁명군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비난하였다. 적들이 억지로 뒤집어씌운 그런 때를 벗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군대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더 뚜렷이 밝혀야 하였다.

우리가 잠행조례를 내오게 된 다른 하나의 목적은 군대 안에 신입대원이 급격히 늘어난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인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전투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적들은 이것을 알고 전투에서 수세에 빠지게 되면 부락에 들어가 주민가옥의 담벽이나 울타리에 의지해서 저항하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부락이나 주민가옥에 의지하여 싸울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다.

1934년 초여름에 우리 군대가 나자구전투에 앞서 삼도하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에도 그렇게 했다. 적들은 나자구로 진출하는 우리 부대의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그때에도 나는 적들을 우정 삼도하자 밖에 있는 벌판에 끌어내서 치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러는 바람에 적의 유생역량 가운데서 절반가량은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경우를 한두 번만 겪은 것이 아니였다.

인민혁명군은 주민부락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에도 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등대고 절대로 재세를 하지 않았다.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물도 긷고 불도 때고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주었다. 그런 일에서는 사령관도 예외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지휘관들 자신이 대원들의 거울이 되어 실천적 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치도록 교양하였다.


김정필

이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유격대 초창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첫째가는 본분으로, 계율로 삼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백두산지구로 나온 첫 시기에는 일부 신입대원들 속에서 군민관계를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생기고는 하였다.

우리 부대의 신입대원들 가운데는 농촌청년들도 있었고 지난날의 반일부대출신들도 있었으며 위만군에서 넘어온 반변사병들도 있었다. 초보적인 훈련단계도 미처 거치지 못한 그 각이한 출신의 신입대원들속에서는 혁명군의 전통적인 규율과는 상치되는 행위들이 이따금씩 나타나 부대의 위신을 떨구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부대가 19도구 육철포동에 사는 이노인네 집에 잠깐 머물러있을 때였다. 이 노인은 그때 자기 집 가을걷이를 도우러 왔다는 조카벌되는 애된 청년을 우리에게 인사시키였다. 신발과 각반까지 새것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을걷이 차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였다. 그 청년과의 담화가 아주 흥미진진하였다. 무슨 대상이든지 입만 벌이면 한두마디로 특징을 꼬집어서 방불하게 그려내고는 하였는데 말재주가 대단하였다.

청년이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것을 보니 새 각반과 신발이 헌 것으로 바뀌어졌는데 기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으나 청년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였다.

나는 김정필소대장에게 각반과 신발이 바뀐 사연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김정필은 사연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한 위만군 반변사병이 청년을 강박하여 각반과 신발을 바꾸었다는 것과 그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비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소대장의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더라는 것을 격분에 차서 보고하였다.

≪그가 변명하는 말이 군대가 산에서 백성들을 위해 고생하는데 백성들이 군대를 섬기는거야 응당하지 않는가, 위만군에서는 이런 일이 여반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삼도하자전투장

소대장의 보고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날 남의 나라를 강점한 침략군 우두머리들이 점령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간, 약탈과 같은 범죄행위들을 합법화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것을 허용한 실례는 수두룩하다. 일본군은 중일전쟁 시기와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판에 종군위안부들까지 데리고 다니였다. 군민관계를 너절하게 가지는데서는 위만군도 일본군에 짝지지 않았다.

살인, 방화, 약탈을 전업으로 삼는 군대에서 비행에 인이 박힐대로 박힌 병사고 보면 각반이나 신발 같은 물건따위를 바꿈질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혁명군에서는 그런 것이 결코 그냥 스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실수로 될 수 없었다. 애민을 철칙으로 삼고 있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엄중한 위법행위였다.

나는 이노인에게 혁명군을 대표하여 사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님, 우리가 교양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 노엽더라도 불민한 친자식의 실수로 여기고 용서해주십시오.≫

이노인은 펄쩍 뛰면서 내 말을 막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내가 더 송구스럽쉐다. 노상 산에서 싸우는 군대가 신발을 바꿔신으면 바꿔신는 것이지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와 노인 사이에는 더 깊은 친교가 맺어졌다. 우리는 19도구에 갈 때마다 꼭꼭 육철포동에 들려 이노인을 만나서 문안인사를 하곤 하였다.

우리 대원들이 그 마을에 가서 후방물자공작을 많이 하였다. 한번은 그곳에서 닭까지 구해가지고 왔다. 나는 그 닭으로 병약한 위증민에게 닭곰을 해주게 하였다. 그때 그는 병이 도져서 우리 부대에 와있었다. 그런데 닭을 구해가지고 온 대원은 임자가 돈을 받지 않아서 값을 치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누구네 닭인가를 알아보았더니 또 그 이노인이었다. 후방공작경험이 많은 대원이었는데 처사를 썩 잘하지 못하였다.

나는 후방부대에 있는 그 대원의 소대장을 데리고 이노인을 찾아갔다.

마당질을 하고 있은 노인의 일손을 돕다가 소대장을 시켜 ≪닭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미안합니다≫하면서 돈 10원을 내놓게 하였다. 그 당시 닭 한 마리의 시장가격이 1원 50전쯤 되었다. 두 마리의 값이 3원이었지만 노인의 살림에 보탬을 주고싶어 값을 후히 치르게 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이노인의 노여움을 샀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조선사람이 아닙니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 늙은 것한테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님, 받아두십시오. 씨암탉인줄 알았더라면 되돌려드렸겠는데 그만 알지 못하고 써버렸습니다. 봄날에 병아리를 깨울 종자닭을 썼으니 우리가 밑천을 다 거덜낸 셈이 아닙니까.≫

우리는 끝내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노인은 소매끝으로 눈굽을 훔치며 이태전에 당했다는 강탈사건에 대하여 말하였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사슴을 어떤 부자한테 팔았는데 군대들이 소문을 듣고 우르르 쓸어와서 무작정 총대를 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당장 쏴죽이겠다는 바람에 사슴값을 다 털리우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아예 도리질을 하였는데 우리 동무들이 백성을 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이런 군대라면야 무엇인들 아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마침 우리 동무들이 검정닭을 수소문한다는 말이 돌아가서 이런 때 약소하지만 성의를 보여주자고 생각하고 종자닭을 주었다면서 일껏 성의를 표시하느라고 한 것인데 도리어 닭값의 세 배도 넘는 돈을 받고보니 백성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늙은이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우리가 노인의 성의를 너무나 몰라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하지만 인민의 성의를 어김없이 보상하는 혁명군의 전통적인

규범을 어기고 노인의 지성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일부 신입대원들은 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 사심없는 지지성원을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와 생활형편에 대한 심중한 고려가 없이 원군물자들을 경솔하게 처분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1936년 가을에 있은 약수동 소사건이였다.

우리 부대는 그 당시 장백현 19도구 지양개치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식량부족으로 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약수동쪽에 시래기를 주으러 나갔던 신입대원 두 동무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희색이 만면해서 돌아왔다. 사연을 알아본즉 그 소는 유격대원들이 시래기국으로 끼니를 에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약수동 농민들이 보내준 것이였다.

처음에 두 대원은 소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들의 정성이니 제발 받아달라며 억지로 소고삐를 쥐어주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끌고왔다고 하였다.

한쪽에서는 벌써 더운물이 설설 끓고 있었다. 여러 날 낟알구경을 못한 터여서 신입대원들은 물론, 구대원들과 지휘성원들까지도 오래간만에 소고기국을 푸짐히 먹어보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나 역시 대원들이 시래기국을 한 공기씩 마시고 저녁을 굶때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어서 소를 잡으라고 이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슬프게 영각하는 둥글황소의 치장품들을 살펴보며 결심을 달리하였다. 알뜰하게 만든 코뚜레며 붉은 천을 모양있게 감은 소굴레며 누런 퉁방울과 엽전들, 그 모든 것에는 소임자의 극진한 정성이 슴배어있었다. 나는 소를 잡아 한 각씩 떠서 당장 가마에 넣을 기세로 신나게 돌아가는 대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조용히 말하였다.

≪소를 임자에게 돌려보냅시다.≫

소를 끌어온 대원들은 아연하여 나를 쳐다보았다. 다른 신입대원들도 미소를 지우고 낙심천만한 표정이 되었다. 며칠째 시장기와 싸워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나는 한숨을 짓고 있은 신입대원들에게 타일렀다.

우리가 소를 왜 임자에게 돌려주자고 하는가, 그것은 이 소가 농민의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소임자가 자기 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보라! 이 퉁방울은 아마도 그 집에서 몇 대를 두고 소중히 간직해 내려오던 것이 틀림없다, 엽전은 모름지기 그 집 할머니가 시집올 때 속주머니끈에 달아가지고 와서 평생 아끼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소에 대한 애착을 표시하는 것이다, 소를 돌려주어야 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약수동 농민들의 농사문제도 이 소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민들의 지성이라고 하여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임자와 소의 신세를 지곤하던 이웃농민들이 당장 내일부터는 소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소가 날라야 할 짐을 등짐으로 져나르고 소가 갈던 밭을 괭이나 호미로 쪼아 뚜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소를 잡아먹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도 거의 모두 가난한 농민들의 자식이니 땀흘리며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내 말에 가책을 받았는지 소를 끌고온 대원들은 눈물이 글썽해서 자기들이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처벌해 달라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처벌대신 그들을 약수동에 다시 보내어 소를 돌려주게 하였다.

나는 그 당시 신입대원들을 받으면 얼마간 숙식을 같이하였다. 그들과 같이 지내

면서 일정하게 단련을 시킨 다음에야 중대나 연대로 내려보내고는 하였다. 수십 명씩 받아들일 때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지만 서너 명 정도의 적은 인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문 며칠동안이라도 같이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하면 신대원들의 집안형편과 준비정도, 성격, 취미들을 요해할 수 있었고 적합한 교양대책도 세울 수 있었다.

1936년 10월경에 10여명의 목재소 노동자들이 단꺼번에 우리 부대에 들어온 적이 있다. 나는 그 신입대원들 가운데서 나이가 어린 3명의 대원들을 첫날부터 데리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보초를 서고 돌아오는 길에 한 농민의 밭에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강냉이를 오사리채 한 배낭씩 따가지고 왔다. 부대의 식량사정이 어려워 나까지도 맹물로 끼니를 에우기에 강냉이라도 따다가 푸짐히 대접하고 싶었노라고 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대는 위법행위를 하고서도 오히려 사령관을 위해서 부하의 도리를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었다.

나는 사령관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동무들의 성의는 고맙소. 그러나 동무들은 오늘 인민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하였소.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강냉이를 세 배낭씩이나 따왔으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소!≫

≪우리야 조선독립을 위해 고생하는 군대인데 강냉이 세 배낭이 무어겠습니까. 그전에 우리 마을에선 독립군들을 위해 금붙이까지 다 바쳤습니다. 강냉이 몇 이삭때문에 의견을 가지는 농민이 있다면 그건 친일파나 다름없습니다.≫

여무지게 생긴 꼬마대원이 일동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겨끔내기로 제 생각을 한마디씩 내비치는데 그 태도가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아니였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재세를 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변고나 폐단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한시간 이상이나 품을 들여 그들을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설복이 끝난 다음에는 세 신입대원에게 명령하여 따온 강냉이를 전부 농민의 밭머리에 고스란히 가져다놓게 하였다. 중대장 한 사람이 현장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일행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다가 전령병을 앞세우고 강냉이밭으로 찾아갔더니 세 대원이 강냉이 이삭들을 밭머리에 놓고 앉아있었다.

나는 중대장에게 왜 이러고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주인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벌겋게 짓물러있었다. 그때 나는 팔도구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읽은 ≪삼자경≫의 첫 구절 ≪인지초 성본선≫이 생각났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뜻이다. 그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것처럼 인간의 본바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숙영지로 돌아오면서 세 대원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였다. 오늘의 일을 교훈으로 삼고앞으로 인민을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인민을 허술히 대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한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인민의 사랑을 잃는 것이다, 우리가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싸우겠는가.

그들은 그날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말 한마디하지 않았다. 나는 제일 어린 대원

의 손을 잡아쥐고 왜 그렇게 말이 없는가, 혹시 오늘 일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그러는가고 물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군대가 좋은 군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어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유격대원이 되겠노라고 맹세를 다지었다.

혁명군의 체모에 손상을 주는 편향은 비단 군민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두수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속에서는 병력이 많아지게 되자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지시나 떨구면서 병사대중과 잘 어울려 지내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어떤 지휘관들은 이제는 식솔도 수백 명으로 늘어났는데 상하가 직급에 따라 복장도 다르게 하고 침식도 따로 해야지 자칫하다가는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조장되어 대오를 통솔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였다.

새로 제발된 일부 초급지휘관들속에서는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우쭐렁거리는 경향이 종종 나타났다.

1936년 가을 장백지방에서 활동하던 우리 부대가 14도구 부근을 출발하여 밀영 방향으로 야간행군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출발에 앞서 나는 척후대를 임명하고 행군할 때 참고해야 할 문제들을 알려주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야간행군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행동이나 다름없었다.

행군대오가 어떤 산굽이를 돌아가고 있을 때 대열 앞코숭이를 차지한 중대쪽에서 갑자기 담배연기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2중대가 굽인들이를 돌면서 대열후위에 있는 사령부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누군가 날쌔게 담배대를 꼬나문 것이 틀림없었다.

다음날 아침 중대장들을 불러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대원들이 아니라 중대장들인 이두수와 김택환이 자기들이 간밤에 금연지시를 위반한 장본인들이라고 솔직히 자백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담배부터 말아무는 것이 그 두 중대장의 습성이었다.

나는 그들을 엄하게 타일렀다.

≪나는 오늘 여기서 동무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두고 장황하게 연설하지 않겠다. 만일 적들이 간밤에 동무들이 피운 담배불빛을 보았거나 담배연기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불의의 타격을 들이댔더라면 부대는 어쩔뻔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은 항일전쟁은 의지와 규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항일전쟁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려는 혁명적 의지와 남의 나라에 대한 강점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공고화하려는 침략적 야망과의 심각한 대결이다. 우리가 지금 이 대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규율이 적들의 의지와 규율보다 강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정치도덕적으로 적들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열내에 동무들과 같은 의지박약자들이 자꾸 나타나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규율이 해이되고 의지가 약한 군사집단은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기 마련이다.

동무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애연가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의 담배애호

가들은 평대원들속에도 얼마든지 있다. 동무들이 담배를 피울 때에는 그들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한다. 그런데 평대원들 중에는 어제밤에 행군을 하면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동무들이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율을 엄수하는데서는 특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동무들은 특수로 행세하였다. 이런 행실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지휘관들의 특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급이 상급을 믿지 않게 된다. 손해를 보는 것은 관병일치, 옹간애병이다. 동무들의 잘못이 엄중한가 엄중하지 않은가?≫

이두수와 김택환은 엄중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든지 다 받겠다고 하였다.

≪물론 동무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방법이다. 나는 동무들이 같은 결함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경고한다. 이 경고를 처벌로 생각하라.≫

나는 그날 이두수에게 ≪금연단 단장≫의 임무를 주었다.


김택환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대정치위원 김평의 전령병이 또다시 극단적이고도 무규율적인 상하평등을 주장해나섬으로써 대오내의 공기를 흐리게 하였다. 허범준이라는 그 전령병은 나이도 좀 들고 무장투쟁에도 비교적 일찍이 참가한 구대원이였다. 원래는 나의 전령병이였었는데 동작이 너무 굼떠 사령부의 전령병으로는 적합치 못하다고 하면서 김평이 자기 연대로 데려갔다. 김평은 허범준의 후임으로 자기의 전령병인 이권행을 사령부에 보내주었다.

허범준은 김평의 산하로 간 다음부터 이따금씩 지휘관들에게 대답질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켰다. 연대지휘관들이 연락을 보내면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불손하게 구는 때도 있다고 하였다. 지휘관들은 참다 못하여 허범준의 문제를 위에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면 상하간의 우애에 금이 갈 수 있었고 옹간기풍이 사라져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몇 가지 이유와 우리 인민혁명군 안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참작한 기초위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를 작성공포하였다. 그때가 김주현이 백두산에 나와 처음 맞는 설인데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뛰어다닐 때였으니 아마도 1936년말경이였다고 생각된다. 김평이 초안을 만들어 왔는데 잠행조례로서의 맛이 덜 났다. 그래서 15개 조항으로 된 조례초안을 다시 만들었다. 앞으로 보충완성할 것을 전제로 잠행조례라고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에는 우리 혁명군의 성격과 사명, 지휘관, 병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들과 행동준칙들이 자세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주의를 돌린 것은 군민관계와 관병관계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은 잠행조례의 모든 조항에서 우리 혁명군의 인민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본군은 일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이것은 조례의 첫 조항이었다.

우리 인민혁명군의 조직원칙을 규제한 조례의 두 번째 조항에서도 본군은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된 진정한 조선인민의 혁명군대라고 밝히였다.
군민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하였다.

– 본군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관병일치에 대한 조항을 아래와 같았다.

– 본군의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은 옹간애병, 관병일치의 정신에서 군기와 풍기를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잠행조례에는 일제와 그 주구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항일전쟁경비로 충당하며 그 일부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또한 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협동작전을 하려는 부대들과 본군을 동정하려는 나라와 인민들과의 공동전선을 도모한다는 조항도 밝혀져있었다.

이밖에도 잠행조례에는 인민혁명군의 군사편제와 각급 지휘관의 임면에 관한 사령부의 권한이 밝혀있었고 입대자격과 입대 및 탈대 절차, 처벌대상에 관한 범위가 규정되어있었다.

잠행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깃발과 휘장, 군모의 별도 규정되어있었다.

잠행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인민의 이익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군민의 하나로 되고 관병이 하나가 되어 자력갱생, 간고분투와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인민이 학수고대하는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우리 힘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잠행조례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정신은 사랑이었다. 다시말하여 인민에 대한 사랑, 병사들에 대한 사랑, 지휘관들에 대한 사랑을 철칙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군민일치나 관병일치는 규정과 원칙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감정의 일치성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자면 군대와 인민, 지휘관과 병사, 상급과 하급 사이에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인간적인 정이 동시에 통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서로 사랑하고 친근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인간적인 정이야말로 사상을 공고하게 결합시켜주는 강력한 접착제로 된다.

그러고보면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는 그 누구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규칙이나 법문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를 뜨거운 정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법전, 사랑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를 작성하여 공포한 후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잠행조례가 공포된 후부터 군민관계, 관병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뜨거운 혈연적 관계로 더욱더 튼튼히 밀착되었다.

우리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아사, 동사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민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 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없는 정황에서 감자 몇 알이라도 파갈 때에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본값의 몇배에 해당되는 돈을 밭머리나 감자움에 남기곤 하였다.

일단 주민부락에 들어가면 인민들을 도와줄 궁리부터 하였지 대접받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우리 부대가 장백현 20도구의 어느 마을에 체류하고 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때도 나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보이는 자그마한 초가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그 집에서는 육순이 지난 노인내외가 어린 손자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고 있었다. 아들은 떼를 몰다가 비명에 죽고 며느리는 장질부사를 앓다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장정노력이 없는 그 집의 초가이영은 다 고삭아서 천정으로는 비가 새들고 토방은 무너져서 사람사는 집 같지 않게 어수선하였다. 나는 첫날 전령병들과 같이 마을 뒷산에서 새초를 여라문단 베어다가 이영도 갈아주고 토방도 고쳐 쌓아주었다.

그날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였다. 나는 갑자기 닭이 홰를 치는 소리를 듣고 혹시 족제비가 닭을 물어가지 않는가 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주인집 노인이 광솔불을 켜 들고 있은 노친의 도움을 받으며 닭장안에서 닭을 붙잡아내고 있었다. 내가 노인더러 이 밤중에 닭을 왜 끄집어내는가고 하자 노인은 요긴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였다. 그 집 닭장에는 닭이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노인은 그 중에서 두 마리를 꺼내었다. 한 마리는 수탉이었고 한 마리는 살찐 암탉이었다. 우리는 이날 낮에 그 암탉이 알을 낳고 둥우리에서 내려와 한참 꼬꼬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집 노인은 노끈으로 닭의 두 다리를 동여매더니 암탉은 부엌에 집어넣고 수탉은 옆구리에 끼고 사립문밖으로 나갔다. 무엇때문인지 안노인도 그를 따라나갔다. 그렇게 나간 다음에는 두세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토방에 나앉아 집주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노인내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타났는데 옆에 끼고 나갔던 수탉을 그대로 가지고 아주 낙심한 기색으로 돌아왔다.

≪노인님, 어디 가셨다가 인제야 오십니까?≫

≪말말게. 온 동네 쉬나문집을 다 돌고 오는 길일세.≫

영감이 수탉을 토방에 내려놓으며 하는 소리였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무슨 일이 생겼기에 내외분이 밤중에 그런 수고를 하는가고 물었다.

≪임자네 대장의 성함이 **김일성**이란 말을 들었네. 그래 이때까지 그분이 숙식하는 집을 찾다가 종시 못찾고 돌아오는 길일세.≫

≪그 집은 왜 찾자고 하십니까?≫

≪임자네들의 기특한 소행을 대장께 여쭈고 우리 영감노친이 큰절을 올리자고 했네. 임자네들의 신세를 지구 우리가 가만 앉아있어서야 되겠나. 약소한대루 대장께 닭이라도 한 마리 대접하자구 했더니 글쎄 ≫

노인이 맨처음으로 찾은 집은 웃마을에 있는 지주네 집이었다. 대장이라면 응당 동네에서 제일 덩지가 큰 집에 들었으리라고 짐작했다는 것이다.

노인은 동네에서 두 번째로 큰 마름네 집에도 가보았다. 그 다음은 동네의 쉬나문집을 빼놓지 않고 차례로 다 돌아보았다. 노인은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의지가지없이 가난하게 사는 늙은이라고 온 동네가 자기네를 괄세한다고 하였다.

≪하기는 이 늙은 것들이 이런 꼴을 하고 어떻게 대장앞에 나서겠나. 하지만 좀 너무해. 글쎄 제 집에 그분을 모시구두 여기 와서 찾으면 어쩌우 하고 놀려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보라구. 자네네 대장이 정말 어느 집에 드셨나?≫

주인집 노인은 온 동네를 다 돌아보고 와서도 제 집에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해본 것이 틀림없었다. 주인노인이 하도 궁금해 하기에 나는 사실대로 신분을 밝히었다. 노인은 내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날 독립군이 마을에 드나들 때에도 중대장만 되어도 제일 큰집에 틀고앉아 소를 잡고 술추렴을 하기가 일쑤였는데 대장이 어떻게 이 누추한 집에 들 수 있는가고 하였다. 더구나 대장어른이 어떻게 이영을 갈아주고 토방을 쌓아줄 수 있으며 수수죽을 달게 자실 수 있겠는가, 자네도 역시 우리를 업수이여기고 그분의 행처를 숨기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하면서 몹시 노여워하였다. 이튿날 전령병의 말을 듣고서야 노인은 비로소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 닭을 잡아 대접하겠다는 노인내외를 겨우 만류하고 마을을 떠났다. 이러루한 일들은 한두 번만 있은 것이 아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는 군민일치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서 참으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만일 우리가 대오 안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철저한 복무정신을 확립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인민혁명군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생존을 부단히 위협하던 그 준엄한 시련의 나날들에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혁명을 중도반단하였을 수도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가 나온 후 우리 혁명군은 관병일치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지휘관들은 대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는데 습관되어 있었다. 대원들이 죽을 먹으면 지휘관들로 같이 죽을 먹었고 대원들이 눈위에 나뭇잎을 깔고 잘 때면 지휘관들도 눈위에 나뭇잎을 깔고 잤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은 사령관으로부터 소대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철저히 ≪작은 가마≫를 경계하고 반대하였다.

≪큰 가마≫, ≪작은 가마≫라는 말은 원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에서 생겨난 것이다. 국민당 군대에서는 장교만 되면 일반 병사들이 끓여 먹는 큰 가마와는 별도로 작은 가마에 별식을 해먹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상하를 엄격히 구분하여 상을 절대적으로 우대하고 하를 절대적으로 박대하는 면에서는 일본군대가 아주 지독하였다. 일본군에서는 오장정도만 되어도 하급병사들더러 발바닥이나 구두바닥을 핥게 하는 야만적인 기합과 처벌을 마음내키는대로 자행하였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에서는 ≪작은 가마≫를 절대로 허용치 않았다. ≪작은 가마≫가 있게 되면 별식의 특혜를 받는 특수층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그런 특수층과 큰 가마의 대중음식을 먹게 되는 광범한 대원들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말로는 만민평등을 곧잘 외우면서 먹는데서부터 구별을 두고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면 그런 위선자들을 어느 누가 받들고 따르겠는가.

우리는 모든 지휘성원들이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정황에 처하여있건 평대원들과 꼭같이 한 가마밥을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체가 한 가마밥을 먹는 것은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인민혁명군의 군율로, 식사윤리로 되어있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리도 모두가 꼭같이 하였기 때문에 대원들을 돌볼 의무를 지닌 지휘성원들은 사실상 대원들보다 오히려 적게 먹고 헐게 입고 못한 잠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우리는 ≪작은 가마≫를 반대하고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때 수도와 지방의 적지 않은 식당들에서는 뒤골방을 따로 차려놓고 간부들이 오면 별식을 대접하였다. 뒤골방을 꾸리지말라는 중앙의 신호가 여러 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부문의 사람들은 집요하게 ≪작은 가마≫를 운영하였다. 이것은 결국 인민성이 없는 일군들속에서 특수화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어떤 일군들은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뒤골방이나 귀빈실로 안내하면 그것을 응당

한 것으로 여기면서 특대를 받으려고 하였다.

우리는 ≪작은 가마≫를 찬성하지 않는다. ≪작은 가마≫를 둬두면 온갖 ≪잡귀신≫들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가마≫에서는 자본주의사상밖에 나올것이 없다. 이런 ≪작은 가마≫를 그대로 둬두면 당과 대중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튼튼히 건재하고 있는 것은 당이 관료화되지 않았고 우리가 ≪작은 가마≫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도 주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조선노동당이 작성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기초에는 반드시 인민성이 놓여있다. 인민성은 우리 당과 군대와 국가의 성격을 지배하는 기본인자이다.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인민성을 기본적인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은 당과 군대는 필승불패한다는 진리를 확증하였다.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복무하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닐 뿐 아니라 반인민성의 노골적인 표현이다.

자본주의 군대에서는 참다운 군민관계, 동지관계,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거기에는 오직 강압, 기만, 갈등, 대결, 맹종, 맹신이 있을 뿐이다. 슬픈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병사호상간에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인간본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먹어라. 내가 너를 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먹는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 군대 안에서 장교들이 주입시키고 있는 인생철학이다. 이 철학에 의하면 ≪나≫ 밖의 존재는 모두 적으로 되고 포식대상으로 된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뉴기니아전선에 있던 일본군대 병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오늘도 자본주의나라 군대들에서는 군인들속에서 ≪너 아니면 나≫라는 야수적인 생존방식을 배양하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보다 공고하게 다져진 군민일치와 관병일치의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올바른 영도밑에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우리의 인민군 군인들은 인민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이 군대를 돕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일로 되어있다.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처녀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 그들의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어준다.

날과 더불어 활짝 피어나는 군민일치의 모습을 보는데서 나는 무상의 행복을 느낀다.

인민군대 안에서는 관병일치의 전통도 더욱 공고히 다져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자기의 자식이나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대원들을 구원한 영웅지휘관들도 많다. 전사들은 중대장을 맏형이라고 부르고 중대정치지도원을 맏누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로 되고 있는 중대안에서의 상하관계는 바로 이런 혈연적 관계이다.

우리 나라는 세상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만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군민일치, 관병일치이다. 그런 위력한 무기는 그 어떤 군사 과학이나 기술로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참다운 사랑만이 만들어낸다.

7. 양민보증서



조국광복회
신파지구
지하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우리가 **김정숙**을 도천리에 파견한 것은 1937년 3월, 서강회의 전야였다.

그 해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순도 박달도 권영벽도 김재수도 다같이 사람을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바로 **김정숙**의 도천리파견이었다.

이제순의 신흥촌과 박달의 큰웅뎅이 마을을 연결하는 지하선이 함북도 전지역과 함남도의 동부지구에 우리의 지하조직망을 펼치기 위한 통로였다면 도천리와 신파를 연결하는 지하선은 함남도 서부 및 남부 지역과 국내의 내륙지대로 우리의 조직망을 펼치기 위한 통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도천리는 장백현 하강구지역의 중심위치에 있는 부락으로서 하강구지구는 물론이고 임강현을 포함한 남만의 광활한 지역에 조국광복회망을 펼쳐나가는데서나 그 망들과의 연계를 짓는데서 중심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었다.

도천리의 맞은편에 있는 신파는 우리 나라 노동계급의 대군이 집결되어 있는 흥남공업지대와 연계를 맺는데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곳으로서 동해안 남부지역과 내륙깊이에로 우리의 지하조직망을 뻗치는데서 아주 좋은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었다.

우리가 신파를 특별히 중시하게 된 것은 국내지하선통로를 비교적 용이하게 개

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과도 관련된다.

신파에는 장해우(장효익)가 있었다. 우리 밀영에 찾아온 어떤 사람들은 장해우가 감방밥을 먹고 나온 다음에는 일개 소시민으로 전락되고만 것 같더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신파 지하세계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타관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권영벽의 보고를 통하여 장해우가 소시민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혁명을 하고 있으며 그가 벌써 김재수와도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해우는 독립운동자들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였다. 그는 우리 아버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자들과 망명자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연해주쪽에 자주 왕래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 집에서 한두 밤씩 묵어가곤 하였다. 그가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겸상을 하고 반주를 권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1920년대 중기에 독립운동 관련자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형기도 알 수 없었고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경위도 알 수 없었다. 해방 후에야 나는 공판때 그에게 차례진 형기가 7년이였으나 소화천황의 즉위일과 관련된 ≪은사≫로 그가 2년동안만 형을 지고 감옥에서 석방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무튼 혁명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나와 친분상으로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장해우가 신파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사업의 전도를 위해서 좋은 징조였다. 그 후 도천리지하조직을 통해 요해해본데 의하면 그는 성미가 약간 이지러졌을 뿐 속내는 여전한 것 같다고 하였다. 장해우가 기맥이 통하면 유력한 국내통로가 열릴 수 있었다.

장해우와의 공작에 누구를 파견할 것인가? 누구를 보내면 그 유망한 국내통로를 비교적 용이하게 개척해낼 수 있겠는가?

마땅한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나도 김평도 머리를 썼다. 7연대 정치위원이었던 김평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는 비밀사업까지 겸하여 맡아보고 있었다.

싸락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나는 김평을 숙영지 우등불가에 불렀다. 그것은 우리가 되골령을 넘어 무송현 양목정자 밀영쪽으로 북상행군을 하고 있던 때였다. 초강초강하던 김평의 얼굴은 연속되는 전투와 장설행군에 시달려 몹시 수척해진 것 같았다.

≪신파통로 개척자를 내정했소?≫

나는 며칠전에 던졌던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김평은 그날 시원스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가에 자신만만한 표정이 비끼였다.

≪내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깜장정숙이가 그 중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내가 점찍은 대상과 신통히도 같았기 때문이다.

≪깜장정숙≫이란 **김정숙**을 말한다. 우리 부대에는 정숙이란 이름을 가진 여대원이 셋이나 되었다. 장정숙, 박정숙, **김정숙**이었다. 누가 ≪정숙동무!≫하고 부르면 세 정숙이가 동시에 ≪예≫하고 대답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런 광경이 이따금씩 즐거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지만 생활에서 불편과 혼란을 가져다주는 점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전우들은 그 세 정숙이를 가리켜 각각 ≪씩씩이정숙이≫, ≪퍼런정숙이≫, ≪깜장정숙이≫라고 구별하여 불렀다.

≪씩씩이정숙이≫라는 장정숙의 별명은 일할 때나 행군할 때 숨이 차서 씩씩거리는 그의 특징을 포착해서 지은 것이었다. 어떤 투사들은 그의 일거일동이 항상 기운차고 씩씩한데서부터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들어맞는 것 같다. 박정숙에게 ≪퍼런정숙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유격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푸른색깔의 치마를 입은데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깜장정숙이≫라는 **김정숙**의 별명도 그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시 유격구에서 생활할 때에는 물론, 혁명군에 입대할 때까지 단벌 검정치마를 입고 지냈기 때문이였다.

≪그가 신파개척의 중임을 꽤 감당해내겠소?≫

나는 김평이 **김정숙**을 적임자로 선택하게 된 사유를 알고 싶어 넌지시 의문을 던져보았다.

≪제가 연길현 팔도구에서 당사업을 할 때 정숙이는 저의 지도밑에 공청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에서나 빈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성중대의 정치사업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향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김평의 견해에 동감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그때까지 인간 **김정숙**을 완전무결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우리 부대에 배속된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망국민의 생활을 하였고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혁명에 뛰어들었다. 내가 **김정숙**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것은 소왕청 마촌에 있을 때였다. 왕우구 북동에 있다가 왕청에 온 연대원들이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말마디들속에 윤병도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이 두간두간 튀어나왔다. 그 나비같은 아이들은 자기네 아동단 지도원에 대해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에는 연길현 아동국장으로 사업하다가 왕청현 아동국장으로 소환되어온 이순희가 종종 **김정숙**을 회상하였다. 윤병도도 이따금 그를 화제에 올리였다. 어느 동네에 가나 한두 명씩은 꼭꼭 만나게 되는 ≪정숙≫이라는 그 평범한 이름은 그렇게 되어 내 기억속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김정숙**에 대한 뭇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가 대단히 담차고 이악하면서도 마음씨가 무척 곱고 동정심이 남달리 강한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정숙**에 대한 왕청시절의 나의 지식은 대체로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연길현 아동단연예대가 왕청에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40개의 붉은 넥타이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그때 8구 공청위원 겸 현 아동단연예대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정숙**은 그 선물을 받고 몹시 감격하였다고 한다.

김정숙은 마안산밀영에 와있던 4중대의 성원들 가운데서 좌경분자들이 ≪민생단≫딱지를 함부로 붙일 수 없었던 유일한 인물이였다. 하지만 좌경분자들은 그를 무턱대고 ≪민생단≫혐의자들의 중대에 배속시키였다. 너도 조선사람이니 혐의가 있건없건 ≪죄≫진 조선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심보였다고 본다.

김정숙은 그 불쾌한 처사를 오히려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그는 죄없이 죄를 들쓴 전우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 결심이였다.

그는 ≪민생단≫혐의자들과 함께 한병실에서 숙식하면서도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김정숙동지의 생가
회령집

외형상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데가 없는 그 작달막한 몸매의 수수한 여대원이 온 중대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이유를 나는 그 후의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였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였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먹을 것이 차례지면 자기보다 체통이 크거나 나어린 대원들에게 덜어주었다. 정숙의 식사몫을 제일 많이 받아먹은 것은 기송동생의 짝패였



추수투쟁대열의
선두에 서시어
대중을 투쟁에로
호소하시는
김정숙동지

다는 4중대 1소대의 곱슬머리 꼬마대원이였을 것이다. **김정숙**은 남들이 다 잠든 때에도 남성대원들의 꿰진 옷이나 신발을 기워주고는 하였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성, 이것은 **김정숙**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 매력이기도 하였다.

나는 임춘추, 김정필, 박수환을 비롯한 연길출신의 대원들에게서 반≪민생단≫ 태풍이 온 동만을 휩쓸던 시기 능지영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던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가만가만 날라다준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처녀의 덕에 억울하게 갇혔던 수난자들이 굶어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 어린 처녀가 **김정숙**이였다는 것이다. ≪민생단≫혐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실이 드러나는 날에는 그도 ≪민생단≫ 감투를 뒤집어 쓸 수 있었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 본 것은 삼도만류격구에서였지만 그의 경력과 가정애사를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1936년 봄 만강에 가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나는 동강회의에 내놓을 보고문 준비를 끝내놓고 개운해진 기분으로 경계초소들을 돌아보며 강기슭에 나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향수를 자아내는 청아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노래소리가 나는 웃쪽 시냇가에 올라가니 버들숲속에서 여대원 둘이 빨래를 헹구고 있었다. 그 중의 한 대원이 **김정숙**이였다.

나는 그 날 처음으로 **김정숙**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것과 그가 5살인가 6살 되던 해에 온 일가가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회영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을 함북명승이라고 자랑한다. 6진중의 하나로 알려진 이 유서깊은 요새지가 항일혁명시기에는 일본군 나남 19사단 소속의 75연대 본부와 비행대가 자리잡은 군사적 요충지로 우리의 작전지도에도 큼직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지금 회령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나운규와 같은 영화재사가 나오고 조기천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배출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고향 도시가 유명한 백살구산지라는데 대해서도 자랑하고 있다. 백화난만한 봄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는
김정숙동지

회령을 찾는 사람들은 온 시가지가 백살구꽃속에 묻힌 풍경을 구경하게 된다.

하지만 **김정숙**은 그처럼 아름다운 고장에서 몇 년밖에 살지 못하였다. 철이 들면서부터 그의 눈에 비쳐든 것은 마적들이 먼지를 뿌옇게 일구며 싸다니는 북간도의 거치른 산야였다.

김정숙의 부모형제자매들은 그의 곁을 차례차례로 떠나갔다.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자였다. 적들에게 붙잡혀 악형도 많이 받고 풍찬노숙하는 가운데 동상도 심하게 입은 분이었는데 그 어혈로 중병에 시달리다가 일찍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불우한 운명의 낭떠러지에 선 아버지는 사랑하는 막내딸 정숙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짓물린 눈귀를 눈물로 적시며 남쪽 하늘가를 자꾸만 더듬었다.

≪나는 죽더라도 조선에 묻히고 싶었다. 흙이 되더라도 조선의 흙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소원마저 이룰 수 없을 것 같구나. 너는 어데 가서나 고향을 잊지 말고 조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조선을 위해 싸워라.≫

김정숙이 15살 되던 해에는 온 간도땅을 피바다에 잠근 침략자들이 부암동에 달려들어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의 어머니와 올케를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올케가 그에게 남긴 것은 아직 걸음마도 채 떼지 못한 젖먹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젖동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배고파서 보채는 조카애를 안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10리도 더되는 이웃동네에까지 가서 젖을 구걸했다.

김정숙은 애써 키워오던 조카애와도 생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가 유격대로 들어갈 때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8도구 광산에 가기로 되어있던 오빠 김기준이 그의 품에서 조카애를 억지로 앗아냈던 것이다. **김정숙**은 그 애를 유격구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결심하였으나 오빠가 종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발을 하루 미루었다.

다음날 새벽 ≪토벌대≫가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치었다. 총소리가 울리자 그는 무작정 조카애를 안고 산으로 올랐다. 그 길로 그냥 유격구로 들어갈 작정이었다. 그런데 오빠가 숨가쁘게 뛰어와 혁명할 각오가 덜 되었다고 그를 꾸짖었다. 혁명에 나섰으면 먼저 혁명부터 생각해야지 자기 집 식구나 생각해서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는가, 애걱정은 말라고 하였다.

오빠는 우는 애를 안고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아마 그도 말은 모질게 하였지만 눈물이 나서 누이동생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이 두 남매의 영원한 이별로 되었다.

김정숙은 그 후 오빠도 조카애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오빠는 광산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고문 끝에 희생되었고 조카애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안개속에 사라진 새가 되었다. 단 한 점의 살붙이로 남아있던 동생 기송이마저 부암동에서 삼도만유격구로 이동해가는 장재촌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동단 신호나팔로 적 ≪토벌대≫를 유인해가다가 적의 흉탄에 맞아 최후를 마치었다.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고 거리에서 10대의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조카애도 살아있으면 저 애들만큼 컸겠는데 하면서 남모르게 한숨을 쉬고는 하였다.

김평과의 담화가 있은 후 나는 **김정숙**을 사령부에 불렀다.

≪김재수동무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지하공작에 능숙한 사람들을 더 보내달라고 벌써 여러 번 요구해왔소. 날파람도 있고 지하공작경험도 많은 사람이지만 관할구역이 하도 넓다나니 상당한 정도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소. 그는 특히 부녀들과의 사업을 추켜세우지 못해서 무척 안타까와하고 있소. 부녀들을 지하조직에 끌어들이자면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노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겠는데 그게 간단치 않다는거요. 동무는 도천리에 거점을 잡고 하강구 일대의 부녀사업을 지도하면서 김재수동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어야겠소.

하강구일대의 사업을 추켜세운 다음에는 신파에 건너가서 장해우와 손을 잡고 삼수지대에 강력한 지하조직망을 꾸리시오. 그리고 흥남, 함흥, 북청, 단천, 성진, 원산 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공업도시들과 농어천들에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시오.

국내에 가서 비밀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인민혁명군의 보호하에 있는 장백에서 군중공작을 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이요. 각별히 조심하여 일을 잘해주시오.

우리는 동무가 이 어려운 과업을 능히 수행하리라는걸 믿소. 곤란에 부닥칠 때마다 동지들에게 의거하고 인민들에게 의거하시오.≫

이것은 내가 **김정숙**을 도천리에 파견하면서 한 말의 일부이다.

도천리지구에는 이미 1936년 늦여름부터 우리의 공작선이 뻗어있었다. 정동철의 말에 의하면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소식이 도천리 산촌에까지 날아들던 그 무렵에 김원달이라고 하는 낯선 ≪도박꾼≫이 하강구 일대에 나타나 청년들속에 투전바람을 일구며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투전꾼들한테 주로 해대는 이야기는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1등과 3등으로 달린 것은 조선사람이었으나 시상식 때 깃발게양대에 오른 것은 일장기였다는 것이다.

작은 키에 동작이 민첩하고 영리하게 생긴 그 젊은 ≪도박꾼≫이 바로 우리가 파견한 정치공작원 김재수였다. 그는 모험소설의 줄거리와도 같은 특이한 투쟁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왕우구쏘비에트초대회장, 연길현당위원회서기, 동만특위조직부장 이것이 1930년대 전반기의 그의 행로를 한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경력이었다.

그런데 순조롭던 그의 인생행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 뻔한 곡절이 생기었다. 동만특위가 나자구로 옮겨갔을 때 그는 다른 특위성원들과 함께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어 헌병대에 끌려갔다. 적들은 김재수와 주명에게 전향문을 씌우고 각각 자기네 일을 도와달라고 강요하면서 임무를 주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체포당했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특위사업을 계속하라. 혁명조직들도 계속 만들라. 우리는 그것을 상관치 않겠다. 다만 새로 끌어들인 조직성원명단을 정상적으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적들은 특위급의 간부가 전향을 하였다고 쾌재를 올리었으나 김재수는 혁명을 다시 하기 위하여 가전향하고 가짜서약을 맹세하였을 뿐이다. 그는 적들의 비밀문건과 공작자금을 탈취해가지고 동만특위에 찾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솔직하게 보고하였다. 뒤늦게 특위를 찾아간 주명은 적들이 짜준 각본대로 조직을 속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장백현 하강구에 파견된 정치공작원 김재수

김재수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대신 당대열에서 제거되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죽은 목숨이 되었지만 도덕적으로도 매장당한 몸이 되었다. 일조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투쟁권 밖으로 밀려난 그는 홀로 산골에 들어박혀 죽음보다 못한 가전향을 후회하며 번민속에 모대기었다.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신념과 의지, 정신도덕적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최상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혁명가들의 세계에서는 가전향도 허용할 수 없는 하나의 범죄행위로 공인되어 있다. 비록 가짜로 전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들에게 역선전할 구실을 마련해주고 진짜 변절자들에게 변절의 전례와 변명할 여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혁명가로서의 양심과 지조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적들앞에 전향을 선언하는 것은 찬양할만한 것이 못되는 것은 사실이다.

김재수는 적들을 속여넘기고 살아나가서 혁명을 계속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에만 집착했던 나머지 혁명가로서의 숭고한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이다. 그는 번민 끝에 우리가 마안산에서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사르고 1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완전히 백지화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와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결백성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를 처단하든지 살리든지 그건 결심대로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혁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더 못견디겠습니다.≫

그때 김재수는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이렇게 하소하였다.

나는 김재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어 장백현 하강구 방면에 파견하였다. 우리는 김재수가 다시는 자기의 행적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가 조직앞에 솔직하였다는 것은 혁명적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다. 나는 그가 지니고 있는 그 양심을 믿었다. 김재수는 협애한 생각에 지배된 나머지 한번은 가전향하였으나 그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되는가를 깨닫고 체험한 이상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치욕의 길을 택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였다.

그는 가명을 가지고 천상수를 거쳐 도천리에 침투하였다. 처음에는 천상수의 조국광복회 지회장 이용술이 믿을만한 인물들이라고 소개하여준 정동철, 김두원, 김혁철(김병국) 등을 요해하느라고 투전판을 벌려놓았다. 하강구일대에는 그의 투전솜씨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었다. 김재수는 투전을 할 때마다 토씨를 끼고 그 토씨속에 화투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번개같이 눈속임을 하였다. 가보나 장땅 같은 높은

수가 나올 때에는 건들건들한 소리로 ≪어랑타령≫까지 불렀다.

내막을 알리 없는 늙은이들은 저 김원달인지 건달인지 하는 난봉꾼이 젊은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놓는다고 아우성이였으나 그들이 아부재기를 치는 사이에 투전판에서는 조직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조직은 후에 조국광복회 장백현하강구위원회의 핵심조직으로 전환되였다. 김재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1937년초까지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하강구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이 생겨났고 그 후에는 생산유격대도 조직되였다.

도천리로 파견된 **김정숙**이 처음으로 김재수와 접선한 곳은 바로 천상수사람들이 ≪안골집≫이라고 부르는 이용술의 집이였다. 그 집은 여덟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사는 보기 드문 대가정이였다. 이 집에서 조국광복회 천상수지회가 조직되였다. 이 조직의 지회장사업을 넷째인 이용술이 맡아보았다.

우리가 그 집 신세를 많이 졌다. 많은 우리 동무들이 지방공작을 나갈 때마다 그 집 신세를 톡톡히 지고는 하였다. 나도 1936년 말과 1937년 여름에 걸쳐 세 번씩이나 그 집에 폐를 끼쳤는데 첫 번째 갔을 때에는 사흘이나 묵었다. 화전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았지만 그 집 사람들의 인심이 대단히 좋았다.

이용술의 맏형은 김재수의 부탁을 받고 우리 부대의 도장을 두 개나 새겨보냈다. 그 도장을 우리가 퍼그나 오래 사용하였다.

김정숙은 ≪안골집≫에 보름가량 머무르면서 지회사업을 방조하는 한편 사민으로 변신하여 공작할 준비를 하였다.


도천리 구장
조국광복회
특후회원 정동철

김정숙은 엄옥순이라는 가명으로 자기를 위장한 다음 무산에서 살다가 오는 이주민 가족으로 가장하고 도천리에 내려갔다.

자주색 저고리에 곤색 세루치마, 목이 긴 버선, 그것이 ≪무산집 새애기≫ 엄옥순이 도천리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차림새였다. 함경도 사람들은 젊은 여인들을 새애기라고 불렀다.

도천리는 신파대안에서 30리쯤 떨어져있는 산간마을이였다. 출생직후부터 내내 도천리 한곳에서만 2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경력을 가진 위인찬의 말에 의하면 이 고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한일합병≫ 직후 조선에서 건너온 독립운동자들이였다고 한다.

1930년초까지만 해도 도천리는 독립군들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

그 후 농조운동에 참가하였던 선각자들이 국내에서 집단적으로 망명해오면서부터 도천리 일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조류가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1936년 하반기부터는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인민들에게 혁명바람을 불어넣었다. 도천리와 그 주변은 조국광복회조직들로 뒤덮이였다.

인민혁명군의 왕래가 잦아지고 도천리와 그 부근에서 유격대들이 연전연승의 전과를 올리는 가운데 이 일대에서는 인민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투쟁열의가 비등되었다. 반면에 적들은 공포에 떨었다.

적들의 공포상을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있다.

도천리 학교앞에 샘물이 하나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샘물을 마시면 너무도 차서 이가 시릴 지경이였다. 일본경찰들이 그 샘물이 특별히 좋다는 소문을 듣고 원인을 해명하려고 저울에 물의 중량을 달아보았는데 다른 물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

≪그런 샘치물을 마시니 도천리 새끼들이 눈깔이 새까만게 또릿또릿하구나. 모두 빨치산 새끼들이다!≫

적들은 이렇게 뇌까리면서 샘물을 메워버리려고 하였다.

그 소문을 듣고 정동철 구장이 경찰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물은 유격대들이 가며오며 마시는 물인데 그분들이 샘치가 없어진걸 알면 나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나요?≫

적들은 감히 샘물을 메꾸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도천리는 군중토대가 좋고 혁명역량이 강한 곳이였다.

김정숙은 농사일로 바쁘게 보내면서도 밤이면 나들이를 다니며 마을사람들과 얼굴을 익히였다. 얼굴을 익힌 다음에는 이름을 익혀두고 무슨 북청집이요, 갑산집이요, 홍남집이요 하는 집이름도 익혀두었다. 그가 후에 하는 말에 의하면 한주일 동안에 마을사람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집이름도 다 외워두었다는 것이였다. **김정숙**은 이 별치않은 일을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공정으로 보았다.

≪교원들도 학급을 맡으면 먼저 출석부를 놓고 학생들의 이름부터 익힌다질 않습니까. 그래야 학생들속에 들어가니까요. 정치공작원도 교원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모르고야 인민들속에 들어가나요.≫

그가 도천리 공작을 마치고 돌아와서 김평에게 한 말이였다.

그는 사령부에서 받은 과업대로 자기 사업의 중심을 부녀공작에 두고 그들과 열심히 접촉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천리에는 여성들의 조직이 없었다. 대다수의 여자들은 집안살림에 파묻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노인들이 그들을 몹시 구속하고 있었다. 간혹 여자들이 글공부를 하고싶어 야학방문앞에 가서 기웃거리기만 해도 늙은이들은 큰 변이라도 난 듯이 야단법석을 하였다.

김정숙은 도천리에서 여성혁명화를 빨리 다그칠 수 있는 기본열쇠가 노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있다는 것을 판단하였다. 사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에 비해 노



지하조지책임지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인들은 모든 면에서 매우 완고하였다. 그들은 신세타령은 하면서도 자기 운명을 개척할 궁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들을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젊은 세대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 잘돼나갈 수 없었다. 실지로 **김정숙**은 노인들과 부녀자들 때문에 애를 먹은 실례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길림과 고유수, 오가자 일대에서의 우리의 활동경험이 이것을 잘 실증해주고 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이지만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에는 ≪변트로즈키≫영감이 암초로 되었다. 그 노인을 휘어놓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수 없었으며 도대체 조직을 내올 수 없었다. 우리는 ≪변트로즈키≫영감을 쟁취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곳에 반제청년동맹을 내올 수 있었다. 고유수의 현하죽도 우리의 중요한 사업대상이였다. 현하죽이 우리 아버지의 친구인데다가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였기 때문에 나는 고유수에 갈 때마다 선참으로 그에게 들려 인사도 하고 어머니의 안부도 전하고는 하였다.

김정숙은 원래 노인들을 무척 존경하고 우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도천리에서 노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경험을 들어보았는데 의식적인 공작이라는 감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김정숙은 사람들을 공작대상이나 교양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순수한 보통인간으로 대하였다. 설사 공작상 필요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될 인물과 교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를 피교양자의 위치에 놓거나 자기를 교양자의 위치에 놓지 않고 정든 이웃을 대하듯이 예사롭게 대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인민들의 신임을 받는 딸이 되고 이웃이 되었다. 이것이 지하공작원으로서의 **김정숙**의 중요한 특징이였다.

나도 일생을 통해 절실히 체험한 바이지만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먼저 인민의 아들딸, 인민의 충복, 인민의 벗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인민을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선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인민의 선생, 인민 위에 군림한 관료, 인민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민들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인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인민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김정숙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집에서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이 없이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방아도 찧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김정숙**의 정성은 참으로 돌위에 꽃이라도 피울 수 있으리만큼 지극하였다. 이 과정에 노인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도천리 혁명화의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었다.

한번은 유가골 지주가 열병에 걸린 부엌데기 소녀를 산중초막에 내버린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불쌍한 소녀를 돌봐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된 **김정숙**은 꺼리낌없이 초막에 찾아가서 소녀와 침식을 같이하며 병구완을 해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무들이 초막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살릴 가망도 없는 아이 하나때문에 위험천만한 자선모험을 하다가 감염되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령부에서 준 큰 임무는 어찌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돌봐주더라도 침식을 같이하는 것만은 제발 그만두라고 말리었다.

김정숙은 웃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었다.

≪걱정말고 돌아가세요. 목숨이 두렵다고 아이 하나 살려못낸다면 나라는 어떻게 찾고 인민은 어떻게 구원해내겠어요? 인민을 살리자고 내댄 목숨인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동무들은 **김정숙**을 그 초막에서 끌어내지 못하였다.

김정숙은 끝끝내 그 불쌍한 소녀를 살려냈다. 도천리 사람들은 마침내 그를 ≪우리 옥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소금에 절인 고등어 한마리가 생겨도 그들은

≪우리 옥순이≫를 찾았고 갓난애기의 백날잔치를 차려도 ≪우리 옥순이≫부터 찾았다. **김정숙**은 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딸로 되였고 손녀로 되였고 누이로 되였고 언니로 되였다.

그는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다심히 보살펴주면서도 하강구 지역의 혁명화를 다그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재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 해 2월 김재수는 우리가 산에서 내려보내준 ≪3·1월간≫을 조국광복회조직들에 배포해주다가 그만 마지막 한부를 몸에 지닌채 적들의 눈에 걸려들었다. 경찰서에 잡혀간 그는 글 한자 읽을줄 모르는 머저리 시늉을 하면서 떼를 썼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얻은 책이오다. 담배종이를 하자고 그러는데 어째 빼앗소? 그걸 빨리 도루 주오다.≫

적들은 그를 천치로 인정하고 일단 놓아주었다. 그러나 뒤에 돌아앉아서는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였다.

한때 김원달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하강구 일대를 왔다갔다하던 김재수는 도천리 본부락에 사는 이효준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처를 옮기면서부터 그의 4촌형으로 가장하느라고 ≪준≫ 자 돌림의 이름을 고르던 끝에 이영준으로 변성명을 하였다.



신파지구당
조직성원 서재일

김정숙은 김재수와 함께 적들이 뒷조사를 걷어치우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을 의논하였다. 두 사람은 적들에게 ≪이영준의 천치성≫을 확증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들이 짠 각본에 따라 이튿날 이효준이네 집에서는 동네방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새파랗게 젊은 이효준의 처가 자기 집에 홀아비로 얹혀사는 ≪사촌시형≫이영준을 방치로 때려 내쫓는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 여자는 머저리 시형이 집안물건들을 계속 훔쳐내다가 투전을 붙어먹어서 자기네는 알거지로 되었다고 마구 고아대며 대성통곡하였다.

처가 집에서 소동을 벌인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효준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투전밖에 모르는 머저리 4촌형 때문에 패가망신을 하게 됐으니 호적부에서 형이름을 지워버리고 내쫓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한편 ≪머저리 시형≫도 ≪3·1월간≫잡지 한 권을 빼젓이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나리님들이 좋아하는 이 책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효준이하구 우리 제수가 나를 때리지 말구 내쫓지두 말게 해주시오다≫하고 사정을 하였다.

≪3·1월간≫을 본 경관들은 눈들이 휘둥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재수는 이전날 유격대와 일본군이 접전한 삼개골 싸움터에서 얻었다고 대꾸하였다.

≪그전에 나리님들이 탐나서 빼앗은 그 책두 실은 거기서 얻은건데 우리 마을 포대 산에서 얻었다구 꽝포를 놨소다.≫

경관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자 김재수는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들고 히죽히죽 웃었다.

≪그 자리에 가면 이런 시계랑 만년필이랑 돈이랑 별의별 것이 잔뜩 널려져있는데 그 걸 대주면 남의 손에 다 들어가고 말지 않소다? 우리 동생네가 나를 내쫓지 못하게만 해주면 내 나리님들한테 노다지가 있는 자리를 대주겠소다.≫

경관들은 그것만으로도 이영준의 천치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뒷조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정동철, 유영찬, 김혁철, 이철수를 비롯한 도천리의 선각자들과 혁명적 군중은 **김정숙**의 지하공작과 신변호위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들은 **김정숙**을 위해 신파에 건너가서 그가 읽을 수 있는 신문까지 정기적으로 얻어왔다. 정동철이 신파 조직성원인 잡화점 주인에게 구독료를 주면 그는 자기 이름으로 신문을 신청하였다. 신문이 나오는 족족 포장지 대용으로 상품을 싸서 넘겨주든가 그대로 넘겨주었다. 그래서 **김정숙**은 정기적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정동철은 관혼상제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을 초청하여 도천리에 찾아오는 유격대 공작원들과도 만나게 해주고 다른 지방에서 찾아오는 지하조직의 연락원들과도 만나게 해주곤 하였다.

1937년 여름에 그의 집에서는 생남잔치를 차리었다. 그 잔치에는 유격대에서 갓 파견되어온 ≪퍼런정숙≫(박정숙)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순사며 구장이며 밀정들도 참가하였다.

정동철은 적들의 감시로부터 공작원들을 철저히 위장시키기 위하여 그들끼리 서로 맞절을 시키었다. **김정숙**은 관례대로 박정숙과 맞절을 하였다. 그는 ≪퍼런정숙≫앞에 엎드려 ≪처음 뵙겠습니다≫하면서 큰절을 하였다. **김정숙**은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서 물동이를 이는 법과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법도 숙달하였다. 단오명절을 앞두고는 여러 날 밤을 그네뛰는 연습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여성지하공작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필수적 공정으로 여기었다.

그가 도천리를 혁명화하는데서 중심고리로 잡은 것은 군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이었다. **김정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걸고 우리의 혁명사상을 정력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런 과정에 지도핵심들을 소문없이 키워냈다. 그리고 그 핵심들로 반일청년동맹도 조직하고 부녀회도 조직하였다. 조용하던 산골마을은 드디어 우리의 위력한 활동지반으로 되었다. **김정숙**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옹군애병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부녀회원들, 청소년들과 함께 원호물자들을 준비하여 부대에 보내주고는 하였다. 그가 원군교양을 얼마나 잘하였던지 도천리 부락에서는 산동지방에서 온 중국이주민들까지 발동되어 인민혁명군에 원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아동단원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총탄을 수집하였다.

원군운동의 최고형태는 참군이였다. **김정숙**은 조국광복회 하강구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조직을 통하여 장악한 핵심들 중에서 파악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인민혁명군에 참군시키였다. 정동철의 회상에 의하더라도 하강구일대에서 혁명군에 입대한 청년들의 수는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도천리부락에서만도 김혁철, 유영찬, 이철수, 최인덕, 한창봉 등 10여명이 입대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대인 한창봉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연대를 이끌고 낙동강을 희생적으로 도하하였으며 강대안의 산고지들을 견지하는데서 특출한 군공을 세웠다.

김정숙의 지도를 받던 세 아이를 가진 요방자의 부녀회 회장 윤어복은 두 살난 아이를 업고 80리도 넘는 우리 밀영에 찾아와 자기를 유격대에 보내달라고 강떼를 썼다.

참군열도가 어찌나 높았던지 어떤 집에서는 자



이곳에서 조국광복회 장백현 하강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식을 유격대에 보내고는 그 자식의 가짜무덤을 만들어놓고 제사까지 지냈다. 유격대 가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심하다나니 그런 방법으로라도 적들을 속여넘기자는 것이였다.

김재수의 ≪3·1월간≫ 배포탄로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되여 우리는 **김정숙**의 신파공작을 뒷받침해줄 목적으로 최희숙을 요방자에 파견하였다. 최희숙이 오자 **김정숙**은 도천리를 비롯한 하강구 지구의 부녀회, 청년회, 소년회 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그에게 맡기고 신파공작에 주력하였다.

김정숙의 신파공작은 장해우와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신파지구
당 조직책임자
장해우

그 당시 장해우는 신파지구에서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성원들과 함께 반일혁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 도천리구장이며 조국광복회특수회원인 정동철과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성원들이었던 장해우, 임원삼, 서재일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호상기맥이 통하기 시작하였다.

서재일은 세탁공으로 일하면서 조직공작에 투신하였으며 **김정숙**과의 연락임무도 수행하였다.

장해우와 그 조직들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요해장악하기 위하여 **김정숙**은 정동철로 하여금 장해우네 조직성원인 임원삼과 결의형제를 맺게 하였다. 그는 정동철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요해를 한 기초위에서 마침내 장해우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나섰다.

김정숙은 석전양복점 뒷방에서 처음으로 장해우를 만나보았다. 그 날 **김정숙**은 장해우에게 나의 친서를 전하였다.

≪**김일성**장군이 김형직선생의 자제분 김성주라니 이 장해우는 형직선생을 따를 때처럼 장군을 따르겠소.≫

장해우가 그런 소신을 밝혔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그때 **김정숙**의 신파공작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다.

장해우는 연령이나 투쟁연조 따위를 계산하며 콧대를 세우거나 옹졸하게 구는 시시한 혁명가가 아니였다. 의로운 것이면 조건없이 따르고 지지하였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대의와 대업을 위하여서는 서슴없이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였다.

장해우는 얼마 후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성원들로 조국광복회신갈파지회를 결성하였다. 그는 같은 시기에 김재수와 **김정숙**의 지도밑에 석전양복점 뒷방에서 삼수공산주의자공작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직속 신파지구당소조도 결성하였다.

조국광복회 지회결성모임은 광선사진관에서 진행되었다. 그 사진관의 2층 사진수정실은 **김정숙**이 가장 많이 이용한 비밀연락장소였다.

광선사진관을 운영하는 이순원은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의 핵심성원이였다. 그는 서울에 가서 사진강습소를 나온 다음 사진관을 차린 사람이였다. 이순원은 사진도 잘 만들고 인망도 높고 접촉성도 좋아서 그를 내세우면 사람들과의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많은 적측자료들을 촬영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언제인가는 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파전경도 찍어서 보내주었다. 그 집 사진현상실에서는 삐라도 많이 찍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조직의 비밀사업을 묵묵히 뒷받침해준 성실한 방조자였다.

김정숙은 광선사진관 외에도 석전양복점, 샘물터국수집, 신파객주집, 사발상점, 물방아집을 비롯한 신파지구의 여러 곳에 비밀연락장소와 비밀사업장소들을 정해

놓고 그곳에 은밀히 드나들면서 지하활동을 하였다.

샘물터국수집, 신파객주집, 사발상점 같은 곳은 조직원들의 접선과 연락을 위한 장소로 많이 이용된 동시에 유격대에 보낼 원호물자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장소로도 이용되였다.

원호물자의 기본운반통로로 이용된 비밀지점은 물방아집이였다. 읍거리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그 물방아집은 적들의 시선이 덜 미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를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아주 편리하였다. 그 집주인의 친척되는 사람이 뗏목군이어서 원호물자들을 압록강 너머로 넘겨보낼 때에는 그의 도움을 쉽사리 받을 수 있었다. 물방아집 주인이나 뗏목군도 역시 조국광복회 회원들이였다.



신파지구 당
조직성원 임원삼

신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로 많은 원호물자들이 들어왔다. 13도구에는 물품들이 많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백현 하강구 일대의 조직들에서도 원호물자의 대부분은 압록강 건너쪽의 신파에서 사들여와야 하였다.

신파지구조직들에서 유격대에 보내오는 식량, 천 같은 다량의 원호물자들은 대부분 물방아집 아지트와 오함덕객주집을 통하여 뗏목이나 나룻배에 실려 압록강을 건너가고는 하였다. 오함덕객주집은 가족단위로 무은 특수분회였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지구에서 활동하는 기간 백두산밀영과 삼수에도 다녀왔으며 신흥, 흥남, 북청, 단천을 비롯한 동해안 지구에 나가 이 지대 혁명가들과의 사업도 심도있게 하였다.

아안리와 오함덕의 비밀연락장소들은 주로 타지방공작원파견아지트로 많이 이용되였다. **김정숙**은 부전, 장진, 신흥, 흥남 일대에 가게 되는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은 주로 아안리분회 책임자의 집에서 파견하였고 갑산, 북청, 덕성, 단천 일대에 가게 되는 성원들은 오함덕 비밀연락장소들을 거점으로 하여 파견하였다. 흥남공업지구에 지하혁명조직을 꾸릴 임무를 주어 파견한 위인찬공작조를 떠나보낸 곳도 아안리아지트였다.

김정숙과 신파지구의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아지트들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조직들을 넓혀나갔다. 그는 절대로 고정된 아지트를 쓰지 않았다. 자신을 변장해가며 여러 가지 비밀연락지점들과 공작장소들을 엇바꾸어 재치있게 이용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직을 위장하는데도 좋았고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좋았다.

김정숙이 도천리에서 돌아온 다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신파경찰들의 눈이 올빼미눈이라는데 동무는 무슨 수를 써서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았는가. 신파시내에 수십 번 들락날락하면서도 적들에게 잡히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김정숙은 대답대신 웃으면서 신파에 건너갔다가 밀정의 미행을 당하던 일화를 말해주었다.

≪신파도선장에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허즐한 농립모를 쓴 어떤 사람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미행인줄 몰랐는데 제가 시내에 들어선 다음에도 그 사람 이 그냥 내뒤에서 어물거리는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음식점앞에서 소일거리삼아 담배를 꺼내물었는데 그게 마라초가 아니고 가치담배였습니다. 그 가치담배를 보니 수상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들이야 어디 가치담배를 피웁니까.≫

김정숙은 골목과 골목들을 에돌며 밀정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장마당안에 들어가 어린애를 업고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떤 낯익은 여인의 임을 날래게

받아 이었다. 그러는 바람에 밀정은 그를 놓치였다.

≪제가 밀정들이나 경찰들의 손에 걸려들지 않은 건 책임성 때문이였습니다. 놈들에게 붙잡히면 사령부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저절로 대담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중이 저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였습니다.≫

김정숙의 이 말은 도천리-신파지구공작에 대한 그 자신의 총화이기도 하였다. 그로 하여금 어려운 적구공작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은 바로 책임성이였으며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것이였다.

그가 적구지하공작에서 발휘한 놀라운 창발성도 결국 이런 책임감으로부터 나온 것이였다. 우리는 그를 도천리로 파견할 때 정치공작과 관련된 지시만 주었지 다른 과업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적구공작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정숙**은 정치공작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부대의 활동에 필요한 군사정보들을 수시로 수집하여 사령부에 보내주었다.

그는 도천리와 신파의 지하조직들을 발동하여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정동철, 장해우, 임원삼을 비롯한 혁명가들이 그에게 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정동철은 정보공작의 능수였다. 경찰서장, 세관장, 면장을 비롯한 적통치기관 우두머리들과 결의형제를 맺고 그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살금살금 비밀을 뽑아냈다. 이 결의형제패에는 13도구의 관청 우두머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파에서 파견된 고등계 형사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정동철은 그들을 위해 자주 술추렴을 마련하였다. 아편을 좋아하는 관리들을 위해서는 약담배먹기도 의식적으로 조직하였다.

조국광복회 하강구 위원회에서는 적기관에 회원들을 교묘하게 박아넣었다. 13도구 경찰서 관하에만 해도 2-3명의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 침투하였다고 한다. 적의 행정말단 단위의 심부름군인 구장들과 십가장들도 대부분 혁명조직에 망라되었었다.

임원삼은 정안군 연대본부에 가서 필사작업을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군사비밀들을 수집하였다. 그는 혁명군의 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작전도나 통계자료가 나오면 종이에 날쌔게 기록하고는 꾸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가 저녁에 휴지들을 불태울 때 다시 꺼내어 조직에 가져다주었다.

광선사진관과 석전양복점은 적정자료수집과 연락장소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신파지회 산하의 조국광복회 회원들 가운데는 면사무소나 금융조합 같은 적기관에서 서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적정자료를 수집하여 광선사진관이나 석전양복점에 집결시켰다가 조직에 통보하고는 하였다. **김정숙**은 간삼봉전투때에도 바로 이 지구의 아지트를 통하여 김석원이 인솔하는 대군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날날이 조사수집하여 제때제때에 사령부에 통지함으로써 인민혁명군의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정숙은 조직성원들을 발동하여 신파일대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경들의 병력과 군사시설 배치상태, 무장장비상태를 조사장악하고 압록강의 너비와 깊이, 유속, 지어는 도하와 철수에 유리한 지점까지 직접 확인한 다음 필요한 약도까지 작성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나는 도천리 공작정형을 총화할 때 **김정숙**의 이 창발적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도하와 철수에 필요한 지점들은 어떻게 되어 조사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더니 우리 혁명군이 아무 때건 신파도 공격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

다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였다.

1937년 여름에 **김정숙**은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도천리의 부녀회원들이 우리 출판소에 보내려고 장만해두었던 종이퉁구리들이 정안군의 수색과정에 발견되였는데 그것이 화근으로 되였다. **김정숙**은 그 종이퉁구리는 정동철 구장의 부탁을 받고 주민대장용으로 쓰기 위하여 자기가 사다 보관시킨 것이였다고 그럴듯하게 변명해나섰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사리정연한 대답이 적들의 부아를 돋구어주었다. 말문이 막힌 채 약이 오른 장교는 네가 겁도 먹지 않고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 혁명군의 스파이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무작정 그를 결박하여 자기들의 부대본부가 있는 요방자로 끌고 갔다.

김정숙은 최후를 각오하고 조직에 보내는 유서를 썼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 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연필로 씌여진 그 유서쪽지와 2원의 돈은 그가 갇혀있는 집 노파의 손을 거쳐 그 옆집에 전달되고 다시 정동철을 거쳐 조직에 전하여졌다.

조직에서는 성원들을 발동하여 비상구출작전을 벌이였다. 도천리의 조직원들은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정안군 부대 본부에 찾아가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을 불법체포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도천리 조직원들의 항의투쟁이 마침내 은을 내였다. 정안군 부대 본부에서는 부대이동을 구실로 **김정숙**을 14도구 경찰서에 넘겼다.

정동철은 **김정숙**은 그 경찰서에서 13도구 경찰서로 이송시키도록 교섭하였다.

13도구 경찰서가 한 급 높은 1급 경찰서였기 때문에 **김정숙**을 거기로 이송시키



장백지구 조국광복회 부녀회원들의 유격대원호물자운반사업을
조직지휘하시는 김정숙동지



지하정치공작 임무를 마치시고 부대로 돌아가시는 김정숙동지

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김정숙은 두손을 묶이운 채 압송당하였다. 그 두 경찰서 사이에 도천리부락이 있었다.

그가 경찰들의 호송하에 도천리 부락을 지난 것은 한낮이 조금 지난 때였다.

신도 없이 맨발로 경찰들의 총부리에 떠밀리우며 걸어가는 ≪무산집 새애기≫의 결박당한 모습을 보게 된 도천리 마을사람들은 비분의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다. 한 할머니는 짚신짝을 들고 길바닥에 달려나와 **김정숙**의 피흐르는 발에 신겨주면서 그를 호송하는 순경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놈들아, 우리 옥순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생사람을 잡아가느냐? 네놈들이 우리 옥순이를 공산당이라구 잡아간다는데 옥순이 같은 사람이 공산당이라면 나도 공산당을 따라가겠다!≫

정동철은 그 길로 **김정숙**을 뒤따라가서 13도구 경찰서장에게 석방교섭을 들이댔다. 경찰서장은 500명분의 양민보증서를 작성해오면 **김정숙**을 ≪양민≫으로 인정하고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경찰서장이 그와 같은 엄청난 양의 보증서를 요구한 것은 차후 상급에서 문제시하게 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증빙문건을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바치라는 것만치나 실행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러나 정동철은 그들이 요구하는 보증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서 서장의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서장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으로 놀랐다. ≪역적≫이나 ≪공비≫로 지목된 ≪불온분자≫를 ≪양민≫으로 인정하는 보증서에는 아무나 함부로 손지장을 누르려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대중심리였다. 경찰서장은 정동철과의 ≪우정≫ 때문에 체면상 양민보증서를 받아오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500명의 도장과 지장이 주런이 찍혀있는 양민보증서, 실로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였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가? 200여 호밖에 안되는 도천리마을에 그렇게 많은 지하조직원이 있었을 수도 없다. 아무리 조직이 발동되었다 해도 조직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 숱한 비조직원들이 모두 남의 풍에 떠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보증서에 함부로 도장을 누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뭇사람들로 하여금 양민보증서에 서슴없이 도장을 누르게 할 수 있은 것은 **김정숙**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사랑이였고 지지였다. 달리 말하여 강권이나 금권보다도 더 위력한 인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 것이다.

적들의 마수에서 무사히 풀려난 **김정숙**은 도천리에 돌아와 마을사람들속에 에워싸이기 바쁘게 ≪아이구, 난 배가 너무 고파서 혼났어요. 형님, 나 밥부터 줘요.≫하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집안식구들끼리만 할 수 있는 허물없는 말이다. 그가 도천리사람들을 한집안 식구처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선뜻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해방 후 흥남시인민위원회위원장사업을 하던 임원삼이 회의차로 평양에 올라왔던 기회를 타서 옛날의 도천리, 신파 친구들이였던 장해우, 정동철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장해우와 정동철은 그 당시 중앙의 주요직무에서 일하였다. 평남도민주당위원회위원장사업을 하던 김재수도 함께 왔었다. 그 날 **김정숙**은 손님들을 위해 교즈를 빚었다. 그 날의 화제는 자연히 도천리－신파시절로 흘러갔다.

김정숙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사경에서 구원되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눈물을 지었다. 그는 불쑥 자기는 요방자에 잡혀가 감금당했을 때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노라고 말하였다.

≪사실 보초 하나쯤 제끼고 내뛰는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제가 갇혀있던 집의 늙은 내외의 가긍한 정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초를 제끼고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가기는 쉽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집 늙은이들은 어떻게 되고 나를 좋은 여자라고 보증해나선 정구장은 어떻게 되고 도천리의 지하조직과 인민들은 또 얼마나 큰 피해와 시달림을 당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내 한 몸이 희생되더라도 조직을 지켜내고 인민을 지켜내야 하겠다는 각오가 생기었습니다. 저는 그날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 웃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신을 바치려고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운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천리－신파시절의 ≪무산집 새애기≫의 모습이였다.

양민보증서의 덕으로 역경에서 구원된 **김정숙**은 얼마동안 도천리지구와 국내에서 지하공작을 하다가 사령부로 돌아왔다. 그가 부대로 돌아올 때 조국광복회 도천리지회 성원이였던 유영찬도 같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김정숙**의 보증으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우리가 하바로프스크 주변의 훈련기지에서 대일작전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1944년 유영찬은 야영지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배로 실어 나르다가 불행하게도 아무르강에서 익사하였다.

김정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하면서 그를 회상하고는 하였다.

김정숙이 도천리를 떠날 때 그를 따라가려고 결심한 사람은 비단 유영찬뿐이 아니였다고 한다. 부녀회원들도 울면서 그를 따라오며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는 것이다.

한 부녀회원은 **김정숙**이 포대산을 넘을 때까지도 그냥 그에게 매달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김정숙은 달래다 못해 자기가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부녀회원의 손에 끼워주고 그가 띠고 있던 빨간 허리띠를 풀어 자기의 허리에 띠였다. 털실로 뜬 빨간 허리띠는 그 여자가 **김정숙**의 보증으로 부녀회에 가입하는 날 기념으로 손수 떠서 자랑삼아 띠고다니던 소중한 치장품이였다.

≪데리고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나혼자 떠나는거니 섭섭해말아요. 나는 이 빨간띠가 다 해어져서 마지막 실 한 오리가 남을 때까

지 품고 다니며 정든 도천리 사람들을 잊지 않겠어요.≫

그 유정한 말을 받아안은 여인은 더 이상 따라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가서 소식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자기가 한 약속대로 부대에 돌아와서도 늘 군복안에 그 빨간털실허리띠를 띠고 지냈다. 나는 그와 결혼한 다음에야 그의 허리에서 한 번도 풀려본 적 없는 빨간 허리띠에 깃든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 띠와 함께 **김정숙**은 늘 인민의 체온을 자기 몸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의 넋은 언제나 인민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따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한다. 어떻게 되어 **김정숙**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후원속에서 어려운 지하공작을 해낼 수 있었을까?

만일 **김정숙**이 인민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인민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김정숙**은 인민에게 사랑을 바친 것만큼 자기가 그처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보면 500명의 인장이 찍힌 양민보증서는 그가 인민의 참된 충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이 도천리를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1991년 가을에 나는 양강도지방을 현지지도하다가 그가 심혼을 바쳐 개척한 신파땅을 찾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때였지만 그의 지하활동과 관련된 사적물들은 옛모습 그대로 고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유물들과 사적지들에 바친 신파사람들의 정성은 실로 탄복할만한 것이였다.

그 날 강사들은 **김정숙**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사적지로 나를 일일이 안내하면서 그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 설명가운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이나 세부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압록강기슭에 옛모양 그대로 서있는 음험한 포대를 바라보면서 **김정숙**이 그 고장을 혁명화하느라고 모험도 많이 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무렵에 정거장으로 나오면서 신파거리를 뒤돌아보니 어쩐지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신파혁명사적관



신파혁명사적지에 모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동상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혁명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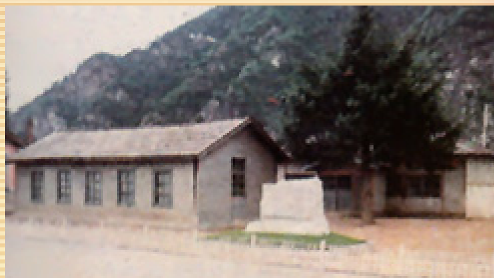
신파혁명사적지-글을 배워주신 집



신파혁명사적지-신갈파객주집



신파혁명사적지-신갈파나루터 헌시비



신파혁명사적지-헌병대를 정찰하신 곳



신파혁명사적지-물레방아집



신파혁명사적지-박주평비밀도강장소



신파혁명사적지-광선사진관



신파혁명사적지-도천리합숙



신파혁명사적지-샘물터국수집



신파혁명사적지-신갈파귀틀집



신파혁명사적지-물레방아간



신파혁명사적지-포목점



신파혁명사적지-동구나루터 표식비



신파혁명사적지-오함덕 객주집